

##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Making Youth Space and Supporting Sustainable Settlement  
for Young People Who Migrated to Local Cities

장민영 Jang, Minyoung  
임보영 Im, Boyeong  
송윤정 Song, Yunjeong  
윤주선 Yoon, Zoosun

(auri)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Making Youth Space and Supporting Sustainable Settlement for Young People Who Migrated to Local Cities

지은이      장민영, 임보영, 송윤정, 윤주선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1년 12월 26일, 발행: 2021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32,000원, ISBN: 979-11-5659-366-9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연구책임	장민영 부연구위원
연구진	임보영 부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권오상 퍼즐랩 대표 전송이 공간종합건설 연구원 설문조사 지원 : (주)엠브레인퍼블릭
연구보조원	김한철, 이윤아, 이지훈, 이창현, 조유림, 한지원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부원장 오성훈 기획조정실장 서수정 지역재생 연구단장 김영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김강현 HBM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주영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상현 공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장 박주로 (주)로모 대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배수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대리 손민희 (주)어라운디 대표 심병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우성희 듣는연구소 대표 유연성 언더독스 디렉터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유지황 팜프라 대표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제현정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상래 언더독스 대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용우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하승현 주택도시보증공사 과장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홍동우 (주)공장공장 대표 황석연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서기관 Atsushi Tamura 교토이주계획 대표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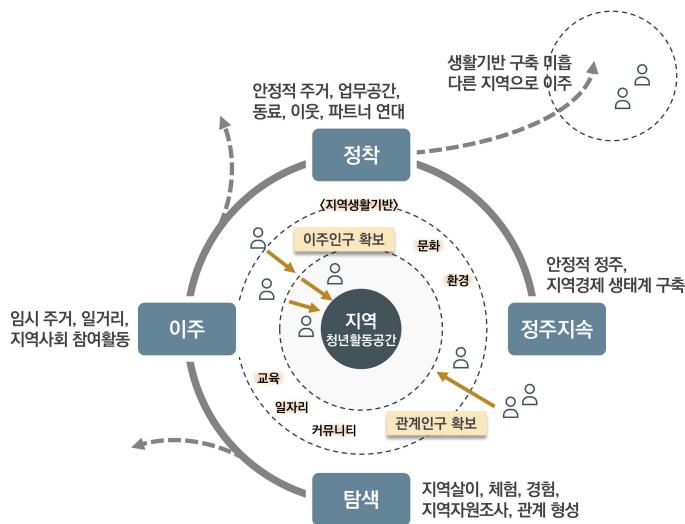
저출산과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 유출은 사회 인프라 축소와 정주여건 악화, 도시쇠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의 지방중소도시에서는 경쟁적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지원금 중심의 지원방식이 청년의 지역사회 편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확보나 경제적 요인에 주력해 온 그간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청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층 이주를 유도하고 정주지속을 통한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청년의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청년활동공간의 조성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장 청년의 지방이주 현황과 정주지속의 개념 및 쟁점

2장에서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지방이주 단계와 청년활동공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청년세대의 특징 및 주요 동향을 살펴보았다.

지방이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가 정착하는 현상으로서 이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지역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지방이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나 대안적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시작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 리모트워크 등의 업무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거주방식도 다변화되면서 지방이주 흐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 연구와 귀농·귀촌정책을 살펴본 결과, 지방이주 단계는 지역과의 관계나 거주 형태, 이주 여부, 활동 특성 등에 따라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정주지속’은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이나 지역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으로 이주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림] 지방이주 단계를 고려한 청년의 정주지속 개념

출처 : 연구진 작성

지방이주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및 활동기반이 되는 ‘청년활동공간’은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정주지속 할 수 있는 기본전제이자 인프라로서 작용한다. 청년활동공간은 주요 도입기능과 활동에 따라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조성된 형태에 따라 단일 건물형과 마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단일 건물형은 여러 기능이 복합된 형태를 띠기도 한다.

지방중소도시 청년인구 이동 특성과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청년층의 지방이주 선호 및 수요를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로컬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이주 잠재력을 가진 청년층을 관계인구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이주 과정의 탐색단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 정책

3장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였고, 국외 정책 사례로서 일본의 지방이주 및 관계인구 관련 정책과 민간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이주 지원정책의 과제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지원정책은 주로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밖에 지역정책에 요구되는 여러 부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일자리는 지방이주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반드시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제활동 기반 이외에도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주환경,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포터와 교류활동, 그리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정책은 교육이나 컨설팅,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지원 등 공간 관련 지원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단계의 청년들은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고, 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탐색단계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주 가능성은 살펴보는 기간에도 단기 체류공간이나 업무공간 등 지역에서 생활·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셋째, 현행 정책은 대부분 정주인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유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고, 지자체 간 지나친 인구유입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 범주와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이자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이주 가능성이 높은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원정책의 상당수가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이주단계에서 정착이나 정주지속 단계로 진일보한 청년들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주체의 창의적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지방이주 지원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다채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는 지방이주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제4장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현안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분석

4장에서는 이주청년, 이탈청년, 관계인구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행정, 중간지원조직, 사업운영사 등 지역주체 인터뷰를 실시하여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과 정주지속 현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사례로 충남 서천, 충남 공주, 전북 완주, 전남 목포 4개소를 심층분석하여 공간 조성방향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방이주와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 동료나 지인 등 지역 내 관계망 형성, 지역살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유무가 이주 및 정착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일자리나 인프라 부족, 지역주민 및 청년과의 갈등이 지방이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토지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주지속으로 가기에는 결혼 후 양육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활동공간은 지방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역할에 따라 ‘필수역할’, ‘촉매역할’, ‘매개역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살이의 기본전제가 되는 ‘필수역할’ 공간인 거주공간은 탐색단계에는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수요가 높았다면 이주 초기단계에는 세어하우스, 정착단계로 넘어갈 때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지방이주 단계에 따른 수요 변화가 나타났다.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는 ‘촉매역할’ 공간은 업무·창업공간으로서, 특히, 탐색 및 이주단계에서는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과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실험공간이나 팝업공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주청년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역할’의 공간은 커뮤니티공간과 지원공간으로서 이주청년 간 정보 교류,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위한 장이 되며, 지방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

지방중소도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사례 분석 결과, 공공사업을 통해 조성한 청년활동 공간은 유휴공간의 재생과 함께 새로운 인구 흐름을 만들어주고 지역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년활동공간은 주로 원도심이나 도보권 내 여러 기능의 공간들이 마을형의 군집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중소도시에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였고,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주민, 청년, 동료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주청년들이 이 범위 내 또는 인접하여 본인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 내 우선적으로 공간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다만 공간별 도입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지방중소도시의 한정된 공간자원의 이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지자체 단위로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문제 개선이나 프로그램의 구상 등이 향후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지역 내 관계안내인이 자 중계인의 역할을 하는 핵심주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에 필요한 공간의 기획과 운영관리, 이주청년과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제5장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 검토

5장에서는 공주시 중학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대안 검토를 실시하였다. 대안 검토는 청년인구 및 지방이주 동향 분석, 청년활동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청년수요 파악 등을 실시한 후, 유휴·공공공간 활용방안, 공간 조성방식 등에 대한 지역주체 의견수렴을 위해 공간 워크숍 개최 및 리빙랩 운영을 진행하였다.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은 감영길을 중심으로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500m 반경 내 모여 있어 신규 청년활동공간 조성 시 입지 선정이나 다른 공간과의 연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 조성된 공간의 이용실태와 청년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 내 유휴·방치된 여관이나 여인숙을 활용하여 단기 체류용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세어하우스나 코리빙 등 임시주거를 확보하여 단계별 거주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작은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민간주체 운영공간에 관계안내소 기능을 부여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 내 경제기반 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험공간을 조성한다. 셋째, 기존 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한다. 넷째, 주민,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참여형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이나 인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작은 규모의 공간은 DIY 교육 및 행사를 통해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유휴공간 2개소를 대상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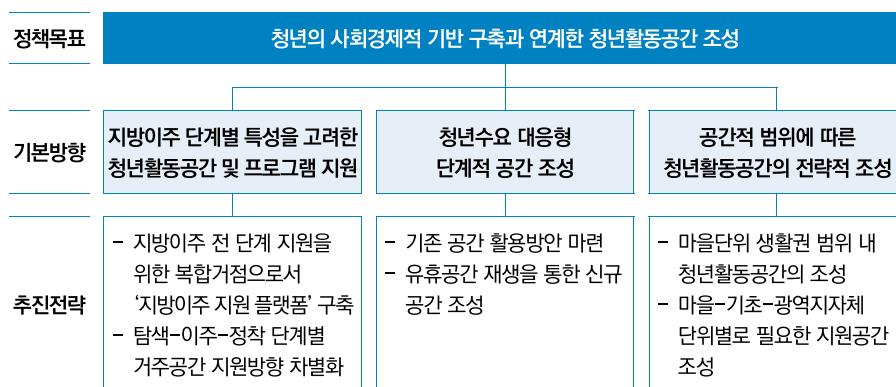
## 제6장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정책지원 방안

6장에서는 분석 및 대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활동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방이 주는 단순한 ‘전환’이 아닌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고 필요한 생활 서비스로의 접근, 관계망을 넓혀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먼저 지방이주 전 단계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거점공간으로서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주 과정에서 필수역할을 하는 거주공간의 경우 탐색-이주-정착 단계에 따라 임시주거, 세어하우스, 공공임대주택 등 차별화된 지원방향을 마련한다.

둘째, 청년수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지방중소도시의 한정된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 대비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우선 기존 공간의 기능 복합화나 프로그램 연계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휴·공공공간을 재생·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간적 범위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전략적으로 조성한다. 이주청년과 지역 간 관계를 고도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도록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 내 청년 활동공간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청년과 지역, 이주청년과 주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역할의 지원공간의 경우, 도입기능과 서비스 공급 범위에 따라 마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전략적으로 조성한다.



[그림]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출처 : 연구진 작성

청년활동공간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공간별 조성시기를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공간의 운영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먼저 지역 현안과 청년수요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예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지자체 청년 인구 동향, 청년활동공간 현황, 청년수요 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 조성방향 마련해야 한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은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 해야 하며,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과 연계한 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또한 필수, 촉매, 매개역할에 따라 공공주도, 민관협력, 민관주도의 사업추진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활동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지역관리 및 자생적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그룹 네트워크와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 관련 부서 간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첫째, 청년의 지역정착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지자체 조례 마련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이주 로드맵’ 작성은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실행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 유형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의 관계인구 대상 임시주거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청년활동공간의 운영·관리의 유연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청년 활동기반을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회사 인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개편 방안, 청년주체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및 수익모델 창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7장 결론

본 연구는 인구감소 위기의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사회의 생활 및 활동기반이 되는 청년활동공간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이주를 일련의 ‘과정’으로 접근하여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단계별

정책 추진현황과 청년 수요를 파악하고, 지방이주 현상을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지방 이주 및 청년 지원 정책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자체 정책 대상 범주를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로 확장하고, 이주 및 정착의 관점에서 지방중 소도시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기본방향과 사업추진절차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향후 지자체 정책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지방중소도시는 인구수나 도농복합시, 군지역 등 지자체 규모나 특성에 따라 청년들의 이주목적, 생활패턴, 지역 내 필요공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UIJ턴의 이주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방식이나 일자리 창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밖에 지역 내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유무나 유·휴·공공공간 등 물적자원의 현황에 따라서도 청년활동공간 조성 세부전략은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청년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 유형별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 주제어

청년활동공간, 지방이주, 정주지속, 청년, 관계인구, 도시재생, 유·휴·공공공간

---

# 차 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11
3) 연구 추진절차	13
3. 선행연구 검토	14
1) 선행연구 현황	14
2)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청년의 지방이주 현황과 정주지속의 개념 및 쟁점	19
1.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의 의미	19
1) 지방이주 개념과 국내 관련 정책의 추진 동향	19
2) 지방이주 단계와 정주지속의 사회적 의의	20
2. 청년문화의 경향과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정립	23
1) 청년문화의 개념과 경향	23
2) 청년활동공간의 개념과 정의	25
3. 지방중소도시 청년인구 동향 및 지방이주 현황 분석	36
1) 청년인구 현황 및 이동특성 분석	36
2) 청년의 지방이주 선호 및 수요 분석	41
4.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 관련 주요 쟁점	45
제3장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 정책	47
1. 청년 지원정책 및 제도	47
1) 청년지원 관련 법제 현황	47
2)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53
2. 청년의 지방이주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정책	61
1) 중앙정부 사업	61

---

# 차 례

## CONTENTS

2) 지자체 사업	69
3. 일본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74
1)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일본의 정책 추진 현황	74
2) 인구감소지역 정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례	79
4. 소결	85
제4장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현안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분석	89
1. 분석개요	89
2.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91
1) 분석개요	91
2) 지방이주 및 정착의 유입요인과 저해요인	92
3)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과 청년활동공간 수요	96
3. 청년의 지역정착과 연계한 공간조성 사례 분석	105
1) 분석개요	105
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108
3)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115
4)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122
5)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130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138
제5장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 검토	141
1. 대안 검토 개요	141
2. 대상지 현황 분석	144
1) 공주시 청년인구 현황	144
2) 청년의 지방이주 동향 및 청년그룹 현황	145
3)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현황	150
4) 대상지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155
3. 대상지 일대 청년활동공간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158
1) 청년활동공간 이용실태	158
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160

---

# 차 례

CONTENTS

3) 관계인구 및 이주청년 대상 심층인터뷰	163
4) 중학동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모색을 위한 공간워크숍	165
5) 종합	168
4.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및 사업화방안 대안 검토	169
1)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설정	169
2) 청년활동공간 사업화방안 제시	173
3) 대안 검토 결과 시사점 및 과제	177
<b>제6장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정책지원 방안</b>	<b>179</b>
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	179
2.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추진전략	182
1)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182
2) 청년 수요 대응형 단계적 공간 조성	187
3) 공간적 범위에 따른 청년활동공간의 전략적 조성	189
3.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추진절차 및 운영관리체계	192
1)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절차	192
2) 청년활동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체계	194
4.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197
1) 청년의 지역정착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197
2)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199
3) 지속가능한 청년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	203
<b>제7장 결론</b>	<b>205</b>
1. 연구 성과	20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08
<b>참고문헌</b>	<b>209</b>
<b>SUMMARY</b>	<b>221</b>
<b>부록</b>	<b>225</b>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지방이주의 대상 범위 관련 개념 정리	7
[표 1-2] 관련법령 및 지원정책 상의 ‘청년’ 정의	9
[표 1-3] 청년의 지방이주, 창업 및 일자리, 청년공간 관련 연구	16
[표 2-1] 기존연구 및 관련정책에서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의 단계 구분	21
[표 2-2]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26
[표 2-3] 지자체 조례에서 나타난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27
[표 2-4] 청년활동공간의 기능별 구분	28
[표 2-5] 거주공간의 유형 및 사례	28
[표 2-6] 업무·창업공간의 유형 및 사례	29
[표 2-7] 커뮤니티공간의 유형 및 사례	30
[표 2-8] 지원공간의 유형 및 사례	30
[표 2-9] 단일 건물형 및 마을형의 공간구성별 주요 청년활동공간의 사례 개요	32
[표 2-10] 청년활동공간 기능 별 조합	33
[표 2-11]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및 운영 특성	34
[표 2-12] 연령 및 인구규모별 인구 증감률 현황(2011-2020)	37
[표 2-13] 연령별 순 인구이동 현황	38
[표 2-14] 수도권에서 지방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 현황(상위10개소)	39
[표 2-15] 비수도권 지역에서 타 권역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이동현황(상위10개소)	39
[표 2-16] 청년세대의 지방이주 선호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41
[표 3-1] 청년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48
[표 3-2]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 개요	54
[표 3-3]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항목	54
[표 3-4]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55
[표 3-5] 중앙정부 청년지원 관련 주요 사업 부처별 세부 예산 운영지침	56
[표 3-6]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58
[표 3-7]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지원정책 조사대상 개요	61
[표 3-8]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유형	62
[표 3-9]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주요 사례(2019)	63
[표 3-10]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내용	65
[표 3-11]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한 공간조성 현황	65
[표 3-1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유형 및 개요	67
[표 3-13]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연도별 개요	69
[표 3-14]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진행 과정	70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15] 충남 태안 갭이어 프로그램 5락발전소 ‘문화도 예술리’ 개요	71
[표 3-16] 전라남도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선정 결과	73
[표 3-17]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국토’ 실현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창조의 필요 요소	75
[표 3-18]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중앙부처별 대응방안	77
[표 3-19] 일본의 이지역거주 관련 시책	81
[표 4-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및 단계	90
[표 4-2]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개요	91
[표 4-3] 지방이주 및 정착 유입요인과 저해요인 종합	95
[표 4-4]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과 청년활동공간 수요 종합표	104
[표 4-5]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대상지 개요	106
[표 4-6]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분석의 틀	107
[표 4-7]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109
[표 4-8]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118
[표 4-9]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127
[표 4-10]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133
[표 5-1] 대안 겸토 대상지 선정과정	142
[표 5-2] 공주시 총인구 및 청년인구 현황	144
[표 5-3] 충청남도 및 공주시 행정동별 청년인구 현황	144
[표 5-4] 공주시 청년인구 연령별 시군구 전입·전출 현황	145
[표 5-5] 공주시 청년 귀농가구원수 현황	145
[표 5-6] 대상지 일대 청년그룹 현황	148
[표 5-7] 대상지 일대 청년 소모임 현황	149
[표 5-8] 공주시 유휴공간 재생 및 활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53
[표 5-9] 공주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 사업 추진현황	155
[표 5-10] 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청년활동공간 이용현황	159
[표 5-11] 관계인구 및 이주청년 심층인터뷰 대상	163
[표 5-12] 청년 공간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165
[표 5-13] 공주시 원도심 내 선호공간 및 필요공간	166
[표 5-14] 청년 공간 기획 결과1	166
[표 5-15] 청년 공간기획 결과2	167
[표 5-16] 지방중소도시 주요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171
[표 5-17] (구)노인회관 사업화방안	174
[표 5-18] (구)드림마트 사업화방안	175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6-1] 전북 완주군 청년 거주공간 지원사례	186
[표 6-2]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국비지원사업	186
[표 6-3] 유휴 부동산의 계약 및 이용방식 다각화 방안 예시	188
[표 6-4] '마을-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단위로 필요한 청년활동공간 및 도입기능 예시	191
[표 6-5]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	197
[표 6-6] 인구감소 대응형 지역 특화 재생사업의 인정요건 및 가점 적용기준(안)	199
[표 6-7]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01
[표 6-8] 지방이주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도시재생회사 수행 사업 예시	203
[표 부록-1] 권역별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이동현황(상위 10개 지역)	226
[표 부록-2] 수도권 및 특·광역시 청년계층의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	228
[표 부록-3] 청년관련 지원 정책 유형 구분	241
[표 부록-4]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기초조사 내용	243
[표 부록-5]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244
[표 부록-6]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기초조사 내용	249
[표 부록-7]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249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지방이주 단계를 고려한 청년의 정주지속 개념	6
[그림 1-2] 지역사회 생활 및 활동기반(인프라)으로서의 청년활동공간	8
[그림 1-3] 청년인구 연령대 및 청년층 개념 정립	9
[그림 1-4]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수행체계(실증분석단계)	12
[그림 1-5] 연구 추진절차	13
[그림 2-1] 거주공간 사례	28
[그림 2-2] 업무·창업공간 사례	29
[그림 2-3] 커뮤니티공간 사례	30
[그림 2-4] 지원공간 사례	31
[그림 2-5] 청년활동공간 기능 및 공간구성	31
[그림 2-6] 연령별 인구 증감률 변화(2011~2020)	36
[그림 2-7] 지방중소도시 청년이구 이동현황 및 소멸위험지역 현황,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 비교	40
[그림 2-8]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고려 여부 및 이유	42
[그림 2-9] 지방중소도시 이주 의향 및 이주 희망 지역	43
[그림 2-10]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요소 및 공간 지원	44
[그림 2-11]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주체의 역할	44
[그림 3-1] 지자체 청년관련 조례 제정 연도 및 청년관련 공공공간 조성 연도	50
[그림 3-2]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2
[그림 3-3] 중앙정부 청년관련 주요 사업 분야 중복지원	55
[그림 3-4] 중앙정부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시기	57
[그림 3-5] 중앙정부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기간	58
[그림 3-6] 지자체 청년관련 주요 사업 분야 중복지원	59
[그림 3-7] 지자체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시기	60
[그림 3-8] 지자체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기간	60
[그림 3-9] 관계인구와 지역과의 관계	76
[그림 3-10] 도시와 지역을 왕래하는 관계인구	76
[그림 3-11] 교토이주계획 및 Tunagum의 주요 활동 사례	83
[그림 3-12] 턴즈(TURNS)의 주요 활동	84
[그림 4-1] 분석 방법 및 절차	90
[그림 4-2]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 수요(설문조사 결과)	98
[그림 4-3]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활동공간 수요(설문조사 결과)	101
[그림 4-4]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설문조사 결과)	102
[그림 4-5]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111

---

# 그림차례

## LIST OF FIGURES

[그림 4-6]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113
[그림 4-7]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114
[그림 4-8]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118
[그림 4-9]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례	120
[그림 4-10]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121
[그림 4-1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127
[그림 4-12] 고산미소시장 내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128
[그림 4-13]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129
[그림 4-14]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133
[그림 4-15] 해안가 주변 상권과 원도심 상권 비교	136
[그림 4-16]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137
[그림 5-1] 대안 검토 대상지(공주시 중학동 일원) 위치	142
[그림 5-2]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143
[그림 5-3] 중학동 일대 건축물 용도 현황	150
[그림 5-4] 중학동 일대 공공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151
[그림 5-5] 공주시 유휴공간 재생 및 활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52
[그림 5-6]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호서극장, 응십양조장, 드림마트 모습	154
[그림 5-7] 공주시 청년 관련 공공시설 현황	156
[그림 5-8] 공주시 민간주체 운영 청년활동공간 현황	157
[그림 5-9] 청년 공간워크숍 진행 모습	167
[그림 5-10]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및 사업화방안 종합도	176
[그림 6-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80
[그림 6-2]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활동공간의 수요에 따른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도입기능 예시	182
[그림 6-3] 집 리모델링 및 세어하우스 사용을 통한 활용 방안	188
[그림 6-4]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절차	193
[그림 부록-1] 권역별 거주 청년인구의 이동현황	227
[그림 부록-2]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유형	242
[그림 부록-3]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수행 부처 및 정책유형	242
[그림 부록-4]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유형 및 광역단위 정책 추진 현황	248
[그림 부록-5]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광역단위 추진 현황	248

---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초래한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도시쇠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

저출산과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를 동시적으로 초래<sup>1)</sup>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의한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험은 증가하였고, 그 밖의 지방도시에서도 제조업 위기로 인한 산업 기반 붕괴, 원도심 쇠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청년층 유출<sup>2)</sup>은 계속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청년인구의 추가적 유출을 초래하고 사회 인프라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의 존속 기반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sup>4)</sup>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자연감소<sup>5)</sup>가 시작되었고 지방중소도시의 인구문제는 지역 간

---

1) 김경근·이현우(2017, pp.10-16)

2) 2019년 연령별 인구이동은 20대(23.1%), 30대(21%)에서 높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는 전북, 전남, 경북·경남 등에서 순유출 되고 세종, 서울, 경기, 인천으로 순유입 됨 (통계청, 2020, 1월 29일 보도자료, p.5, p.10)

3) 이상호(2018, p.16)

4) 염창옥 외(2018, p.18, pp.20-21)

인구이동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총인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저출산대책<sup>6)</sup>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인구유출에 따라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sup>7)</sup>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와 마을활력 저하, 도시쇠퇴 문제 발생<sup>8)</sup>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중소도시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의 하나로 청년층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지자체간 상생·협력벨트 지정,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역량강화 및 활력 촉진을 주요 방향으로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 청년층 창업·귀농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착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sup>9)</sup> 2020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대책 마련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고,<sup>10)</sup>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 시책으로 포함하였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2020.12.8., 일부개정, 시행 2021.6.9.)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597호

5)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사망)는 -3만 3천 명으로 전년대비 4만 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초로 자연 감소함(통계청, 2021, 2월 24일 보도자료, p.20)

6) 박진경·김도형(2020, p.4), 박진경(2021, pp.6-7)

7)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소멸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여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에 유판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7., p.2)

8) 박진경·김도형(2020, p.5.)을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9)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 p.8)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개정이유(법률 제17597호, 2020.1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223527&ancYd=20201208&ancNo=17597&efYd=2021060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 2021.9.19.)

2020년 2월에는 「청년기본법」 제정, 12월에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별로 관계 중앙부처의 제도 및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인구감소 대책으로서 청년의 지역 유입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 청년세대의 인식변화와 로컬 지향, 지역살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탈물질주의 경제 확산과 함께 청년세대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리턴하는 청년층 증가하고 있다.<sup>11)</sup> 2017년 귀농·귀촌 인구는 50만 명을 넘었고, 귀농인구의 39.4%, 귀촌인구의 67.9%가 40대 이하 청년세대로 나타났으며,<sup>12)</sup> 일부 과소화지역에서 귀촌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되는 등 기존 은퇴세대의 귀농 위주 중심의 지방이주 현상이 청년층의 지역살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으로 간 청년들은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로서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sup>13)</sup> 로컬지향 현상은 2010년 경 골목상권, 제주이민, 장소애, 고향귀환, 귀농·귀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sup>14)</sup> 디지털 노마드나 반농반<sup>X</sup><sup>15)</sup>의 삶 등의 라이프 스타일 등장과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는 구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활성화나 지역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 개성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인해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의 창업·거주공간들이 마을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이면도로에 형성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휴공간 활용과 청년지원사업을 연계·추진하는 정부정책들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11)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로서 서울에서의 빠듯한 삶을 피해 지방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대도시조차 피해 귀촌을 선택하는 ‘Go 지방족(탈도시족)’들이 나타나고 있다(호영성 외, 2017, p.16). 오랜 기간 소외되며 경쟁력을 상실해왔던 지방이 ‘Go 지방족’과 같은 개척자들의 노력으로 고유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리턴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은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전정환, 2019, p.176, p.180).

12) 송미령(2018, KREI 논단, 검색일 : 2021.2.14.)

13) 전정환(2019, p.180), 모종린(2021a)

14) 모종린(2021b, 1월 15일 기사,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1/15/DAWMFE25UJHC7FNMXJKHBJGACM](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1/15/DAWMFE25UJHC7FNMXJKHBJGACM). 검색일 : 2021.2.14.)

15) ‘반농반<sup>X</sup>(엑스)’란 농업을 통해 정말로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술·예술·지역 활동 등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X)’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으로 시오미 나오키의 저서 ‘반농반<sup>X</sup>의 삶’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면서 반농반<sup>X</sup>가 귀농·귀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시오미 나오키, 2016; 하지혜, 2020, 11월 16일 기사).

### **속초 동명동 골목상권 재생사례**

- 관광도시 속초에서도 외지었던 동명동은 술집과 여인숙이 몰려있던 곳으로 별도의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어 왔던 쇠퇴지역이나 최근 U타운들이 모이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음
- 여인숙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소호259' 일대는 카페, 전시공간, 여행자살롱 등이 조성되면서 문화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밖에 게스트하우스 겸 독립서점(완벽한 날들), 카페 겸 문화공간(지느러미), 매자식당, 카페옥남 등 다수의 점포 입지
- 소호259가 문을 연 2015년 당시 동명동 주민등록인구는 3,654명, 2020년에는 3,771명으로 5년 새 인구가 117명 (3.2%) 증가, 속초시 인구도 2015년 8만1992명에서 지난해 8만2665명으로 673명(0.8%) 증가

출처 : 권소담(2021, 2월 4일 기사)

## **□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주지속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단편적인 지원방식의 한계**

지방으로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살이, 체험기회 제공,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출산·양육·귀농 등 각종 지원금을 도입하며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정책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지원방식은 청년의 지역사회 편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원 종료 이후 청년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환경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sup>17)</sup> 또한 청년세대 특징이나 지역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주지속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지원사업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청년정책은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 창업·고용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청년인구 이동에 대해서도 청년유입보다 유출의 관점,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sup>18)</sup> 그러나 최근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기성세대와 다른 성향과 청년문화의 특성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지역의 청년유출을 해결할 수 없고,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출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9)</sup>

## **□ 지역 내 생활기반이자 지속적 활동의 전제가 되는 청년활동공간의 전략적 조성 필요**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개선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전략적으로 전

16)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금융팀(2021.7., p.30)

17) 김지훈(2020, p.1499), 고가온 외(2019, pp.115-116)

18) 박진경·김도형(2020, 요약 pp. II-III), 염창옥 외(2018, p.236)

19) 박진경·김도형(2020, p.45), 염창옥 외(2018, pp.50-53, p.237)

환될 필요가 있다.<sup>20)</sup> 그동안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주로 유휴공간의 활용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청년대상 공간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대부분 창업공간 조성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임대료 지원, 주택도시기금 용자 등의 방식으로서 지방이주나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여건이나 청년층의 수요, 특성 등을 반영한 연계 추진전략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단기간 지역 내 청년창업 및 고용창출 실적은 높이지만 국비지원이 끝난 후 자생적으로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이나 지역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서 지역정착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공간」 또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의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생활기반의 공간보다 주로 청년센터, 일자리센터, 공공임대상가,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지원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 「공급자 위주」, 「선(先) 조성방식 후(後) 운영방안 모색」의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식은 청년의 다양한 현상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간 이용률은 저하되고 지속적인 공간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획일적 설계, 청년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지 선정, 운영 및 기획주체 부재, 지역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소위 청년친화형 공간이 전국적으로는 보급되고 있지만 단순히 시설만 공급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고 있다.<sup>21)</sup>

#### 청년공간 조성 현황 및 지자체 청년센터의 이용률 저조 실태

- (청년공간) 대부분의 공간이 스터디룸, 회의실, 공유부엌, 카페, 입주공간 등을 제공, 공간별 프로그램의 유형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대외활동으로 구분(온라인 청년 센터)
- (서울시 청년공간 현황) 서울시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청년공간은 19개소로 나타남
- (청년센터 이용실태) 2018년 기준 2030세대 청년층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의 이용률은 10.4%에 불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32.0%), '지리적으로 멀어서'(15.8%),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14.3%) 순으로 나타남

출처 : 온라인 청년 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 서울특별시(201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김수연(2018, 7월 17일 기사) 참고로 연구진 작성

소멸위기 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인구 유입책 추진, 청년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 확대 추진, 청년세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청년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과 지역살이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안정적인 지역살이와 정착, 정주지속을 위해서는 지역 내 생활기반이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전제가 되는 청년활동공간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지역자원 및 여건을 반영하고 문화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에서 조성하는 청년공간뿐만 아니라 청년이 직접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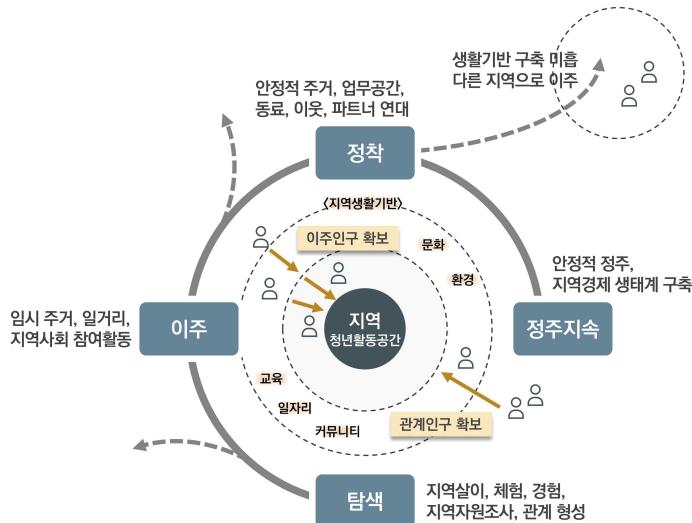
20) 이상호(2018, p.16)

21) 조성철 외(2019, p.40)

에 대해서도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빈집이나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의 활용하여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쇠퇴문제 해결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 과정과 단기간의 재정위주 지원으로 인해 지원사업 종료 후 공간운영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유휴공간으로 방치<sup>22)</sup>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년 활동공간의 조성 경향 및 운영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이주 청년의 사례분석과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실행 방안 및 추진전략 마련, 현행 지원방식과 절차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 위기의 지방중소도시로 청년층 이주를 유도하고 정주지속을 통한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청년의 지역사회 생활기반이 되는 청년활동공간의 조성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청년의 지방이주 단계를 구분하고 청년활동공간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지방이주 단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지방이주 단계를 고려한 청년의 정주지속 개념

출처 : 연구진 작성

22)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성을 강조하여 조성되면서 공간의 활용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실현이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에도 어려움 발생(한승욱·이종필, 2019, p.5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 공간적 범위

-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방중소도시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의 대상 범위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이주 정책에서도 주요 대도시권 이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이주의 한 가지 유형인 ‘귀촌’은 도시민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경우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해결과 지역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정책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이주에서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방도시로 설정하고자 하며, 연구과정의 실증분석 단계 및 정책제안에서는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sup>23)</sup>

[표 1-1] 지방이주의 대상 범위 관련 개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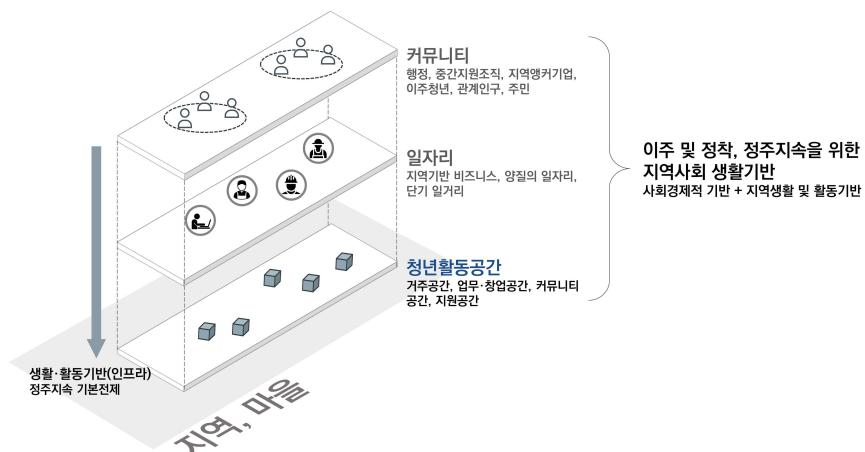
구분	개념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촌인이 이주 ‘농어촌’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대상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참여희망 지자체(시군 단위)
서울특별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청정지역 프로젝트)’의 대상범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기업
일본의 ‘지방이주’	3대 도시권 이외의 혼카이도와 36개 현(県) * 3대 도시권 :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오사카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나고야권(아이치현, 미에현, 기후현)

출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법률 제17597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761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법률 제17618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법률 제16568호), 서울특별시 (2021a), 청정지역 프로젝트([http://www.youthstay.org/noti/?m=v&SH\\_NUM=49](http://www.youthstay.org/noti/?m=v&SH_NUM=49), 검색일 : 2021.12.13.), 用途·圈域等の用語の定義(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totikensangyo/H30kouji05.html>, 검색일 : 2021.12.14.) 참고

23) 「지방자치법」에서는 시(市)는 인구 5만 이상, 대도시는 5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법률 제 16057호, 제7조, 제175조)

- 청년활동공간 : 지역생활 및 활동기반으로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

본 연구에서 ‘청년활동공간’은 지방이주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정주지속 할 수 있는 기본전제인 인프라로 정의한다. 세부적으로는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sup>24)</sup>으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소규모 점포 및 판매시설, 공유부엌, 문화공간 등 청년이 직접 운영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공간 등 지역살이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간까지 포함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거주공간은 청년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임대주택, 사회주택, 행복주택 등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지방이주 관점에서 지역살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주거나 임시 주거에서부터 지역정착과 정주단계에 이르기 위한 주거정책 지원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그림 1-2] 지역사회 생활 및 활동기반(인프라)으로서의 청년활동공간

출처 : 연구진 작성

## □ 내용적 범위

- 청년 : 19~39세 인구집단

청년 관련 법령마다 청년의 연령 범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을 연령 범위로 구분하거나 사회적 지위·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으며, 도시재

24) 자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주로 ‘청년공간’, ‘청년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년 활동 지원과 청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때, ‘청년활동’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상의 정의를 따르면 청년활동공간은 주로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지원시설에 한정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생활 및 활동기반의 인프라의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6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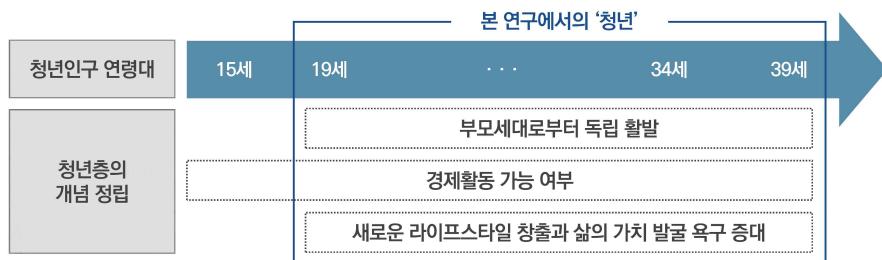
생이나 일자리 분야는 정책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일자리 분야 정책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통계청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준을 준용하여 청년집단의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sup>25)</sup>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만 34세나 만 39세까지 청년의 연령 상한기준을 연장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이다.<sup>2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주와 정주지속 가능성이 높은 19~39세 인구집단을 청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부모세대로부터의 독립 여부, 경제활동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고, 생애주기 상 지방이주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창출, 삶의 가치 발굴에 대한 욕구가 큰 연령대를 정책 수요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1-2] 관련법령 및 지원정책 상의 ‘청년’ 정의

구분	법령 및 정책	청년 대상 범위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청년 : 19세 이상 34세 이하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	청년 :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지원		
정책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청년창업기업 : 15~34세
	도시재생 청년혁신스타 육성대회 (국토교통부)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기업)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규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시행주체 :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청년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한 청년단체·기업
기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이상 29세 이하

출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54호 제2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0호 제2조,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제3조,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 청년전세임대(LH,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검색일 : 2021.2.15.), 관계부처 합동(2018), 국토교통부(2019), 행정안전부(2021), 통계청(2021, 4월 14일 보도자료)



[그림 1-3] 청년인구 연령대 및 청년층 개념 정립

출처 : 연구진 작성

25) 조성철 외(2019, p.10)

26) 조성철 외(2019, p.10)

- 정책제안 범주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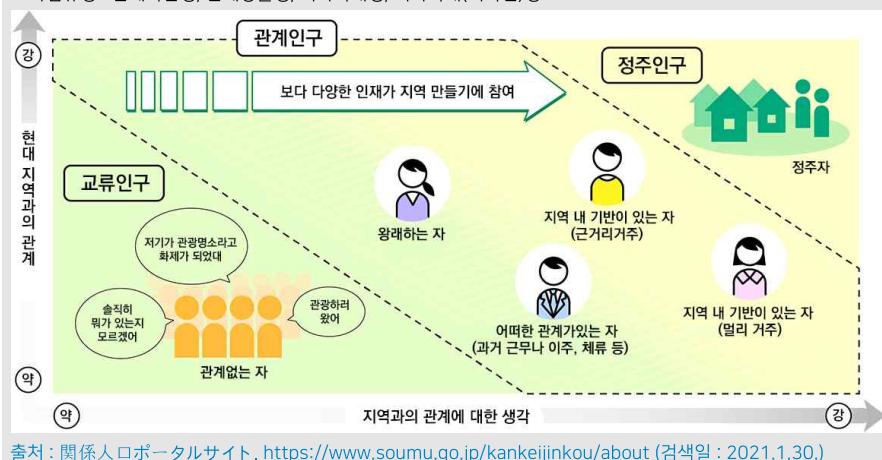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범주의 다양한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소멸위기 도시의 인구 유입과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전략으로서 청년의 지방이주,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인구감소 극복 지원이나 청년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정책, 지방도시 재생과 유휴공간 활용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의 귀농어·귀촌인 지원정책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정보제공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개념이나 사례조사 시 검토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의 정책제안 범주에서는 제외한다.

- 지방이주 청년 범위 :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까지 포함하여 확장

‘관계인구’는 일본 총무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주인구나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sup>27)</sup> 본 연구에서는 청년 지방이주의 개념을 ‘정주인구+관계인구’로 확장하고 관계인구 확대를 고려한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로의 취업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범위에서 제외한다.

#### 일본 총무성의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

- 관계인구 : 정주인구나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만들기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지역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관계인구’로 불리는 외지의 인재가 지역만들기 담당자가 될 수 있고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
- 사업유형 : 관계확산형, 관계창출형, 시야확대형, 시야확대(외국인)형



27)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 (검색일 : 2021.1.30.)

## 2) 연구 방법

### □ 지방이주 청년 및 청년활동공간 현안 파악을 위한 문헌자료 조사·분석

- 지방이주 단계, 청년문화 경향, 청년활동공간 관련 문헌연구
  -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 청년활동공간 관련 개념 정립
  - 청년세대 특징 및 청년문화 경향 파악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지원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
  -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제도 분석
  - 청년정책 기본계획,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등 국가기본계획 및 기본방침 분석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가이드라인 분석
- 일본 지방이주 지원정책 및 사례 분석

### □ 청년인구 동향,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지역재생 효과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분석

- 청년인구 동향 및 지방이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통계분석
  - 도시규모 및 인구계층별 지방이주 현황 파악
  - 소멸도시, 국비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등 지원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등과 연계한 청년인구 동향 파악
- 청년활동공간 조성의 지역재생 효과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분석
  - 청년활동공간과 주변지역 상권 특성, 업종 변화 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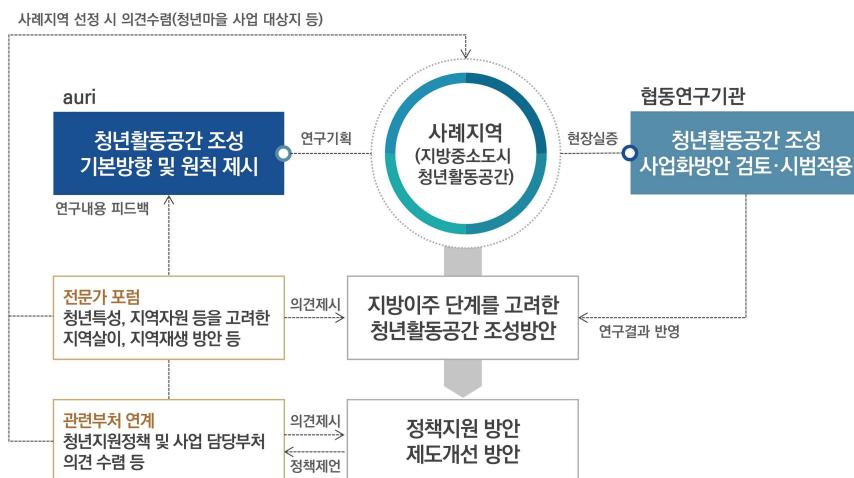
### □ 청년층의 지방이주 및 청년활동공간 수요, 지방이주 및 정착에 대한 유인·저해요소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현지조사 실시

- 설문조사
  - 지방이주 현황 및 수요,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활동공간 수요,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현황, 지원사업 참여현황,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 청년활동공간 운영자 및 이용자(이주청년, 관계인구 등), 관련 사업 운영자, 중간 지원조직, 행정 대상 인터뷰 조사
  - 지방이주 단계별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파악
  - 지역생활 및 활동기반으로서 필요한 청년활동공간의 유형 및 기능 파악

- 청년활동공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조사
-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특성 및 운영현황 분석을 위한 현지조사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또는 자발적으로 지역에 이주·정착한 청년들에 의해 조성된 청년활동공간 사례 조사
  - 공간 특성, 지원사항, 운영현황 및 특징, 공간운영효과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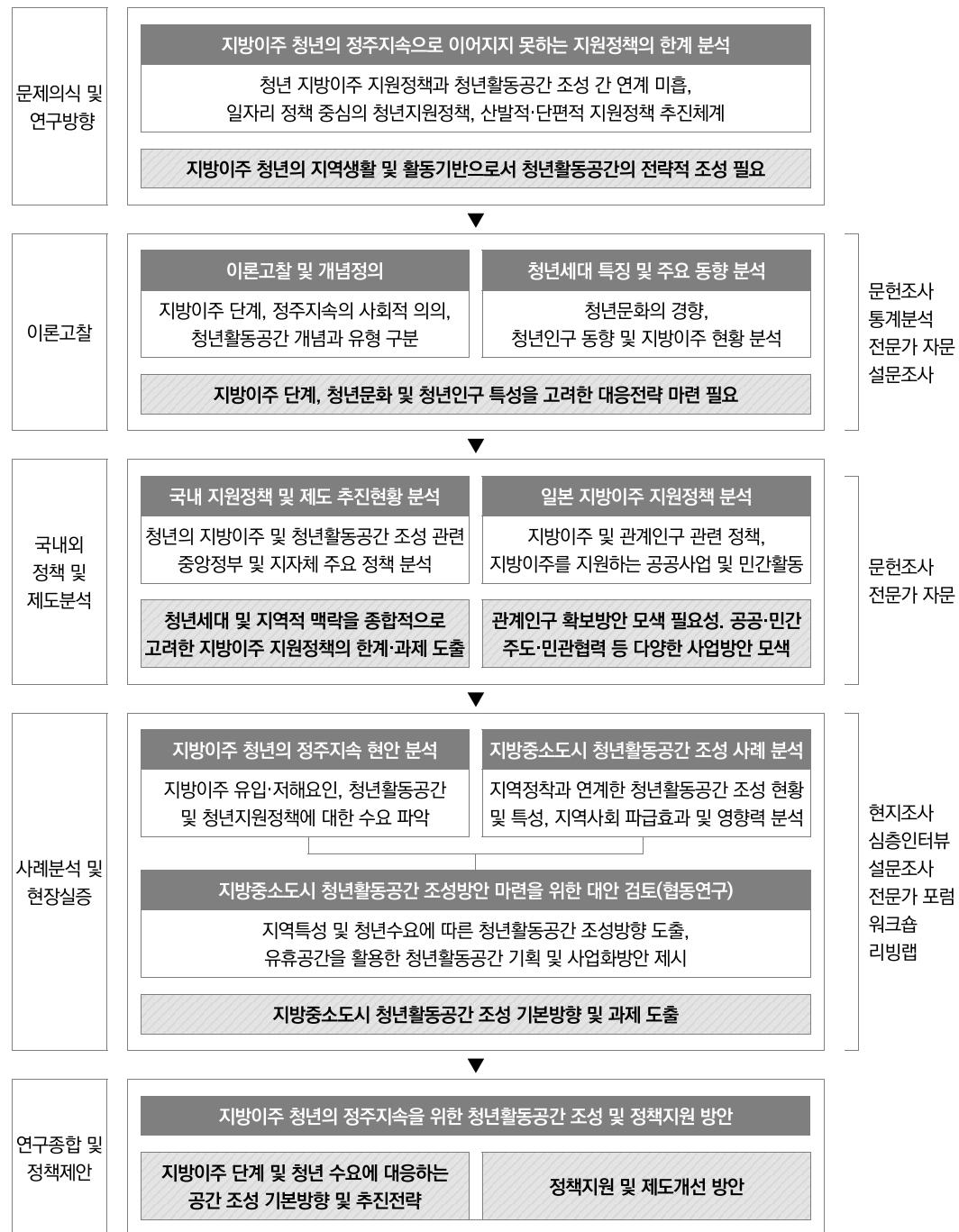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개최
  - 지방이주 단계 구분, 정주지속 영향요인 도출, 지방이주 유형 구분 및 사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지방이주 관련 사업 운영사 또는 관리기관, 중간지원조직, 지역살이 및 로컬 비즈니스 모델 관련 청년기업, 이주청년 등이 참석하여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발제 및 토론 등을 진행하는 포럼 개최
-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검토 및 청년그룹 워크숍 수행
  - 지역자원 및 청년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살이나 청년활동공간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 협업 진행



[그림 1-4]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전문기관 협동연구 수행체계(실증분석단계)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연구 추진절차



[그림 1-5] 연구 추진절차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현황

##### □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관련 연구

지방이주 관련 연구는 기성세대의 은퇴 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20-30대의 지방이주 사례가 증가하고 관련 정책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서울시 청년허브 등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sup>28)</sup>을 개최하기도 하였고,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진행 시 지방이주나 지역유입 전략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sup>29)</sup>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의 지방이주를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접근하였으며, 이주 및 정착단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및 종합적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박진경·김도형(2020)에서는 기존 정책이 지방도시의 청년유출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적·사회적·환경적 속성 파악이 필요하다 하였고, 이에 청년유입관점에서의 선호도와 선제적 사례나 정책실험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김정섭 외(2018)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지방이주 동기의 유형화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지방이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돋는 지역사회 움직임과 사회적 인프라의 기능과 구조를 도출하였다. 우성희·송하진(2019)은 이주청년 심층면담과 지역 사례 조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지방으로 안정적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사회적 기반 구성요건을 ‘관계’, ‘일/생계’, ‘공간’, ‘정서’ 기반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간자원 제공, 사회적기반의 선순환체계 만들기, 지역사회의 개방적 생태체계 구축, 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28) '2019년 청년정책포럼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방향 모색'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지방의 상황, 청년의 지방이주 관련 정책사례, 실제 정착 사례 등을 살펴보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함(한국고용정보원, 2019, 12월 3일 보도자료)

29) 일례로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 '경상남도 청년도시모델 연구', '경남 지역기반 청년창업 정책과제 연구', '경남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이동에 따른 지역대응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청년친화도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도시재생 청년참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청년참여 활성화와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청년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나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의 도시재생 참여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주진 외(2021)는 청년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주체이거나 수혜 대상인 객체로 나누어 살펴보고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로서 청년참여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제시, 재정 및 자금지원, 인력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공간 및 정책 지원으로 나누어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장대철 외(2020)는 청년 중심의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도시재생사업 실행주체가 상생하는 지역 고유의 특징 만들기(로컬 브랜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청년 역할 모델을 ‘청년 창업 /창직 모델’, ‘거버넌스 구축형 모델’, ‘혁신 창출 거점형 모델’, ‘국제교류형 모델’, ‘소비·생산 융복합형 모델’의 5가지를 제안하였다. 박상우 외(2019)는 어촌지역 재생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과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동향과 어촌사회 진단, 국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원스톱 패키지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맞춤형 지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하였다. 한승우·이종필(2019)은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사업 주체를 강화하고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스타트업 활동거점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DB구축, 빈집 재생 방식 및 운영비 활용방안, 다양한 지원사업과 스타트업을 매개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및 퍼실리테이터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윤주선·박성남(2016)은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운영주체으로서 청년 스타트업을 한국형 도시재생 엑셀러레이터(액티브 로컬)로 육성하고, 소규모 집중 특화 구역 설정, 기획단계 집중 투자, 액티브 캠프, 사회실험 파일럿 사업, 장기간 저리 융자 또는 지자체 출자방식의 예산지원, 지역기반 도시재생회사 설립을 액티브로컬의 도시재생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 청년공간 관련 연구

청년공간 관련 연구들은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청년공간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공간 조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용원 외(2017)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 신규 조성 및 유사 공간

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기존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로서 개별위탁의 개선과 종합운영기구의 설치, 거버넌스 기반의 공간조성 수립과정, 공간 운영체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가온 외(2019)는 완주군을 대상으로 청년공간이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주초기단계와 정착단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조성철 외(2019)는 청년세대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공간의 재편과 청년 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을 위해 입지조건, 학습·산업연계방향, 지원기능, 복합공간, 거리 재생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년의 지역거주 및 창업을 위한 현행 정책 검토, 이주청년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이주·정착의 단계별 지원 필요성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 지역기반 청년활동 및 사업운영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의 지원체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존 정책으로 조성된 청년활동공간 운영의 한계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또한 청년공간과 정주지속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나 취업지원, 커뮤니티, 코워킹, 문화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마을이나 지역차원에서 청년활동공간이 가지는 의의와 특성까지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지역살이에 기반이 되는 활동공간의 운영실태 분석과 함께 청년의 공간 이용행태와 지역재생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3] 청년의 지방이주, 창업 및 일자리, 청년공간 관련 연구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청년의 지방이주 관련 연구	1 - 과제명: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 연구자(연도): 박진경·김도형(2020) - 연구목적: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통계분석 - 컨조인트 분석 - 자문회의 - 인터뷰, 워크숍	- 지역인구감소 현황 및 청년특성 분석 - 일본 및 국내의 청년유입·정착 관련 정책분석 - 지자체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현황, 원인 분석 - 수도권 청년인구 지방이주 선호도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 - 지자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심층사례분석 - 인구감소 대응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2 - 과제명: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실태 와 개선방안 - 연구자(연도): 김정섭 외(2018) - 연구목적: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전문가 토론회	- 청년 지방이주 및 정책 지원사업 유형화 -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착 경험 분석 - 지역사회 정체사업 추진과정 분석 - 정책사업 개선방안 제안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과제명: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연구자(연도): 우성희·송하진(2019) -연구목적: 청년세대의 안정적 이주, 지역과의 교류 및 진로탐색을 위한 사업방향성과 가능성 분석	-문헌연구 -사례조사 -심층면담 -워크숍	-청년 지역이주 및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성 요건 분석 -지역기반환경 및 현황 분석 -새로운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언
도시재생 청년참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4 -과제명: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김주진 외(2021) -연구목적: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역할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방안 마련	-문헌연구 -자문회의 -FGI -사례조사	-청년지원정책 동향 분석 -도시재생에서 청년 참여 현황 분석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핵심사례 분석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제언 -청년 도시재생 참여 활성화 지원정책 제시
	5 -과제명: 청년중심 도시재생 국제협력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장대철 외(2020) -연구목적: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의 도출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콘텐츠 제시	-문헌연구 -사례조사	-청년중심 도시재생 필요성 및 국외사례 분석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역할과 가능성, 국제협력 콘텐츠 연계방안 제시 -청년중심 창업, 창직을 위한 도시재생 혁신공간 조성 모델 제시
	6 -과제명: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박상우 외(2019) -연구목적: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한 어촌지역 재생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문헌연구 -통계분석 -국내외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어촌사회 진단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조사 및 분석 -어촌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7 -과제명: 부산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한승우·이종필(2019) -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의 활동주체로서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사업 활성화방안 제시	-문헌연구 -국외 제도 및 사례 조사 -국내사례 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국내외 청년 스타트업 지원제도 및 사례 분석 -도시재생 관련 스타트업 운영 및 지원현황 분석, 개선방향 도출 -부산시 청년 스타트업 육성방안 제안
	8 -과제명: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연구자(연도): 윤주선·박성남(2016) -연구목적: 한국형 도시재생 엑셀러레이터 모델 제안	-문헌연구 -국외사례 조사 -면담조사	-도시재생 청년창업 사례조사 및 유형화를 통한 한국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례 파악 -일본 리노베이션 스쿨 사례 분석 -한국형 도시재생 엑셀러레이터 운영방안 제시
청년공간 관련 연구	9 -과제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연구자(연도): 이용원 외(2017) -연구목적: 청년공간 조성방안과 공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및 장기전략 제안	-문헌연구 -국외사례 조사 -인터뷰 -워크숍	-청년공간(무중력지대) 개념정립 및 과제도출 -무중력지대 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무중력지대 운영방식 전환방향 논의 -무중력지대 조성전략 및 운영발전방안 제시
	10 -과제명: 원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연도): 고가온 외(2019) -연구목적: 청년공간이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및 정착단계별 공간의 영향정도 분석	-문헌연구 -설문조사	-청년공간 및 정주지속의 개념 정립 -청년공간과 정주지속의 영향관계 분석 (장소성과 정착, 정착단계별 정주지속의a, 공간중요도 등)
	11 -과제명: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연구자(연도): 조성철 외(2019) -연구목적: 청년세대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산업공간의 재편방안 및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제시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 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공간자료분석	-청년 산업인력의 특징과 입지선택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분포 및 종감요인 -기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청년 산업공간 현장연구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 정책방향
본 연구	-과제명: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 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연구목적: 청년 지역정착 및 이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쟁점 도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문헌연구 -현지조사 -국내외 사례 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자문회의 -청년그룹 워크숍	-청년인구 동향 및 지방이주 현황, 청년 지원정책 분석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분석 -지방중소도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추진전략 및 프로세스 제시



---

## 제2장 청년의 지방이주 현황과 정주지속의 개념 및 쟁점

1.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의 의미
  2. 청년문화의 경향과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정립
  3. 지방중소도시 청년인구 동향 및 지방이주 현황 분석
  4.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 관련 주요 쟁점
- 

### 1.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의 의미

#### 1) 지방이주 개념과 국내 관련 정책의 추진 동향

‘이주(移住)’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sup>1)</sup>으로, 가구의 장소적 이동뿐만 아니라 공간구성과 이주자들의 속성도 함께 이동되어 집단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과정<sup>2)</sup>을 말한다. 지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이주는 현재 거주지보다 더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가구특성 변화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생하는 선택적 과정, 지역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지역의 변화가 이주를 추동하는 역동적인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이사’라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이사를 ‘이주’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즉, 지방이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가 정착하는 현상으로서 이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지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 2021.2.10.)

2) 서수복(2010, p.96) 재인용

3) 전성제 외(2016, p.14) 재인용

4) 嵩和雄(2017, p.5)

역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이주 관련 정책은 주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책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2000년대에는 국토공간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개발 관점에서의 지방이주가 논의되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인구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방이주가 논의되어 왔다. 2010년대 초반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을 대비하여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2010),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2015), 귀농·귀촌마을 조성 등 지방이주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분석 자료<sup>5)</sup>가 발표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이 점차 높아졌고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도시재생이나 축소도시 전략 마련과 함께 기존 귀농·귀촌 중심의 지방이주 지원정책을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이고 이는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청년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1993년 55.7%에서 2017년 50.6%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20~30대의 청년인구 비중은 2004년 절반 이하로 떨어져 2017년 기준 수도권 대비 47.0%로 나타났다.<sup>6)</sup> 2015년 이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공간 조성, 지역살이 지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sup>7)</sup>

## 2) 지방이주 단계와 정주지속의 사회적 의의

청년들의 지방이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최근 청년세대의 일하는 방식 변화나 거주방식의 다변화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확대되고 있다. 기존 연구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서는 지방이

5)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는 일본의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를 차용 및 변용하여 한국 상황을 분석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들을 살펴보았으며(이상호, 2016), 2018년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최근 추이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유출입 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이상호, 2018)

6) 이상호(2018, p.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7)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청장년 인구 유입과 귀촌 활성화 등 새로운 인구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지역정착 유도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부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활동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지자체별로 지역살이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주 및 정주지속의 과정을 관심단계, 탐색단계, 정주의향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지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의 상당수가 지역살이나 체험 기회가 있거나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에서 지역에 정착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기반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보조가 있지만 대부분 2~3년의 기간 동안만 지원되고 있어 대체로 청년 스스로 또는 동료들과 정주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표 2-1] 기존연구 및 관련정책에서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의 단계 구분

구분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 단계
기존 연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입 – 참여 – 경험/실험 – 이주/정착(행정협업) – 확장</li> </ul>
박진경·김도형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입기 – 적응기 – 정착기</li> </ul>
고가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색 및 준비 :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결정</li> <li>적응 및 정착 : 결정 이후 실제로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li> <li>정주지속 : 이주 이후 지역살이에 적응하는 과정</li> </ul>
김정섭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색단계 : 지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 지역 정보 수집 및 교육 경험, 지역 결정 및 이주 결심, 맛보기 이주</li> <li>이주단계 : 정주환경(주거, 교통, 생활서비스 등), 일자리 등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지역 정착에 필요한 자원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안내자가 필요</li> <li>정착단계 : 진로를 결정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내 관계망 확장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단계이며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는 시기 이기도 함</li> </ul>
삼선재단 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단계 : 농업·농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li> <li>결심단계 :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단계로 지역살이와 맞는지 파악하는 단계</li> <li>유입단계 : 지역진입을 위한 기반마련 및 지역진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거주지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li> <li>자립단계 : 지역에서 본인의 비전을 찾고 생계유지가 가능해지는 단계로 지역주민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정립하는 단계</li> </ul>
관련 정책 도시민 농촌 유치 정책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주의향단계 :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착 귀농인, 공무원, 단체 등 협의체 구성</li> <li>이주준비단계 : 농촌문화·체험/체육 프로그램, 농촌 빙집 등 부동산 정보 제공</li> <li>이주정착단계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li> <li>이주생활단계 :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li> </ul>
귀농귀촌정보지원 단계별 추진계획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준비단계 : 귀농귀촌 동기, 목적 등 실태조사, 귀농귀촌 행정 및 추진전략 홍보, 홈페이지 구축,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정착 매뉴얼 및 성공사례 홍보</li> <li>정착지원 및 실천단계 : 멘토 지정 및 컨설팅, 정착 예비프로그램 실행, 직업알선 및 정착자금 융자, 지속적인 정착 실태 모니터링</li> <li>정착단계 : 정착 룰모델 발굴 및 적용, 창업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li> <li>사후관리 : 운영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li> </ul>

출처 : 유지황(2021, p.10), 박진경·김도형(2020, p.333), 고가온(2020, pp.23~25), 김정섭 외(2018, pp.21~34), 삼선재단 외(2015, pp.117~121), 농림축산식품부(202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https://www.seogwipo.go.kr/group/selfgoverning/town/farming/plan.htm> (검색일 : 2021.12.12.)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청년의 지방이주 단계를 ‘탐색 – 이주 – 정착 – 정주지속’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각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탐색단계 : 지방이주로의 관심 및 계기, 지역정보 습득 (각종 문헌 및 매체자료, 교육, 체험, 경험, 지역탐방 등), 지방이주 이주결심
- 이주단계 : 임시 주거 및 일자리 수요, 지역활동 참여, 각종 지원정책 활용
- 정착단계 : 안정적 활동공간 및 소득 확보 가능성,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
- 정주지속단계 : 장기주거, 생활안정, 지역사회 장기적인 활동 참여여건 마련

이때 ‘정주지속’ 개념은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이나 지역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으로 이주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단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자체 청년기본수당이나 청년정착 지원사업 등에서는 ‘주소지 이전’이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를 지원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방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연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들이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거주연수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표 사례로는 ‘군산시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군산 기반의 다양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였던 ‘로컬라이즈 군산’의 참여팀의 상당수가 희망키움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으로 많이 연계 되는 성과를 낼기도 하였다.<sup>8)</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소지 이전이나 거주연수를 바탕으로 정주지속의 개념을 정립하기보다 국비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을 정주지속으로 보고자 한다.

---

8)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유연성 디렉터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1.27.) 참고

## 2. 청년문화의 경향과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정립

### 1) 청년문화의 개념과 경향

- 세대문화의 일부로서 청년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맥락에 따른 개념의 변화

청년문화(youth culture)는 사회학적 논의에서 주목하는 세대문화의 일부로서 ‘주로 20대 연령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된 정서와 경험, 그리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세대 단위마다 지니는 여러 특수성들의 총체’<sup>9)</sup>로 이해된다. 청년문화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기존 주류 문화에 반하는 청년세대의 특정한 지향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떠나다. 한국의 청년문화는 197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당대의 사회정치적 변화에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대학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과 의식, 취향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형성되었다.<sup>10)</sup> 1990년대 이후로는 시장자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문화와 대중문화가 주요한 청년문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에 청년들은 주류 기성문화와의 구별짓기를 통해 기존의 거대 자본과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능동적 주체로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했다.<sup>11)</sup>

- 지역 문화의 진흥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청년문화의 가능성 발견

1990년 중반 이후 지역에서 형성되는 청년문화는 지역적 고유성을 지니며 지역 문화의 진흥으로 이어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sup>12)</sup> 최근 청년문화의 활동 영역은 보다 확대되어 문화기획 활동, 지역 출판활동, 연구 활동 등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청년들은 인문학 공간, 생활문화 공간,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과의 문화 기획 사업 등 영역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다원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sup>13)</sup> 더 나아가 청년문화는 문화적 파급력을 가지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대안적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지방도시로 회귀하는 청년세대

청년세대의 주를 이루고 있는 MZ세대<sup>14)</sup>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인

---

9) 최지연(2018, p.22)

10) 최지연(2018, pp.22-32)

11) 최지연(2018, pp.22-32)

12) 오재환·임호(2014, pp. 24-29)

13) 최지연(2018, pp.22-32)

경험을 추구하며,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넘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특정 공간의 장소성과 독특한 이야기를 체험하는 경험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증가하면서 로컬(local)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5)</sup> 청년의 로컬 지향성은 도시의 공간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골목 커뮤니티와 역사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의 원도심경제가 부활하고 있으며, 대안적인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자 지방도시로 회귀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sup>16)</sup>

#### 대한민국 세대 구분 및 세대문화

- X세대 : 1965~1980년에 출생한 세대로 유신정권 시절을 겪은 세대
- Y세대(에코세대, 밀레니얼 세대) : 1980~1995년대에 출생한 세대로 민주화 및 경제 발전을 겪은 세대
- Z세대(M세대, 밀레니엄 세대) : 1995~2010년대에 출생한 세대로 일반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



- 코워킹, 코리빙 등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형성

최근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특성인 ‘느슨한 연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개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통의 흥미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했다가 자유롭게 해산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sup>17)</sup> 이러한 특성에 따라 청년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코리빙스페이스(Co-living Space)가 조성되고 있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창업자나 창작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고받는 커뮤니티 기능을 지향하며, 코리빙스페이스는 특정한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며 소통 및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한다.<sup>18)</sup> 이러한 공간은 청년세대의 생활공간이자 청년문화를 형성 및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4) 1980~1996년 사이에 출생한 ‘M(밀레니얼) 세대’와 1997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4% 비중을 차지함(2019년 통계청 자료 기준) ; 주용완(2021, pp.64-66)

15) 조성철외(2019, pp.24-27)

16) 조성철외(2019, pp.24-27)

17) 조성철외(2019, p.28)

18) 조성철외(2019, pp.30-32)

### 코워킹스페이스(헤이그라운드), 코리빙(커먼타운)

-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은 독립오피스와 지정좌석, 커뮤니티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규모 및 기간 별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체인지메이커들이 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역삼동 커먼타운 트리하우스는 프라이빗한 개인공간과 다양한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멤버들이 서로 연결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출처 : 헤이그라운드, <https://heyground.com/#/seongsu/space/> (검색일 : 2021.6.2.)

커먼타운, <https://www.commontown.co/ko/house-page/treehouse/> (검색일 : 2021.6.2.)

- 지역산업 창출 및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청년세대를 주목하기 시작

지역으로 회귀한 청년세대는 ‘로컬’을 중심으로 골목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 등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로컬 생태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이들이 형성한 지역산업은 재생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지역으로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지역에서 추진되던 도시재생 사업은 역량 있는 주체 발굴에 있어서 한계를 가졌다면, 최근 로컬에서 활동하는 청년세대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sup>19)</sup> 지역에서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역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명명하며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문화와 특성을 소재로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커뮤니티와 고객층을 구축하는 사업 방식을 통해 지역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sup>20)</sup>

## 2) 청년활동공간의 개념과 정의

### □ 청년활동공간의 정의

- 청년들이 교류를 통해 세대문화를 형성·공유하는 공간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활동공간의 활용주체, 목적, 주요 활동, 조성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활용주체에 대해서는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채진기, 2019)’ 혹은 ‘청년문화와 청년문제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류재광, 2017)’로 설명하고 있으며, 광의적으로는 활용주체를 청년층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조성목

19) 비로컬(2020)

20) 모종린 외(2019, pp.16-18)

적으로는 광의적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교류를 통해 세대문화를 형성·공유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조성되는 공간(고가온, 2019)’으로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조영임, 2017; 고가온, 2019)’을 청년활동공간의 주요한 활동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표 2-2]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선행연구	관련용어	관련 공간	정의 및 개념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사회적 교류 영향구조 연구(조영임, 2017)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시)	- 커뮤니티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 - 동일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이 공간을 공유, 서로의 관계가 지속되고 커뮤니티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원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고가온 외, 2019)	청년공간	하워드 인플래닛, 림보책방, 스페이스 코워	- 청년들이 관계망 속에서 성장하도록 돋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조성하는 공간**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서울시 청년허브 외, 2015)	청년공간	-	- 청년들이 문화·사회·커뮤니티 일자리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사람과 자원이 모이고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한 공간
경계의 확장을 통한 청년문화공간에 관한 연구(류재광, 2017)	청년문화 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시)	- 청년 문화를 지원하고 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 - 다양한 세대가 모여 청년문화와 청년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
시흥시 청년공간 지원정책이 이용자의 지역정착의사와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분석(채진기, 2019)	청년공간	경기협업마을, 시흥창업센터	-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 곽승희(2019, 10월 13일 기사), \*\*박민영(2018, 11월 28일 기사)

- 청년의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공간

지자체 조례에서는 ‘청년공간’, ‘청년활동공간’, ‘청년활동거점공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의 ‘무중력지대’, ‘오랑’, 경기도의 ‘내일스퀘어’, 경상북도의 ‘청년고짜방’, 제주도의 ‘청년다락’ 등이 있으며, 청년의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의 실현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간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창작 공간, 교육·육·상담 공간, 소통·활동 프로그램 공간, 이벤트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지자체 조례에서 나타난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지자체 조례	관련용어	정의 및 개념	활용주체	주요 기능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공간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채움 공간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 창업 공간 지원 - 창업 인큐베이팅 -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활동 공간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 단순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등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청년공간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공간	청년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 준비를 위한 입주공간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로 시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시로 전입한 자	- 청년의 능력개발과 취업·진로·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지원 - 그 밖에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공간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활동 거점공간	청년들이 소통, 교류, 자립기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한 공간	정선군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 자립기반 형성 - 능력개발 프로그램 -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 경제 및 취업활동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

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4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805호),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경기도조례 제7017호),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329호),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33호), 정선군 청년활동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16호)

## □ 청년활동공간의 기능

청년활동공간은 도입 기능에 따라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sup>21)</sup>,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21)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청년활동공간과 선행연구의 분석대상 사례 약 67개의 시설과 기능을 토대로 유형을 구분함(김주진 외, 2021, pp.151-154)

[표 2-4] 청년활동공간의 기능별 구분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유형	공간 종류
거주공간	단기 체류공간부터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 정주기반	임시주거 정주공간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청년층의 업무공간이자 창업 및 창직을 위한 기반 공간	사무공간 회의공간 작업공간 판매공간 학습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기기 지원공간, 창업LAB, 촬영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공방 판매시설, 팝업공간, 판매형 점포 스터디룸, 교육공간
커뮤니티 공간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기반 공간	교류공간(휴식공간) 문화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청년들을 지역과 연계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창구	안내공간 상담공간 중간지원센터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상담실 청년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스타트업 지원센터
지원공간			

출처: 연구진 작성

- **거주공간**은 단기 체류공간부터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 정주기반

거주공간은 청년들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발적 지역경험을 위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부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주기반을 일컫는다. 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호텔 등의 임시주거는 외지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탐색 기회를 제공하거나 한 달 살아보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된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주거공간이다. 임시주거는 단기부터 장기투숙까지 다양하게 운되고 있다.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 보다 장기적으로 머무는 경우, 세어하우스, 임대주택 등은 정주공간을 이용한다.

[표 2-5] 거주공간의 유형 및 사례

세부 유형	공간 종류	사례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머물'(부산 머물봉산), 봉봉브릿지(광주 청춘발산마을), 커뮤니티호텔H(서천 삶기술학교), 소호259게스트하우스(속초), 봉황재(공주), 정중동하우스(공주), 커뮤니티호텔H(한산)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Woozoo(서울), 청년주거지(의성), 신규주거단지(의성), 거북이집(경상남도), 청년쉐어하우스(서천), 웰메이드하우스(안주)

출처: 연구진 작성



임시주거(게스트하우스-속초 소호259) 임시주거(게스트하우스-서천 커뮤니티호텔H) 임시주거(셰어하우스-공주 버드나루빌)

[그림 2-1] 거주공간 사례

출처 : 연구진 촬영

- 업무·창업공간은 청년층의 업무공간이자 창업 및 창직을 위한 기반 공간

업무·창업공간은 워케이션, 디지털 노마드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 및 업무방식의 변화에 맞춰 조성된 청년층을 위한 업무공간이며, 창업 준비 과정부터 사업화 단계, 사업 초기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무공간은 자율좌석제, 지정좌석제, 대관사무실 등으로 구성하여 일간, 월간, 연간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사무실은 5인 이하 팀의 독립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다. 작업공간은 예비창업자의 창작 활동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3D프린터, 재봉틀, 제본기 등 작업 도구를 구비하여 시제품 제작 활동을 지원하며, 판매공간에서 청년창업자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6] 업무·창업공간의 유형 및 사례

세부 유형	공간 종류	사례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생각실현소(광진 오랑), 열린모임터(금천 오랑), 함께하다(노원 오랑), 꿈자람센터(은평 오랑), 반찌반찌(목포 팬찮아 마을), 공간천안(천안청년들), 한산한오늘(서천), 업스테어스(공주)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배움터(완주군), 모여보소(광진 오랑), 배워야지대(무중력지대 양천), 인공위성홀(무중력지대 대방), 청춘 놀이터(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창업 LAB, 촬영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공방	해보다(노원 오랑), 파이팅해방(은평 오랑), 청춘터전(대전 청춘광장), 똑똑똑(목포 팬찮아 마을), 아날로그 다방(BTLM 1960 여행자 플랫폼), 별별소리(서천), 똑똑똑똑(목포)
판매공간	판매시설, 팝업공간, 판 매형 점포	팬찮은 공장(목포 팬찮아 마을), 지역창업커뮤니티센터(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표류(광주 청춘발산마을), 플랫폼(BTLM 1960 여행자 플랫폼), 비빌언더공유실험실(완주), 최소한끼(목포), 크림(공주), 달달마카롱(완주)
학습공간	스터디룸, 교육공간	신림서재(관악 오랑), 배움터(금천 오랑), 열다(노원 오랑), 배움지대(무중력지대 영등포), 공유서재 '오후네시'(거제 장승포 아웃도어 아일랜드)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2] 업무·창업공간 사례

출처 : 청춘터전, 대전 청춘광장([https://daejeonyouth.co.kr/bbs/page.php?hid=sub\\_080101/](https://daejeonyouth.co.kr/bbs/page.php?hid=sub_080101/)), 통영 리스타트플랫폼(<http://www.tyrestart.com/load.asp?subPage=120>) (검색일 : 2021.6.5.), 파도살롱은 연구진 촬영

- 커뮤니티공간은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기반 공간

커뮤니티공간은 업무 및 학업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행사, 강연 등의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활동, 커뮤니티 이벤트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

간으로서 소통 및 교류의 기반 공간이다. 공유부엌 및 라운지 등의 교류공간은 함께 요리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등 자유롭게 휴식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도서관 및 공연·전시실 등의 문화공간에서는 청년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2-7] 커뮤니티공간의 유형 및 사례

세부 유형	공간 종류	사례
교류공간 (휴식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공유주방 '스쳐'(부산 비탈 788), 코옹코옹(목포 괜찮아 마을), 신림라운지 (관악 오랑), 누울터(금천 오랑), 품다(노원 오랑), 청춘다방(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널리널리홍홍(완주), 로컬베이스캠프(완주)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소극장 아트홀 통(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별빛영화관(1797 팽나무하우스), 공연·전시 갤러리영(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끄티(부산 RTBP), 청춘 너나들 이(대전 청춘광장), 완주미디어센터(완주), 시네마라운지MM(목포)

출처: 연구진 작성



교류공간(공유부엌–무중력지대 양천)



문화공간(공연·전시–부산 꼬띠)



교류·문화공간(도서관–완주 림보책방)

[그림 2-3] 커뮤니티공간 사례

출처 : 무중력지대 양천(<https://youth.seoul.go.kr/site/youthzone/center/CT00008/intro>), RTBP 얼라이언스(<https://www.rtbpalliance.com/ggti/>)(검색일 : 2021.6.5.), 림보책방은 연구진 촬영

- 지원공간은 청년들을 지역과 연계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창구

지원공간은 청년문제를 해결을 위한 주요 주체가 상주하는 공간이며, 청년들이 지역을 경험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장이자 청년들에게 지역자원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연계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마을호텔 형태로 청년활동공간이 조성된 지역은 마을 안내센터, 프론트센터 등의 안내공간을 조성하여 리셉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방문청년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소개 및 연계하고 있다. 상담공간 및 중간지원센터는 취·창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한다.

[표 2-8] 지원공간의 유형 및 사례

세부 유형	공간 종류	사례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마을리조트프론트센터(부산 RTBP), 여기누구있 소(광진 오랑), 청춘빌리지(광주 청춘발산마을)
상담공간	상담실	마주보다(노원 오랑), 마주해방(은평 오랑), 상담해 야지대(무중력지대 양천), 일자리꿈터(목포)
중간지원센터	청년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스타트업 지원센터	이웃사촌지원센터(의성), 이음 플랫폼(정선 고한 18번가), 청년·일자리통합센터(목포)

출처: 연구진 작성



안내공간(마을안내센터-광주 청춘빌산미을) 상담공간(상담실-광진 오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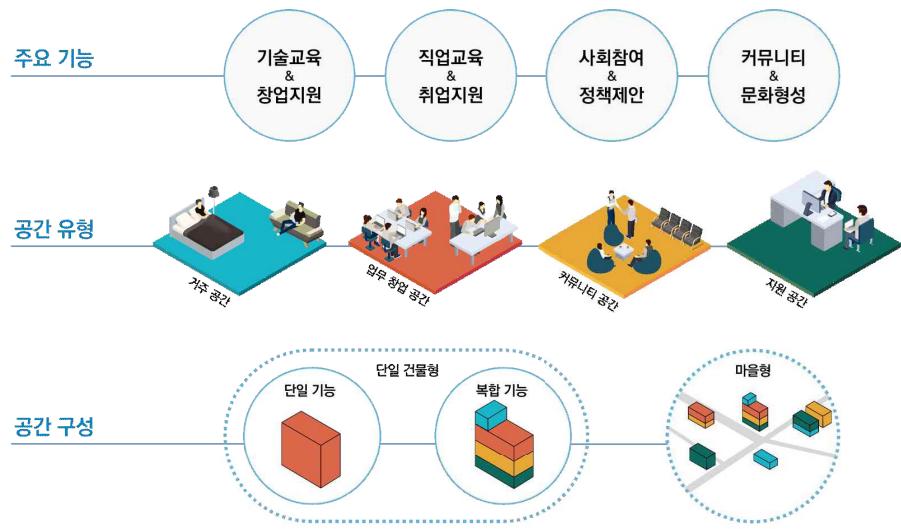
중간지원센터(청년센터-남원 청년마루)

[그림 2-4] 지원공간 사례

출처 : 밸산마을 청춘빌리지 1호 청년입주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wangjuseogu&logNo=221337782761&referrerCode=0&searchKeyword=%EC%B2%AD%EC%B6%98%EB%B0%9C%EC%82%B0%EB%A7%88%EC%9D%84>), 광진오랑, 서울청년센터 오랑(<https://youth.seoul.go.kr/site/orang/center/CT00010/intro>) (검색일 : 2021.6.5.), 청년마루는 연구진 촬영

#### □ 청년활동공간의 구성

청년활동공간은 단일 건물 내 한 가지 기능으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청년활동공간은 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각종 기능이 도입된 건물들이 마을 내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의 무중력지대, 춘천시 키먼즈필드 춘천 등은 단일 건물 내 층별, 실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여러 기능을 도입한 사례이며,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6층 건물에 수직적으로 기능을 나누어 도입한 사례이다. 한편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등은 마을 내 여러 건물들에 청년활동공간이 단계적으로 조성되면서 일정 범위 내 다양한 기능이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2-5] 청년활동공간 기능 및 공간구성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2-9] 단일 건물형 및 마을형의 공간구성별 주요 청년활동공간의 사례 개요

지역	공간 명칭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시설구성
<b>단일 건물형</b>			
서울 특별시	무중력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청년활동 지원, 청년의 자발적 움직임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워킹스페이스(B1 인공위성, 1F 지구, 2F 은하수)</li> <li>- 공간 대관(B1 인공위성홀/회의실, 1F 나눔부엌/스터디룸, 2F 세미나실)</li> </ul>
	경동시장 청년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조성 사업'의 일환</li> <li>- 전통시장 내 유통공간 활용, 청년상인 입점·육성</li> <li>- 전통시장 활력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이벤트거리, 공유부엌, 푸드존, 디저트존, 크래프트존, 노브랜드상생스토어), 작은도서관</li> <li>- 어린이희망놀이터</li> </ul>
강원 춘천시	커먼즈필드 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연결, 새로운 문화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 커뮤니티공간, 코워킹오피스, 입주사무실, 공유주방, 컨퍼런스룸, 세미나실</li> </ul>
경남 통영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창업자와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 창업 지원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홀 통, 갤러리 영, 지역창업커뮤니티센터, 창업 카페·라운지, 세미나실·미디어실, 북라운지 '책피팅', 창업LAB, 통영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브리핑룸, 옥상정원</li> </ul>
<b>마을형</b>			
전북 완주군	하워드 인 플래닛, 플래닛 완주 & 린보책방, 스페이스 코워, 공동체창업보육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의 교류와 문화활동을 통해 청년 문화의 확산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지원</li> <li>- 청년을 위한 창업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창업공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스트하우스(수요만찬, 금요일은 영화다, 한달살기, 완주처음 프로젝트)</li> <li>- 도서관람석, 공유부엌, 회의공간, 야외테라스, 카우치존, 닉락</li> <li>- 24시간 라운지, 회의실, 창업공간</li> <li>- 창업공간, 상상플래닛(주민카페, 휴식, 토의공간), 라운지, 상상놀이터(기기지원공간), 배움터(수업 및 강좌), 공동회의실</li> </ul>
전남 목포시	괜찮아 마을(목포 1935, 우진장, 등대, 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괜찮고 싶은 청년'들에게 휴식과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li> <li>- 목포에 이주한 대도시 청년들의 제안으로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스트하우스, 카페, 바(춘화당, 별채, 봄)</li> <li>- 괜찮은 가게, 괜찮은 집</li> <li>- 게스트하우스(한달살기)</li> <li>- 괜찮은 공장(공유가게, 공유사무실), 괜찮은 학교</li> </ul>
부산 광역시	비탈 788, 플랫폼 135, 꼬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영도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귀향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리조트 프론트 센터(공유주방 '스쳐', 커뮤니티 라운지 '올라서당', 코워킹 스페이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머물')</li> <li>- 코워킹스페이스</li> <li>- 공연, 전시, 파티 등 여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촬영스튜디오</li> </ul>

출처 : 무중력지대 소개,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weightless\\_intro](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weightless_intro)) 및 무중력지대 대방동(<https://youth.seoul.go.kr/site/youthzone/center/CT00009/intro>), 경동시장 청년몰, BLANK 브런치(<https://brunch.co.kr/@blankin/35>) 및 청년몰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9/SUP011901.kmdc>), 춘천 커먼즈필드(<https://www.commonzfield.kr/chuncheon/space>),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https://www.tyrestart.com/load.asp?subPage=120>), 괜찮아마을(<https://dontworryvillage.com/space>), RTBP 얼라이언스(<https://www.rtbpalliance.com>)(검색일 : 2021.6.5.), 임경수(202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단일 건물형의 청년활동공간은 단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하나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업무·창업과 커뮤니티공간, 커뮤니티와 거주공간 등 네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공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있다.

[표 2-10] 청년활동공간 기능 별 조합

공간 사례	도입기능 조합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거주공간	지원공간
파도살롱(강릉)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사무실	라운지, 커뮤니티바		
플레이스 캠프 제주(제주)	판매시설		게스트하우스	
쉐어어스(서울)	코워킹스페이스, 작업공방		셰어하우스	
BTLM1960 여행자 플랫폼(충주)	판매시설, 창업공간		게스트하우스	
이웃사촌지원센터(의성)	회의실, 세미나실			이웃사촌지원센터, 안계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외 중간지원조직 3개소
금수장(의성)	공유주방, 커뮤니티공간, 공용휴게공간, 작은영화관	주거공간		
고구마쌀롱(속초)	고구마영화관, 보드게임장			컨시어지 센터
마을스테이 제민천(공주)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게스트하우스	
봉봉브릿지(광주)	예술창작공간	전시	레지던시	
통영리스타트플랫폼(통영)	사무실, 회의실, 브리핑룸, 창업카페, 판매시설	라운지, 소극장, 갤러리, 북라운지		남해안 여행라운지
서울하우징랩(서울)	코워킹스페이스, 사무실, 회의실	갤러리, 프로그램실		중앙주거복지센터
비탈(부산 영도)	공유주방, 책방	레지던시		마을리조트 프론트센터, 봉산마을현장지원센터

출처 : 파도살롱(<http://thewave.co.kr/space>), 플레이스캠프 제주(<https://www.playcegroup.com/rest/>), 쉐어어스 ([https://share-us.kr/index#SHARE\\_US](https://share-us.kr/index#SHARE_US)), 마을을 살리는 여행, BTLM 여행자 플랫폼, 와디즈펀딩(<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0655>),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http://unsc.or.kr/home/>), 고구마쌀롱, 소호259(<http://soho259.co.kr/program/>), 마을스테이 제민천(<https://town-stay.com/>), 봉봉브릿지(<https://spaceppong.wixsite.com/spaceppong/about/>),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https://www.tyrestart.com/load.asp?subPage=120>), 서울하우징랩(<https://www.seoulhousinglab.com/html/intro01.do>), RTBP 얼라이언스 (<https://www.rtbpalliance.com/ggti/>) (검색일 : 2021.6.5.), 유정규(202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및 운영 특성

민간에서 조성한 공간은 조성 주체가 직접 공간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공공에서 조성한 공간은 행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직영으로 청년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 양주시 등은 담당부서 인력이 배치되어 공간운영 및 시설 관리와 더불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담당부서의 인력으로는 공간운영 전반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양주시 청년센터 : 프로그램 매니저)로 채용함으로써 사무관리 및 운영 보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와 양주시 청년활동공간은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관, 운영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및 특강이나 컨설팅 등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공공위탁으로 청년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문화재단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운영주체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 청년협의체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주체로 나타난다. 위탁기관은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위탁의 일례로 통영 리스타트플랫폼의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조성하였다. 운영주체는 (주)인터파크씨어터와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에서 캐소시엄으로 위탁을 받았으며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1]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및 운영 특성

조성 주체	운영 방식	공간 사례	운영 주체	운영 프로그램(사업명)
공공 직영	행정 직영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생활백서, 늘푸교실, 나를 위한 브런치, 금융컨설팅 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NCS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양주 청년센터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취업역량 스킬업, 슬기로운 금융생활, 남다른 청춘클래스 등
공공 위탁	청년예술창작소	성남문화재단	성남예술프로젝트,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교 협업프로젝트, 원데이클래스 등	
		청년플랫폼 청년마을	원주문화재단	오픈클래스, 네트워킹프로그램, 온라인 화상노동상담 등
	김제청년공간 E :DA	전북창조경제혁 신센터		청년창업지원 컨설팅 '지금 E :DA(이다)' 등

조성 주체	운영 방식	공간 사례	운영 주체	운영 프로그램(사업명)
민간 위탁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춘천 커먼즈필드 대전 청년활동공간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유유기지 부평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주)인터파크씨어터,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아트시티 in 통영, 통통극장, 남해안 문화관광 창업 워크샵, 창업실무 아카데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자격과정 등
		춘천 커먼즈필드	춘천사회혁신센터(더슬기로운생활)	여성 집수리 기술 워크샵, 지역경제순환효과 분석 네트워크, 소소한 동네연구, 청소년 뮤탐사대 등
		대전 청년활동공간 청춘 너나들이	블룸워크	실전스킬클래스, 보이는 소리, 너나들이 생활멘토링, 에이블아트전시회 등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청소년자람터 '오늘'	슬기로운 문화클래스, 생활기술학교, 청년 참여 페스티벌 등
	민간 운영	유유기지 부평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청년도전지원사업, 전문상담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컨설팅, VR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
		비탈, 꼬티, 플랫폼135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로컬을 탐험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 봉산마을골목정원 축제, 마을투어프로그램 '각각' 등
		파도살롱	더웨이브컴퍼니	강릉살자, 이번 여름 바다로 퇴근해 등
		봉황재, 업스테어스	퍼즐랩	워크스테이 프로그램 '로그인 공주' 등
		한만식당, 아삭아삭 순무민박, 스트롱파이어, 진달래샵	청풍상회	잠시 섬, 강화 2주하기, 스펙타클유니버시티 : 썸머세션 등

출처 : 청년스테이션, 시흥시청(<https://www.siheung.go.kr/edu/contents.do?mld=0506000000>), 양주시 청년센터 (<https://www.yangju.go.kr/youth/contents.do?key=3182>), 성남아트센터([https://www snart.or.kr/web/cms/?MENUMST\\_ID=22044&cmsDataMapViewCnt=0&cmsDataMapDownloadCnt=0](https://www snart.or.kr/web/cms/?MENUMST_ID=22044&cmsDataMapViewCnt=0&cmsDataMapDownloadCnt=0)), 청년플랫폼 청년마을(<https://gzonestart.modoo.at/?link=4qtlznb5>), 김제청년공간 E:DA([http://ieda.or.kr/bbs/content.php?co\\_id=introduction](http://ieda.or.kr/bbs/content.php?co_id=introduction)),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https://www.tyrestart.com/load.asp?subPage=120>), 춘천 커먼즈필드(<https://www.commonzfield.kr/chuncheon/space>), 대전청년 청춘광장([https://daejeonyouth.co.kr/bbs/page.php?hid=sub\\_020102/](https://daejeonyouth.co.kr/bbs/page.php?hid=sub_020102/)), 영광군청년센터 청춘공방(<http://ygyoungman.or.kr/page/intro/get?type=visit>), 유유기지([https://www.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about\\_inuu02&me\\_code=70b0](https://www.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about_inuu02&me_code=70b0)), RTBP 얼라이언스(<https://www.rtbpalliance.com/>), 파도살롱(<http://thewave.co.kr/news/>), 퍼즐랩 페이지북 계정([https://ko-kr.facebook.com/pg/PuzzleLab.co.kr/posts/?ref=page\\_internal](https://ko-kr.facebook.com/pg/PuzzleLab.co.kr/posts/?ref=page_internal)), 협동조합 청풍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asacminbak/>) (검색일 : 2021.6.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3. 지방중소도시 청년인구 동향 및 지방이주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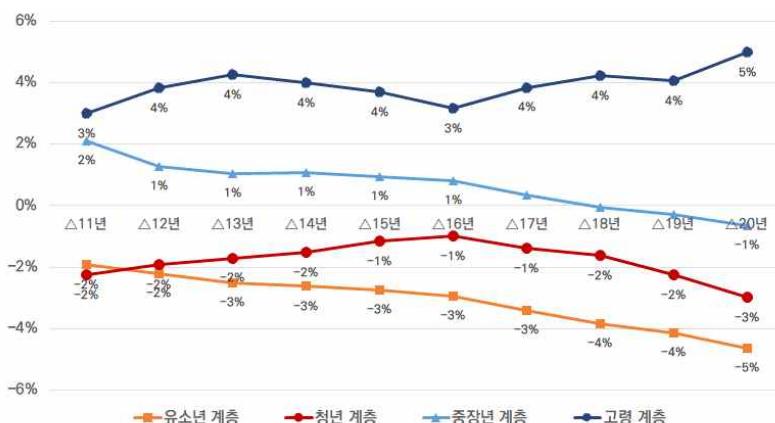
#### 1) 청년인구 현황 및 이동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구조와 지역별 청년인구 분포 현황, 청년인구 이동특성 및 주요 유입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인구 데이터(2010-2020), 시군구 인구이동 데이터(2016-2020)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따라 4가지 유형<sup>22)</sup>으로 구분하고, 유소년계층(18세이하), 청년계층(19~39세), 중장년계층(40~64세), 고령계층(65세이상)으로 연령을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 □ 시군구별 인구구조 분석을 통한 청년인구 현황 진단

- 지난 10년간 전국 청년계층과 유소년계층 감소세가 지속

지난 10년간(2011-2020) 전국의 청년계층과 유소년계층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었다. 유소년계층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나 2018년도와 2019년에는 4%대의 감소율, 2020년에는 5% 대의 감소율을 보이며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청년계층의 경우, 매년 2% 수준의 감소율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중장년계층은 2019년도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고령계층은 매년 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5%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림 2-6] 연령별 인구 증감률 변화(2011-2020)

출처 :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양인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w\\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w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_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2) 유형1(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유형2(수도권 및 광역시도 내 인구 5만이상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유형3(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중소도시), 유형4(인구 5만 미만 군지역)로 구분

- 군 지역 청년인구 감소율은 대도시, 수도권 및 광역시도 중소도시의 5배

청년계층 감소율은 인구규모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형3의 경우, 유형1이나 유형2에 비해 청년계층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유형4의 경우 유형1, 유형2에 비해 감소율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소년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유소년계층의 감소율은 유형4, 유형3, 유형2, 유형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계층의 경우 유형1과 유형2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형3은 증가율 0%, 유형4는 감소세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계층은 모든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유형1과 유형2에서는 최근 6%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중소도시 중심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인 유소년, 청년, 중장년계층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인구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위기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2] 연령 및 인구규모별 인구 증감률 현황(2011~2020)

연령	인구규모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유소년 계층	유형1	-1.3	-1.6	-1.9	-2.1	-2.2	-2.4	-2.9	-3.0	-2.9	-3.6	-2.4
	유형2	-1.9	-2.3	-2.4	-2.6	-2.8	-2.9	-3.2	-3.7	-3.8	-4.1	-3.0
	유형3	-2.0	-2.2	-2.4	-2.6	-2.6	-2.6	-3.0	-3.5	-3.9	-4.3	-2.9
	유형4	-2.5	-2.7	-3.3	-3.2	-3.4	-3.9	-4.5	-5.2	-5.9	-6.5	-4.1
청년 계층	유형1	-1.1	-0.7	-0.5	-0.6	-0.3	-0.1	-0.5	-0.4	-0.6	-1.2	-0.6
	유형2	-1.6	-1.4	-1.2	-1.1	-0.9	-0.6	-0.7	-0.8	-1.1	-1.2	-1.1
	유형3	-2.6	-2.3	-2.0	-1.9	-1.5	-1.1	-1.5	-2.0	-2.8	-3.6	-2.1
	유형4	-3.7	-3.3	-3.1	-2.5	-1.9	-2.1	-2.8	-3.3	-4.5	-5.9	-3.3
중장 년층	유형1	1.3	1.3	1.1	1.0	1.0	0.9	0.5	0.4	0.4	0.0	0.8
	유형2	3.1	2.4	2.0	1.8	1.4	1.3	0.9	0.4	0.5	0.5	1.4
	유형3	2.5	1.9	1.6	1.6	1.4	1.3	0.9	0.5	0.3	0.0	1.2
	유형4	1.5	-0.5	-0.5	-0.1	0.0	-0.2	-0.9	-1.5	-2.3	-3.1	-0.8
고령 계층	유형1	4.3	5.3	5.7	5.4	5.1	4.4	5.2	5.9	5.8	6.7	5.4
	유형2	4.2	5.2	5.6	5.1	4.6	4.0	4.7	5.2	5.0	6.0	5.0
	유형3	2.2	3.0	3.6	3.5	3.3	2.9	3.5	3.7	3.6	4.5	3.4
	유형4	1.3	1.8	2.2	2.0	1.8	1.4	2.0	2.1	1.9	2.8	1.9

\*유형1(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유형2(수도권 및 광역시도 내 인구 5만이상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유형3(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중소도시), 유형4(인구 5만 미만 군지역)

\*\*유소년 인구 0~18세, 청년계층 19~39세, 중장년층 40~64세, 고령층 65세 이상으로 구분

출처 :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인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nu\\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nu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청년인구의 이동특성 분석

청년인구의 이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6~2020) 시군구 전출입지별·연령별 이동자 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계층의 주요 이동<sup>23)</sup>특성을 파악하였다. 경제적·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sup>24)</sup>

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이동 특성은 전체 이동의 약 70~80%가 동일 권역 내 이동으로 확인되고 있다.<sup>25)</sup>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방이주 개념에 따라 권역 외 이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청년인구가 ‘지방중소도시로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난 5년간 인구이동 흐름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의 총인구 규모가 증가하였고, 청년인구가 증가한 곳도 이와 유사하게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청년인구 증가 규모는 다른 권역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 풍부한 여가 문화생활 향유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계층 유출 사유로는 ‘직업’이 49.6%로 가장 높았고, 교육과 주택 문제가 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sup>26)</sup>, 이는 지방중소도시로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13] 연령별 순 인구이동 현황

권역	(단위 : 명)				
	유소년계층	청년계층	중장년계층	고령계층	합계
수도권	17,585	343,946	-100,829	-15,246	245,456
경상권	-36,431	-238,491	-31,596	-5,160	-311,678
호남권	-13,575	-114,412	17,588	-1,255	-111,654
충청권	20,818	20,314	70,087	15,662	126,881
제주권	8,881	13,388	19,870	1,665	43,804
강원권	2,722	-24,745	24,880	4,334	7,191

출처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청년인구 주요 유입지역 현황 및 특성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시군구 중 117개소<sup>27)</sup>의 청년인구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간 수도권 거주 청년인구 1,196,651명이 지방중소도시로 이동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제주권, 강원권, 충남권으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동한 곳은 제주시(31,912명)였으며, 원주시(27,828명), 아산시(25,333명), 춘천시(21,877명) 순으로 나타났다. 1만 명 수준의 인구유입이

23) 본 연구에서 ‘이동’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로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와 동일하게 설정함

24) 인구이동은 거주 권역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도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로 집계하고 있음

25)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3))(검색일: 2021.6.5.) 참고하여 작성

26) 박진경·김도형(2020, pp.186-18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7) 특·광역시 내 인구 50만 미만의 자치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나타난 곳으로는 서귀포시, 강릉시, 충주시, 당진시 등이 있다.

수도권 거주 청년인구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각 권역에서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이었다. 상위지역으로 나타난 원주시, 아산시, 춘천시, 서귀포시 등은 인구 20~30만 명 수준의 도시로 기초생활 인프라가 양호하고, 광역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14] 수도권에서 지방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 현황(상위10개소)

출발		도착	유소년계층	청년계층	중장년계층	고령계층	(단위 : 명) 합계
수도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2,897	31,912	24,553	3,567	72,929	
	강원도 원주시	9,635	27,828	19,188	4,503	61,154	
	충청남도 아산시	8,185	25,333	18,297	4,281	56,096	
	강원도 춘천시	6,491	21,877	13,035	3,539	44,9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226	14,242	14,763	2,401	38,632	
	강원도 강릉시	5,053	13,621	9,469	2,539	30,682	
	충청북도 충주시	4,164	12,331	10,677	3,243	30,415	
	충청남도 당진시	3,547	12,309	11,359	2,703	29,918	
	충청남도 서산시	3,613	11,409	9,235	2,539	26,796	
	전라북도 익산시	3,661	11,373	6,864	2,298	24,196	

출처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비수도권 거주 청년인구는 ‘인접한 권역’ 또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지역과 가까운 인접 권역 내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권 청년인구는 충청권과 경상권에 위치한 중소도시로의 이동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인구는 인접 권역 내에서도 인구규모가 20만 명 이상인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sup>28)</sup>

[표 2-15] 비수도권 지역에서 타 권역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이동현황(상위1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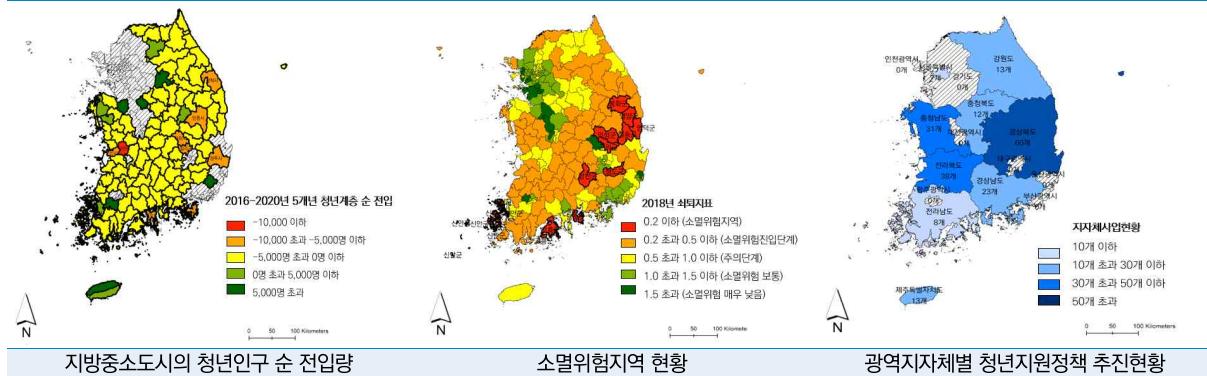
출발 도착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권
상위권	1 충북 제천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전남 목포시
	2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강원 원주시
	3 제주 제주시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4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
	5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여수시
	6 전남 장성군	강원 춘천시	전남 여수시	제주 서귀포시	경남 양산시
	7 충남 계룡시	경남 진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전북 익산시
	8 경북 경산시	경북 김천시	충북 충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순천시
	9 충남 논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아산시
	10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	강원 동해시	강원 원주시	전북 군산시

출처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8) 세부 분석결과는 부록(1.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청년인구 이동현황) 참조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이동경향은 인구규모가 20만 이상의 중추도시로의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산시, 구미시, 진주시, 여수시 등 인구 20만 이상의 지방도시는 대부분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청년 세다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청년인구의 제주권 이동량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환경(60.5%), 문화여가시설 환경(26.4) 때문으로 조사된 바 있다.<sup>29)</sup> 이는 취·창업을 위해 지역을 이동하는 청년세대의 보편적 이동사유와 차이점이 있는 지점으로,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이동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청년인구의 이동경향을 보면 소멸위기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지방중소도시의 청년인구 순 전입량을 살펴보면 소멸위험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수도권 인접 중소도시와 제주권의 경우, 청년인구 순 전입량이 5,000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청년인구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상북도 내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60개의 청년지원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유출 방지를 통해 인구소멸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수였다.<sup>30)</sup> 경상북도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38개, 충남도 31개, 경남도 23개 순으로 청년지원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었다.<sup>31)</sup>



[그림 2-7] 지방중소도시 청년이구 이동현황 및 소멸위험지역 현황,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 비교

출처 :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령인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nu\\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nu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1.6.5.),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9)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2020, 2월 28일 보도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0)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정책 추진 현황 조사(<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

31) 청년인구 유출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지역의 인구정책은 지역청년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나아가 필요가 있음(이상립, 2020)

## 2) 청년의 지방이주 선호 및 수요 분석

### □ 조사개요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sup>32)</sup>로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33)</sup> 조사내용은 지역 거주 경험, 지역 이주에 대한 수요,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2-16] 청년세대의 지방이주 선호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특·광역시(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거주 청년계층(만19세~39세)
조사기간	2021년 7월 20일 ~ 7월 26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관	(주)마이크로밀엠브레인
유효 표본	6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00%p
조사내용	<p>지역 거주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타 지역 거주 경험</li><li>- 본인 필요에 의해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li><li>- 지역살이 및 지역살이 프로그램 경험 여부</li></ul> <p>지역 이주에 대한 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중소도시 이주 계획</li><li>-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고려/비고려 이유</li></ul> <p>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중소도시 이주 의향</li><li>-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가고 싶은 지역</li><li>-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li><li>-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li><li>-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기대 월평균 소득</li><li>-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희망하는 주거 유형</li><li>-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공간</li><li>- 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역 주체의 역할</li></ul>

출처 : 연구진 작성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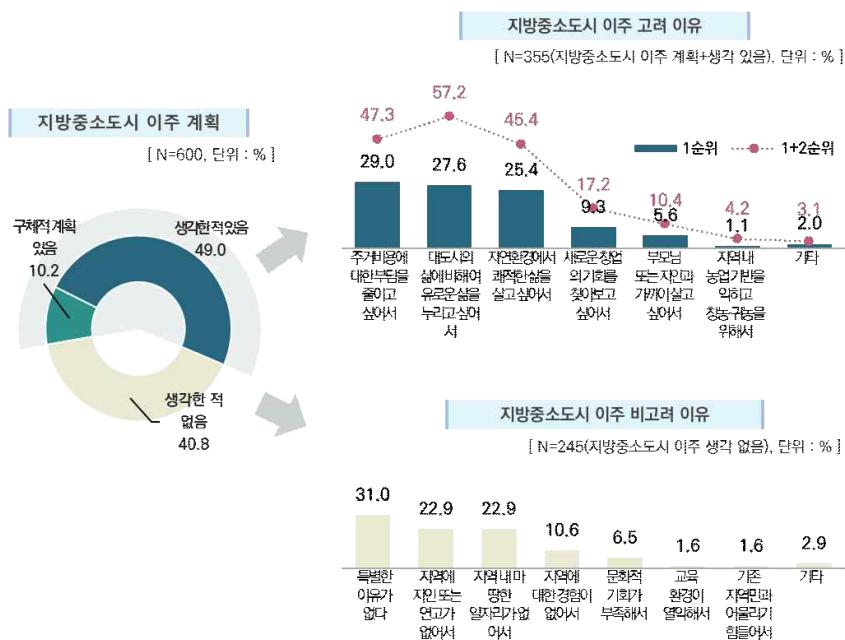
- 지방이주를 고려한 주된 이유는 주거비용 및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 때문

지역 이주 수요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지방중소도시로 이주·정착을 계획했거나 생각해

32) 2021년 5월 현재, 인구 50만 명 초과 도시 24개(포항시, 시흥시, 김해시, 평택시, 안양시, 안산시, 전주시, 천안시, 남양주시, 부천시, 청주시, 화성시, 성남시,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도시를 말함

33) 박진경·김도령(2020)에 따르면 인구동향 및 지방이주 현황 분석결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인근 지방도시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다수 조사됨.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거주 청년인구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함. 이는 수도권 청년인구로 한정하여 청년인구의 지방이주 선호도조사를 진행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본 청년의 비율은 59.2%로 청년계층 10명 중 6명 정도가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를 고려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중소도시 이주를 고려한 응답자는 20대 후반(62.6%)과 30대 후반(60.4%), 특히 20대 후반 남성(67.6%)과 30대 후반 여성(64.5%), 서울과 광주/울산 거주자, 취·창업 준비자(66.0%), 기혼자(63.3%), 타 지역 거주 경험자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주를 고려한 이유로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이 우선적이었고,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유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지역 내 연고가 없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고려 여부 및 이유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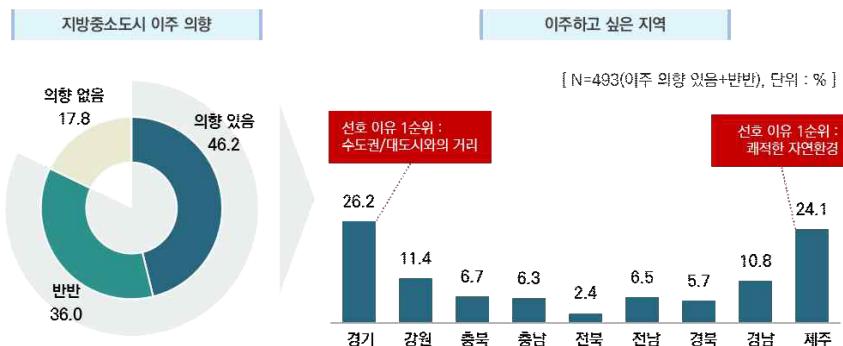
- 공공의 다양한 지원이 있다면 46.2%의 청년계층이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를 희망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 및 위업을 연계하는 지원<sup>34)</sup>이 제공된다면, 지방중소도시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17.8%)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한 이주 의향은 여성(53.7%)이 남성(38.8%)에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초반 여성(57.0%), 부산(58.6%)과 인천(54.8%) 거주자, 취·창업 준

34) '1~2달 살아보기 사업을 통한 지역 탐색 기회 제공', '지역자원 발굴 및 창업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지원', '지역 내 업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 취업 지원', '농업기술 교육 및 지역 내 공동체 정착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 지원' 등

비자(52.1%) 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방중소도시 이주를 생각해 본 적 있었던 응답자의 64.6%,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응답자의 21.2%가 중앙과 지자체 지원에 이주 의향의 변화를 나타냈다.

지방이주 시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하여 이주 의향이 있는 청년의 경우 26.2%가 '경기'를 꼽았고, 다음으로 '제주'(24.1%)가 많았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는 '경기'(26.3%), 부산 거주자는 '경남/제주'(모두 32.8%), 대구 거주자는 '경북'(35.3%), 인천 거주자는 '경기'(39.7%), 광주 거주자는 '전남'(34.1%) 등 수도권 거주자는 경기를 선호하는 반면, 지방 광역도시 거주자는 비교적 가까운 해당 권역 내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주 희망 지역의 선호는 '쾌적한 자연환경'(56.0%, 1+2+3순위 기준)과 '수도권/대도시와의 거리'(40.6%)를 이유로 응답하고 있으며, '지인 및 연고의 유무', '다양한 문화적 기회'도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 2-9] 지방중소도시 이주 의향 및 이주 희망 지역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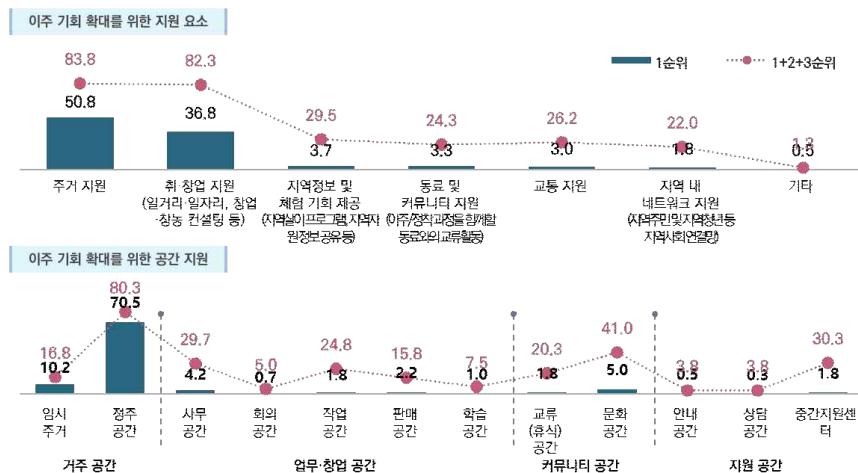
- 이주 시 지역 내 취업, 월 2~300만원 소득, 일반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 희망

지방이주 시 일자리는 '지역 내 취업'(70.0%)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지역 외 취업'(14.0%), '창업'(11.8%), '창농'(3.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취업 희망자는 '공공기관'(51.3%) 취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25.5%), '스타트업, 로컬 크리에이터'(11.6%) 순으로 나타났다. 월 기대소득은 '200-300만원'(51.7%), '300-400만원'(26.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 의향자 대부분(87.8%)이 200만 원 이상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주 시 주거유형으로 과반수(58.0%)가 '일반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희망하였고 '청년임대주택'은 36.5%, '청년 쉐어하우스/공동체주택'은 5.5%로 나타났다.

-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해 주거 지원 및 취·창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

청년의 지방이주 기회 확대를 위한 필요한 요소로는 '주거 지원'과 '취·창업 지원'을 가

장 높게 꼽고 있어 주거와 일자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타 지원은 이주 동기를 고취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수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정주공간’(80.3%, 1+2+3순위 기준)이 압도적으로 높게 제시되어, 주거가 이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문화공간’(41.0%), ‘중간지원센터’(30.3%), ‘사무공간’(29.7%) 등은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지방중소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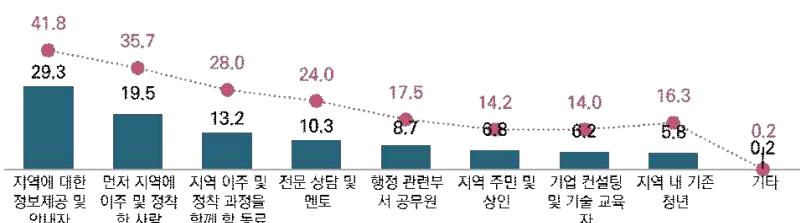


[그림 2-10]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요소 및 공간 지원

출처 : 연구진 작성

-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를 담당해 줄 주체 필요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처지와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 정착을 실질적으로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안내자’(41.8%, 1+2순위 기준)와 ‘먼저 정착한 사람’(35.7%)들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며, ‘지역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함께 할 동료(28.0%)’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2-11] 이주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주체의 역할

출처 : 연구진 작성

## 4.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 관련 주요 쟁점

- 청년의 지방이주는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이라는 과정 차원에서 접근 필요  
지방이주는 생활기반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개념으로 문화·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주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지역으로 가서 정착, 정주지속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청년들이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활하는 ‘정주지속’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중장기적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청년 문화를 고려한 지원정책 모색  
최근 청년의 지방이주 현상은 청년세대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자리,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지방 중소도시로 청년세대의 유입을 촉진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은 스마트 워크나 리모트워크에 익숙하고 로컬 지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느슨한 연대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청년 문화를 반영한 지역 생활기반을 전략적으로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지방이주 청년의 생활 및 활동기반으로서 청년활동공간의 전략적 조성방안 모색 필요  
선행연구나 청년 관련 조례에서는 대부분 청년활동공간의 개념을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되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이주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에서의 정주성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청년활동공간은 생활 및 활동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에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의 도입기능에 따라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지방이주 잠재력을 가진 청년층을 관계인구로 창출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청년세대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한편으로 로컬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이 지역에 대한 탐색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을 지역의 관계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계인구는 향후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주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소멸, 산업침체 등 지방중소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홍보 수단 마련과 인식개선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도출될 수 있다.

#### □ 지방이주를 위한 탐색단계에서 공공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수도권 및 대도시 청년 대상 청년세대의 지방이주 수요 조사 결과,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역자원 발굴 및 창업 컨설팅 지원 등과 같은 지자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지방 중소 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거공간이 지원 될 때 이주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중소도시로 이주 및 정착 확 대를 위해 이주 청년들에게 지역의 정보와 안내를 담당해줄 안내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지역에서 이주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년정착 지원 프로그램, 임 시 거주공간 마련, 인적자원 연계 방안 모색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

# 제3장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 정책

1. 청년 지원정책 및 제도
  2. 청년의 지방이주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정책
  3. 일본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4. 소결
- 

## 1. 청년 지원정책 및 제도

### 1) 청년지원 관련 법제 현황

청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증진 측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촉진 측면의 두 가지 흐름으로 마련되어 왔다.

청년지원정책은 2004년 청년실업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청년고용을 증진하고 청년상인, 청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장기화되는 청년실업문제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청년문제는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청년인

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2020년 5월에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0년 12월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일자리의 수도권 쓸림현상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특히 청년계층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꾀하고 있다.

**[표 3-1] 청년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구분	관련 법	소관부처	시기	내용
청년 기본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법)	고용노동부	2004.03.05 2009.01.09	제정(「청년실업해소 특별법」) 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보장 및 권익증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2011.04.04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신설
관련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2015.12.15 2015.12.15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중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6.12.02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2016.12.20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상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내용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2018.12.24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상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내용 추가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8.12.31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 지원 등) 상 청년 공공주택 재원·세제지원 내용 추가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2020.02.04	제정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관련 제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2020.05.19 2020.08.21 2020.12.08	제정 발의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상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출처 : 김주진 외(2021, p.7) [표 2-2]를 재구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786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71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12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8514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521호),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183호),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7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국민참여법센터(<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3159/detailR>, 검색일 : 2021.12.3.) 참고

## □ 청년 기본권 보장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 「청년고용법」,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 기본권 보장 및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된 「청년고용법」은 청년의 고용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로

서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자체 94.3%(광역 17개, 기초 214개)에서 청년 관련 조례 제정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꾸준히 「청년기본 조례」, 「청년 지원 조례」, 「청년발전 조례」 등의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청년기본 법」이 제정된 이후로 62개의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년 관련 조례 상 ‘청년공간(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마련하여 시설운영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청년공간(시설)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청년지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있었다. 서울, 광주, 경기 시흥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청년공간(시설) 내 수익허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한편, 경기 남양주, 경북 안동, 전북 전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활동공간 지원’ 및 ‘청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자체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 활동공간으로 적극 지원·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리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제16조(청년 활동 공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출처 :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647호),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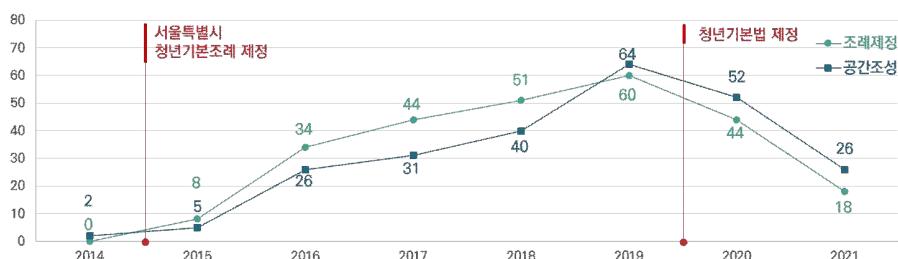
- 일부 지자체는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비용 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및 청년 창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청년관련 조직 및 공간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28개이며, 지자체에

따라 실습농장 설치,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례에서 청년활동공간은 ‘청년공간’, ‘청년활동 거점공간’, ‘청년창업지원시설’, ‘청년협업마을’, ‘청년영농실습농장’ 등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청년활동공간의 기능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공간의 사용료 및 이용 주체를 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에 입주한 청년기업 및 청년주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조례에 따라 기초지자체 55.7%(127개)에서 청년센터 및 청년활동공간을 설립<sup>1)</sup>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청년지원 조직 및 청년활동공간을 설립하고 있으며, 55.7%(기초지자체 127개)의 지자체에서 하나 이상의 공공 청년활동공간을 조성, 전국에 총 246개의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이 마련되었다(2021년 9월 기준). 공간 설립연도를 보면 2019년에 가장 많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조례 제정시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지자체 청년관련 조례 제정 연도 및 청년관련 공공공간 조성 연도

주 : 청년센터, 청년창업공간, 청년일자리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관련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1.2.14.),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다수가 분포

전국 127개의 지자체에서 조성한 246개의 청년활동공간은 44.3%(109개)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 8.9%(22개)가 위치하고 있다(2021년 9월 기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에 5.7%(14개)로 가장 많은 공간이 분포하고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는 아직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조사(2021.9.27. 기준)

-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주로 라운지 및 세미나실의 기능으로 구성

공공에서 조성한 246개 청년활동공간의 도입기능을 살펴보면 라운지, 세미나실, 강연장, 스터디룸, 체험실, 휴식공간, 공유부엌, 입주공간, 상담실, 스튜디오,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간 이용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라운지나 세미나실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한 경우가 많은 것<sup>2)</sup>을 볼 수 있었고, 18.3%(45개) 공간에서 입주공간을 구성하여 청년기업에게 입주기회를 주고 있었으며, 15.4%(38개) 공간에서 상담실을 구성하고 있었다.

-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공간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이 민간위탁 방식을택하고 있으며(126개, 51.2%), 23.2%(57개)의 공간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재단, 청년센터 등 의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내 일자리정책과, 청년청소년과 등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63개, 25.6%).

#### □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촉진을 위한 제도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 지역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청년층 지원

2020년 5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법률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생산력 확보와 지속적인 주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근 지방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특히 제 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를 신설되면서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0년 8월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2) 246개 공간 중 68.3%(168개) 공간에서 라운지를 조성, 59.8%(147개) 공간에서 세미나실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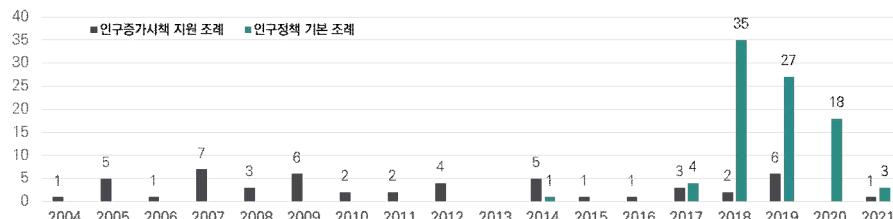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개정이유(법률 제17597호, 2020.1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223527&ancYd=20201208&ancNo=17597&efYd=2021060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 2021.9.19.)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실태조사,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원, 노후 주택개량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인구 증가 시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인구정책 관련 조례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와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 2004년 충남 예산군을 시작으로 전국 4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역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출생 신생아와 전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출산육아지원금, 전입실비, 전입세대 빙집정비 지원,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sup>4)</sup>

후자의 경우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이다.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경남, 충북, 전남 등<sup>5)</sup>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청년 등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사업', '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청년층 등에 대한 정착지원', '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 전남 영광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내 필요시 청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1.2.14.)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4)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해당

5)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북도 김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릉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관련 근거 마련

-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지원 조례 마련

전라남도는 2021년 5월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조례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중 최초로 '관계인구' 개념을 정의하였다.<sup>6)</sup> 본 조례는 청년정착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 · 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 · 예술 진흥 사업
3. 시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4. 청년의 지역 체험 및 거주 · 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관계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청년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출처:**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5324호

## 2)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 □ 조사 목적 및 대상

청년의 지역 탐색 및 정착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정책의 한계와 과제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청년의 지역 탐색 및 정착 지원을 사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거나 전문가 의견<sup>7)</sup>을 참조하여 지역 탐색 및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 관련 정책 및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9개 부처에서 추진한 총 35개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

6)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 경제, 지역 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5324호, 제2조).

7) 김주영(2021) 및 세미나 토론내용(AURI 지역재생연구단 온라인 세미나, 2021.1.22. 개최), 박주로 (주)로모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2.3.) 참고

자체 관련 정책·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중소도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단,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2개의 사업을 추가로 분석, 총 118개의 정책·사업을 조사하였다.

[표 3-2]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 개요

구분	종양정부	지자체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 청년의 지역 탐색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li> <li>- 정책·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등 지원 형태에 대한 경향을 파악</li> </ul>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L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광역지자체(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li> </ul>
대상	- 39개 정책·사업	- 118개 정책·사업
기간	- 2018년~현재	- 2020년~현재
자료출처	- 각 부처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 온라인 청년센터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출처 : 연구진 작성

#### □ 조사 방법

사업별로 지원분야, 지원방식, 지원시기, 지원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은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고려하여 중복 체크하여 확인하였다. 지원시기의 경우는 본 보고서의 2장 1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거나 시기와 무관한 지원인 경우 ‘미분류’로 구분하였다.

[표 3-3] 청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내용
지원분야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
	일자리 지원	지역 일자리 알선, 일자리 연계, 취업 지원 등
	생활 지원	지역 정착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 지원 등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 기술교육, 귀농귀촌 교육,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교류활동 지원	문화프로그램 제공, 지역 주민 교류 기회 제공,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방식*	공간 지원	공간조성비, 공간운영비, 유휴공간제공, 리모델링, 농지 지원, 스마트팜 온실 신축지원, 시설건립비용, 환경개선
	비용 지원	인건비, 정착지원금, 생활비, 임대료, 시제품 개발 비용, 교통비, 사업개발비, 창업자금, 조사 및 연구비, 상금
	전문가 지원	교육, 컨설팅, 경영교육, 영농기술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교육
지원시기	탐색	지역살이, 체험, 경험, 지역지원조사, 관계 형성, 창업 아이템 발굴
	이주	임시 주거, 일거리,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업화 및 비즈니스모델화
	정착	안정적 주거, 업무공간, 동료이웃파트너 연대, 사업 안정화
	정주지속	안정적 정주,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 자생력 강화
지원기간	일주일 미만 - 6개월 미만 - 6개월~1년 - 1년 이상	
	연속지원 및 후속지원 여부	
기타	타 부처 사업 종복 지원 가능 여부	

\*공간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제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 ‘공간 지원’으로 구분  
출처 : 연구진 작성

## □ 중앙부처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39개 정책·사업을 검토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지역 탐색 및 정착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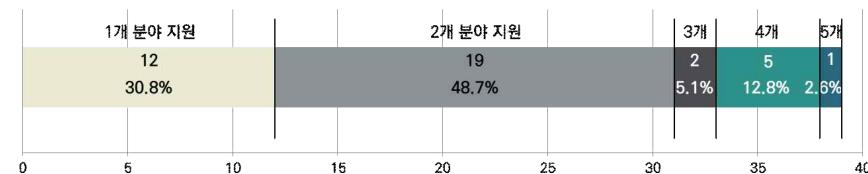
구분	정책/사업 명(총 39개)
국토교통부(4)	도시재생 뉴딜사업(4개 세부사업)
행정안전부(12)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9)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지원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부(2)	관광두레, 청춘마이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5)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고용노동부(4)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해양수산부(1)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LH(1)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내 희망상가 제공

\*전체 사업명은 부록 참고

출처 : 청년정책 통합검색,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검색일: 2021.2.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지원분야) 단일 분야 또는 2개 분야를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로 파악

39개 사업 중 단일분야를 지원하는 경우는 30.8%(12개)로 나타났으며, 69.2% (27개)는 2개 이상의 분야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2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은 48.7%(19개)였으며, 창업·일자리·생활·교육·교류활동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은 1개로 파악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에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에서는 모두 1~2개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3-3] 중앙정부 청년관련 주요 사업 분야 종복지원

출처 : 연구진 작성

지원분야는 교육분야(28개, 71.8%) 및 창업분야(26개, 66.7%)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생활, 교류활동지원은 각각 9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생활분야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에서만 추진 중이었으며, 교류활동 분야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2개 부처에서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방식) 전문가 지원 및 비용 지원이 다수로 파악

지원방식은 교육 또는 컨설팅 방식의 전문가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28개, 71.8%),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등 비용 지원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26개, 66.7%). 중앙부처 사업은 대체로 지원방식이 부처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고, 전문가 지원과 비용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지원의 경우, 사무공간, 취·창업공간, 앵커시설, 판매점포, 농지, 주거공간, 커뮤니티공간 등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공공공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무상 혹은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거나, 공간 설계 및 조성비용을 지원, 공간개선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되었다.

사업별 예산 운영지침을 보면 예산비목이나 금액 등에 제약사항을 두고 있어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비 및 공간조성비의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및 공간의 경우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창업공간 임대료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공간 임대를 위한 보증금 지원은 불가하고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에는 한도 금액을 정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표 3-5] 중앙정부 청년지원 관련 주요 사업 부처별 세부 예산 운영지침

구분	사업명	지원 특이사항
행정 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2019)	- (인건비와 간접지원비 및 공간조성비용)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 2년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 구입 가능 - 건물매입비 및 장비구입 등 청년의 자산취득 비용이 지원된 국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 필요 - 장비·시설 등 취득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 - 관리비 및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집행할 것 - 관련 전문가 및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인건비 집행 가능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021)	- (인건비) 총 사업비 5억 중 30% 이하 편성 - (사업비) 총 사업비 5억 중 60% 이상 편성 - (운영비) 총 사업비 5억 중 5% 이하 편성
중소벤처 기업부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지원사업 (2021)	-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까지만 지원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2021)	-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 가능(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현장실습교육 농가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등) - 사업비는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단순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인건비 지원 불가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21)	- (기자재 구입비) 총 사업비의 40% 이내 사용 가능 - (창업공간 임차료)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용 가능 - (국내·외 여비) 국외는 글로벌 특화 창업지원기관 팀에 한하여 집행 가능, 항공료·숙박비 중 50%는 자부담 원칙 - (활동비)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현 구입, 사무용품,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월 30만원 한도)
해양 수산부	청년어촌정책 지원사업 (2021)	- (자금 용도)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지자체 장에게 보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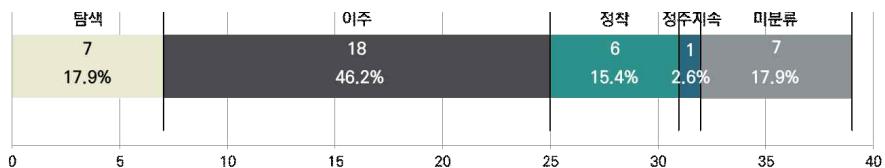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2019a), 행정안전부(2021), 중소벤처기업부(2021a), 농림축산식품부(2021b), 고용노동부(2021), 해양수산부(202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원시기)** 이주 단계에 대한 지원이 다수, 정주지속 단계에 대한 지원은 극히 소수

중앙정부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으로의 전입신고 여부보다 연령과 창업·창농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대상을 한정하거나(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청년혁신스타 육성대회’, LH ‘희망상가 제공’ 등) ‘영농 독립 경영 1~3년차 청년’ 또는 ‘어업경력 3년이하’로 한정하는 경우(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조건개선’,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등) 등이 있다.

일자리 지원, 사업화 및 비즈니스모델화 과정 지원 등 대체로 이주단계의 청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고(18개, 46.2%), 탐색단계(7개, 17.9%)와 정착단계(6 개, 15.4%)에 대한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주거나 사업 안정화 지원,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등 정착단계나 정주지속 단계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중앙정부 사업은 창업분야 지원이 많았으며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탐색, 이주 단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 정주지속 단계와 관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하나로 파악 되었고,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받은 청년몰의 사후지원과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및 도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정주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림 3-4] 중앙정부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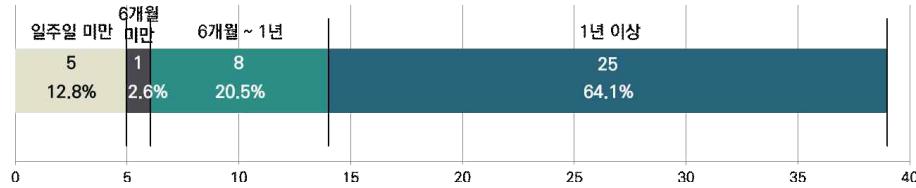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후속지원 마련은 소수로 파악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이 가장 많으며(25개, 64.1%), 일주일 미만(5개, 12.8%)이나 6개월 미만(1개, 2.6%)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종료 후 연속 또는 후속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7개(17.9%)에 그쳤다.

일주일 미만 사업은 멘토링·교육 또는 행사 및 경연대회 형태였으며(고용노동부 ‘소셜 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등), 1년 이상인 사업은 지원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및 금리지원 사업은 6년(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창업자금’), 8년(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10년(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이 비교적 장기간 지원하고 있다. 후속지원을 명시한 사업은 사업 평가 및 심사 단계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일부 사업은 후속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행정안전부 ‘청년 지역정착 신규밸굴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그림 3-5] 중앙정부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기간

출처 : 연구진 작성

- 타 부처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사업은 소수로 파악

지원기간 동안 타 부처 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3개(7.7%)에 불과하며, 국토교통부 ‘청년 스타트업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선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 □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7개의 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방이주 청년의 지역 탐색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총 118개를 조사하였으며, 경상북도의 31개 사업과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각 21개 사업 등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3-6]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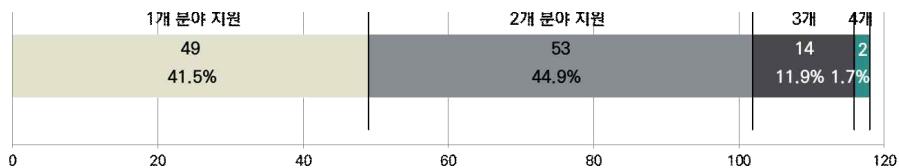
구분	정책/사업 명(총 118개)
서울특별시(2)	청정지역 프로젝트,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
강원도(7)	초기창업 지원사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청년4-H 농업아카데미,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등
충청북도(10)	충북청년 공공기관 한자리夔, 청년맞춤형 사회진출 교육프로그램 운영, 충청북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충청남도(2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청년학교, 커뮤니티),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등
전라북도(21)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전라남도(5)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관광 두레 지역협력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경상북도(31)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경북 청년CEO를 사업지원, 청년이 살고싶은 의성행복포레스트 등
경상남도(1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프로젝트),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직접),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8)	제주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 지원, 청년업(業) 토링 지원사업, 제주 청년 갭이어(Gapyear) 체험사업 등

\*전체 사업명은 부록 참고

출처 : 청년정책 통합검색,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검색일: 2021.2.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지원분야) 1~2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

118개 사업 중 단일분야를 지원하는 경우는 41.5%(49개), 2개 분야 지원 44.9%(53개), 3개 이상 분야 지원 13.6%(16개)로 나타났다. 교육분야(62개, 52.5%), 일자리분야(56개, 47.5%)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며, 교류활동 분야(23개, 19.5%)와 생활분야(11개, 9.3%)에 대한 지원은 적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분야 지원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등 4개 도에서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경상북도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등). 한편 강원도는 '창업지원'과 '교육지원'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지자체 청년관련 주요 사업 분야 중복지원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방식) 전문가 및 비용 지원방식 위주로 진행, 공간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음

지원방식은 교육 또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 가장 많았고(74개, 62.7%), 다음으로 인건비, 정착지원금 등 비용지원 많았다(69개, 58.5%). 이에 비해 공간지원(22개, 18.6%)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신규 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무상 혹은 낮은 임대료로 제공, 공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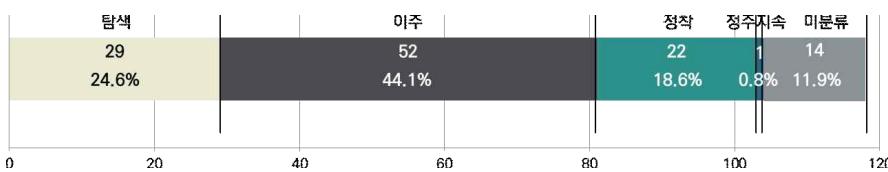
지자체 사업에서 공간 지원은 대부분 창업공간 및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거나(충청남도 '지역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등), 영농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습농장을 제공(충청남도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 농장')하는 등 지역에서의 취·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 (지원시기) 지역 거주 또는 기업 주소지를 등록한 이주청년 대상 정책이 대다수

경상북도 '지역기업 청년희망이음 지원사업'은 도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도내 소재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역에 유입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취업 연계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지원 사업은 대부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농업 및 어업 분야 경력 3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단계를 지원하고 지역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강원도 '초기창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는 지역 거주기간을 지원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전라북도 '청년 전북 NEW-WAVE 지원사업',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등), 지원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지원조건을 제시하는 사업도 있었다(충청북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지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등). 한편 전라남도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충청남도 ‘충남형 청년 캡이어 프로그램’은 타 지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청정지역 프로젝트’, ‘넥스트로컬 프로젝트’는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지방도시의 경험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탐색 기회 제공과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주단계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많았고(52개 사업, 44.1%), 탐색단계(29개 사업, 24.6%), 정착단계(22개 사업, 1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업 자생력 강화 등 정주지속 단계에 대한 지원(1개, 0.8%)은 매우 적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강원도의 ‘창업도약 지원 사업’이 유일하며, 이는 기업의 도약기(3~7년) 극복을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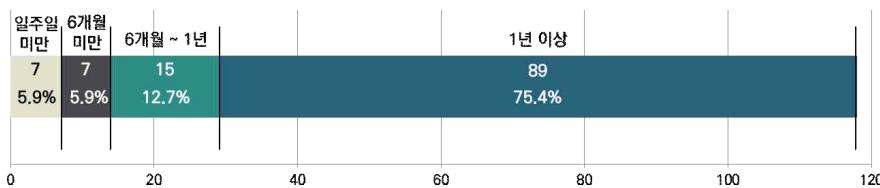


[그림 3-7] 지자체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시기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기간) 1년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후속지원 마련은 소수로 파악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이 대부분(89개 사업, 75.4%)이었으며, 일부 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도 있었다(경상남도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경상북도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등). 일주일 미만의 사업은 교육프로그램, 기업탐방 및 취업알선 행사 형식으로 나타났다(충청북도 ‘충북청년 공공기관 한자리愛’, 전라북도 ‘청년친화일자리매칭사업’ 등). 공간조성 지원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최대 3년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경상북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 ‘이웃사촌시범마을 청년주거 공간조성’ 등). 후속지원이 있는 경우는 12.7%로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근속 유지 및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에 나타났다(경상남도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그림 3-8] 지자체 청년관련 주요 사업 지원기간

출처 : 연구진 작성

## 2. 청년의 지방이주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정책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중에서 지방이주와 관련하여 지역 탐색 및 정착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았다. 특히, 공간지원이 가능한 사업, 외지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유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3-7]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지원정책 조사대상 개요

구분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방식	지원시기	지원기간
중앙정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일자리+ 생활+교육	공간+비용 +전문가	탐색+이주 +정착	1년 이상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창업+일자리+ 생활+교육	공간+비용 +전문가	탐색+이주	6개월~ 1년
	중소벤처 기업부 활성화 사업	창업+교육	비용+전문 가(공간)	이주+정착	6개월
지자체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창업+일자리+ 생활+교육	비용+전문 가(공간)	탐색	1년
충청남도	충남형 청년캡이어 프로그램	생활+교육	공간+비용 +전문가	탐색	1년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창업+생활+ 교육	공간+비용 +전문가	탐색+이주	1년

출처 : 연구진 작성

### 1) 중앙정부 사업

#### 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 □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청년고용 창출 및 취·창업을 통해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p>8)</sup> 이 사업은 지역청년의 대도시 이주로 인해 지역기업 인력 확보가 어렵고 중앙부처의 하향식·일률적 사업으로는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sup>9)</sup>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 문화·복지·안전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514>, 검색일 : 2021.6.6.)

9) 행정안전부(2019b, 8월 20일 보도자료)

로 하고 있다.<sup>10)</sup>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sup>11)</sup>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창업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복지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3-8]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유형

유형	사업개요	근무지	지원 기간	지원내용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지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과 단체	2년+ 1년*	- 일자리 마련 - 임금 지원(연 2,400만원 내외) - 주거, 교통, 복지 혜택 지원 - 마케팅, 문서작성 등 <u>직무교육비 지원</u>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창업공간이나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창업희망 청년은 공동창업공간 입주 기회 제공, 취업희망 청년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	2년	- 창업관련 비용 지원(임대료 등) - 공동창업공간 입주 지원 - 취업을 위한 다양한 비용 지원 - 교육, 컨설팅, 직무교육 지원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취·창업 지원	청년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교육, 환경, 안전, 문화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1년**	-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원 -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지원

\*3년차에 해당 지역 내 취·창업 시, 1년 추가 지원,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출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rtf/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검색일 : 2021.6.6.) 참고

## □ 지원 특성

- 탐색 및 이주단계의 청년들을 주로 지원, 추가 지원을 통한 정착 유도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출신지역 및 거주지역 제한이 없으나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역정착지원형 및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지역 법인이나 단체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서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단계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취업연계형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창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탐색 및 이주단계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3년으로 지역으로 이주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3년차에 지역 내 취·창업 시 1년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이주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514>, 검색일 : 2021.6.6.)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514>, 검색일 : 2021.6.6.)

- 창업·일자리·교육·생활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취·창업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일자리 마련 및 취업관련 비용 지원, 임금지원의 방식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관련 비용 지원, 공동창업공간 입주 지원,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식의 창업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의 직무교육 지원 등 공간, 비용 및 전문가를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교통, 복지혜택 지원 등의 생활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 □ 주요 사례

각 유형별로 주요 사례는 전라남도 ‘마을로 프로젝트’,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이 있다.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지역정착지원형)는 마을사업장(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과 미취업청년을 1:1 매칭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는 외지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을 건설하고,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민간취업연계형)은 교육과 노동이 단절된 이행기 청년에 대해 직무현장 일 경험과 급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진입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 3-9]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주요 사례(2019)

구분	전남 마을로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기간	2017. 11. ~ 2020.3 (2023까지 지원)	2017.2.8. ~ 2020.7. (2018.8~ 국비사업)	2013 ~ 계속
사업목적	마을사업장 청년고용 및 정착지원	도시청년의 지역유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 활력 촉진	청년고용 및 신규서비스 제공
대상연령	만 18~39세	만 15~39세	만 19~34세
참가인원	1,000명(기준 500명, 신규 500명)	200명(2년차 100명, 신규 100명)	1,000명(500명 6개월씩 2기수 운영)
취·창업 분야	시·군이 추천한 마을사업장 195개	게스트하우스, 카페, 디자인 상품 제작 등	6개 분야(공공기관, 민간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지원내용	청년인건비(월180~200만원), 교통·숙박비(월30만원), 직무교육, 청년 교류 활동지원, 사업장 컨설팅 등	정착비 및 사업화자금* 지원 (연 30백만원/인) *사업화자금(간접지원), 정착활동비(자율지원)	청년 인건비(광주 생활임금 시간당 10,090원 적용), 일경험 직무현장 제공, 상담 및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기간	최대 2년	최대 2년	사업에 따라 다양(1년 내)
성과	195개 사업장, 500명 취업	도외 지역청년 74명 증가 평균경쟁률 6.3대1	1·2기 각 140명, 3기 250명, 4기 523명, 5·6기 각500명
예산	370억원 (국비 123억원)	65억원 (국비 19억원)	약 80억원 (국비28.5억원)

출처 : 행정안전부(2019b, 8월 20일 보도자료)

## □ 지방이주 및 정착 효과

본 사업은 창업 및 일자리 연계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8월 기준 사업의 결과로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713명) 중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을 대상으로 2년간 일자리를 제공, 이 중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81.4%로 나타났으며,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 이 중 68%가 예비창업자였으며, 예비창업자 중 85.9%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지원기간이 종료된 40% 인원 중 42.6%가 민간 취업연계를 통해 취업하였다.<sup>12)</sup>

## ②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 □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2018년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목포 팬찮아마을)’와 2019년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서천 삶기술학교)’, 2020년 ‘청년 지역정착 신규발굴 용역사업(문경 달빛탐사대)’에 이어 2021년 사업의 규모를 12개소로 확장하여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하였다. 본 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청년마을은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사업 참여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곳으로 선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sup>13)</sup>

2021년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인천 강화군 강화읍 등 총 12개 지역에 각각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8개월 간 공간조성 및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동,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는 총 지원금 5억 중 30% 이하로 편성, 공간조성,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동, 각종 행사 및 홍보비 등의 사업비를 60% 이상으로 편성도록 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을 할애하도록 하였다.

12) 행정안전부(2019b, 8월 20일 보도자료)

13) 행정안전부(2021a, p.1)

[표 3-10]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간조성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 조성
프로그램운영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홍보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출처 : 행정안전부(2021a, p.1)

각 지역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공간 이외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공간을 다수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시주거 수요가 발생하면서 거주공간을 새로이 조성하는 곳이 많았으며, 임대 및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남 괴산에서는 2021년 말 3개 공간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공공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표 3-11]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한 공간조성 현황

구분	기존 지역 내 청년활동공간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조성한 공간	
		민간 조성	공공 조성
인천	거주공간 1개소	거주공간 3개소	-
강화군	업무·창업/커뮤니티공간 1개소 업무·창업/지원공간 1개소		
울산	지원공간 1개소	거주공간 1개소	-
울주군		업무·창업공간 1개소 업무·창업/지원공간 1개소	
충북	업무·창업/지원공간 1개소	업무·창업공간 1개소	-
괴산군		커뮤니티공간 2개소 (계획: 거주공간 1개소)	
충남	거주공간 2개소	거주공간 2개소	-
공주시	업무·창업공간 2개소 커뮤니티공간 2개소	커뮤니티공간 2개소	
전북	거주/지원공간 1개소	업무·창업공간 1개소	-
원주군		커뮤니티공간 1개소	
전남	-	거주공간 1개소	지원공간 1개소
신안군		업무·창업공간 1개소 커뮤니티공간 2개소	
경북	-	거주공간 1개소	거주공간 1개소 업무·창업/커뮤니티공간 1개소 커뮤니티공간 1개소

출처 : 지역별 사업 운영사 홈페이지 참고, 운영사 담당자 유선 인터뷰를 통해 7개소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 □ 지원 특성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출신지역 및 거주 지역 제한은 없으며, 청년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구성원 중 청년(각 자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제한하

고 있다. 청년단체는 해당 시·군·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문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협업을 유도하고 있다.

- 창업·일자리·교육·생활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창업공동체 형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등 창업지원 성격이 강함

사업 내용은 취·창업 공간 조성, 창업 교육 등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과, 주거공간 조성 등 생활 지원, 지역 탐방 및 문화 활동, 교류·협력 활동 등의 교류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의 지원방식은 공간지원, 전문가지원, 비용지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선정 지자체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차이가 있으나, 선정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개 창업 및 창직 지원, 창업공동체 형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등 창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탐색 단계의 청년들을 주로 지원

지원 기간은 8개월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탐색 경험을 제공,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창업 모델 발굴 등 이주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 □ 지방이주 및 정착 효과

2021년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8~2020년 3개 년도에 각각 목포, 서천, 문경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 사업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100명(목포), 176명(서천), 77명(문경)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34명(목포), 63명(서천), 9명(문경)이 지역에 이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그 중에서 10명(목포), 3명(서천), 5팀(문경)이 각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sup>14)</sup>

## ③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 □ 사업 개요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sup>15)</sup>를 육성하

14) 이기태(2021), 정재우(2020, 11월 30일 기사), 이진백(2021, 9월 14일 기사)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5)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서,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スマ트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의 7대 분야를 구분하고 있음(중소벤처기업부, 2020)

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업력 7년 이내의 (예비)로컬크리에이터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에 따라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국비 총 4,400백만 원, 2021년에는 국비 총 8,80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유형 및 개요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b>2020년도</b>			
일반형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1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일반형 (지역특구연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민간투자 연계형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5천만원)
<b>2021년도</b>			
예비창업 트랙	예비창업자	5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기 창업 트랙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0), 중소벤처기업부(2021b)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거점브랜드 - 주식회사 퍼즐랩

- (지역) 충남
- (활용지역자원) 원도심 원도심 유휴공간(공주시 감영길 12)
- (아이템) “충청권 로컬크리에이터 푸드마켓 플랫폼”
  - 공주와 충청권 식음료/농업 관련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생산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 및 한 곳에서 경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푸드마켓 플랫폼

#### 지역특화관광 - 소호259 호텔

- (지역) 강원
- (지역활용자원) 속초 갯배, 관광수산시장, 등대해수욕장, 영랑호 등 속초 관광지
- (아이템) “속초 라이프밸리”
  - 속초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골목길 도슨트 투어, 기념품 제작 원데이 클래스, 로컬음식 요리체험 등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액티비티 프로그램 제공

#### 자연친화활동- 주식회사 라온서피리조트

- (지역) 강원
- (활용지역자원) 강원도 동해바다 유휴해변
- (아이템) “유휴해변 및 공유지 활용을 통한 해양레저 융복합공간 조성”
  - 미운영 해변 및 공유지 활용을 통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해양레저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강원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개발 거점 확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1, 6월 7일 보도자료)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로서 사업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의 서비스·시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6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지원받은 사업화자금은 재료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로컬크리에이터

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 □ 지원 특성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으로의 유입 및 이주를 유도

본 사업은 공모 신청 당시의 출신지역 및 거주 지역 제한은 없으나, 사업 기간 내 활용자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창업지원 성격이 강하며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가 교육 지원 방식

지원분야는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창업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비용지원과 전문가 지원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으로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주 단계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받은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개발, 공간기획, 지식재산권 취득, 생산설비 마련 등의 창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지방이주 및 정착 효과

2021년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는 로컬푸드(62개, 24.5%)와 지역기반제조(54개, 21.6%)의 비중이 높았으며, 지역가치(46개, 18.4%), 거점브랜드(30개, 12.0%), 지역특화관광(28개, 11.2%), 자연친화활동(17개, 6.8%), 디지털문화체험(13개, 5.2%) 순으로 나타났다.<sup>16)</sup> 그 중에서 20~30대 비율이 전체 연령의 56%를 차지하며, 예비창업자 유형에 청년이 49.2%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도에는 사업자등록 상 본점 소재지가 활용하는 자원이 속한 지역(17개시도)에 위치한 경우로 제한하여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정착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반면, 2021년도의 경우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신규 등록(예비창업자) 또는 변경(기창업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선정된 사업체 중 외지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6) 중소벤처기업부(2021c, 6월 7일 보도자료)

## 2) 지자체 사업

### ①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프로그램)

#### □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과에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창직·창업의 꿈을 가진 서울 청년들이 지역의 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거주청년(만19~39세),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을 통해서 지방 청년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13]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연도별 개요

운영기관	지원기간	지원대상	활동지역	지원내용
2019년(1기)*				
언더독스 (교육기관: 어리운디)	'19. 9 ~ '20. 4 (약 8개월)	- 서울시 거주청년 (만 19~39 세 이하) 지역**	8개	- 지역자원조사 실비지원 :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활동비 최대 100만원/인(2개월, 지역간 이동교통비)
2020년(2기)				- 창업 육성 교육 :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전 워크숍 및 창업육성 교육 지원
언더독스	'20. 6 ~ '21. 2 (약 8개월)	- 서울시 거주청년 (만 19~39 세 이하) 지역***	13개	- 사업모델화 지원: (1차) 최대 20,000천원(50여팀), (2차) 최대 50,000천원(20팀 내외) ※ 기업(팀)당 최대 7천만원 사업비 지원
2021년(3기)				- 전문창업 멘토링 : 창업육성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일차 코칭 진행
언더독스	'21. 5 ~ '21.12 (약 8개월)	- 서울시 거주청년 (만 19~39 세 이하) 지역****	11개 - 개인 또는 3인 내외 - 100개 내외 창업팀 (총 200명 내외)	- 지역자원 연계 및 네트워킹 : 지역별 책임실무자 및 현장전문가, 지원기관 네트워킹

\*1기 사업은 지역자원연계형, 로컬 라이프스타일 제안형, 지역문제 해결형, 기타 자유제안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강원(영월, 춘천) 전북(군산, 완주) 충남(금산, 논산) 경북(상주, 의성), \*\*\*강원(영월, 평창), 충남(홍성), 전북(고창), 전남(목포, 나주, 강진, 영광), 경북(경주, 의성), 경남(고성, 합천), 제주, \*\*\*\*강원(강릉, 영월), 충남(공주), 전남(목포, 나주, 강진), 경북(경주, 문경, 의성), 경남(고성),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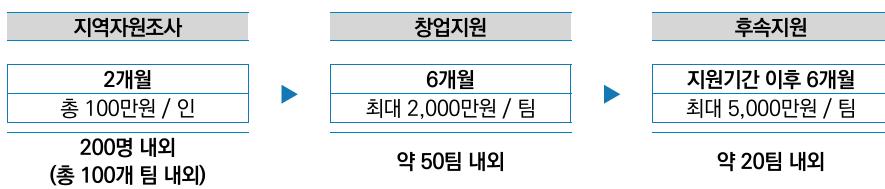
출처 : 지역연계형 창직·창업, 서울특별시(2019년: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3713>, 2020년: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286>, 2021년: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339>, 검색일 : 2021.6.1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활동비(교통비), 워크숍 및 창업 육성 교육, 사업모델화를 위한 사업비, 전문창업 멘토링, 지역별 책임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육성 교육 및 사업모델화 이전에 2개월 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자원 조사와 실시하고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8개월이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기간 이후 20팀 내외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후속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활동지역은 전국 8~13개 지자체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지역 경험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1기 전국 8개 지역, 2기 13개, 3기 11개 지역). 공유오피스, 협업공간, 회의공간, 청년센터 공간 사용 등의 지자체의 공간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광문화자원 탐색에 필요한 자료 및 해설프로그램 지원 등 유관부서 지원, 지역자원조사 시식비·교통비·숙박비 등 실비 지원, 지역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지원,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3-14]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진행 과정



출처 : 서울특별시(2021b,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960호)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지원 특성

- 지역경험 제공,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탐색 및 이주 단계 지원에 해당

본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한 조건은 없다.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지역 경험을 제공,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모델화 하는 탐색 및 이주 단계에 대한 지원에 해당한다.

- 창업 및 교육 지원 성격이 강하며,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유입 효과를 기대

창업 및 교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책임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혜택 사항에 따라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등의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별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창업 및 교육, 교류활동지원은 주로 비용 및 전문가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역별 혜택 사항 중 지역 내 공유오피스, 협업공간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공간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지원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한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으로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충청남도 충남형 청년캡이어 프로그램

## □ 사업 개요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에서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충남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의 경로를 찾

을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 정착·자립기반 마련으로 지역 관계망 형성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청년들의 삶의 경로 탐색과 확장을 통한 역량강화와 자기성장 유도, 타 지역 청년들에게 충남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모 선정 결과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에서 선정, 타시도 청년 76명(부여군 14명, 청양군 20명, 태안군 42명)이 참가하였다.<sup>17)</sup>

지역탐방 및 시군 문화관광지,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는 필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자체 기획의도에 맞게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충남에 관심이 있고 이 주를 고려중인 충남 외 지역 청년에게 2~4주 동안 주거·생활공간과 지역교류 활동, 일자리 체험 등을 제공하였으며, 참가자 숙박비, 생활비(식비 및 교통비), 주민교류행사 및 현장견학 체험·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1인 기준 1일 70,000원 한도, 최대 30일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타 여행자 보험료, 사업·모니터링비, 컨설팅비, 홍보비, 기타 운영경비 등 사업 관리비를 각 시·군에 운영비로 지원하였다.

#### □ 주요 사례

충남 태안 캡이어 프로그램은 ‘5락발전소 문화도 예술리’가 진행되었으며, 태안군 예술리 마을에 있는 아트 리조트에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청년 및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하였다. 예술휴가 및 예술협업을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 예비예술인, 문화예술 기획자, 예술을 사랑하는 청년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숙소 및 식사 제공, 태안 명소 탐방, 태안 체험 활동, 예술협업 및 수업참여, 명사초청 강의, 공연 기회를 지원하였다.

[표 3-15] 충남 태안 캡이어 프로그램 5락발전소 ‘문화도 예술리’ 개요

운영기관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입주장소	지원내용
5락발전소	2021.7.1 ~ 14(2주)	충청남도 외 지역거주 인 청년 및 청년예술가 (만19세~만 39세)	충남 태안 새섬리조트(5락 발전소)	숙소 및 식사 제공, 태안 명소 탐방, 태안 체험 활동, 예술협업 및 수업참여, 명사초청 강의, 공연 등

출처 : 충남 태안 캡이어프로그램 5락발전소 ‘문화도 예술리’ 지원자 공모, 5락발전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ssom\\_land/222356373719](https://blog.naver.com/blossom_land/222356373719) (검색일 : 2021.12.1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지원 특성

- 일자리나 창업 지원 없이 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탐색 경험 제공

본 사업은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한 조건 없이 지역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일

17)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전화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2021.9.29.)

자리나 창업 지원 없이 2주~4주간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탐색 단계에 대한 지원에 해당한다.

- 숙소, 식사, 교통 등의 생활 지원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활동 지원에 초점

2~4주 동안 지역 탐색을 위해 숙소, 식사, 교통 등의 생활비가 지원되며, 지역의 문화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및 교류활동지원은 주로 비용 및 전문가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 임시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의 여행 및 문화체험활동을 지원받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이주하지 않더라도 관계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③ 전라남도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 □ 사업 개요

2020년에 전라남도에서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외지청년 지원·육성 사업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을 통해 외지청년이 60일 이상 전남에서 살면서 지역 농산물, 관광자원 등을 창업아이템으로 발굴해 창업에서 정착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각 지역의 청년단체는 외지 청년들과 교류·협업을 통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청년창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조사부터 초기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을 지원하고 숙소·제작비 등을 지원하며 지역의 청년 멘토와 분야별 전문가들도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공모 결과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이 선정, 각 시·군 소재의 3개 청년단체에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sup>18)</sup> 순천시는 순천역 인근을 무대로 도시재생에 기반한 관광, 제조, 서비스업, 여수시 한려동, 종화동 지역을 중심의 여행 콘텐츠 사업, 영광군의 지역자원을 청끔공방거리, 청년창업단지와 연계 추진하는 창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sup>19)</sup>

순천시의 경우는 3개월 간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지원, 도시재생에 기반한 창업을 주제로 재생건축, 재생관광, 재생제조 분야로 청년을 모집하였다. 사업 기간 내 청년들에게 숙박 등의 생활지원, 사무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지원, 전문가 멘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지원, 지역청년들과의 교류활동 지원을 주요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다.

18) 여수시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는 선정 결과 이후 추진된 내용에 대해 공개되지 않음

19) 전라남도(2020, 2월 28일 보도자료)

반면, 영광군의 경우는 2개월 간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지원, 청년 창업 지원을 주제로 청년을 모집하였다. 사업 기간 내 청년들에게 숙박 제공, 차량 지원 등 생활지원과, 사무 공간 제공 및 시제품 개발지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창업창직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교육지원, 지역청년교류캠프 참여를 통한 교류활동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16] 전라남도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선정 결과

지자체	운영기관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순천시	(주)다해브러	2020.7~9 (3개월간)	창업을 희망하는 전남 외 청년 20명 (주민등록상 전남 외 거주자)	- 사업 기간 내 숙박 제공 - 창업 사무공간 제공 - 전문가 멘토 컨설팅 -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선진지 견학 및 현장 답사 - 청년 지원사업 참여
영광군	깨끗한 인연 청연	2020.9~10 (2개월간)  *주 3~4일 지역에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타시도 거주 청년 창업팀	- 숙박 무료 제공 - 시제품 개발비 지원 - 공유 사무공간 지원 - 지역지원 조사차량 지원 - 지역청년교류캠프 참여 지원 - 창업창직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출처 : (주)다해브러([http://dahaebro.co.kr/gnu/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57](http://dahaebro.co.kr/gnu/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57)), 영광군 관광을 e롭게 청년창업아이디어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lorygg30days>) (검색일 : 2021.12.10.)

## □ 지원 특성

- 지역살이 프로그램 제공, 창업아이템 발굴 등 탐색 및 이주 단계 지원에 해당

본 사업은 전라남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등의 조건 없이 지역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주로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관심 있는 외지 청년들이 2~3개월 간 지역지원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경험을 제공하는 탐색 단계에 대한 지원에 해당한다.

- 창업지원, 생활지원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활동 지원에 초점

지역살이 기간 동안 지역 탐색을 위해 숙소, 식사, 교통 등의 생활비 및 생활공간이 지원되며, 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 지원,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크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및 교류활동지원은 주로 비용 및 전문가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 임시주거 공간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은 군단위 지역에서 열악한 교통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생활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살이 경험 및 지역지원 조사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사업화 및 사업 안정화로 연결된다면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3. 일본의 지방이주 지원정책

#### 1)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일본의 정책 추진 현황

##### □ 도쿄권 인구 집중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창생 정책 추진

일본의 총 인구는 2015년 1억 2,709만 명이었으며 이후 장기 인구 감소 과정에 진입하여 2040년 1억 1092만 명, 2053년에는 1억 명을 밑돌아 9,942만 명, 2064년에는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20)</sup> 2014년 6월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 검토위원회는 2040년까지 전국 약 1,800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중 절반가량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통칭 마스타 리포트)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마스다 리포트가 나온 직후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4년 9월 내각관방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였다.<sup>21)</sup> 지방창생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도쿄 집중화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지역 특성에 입각한 문제 해결,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적 흐름 만들기, 마을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2)</sup>

##### □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이주 및 정착 촉진, 관계인구 창출·확대 정책

일본 내각부는 ‘제1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15-2019)’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체계를 개선하여 2018년 12월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2024)’을 발표하였다. 제2기 계획에서는 ‘지방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는 기본목표에 따라 기존 지방이주 및 정착 관련 시책과 함께 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과의 관계 구축’은 지방창생의 당사자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또는 지역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구’를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이주 추진을 위해 UIJT에 의한 창업 및 취업자 창출(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 지역부흥협력대 확충), 지방생활의 매력 홍보, 지방거주의 본격 추진(시험거주용 주택제공, 빙집활용, 기존주택 유통촉진책, 농지 취득, 임대주택 개수지원 등) 관련

20)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7, p.1)

21) 川北泰信(2016, pp.7-8)

22)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2019, p.1, pp.14-1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sup>23)</sup>

한편 ‘제2차 국토형성계획(2015 각의결정)’에서는 각 지역이 개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지역이 연계하여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류촉진형 국토’ 형성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책 마련을 위해 국토심의회 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국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sup>24)</sup>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을 지키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국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와 지방의 대류를 통해 지역의 과제해결 방향으로서 이주, 이지역거주, 관계인구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재생, 내발적 발전을 지지하는 지역만들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활동인구 증가를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사람’, ‘장소’, ‘시스템’의 3가지가 요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3-17]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국토’ 실현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창조의 필요 요소

구분	주요방향
‘사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결(つながり) 서포터, 커뮤니티 디자이너 등 육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이주·정주 촉진,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연결 서포터 필요</li><li>-지역주민이 스스로 장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프로세스 디자인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디자이너 필요</li></ul></li><li>매스 로컬리즘(지역 간 학습)을 통한 인재육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만들기 담당자 확보를 위해 내부인재 육성과 관계인구 확충 필요</li><li>-지역과 지역, 지역과 조직 간 연계 등 매스 로컬리즘 전개 필요</li></ul></li><li>연결 만들기를 위한 공간(새로운 커뮤니티 창조공간) 형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카페, 책방, 도서관, 코인 렌더리, 목욕시설, 코워킹스페이스 등을 복합 정비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창조 공간 형성</li><li>-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의 공간 설치 및 운영, 기존 스톡 활용 등 가능</li></ul></li><li>관계인구를 위한 체류시설 정비<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주, 이지역거주, 취업, 지역활동 참가 등 도시주민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관계인구가 될 수 있도록 체류시설 확보 필요</li></ul></li><li>작은 거점 기능 악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기능과 교통 네트워크 결절점인 작은 거점 활용</li><li>-사람들 간 연결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 융합화 추진</li></ul></li></ul>
‘장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계별 프로세스 디자인 및 연결 서포트 기능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인구와 지역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축에 따른 대응 필요</li></ul></li><li>공유경제 활용</li></ul>
‘시스템’ 만들기	

출처 : 国土審議会 計画推進部会 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2018, pp.5-8)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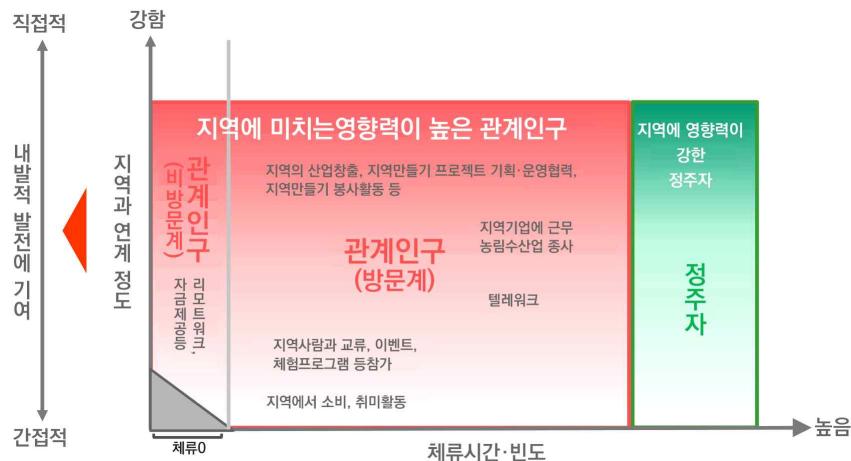
## □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만들기 정책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속교통 네트워크 발전으로 지방부의 지역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소도시와 주변 지역의 대응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관계인구<sup>25)</sup>’를 확대하여 지역의 활동력을 높여가는

23)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2018, p.25, pp.39-48)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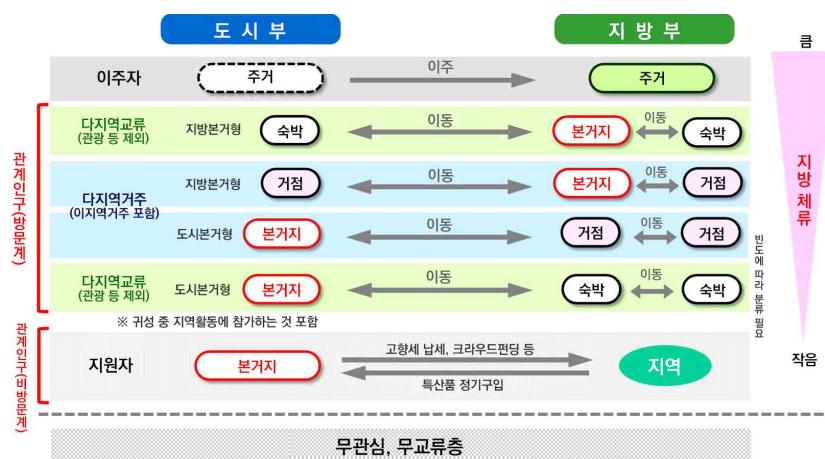
24) 国土審議会 計画推進部会 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2018, p.1)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근무방식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텔레워크 확대, 개인 가치관이나 인생관 측면에서도 1개소 거주에서 다지역 거주자나 특정 거주지를 갖지 않는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의 등장 등 일본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sup>26)</sup>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다.



[그림 3-9] 관계인구와 지역과의 관계

출처 :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2021, p.3)



[그림 3-10] 도시와 지역을 왕래하는 관계인구

출처 :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2021, p.9)

- 25) 관계인구는 지역 산업 창출, 지역만들기 프로젝트의 기획·운영 협력, 봉사활동 참가, 지역기업 근무, 농림수산업 종사 등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부터 텔레워크나 부업 종사, 지역주민과의 교류,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참가, 지역에서 소비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 등 다양하다.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 2021, p.3)

- 26)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2021, p.7, p.10) 참고

### 지역의 사람과 관계인구를 연결하는 관계 안내인 중간지원조직 (사람)

- 관계안내인 : 지역주민과 관계인구가 만남을 디자인 하는 사람
- 관계안내인 동기 유지 및 안내인 간 매칭, 안내인 육성 구조 등 필요
- 관계안내인은 지역을 벗어난 경험이 있으며, 도시와 지방의 시점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지역의 사람과 관계 인구가 우발적으로 만나 연계·협동한 관계 안내소(장)

- 관계안내소 :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의 접촉률이 높아지는 장소
  - 가상공간 포함
  -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해 지역과 관계인구가 함께 장소를 만들 수 있음
- 지역 주민과 관계인구가 교류하는 완충지대 역할

### 지역의 사람과 관계인구의 거리를 좁히는 이벤트(구조)

- 연결을 통해 공동가치 창조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벤트, 기획 등 디자인과 이야기를 가진 콘텐츠 작성
-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 하는 이벤트 등 고착성을 마련할 필요
- 인적 네트워크나 온라인을 활용, 광역적 범위에서는 사람을 모아 안내하는 구조 필요

출처 :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2021, pp.46-52)

관계인구 관련 일본 정부 시책으로는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이외에 고향 텔레워크 추진 사업, 지역 부흥 기업인 교류 프로그램, 시범 새틀라이트 오피스, 고향 워킹 홀리데이 추진 사업, 고향세 납세 제도화 등이 있다.<sup>27)</sup> 관계인구 창출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총무성에 추진하고 있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외 사람이 관계인구가 되는 기회,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대응책을 지원하며 관계인구와 지역 간 협동사업이나 지역활성화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기업, 겸업이나 부업인재, NPO,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과 협동하는 관계인구로서 지역커뮤니티 유지·재생·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문화, 교육 등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을 추진한다. 관계인구 증가는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해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가치 발생, 내발적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주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sup>28)</sup>

[표 3-18]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종양부처별 대응방안

구분	분석항목
내각관방/ 내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계 LABO (관계인구 창출·확대 관민연계 전국협의회) :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해 전국 중간지원단체, 민간사업자,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립(2020.10.16.)</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계인구 포럼 개최(2020.10.16.)</li><li>• 중간지원조직 제안형 모델사업(2020~) : 민간사업자에 의한 도시주민-지역 매칭 지원</li></ul>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계인구 포털사이트 운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계인구 창출사업(2018),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 모델사업(2020)</li><li>• 라이프스타일 다양화에 관한 간담회(2018-2020) : 지역의 활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li></ul>
국토교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라이프스타일 다양화와 관계인구에 관한 간담회(2020-2021) : 관계인구와 연계·협동하는 지역만들기</li></ul>

출처 : 関係人口の創出・拡大、まち・ひと・仕事創生本部(<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index.html>, 검색일 : 2021.12.1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7) 一般社団法人中国経済連合会(2020, p.12)

28) 総務省(2020, pp.1-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인구감소지역의 종합적·계획적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치 마련

일본 총무성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이나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한 과소지역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2021년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sup>29)</sup>

과소지역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열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사회의 인재 확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화, 교통기능 확보 및 향상, 의료 제공 체계 확보, 교육환경 정비, 취락 유지 및 활성화, 농지, 산림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는 지역이다.<sup>30)</sup> 이주자 증가나 혁신 기술 창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균무방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과소지역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과소지역 자립을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과 지역지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본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조치를 마련하였다.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고 인재 확보 및 육성, 고용 기회 확충, 주민 복지 향상, 지역 격차 시정을 위한 지원조치가 개선되었다.<sup>31)</sup>

### 일본 과소지역의 요건 및 지원조치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과소지역의 요건(2조, 3조, 41조~32조)

- 시정촌별 '인구 요건' 및 '재정력 요건'으로 판정

#### <검토 포인트>

- 장기 인구감소율의 기준연도를 수정 (1960년→1970년)
- 재정력이 낮은 시정촌에 대한 장기 인구감소율 요건을 완화 (28%→23%)
- 헤세이(平成) 합병으로 인해 합병된 시정촌은 '일부과소' 요건을 설정 (재정력 지수는 시정촌 평균 0.51이하는 아니지만 시 평균 0.64 이하)
- 구 법의 과소지역 대상으로 장기 인구감소율의 기준연도(1960)를 병용, '과소로 가정' 계속 조치

#### 지원조치(12조~40조)

- 국세 특례·지방세 감수보전조치 : 업종에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 신·증설 이외 개축, 수선 등 추가
- 도도부현대행(기간도로, 공공하수도) : 기간도로에 관하여 도도부현이 시정촌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받을 수 있도록 명확화
- 배려조치 : 시정촌 제안이 있는 경우 규제 검토 배려 등 배려조치 총실행
- 과소대책사업체 :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조치 계속
- 국고보조율 인상 : 공립 초·중학교, 보육소 등에 관한 국고보조율 인상 계속

출처 : 総務省(2021, p.1)

29)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令和三年法律第十九号, 이 법은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조치법」이 2021년 3월을 기한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제정한 법률이다.)로서 시정촌별 인구 요건과 재정력 요건에 따라 과소지역을 판정하게 된다.)

30)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令和三年法律第十九号

31)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令和三年法律第十九号, 総務省(2021, p.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 인구감소지역 정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례

### □ 중앙부처의 지원정책

- 총무성의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제도

지역부흥협력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지역력 유지·강화를 위해 지역 외 인재를 유치하여 정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9년 시작되었다.<sup>32)</sup>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으로 주민표를 이동하고 생활거점을 옮기는 자를 지자체 '지역 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하고 지역브랜드와 지역상품 개발·판매·PR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 등을 지원한다.

2009년에서 2019년까지 전국의 대원은 총 5,503명으로 약 70%가 20~30대이며 그 중 40%는 여성회원이고, 약 60%가 임기 종료 후 지역에 정주해 그 중 40%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3)</sup> 활동기간은 1~3년으로 1인당 440만엔(상한)의 재정 지원과 함께 지자체나 서포트 데스크를 통한 상담, 각종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기 후 창업 희망자를 위한 보조제도가 있다.

지역부흥협력대의 성과를 보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를 결심하고 임기 종료 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주하지는 않지만 지역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외부 서포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 한 사람의 활동이 다양한 활동으로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 중복 응모할 수 있어 조건이 좋은 지역 또는 자신에게 맞는 지역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기 종료 후 활동지역 인근에서의 정주율이 저하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일반 이주자에 비해 대원으로 활동한 경우 지역 내 주거 확보는 유리하지만 다른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원의 대부분이 IT인한 사람으로 한번 정주한 경우 계속해서 지역에 정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과의 연대가 약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sup>34)</sup>

---

32) 地域おこし協力隊推進要綱(總行応第77号)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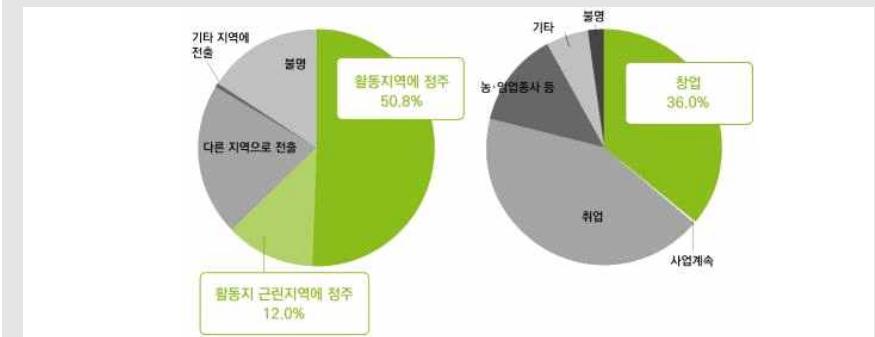
33) 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202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4) 田口太郎(2018, pp.162-163), 正岡利朗(2018, pp.7-9)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019년 지역부흥협력대 임기 종료 후 현황

### 임기종료 후 정주율

- 임기종료 후 약 60%가 활동한 지자체나 인근 지역에 정주
- (창업) 동일 시정촌 내 정주하는 경우 약 30%에 해당, 고민가 카페나 농가 레스토랑 등 음식서비스업,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지역특산품 식품가공업 등으로 활동
- (취업) 행정관련 업무, 관광업과 농산어업,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지원업 등 지역 관련 업무 종사자가 많음



### 임기종료 후 정주한 대원 동향

- (창업) 음식서비스업(151명), 미술가, 디자이너, 사진가, 영상촬영자(110명), 숙박업(104명), 6차산업(79명), 소매업(73명), 관광업(51명), 마을만들기지원업(42명) 등
- (취업) 행정관련(302명), 관광업(120명), 농림어업(86명), 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지원업(74명), 의료·복지업(53명), 소매업(46명), 제조업(43명), 교육업(36명), 음식업(33명) 등
- (농·임업 종사) 농업(262명), 임업(31명), 축산업(12명), 어업·수산업(42명) 등
- (사업계속) 주조 계승, 민박 계승 등(11명)

출처 : 地域おこし協力隊Handbook. 総務省.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915.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915.pdf)

(검색일 : 2021.6.6.)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부흥협력대 인턴제도, 정주 지원 강화, 해외 체류자 대상 지역요건 완화 등을 마련하였다. 인턴제도는 대원으로서의 활동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2주에서 3개월 간 지역부흥협력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주 지원 강화책으로서는 대원 임기 후 주거 확보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 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정주를 위한 빙집 개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조치율 0.5)하는 특별교부세를 마련하였다.<sup>35)</sup>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외 지역력 창조 및 지방재생을 위한 총무성의 인재활용사업으로 집락지원원, 부흥지원원, 지역인재넷(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지역활성화기업인(2020년까지 지역부흥기업인) 제도가 있다<sup>36).</sup>

- 국토교통성의 이지역거주(二地域居住)

이지역거주는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 지방 진흥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유치·유도,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 중인 국토교통성의 정책이다. 도시와 지방 등 두 지역에 주

35) 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2021, p.16)

36) 地域力の創造・地方の再生, 総務省,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02gyosei08\\_03000073.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02gyosei08_03000073.html) (검색일 : 2021.6.21.)

거를 두고 생활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주된 생활 거점과는 다른 특정 지역에 생활 거점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연간 대략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보내기도 한다.<sup>37)</sup> 평일은 도심부, 주말이나 휴일에는 지방도시 생활을 경험해보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부족 문제 해결, 커뮤니티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생활 거점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지원한다. 이지역거주는 사람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도쿄 집중화를 개선함은 물론 지방창생 관계인구 확대에 이바지하여 지방으로의 이주나 정주인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sup>38)</sup>

[표 3-19] 일본의 이지역거주 관련 시책

유형	시책명	시책내용	주관부처
정보 제공	새로운 생활양식에 따른 이지역거주 추진조사	지자체와 개인 대상 가이드라인, 팜플렛을 작성하여 정보제공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이주·교류정보가든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거주·일자리·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실시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자체의 이주관련 정보 제공 특별교부세조치	2021년부터 특별교부세조치 대상에 이지역거주 관련 경비 추가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생활	플랫35	민간금융기관의 전 기간 고정금리 주택론 지원	국토교통성 주택국
	그린주택포인트 제도	에너지절약형 주택 취득자 대상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 발행	국토교통성 주택국
	빈집대책종합지원사업	「빈집특별조치법」을 활용, 빈집 철거, 활용 등 종합적인 빈집대책에 대응하는 지자체 지원	국토교통성 주택국
	전국판 빈집·공지 뱅크	지자체 망라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이동비	프로페셔널 인재사업	부업·겸업인재 채용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인재의 이동비 보조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텔레워크	도시구조재편집중 지원사업	지방도시 중심시가지 생활권 등의 텔레워크 거점시설 정비 지원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관광 등 지역자원활용지구의 원격근무 거점시설 정비 지원	국토교통성 도시국
	관민연계 시가지재생추진사업	기존 스톡과 지역지원을 활용하여 시가지 내 걷기 좋은 구역에 코워킹, 교류시설 조성 시 지원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치즈코리펀드 지원사업	노후스톡을 활용한 텔레워크 거점, 그린 오픈스페이스 정비 대상 금융지원 펀드 창설	국토교통성 도시국
	지방창생 텔레워크 교부금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 시설정비와 운영지원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지방창생이주지원사업	도쿄에서의 일을 텔레워크를 통해 계속 하면서 이주 하는 경우 지원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농산어촌 체류형 여행 추진대책	지역의 체류형 여행 실시체제 구축과 함께 기업의 원격근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지원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출처 : 国土交通省(2021, p.5)

37) 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協議会, <https://www.mlit.go.jp/2chiiki/index.html> (검색일 : 2021.12.13.)

38) 国土交通省 國土政策局 地方振興課(2021, p.3)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지역거주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2021년 3월 '전국 이지역거주 촉진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의회는 관계부처(국토교통성, 내각관방·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와 이지역거주에 적극적인 자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이지역거주를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35라는 주택론을 마련하였고, 에너지절약 성능 주택 취득자에게 포인트를 발행하는 등 그린사회 실현과 지역 내 민간주도 선순환 실현을 위한 주택투자도 실시하고 있다.<sup>39)</sup> 그밖에 ANA홀딩스 주식회사와 [주]어드레스(ADDress)가 협력하여 전국에 있는 거점(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거점 생활을 지원하는 항공권 정액제 서비스 실증 실험도 추진 중이다.<sup>40)</sup>

- 국토교통성의 전국판 빈집·빈터 뱅크 구축<sup>41)</sup>

2015년 4월 일본의 지자체 약 40%가 빈집뱅크를 설치하였지만 지자체마다 개시 정보 항목이 다르고 검색이 어려워 국토교통성은 '전국판 빈집·빈터 뱅크'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빈집은행에 게재된 정보를 간단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LIFULL, 앳홈[주]이 2017년 10월부터 시행 운영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운영 개시 시점(2018년 1월)과 비교해 2020년 12월 말 참가 지자체 수는 약 1.8배, 물건 게재 건수는 약 4.7배까지 증가하였고, 약 6,500건의 물건이 계약이 성사되었다.

## □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움직임

- 교토이주계획(京都移住計画)

교토이주계획은 2011년 교토에서 시작된 민간임의단체 활동으로 지역으로 UIJO탄한 사람들에게 이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지역밀착형 구인정보), 거주(지역부동산 소개), 지역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42)</sup> 교토이주계획의 구성멤버는 전원 U턴이나 I턴 청년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기업, 부동산 소유자, 행정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Tunagum을 설치하고 이주촉진사업, 거점운영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sup>43)</sup>

교토이주계획은 전통기술로부터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업까지 교토의 다양한 일자리 정

---

39) 国土交通省 國土政策局 地方振興課(2021, p.7)

40) 国土交通省(2021, p.8)

41) 国土交通省 國土政策局 地方振興課(2021, p.9)

42)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 (검색일 : 2021.1.31.), 田村篤史(2021)

43) マチノコト, [http://machinokoto.net/izyukeikaku\\_wakayama](http://machinokoto.net/izyukeikaku_wakayama) (검색일 : 2021.1.31.)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토 소재 기업이나 교토 이주를 준비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고, 교토의 가능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사무실 또는 가게 출점을 돋고 있다.<sup>44)</sup> 또한 이주자에게 맞는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소유자를 취재하여 물건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건물이 가진 이야기를 게재하여 이주자나 교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sup>45)</sup> 교토이주살롱(京都移住茶論)이라는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I턴이나 U턴 등의 형태로 교토에 이주해 온 사람들과 교토 거주자들과의 교류의장을 마련하여 각자가 이주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동료를 만들기도 하고, 안팎의 사람이 만남으로써 교토 이주 상담 창구나 교토 이주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sup>46)</sup>

Tunagum이 운영하는 츠레츠레니시진(つれづれ西陣)은 일본 전통 건축물인 마치야(町家)를 리노베이션하여 조성한 곳으로 이주자와 지역주민, 행정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주자에게는 지역에 들어오기 위한 현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방 겸용 주택과 식음시설, 갤러리, 대관공간, 점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7)</sup> 또한 로컬 나이트는 지역 활동이나 지자체 관계자의 협력을 받아 교토에서 자란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인 로컬 나이트를 개최다.<sup>48)</sup> 그밖에도 교토부(京都府)와 연계하여 2014년부터 어촌마을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이주촉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과 지역 금융기관을 연계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자와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



빈집 활용 리노베이션 워크숍



교토이주계획 부동산 소개

[그림 3-11] 교토이주계획 및 Tunagum의 주요 활동 사례

출처 : 좌측, 중앙 사진 출처는 田村篤史(2021), 우측 홈페이지 사진 출처는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 (검색일 : 2021.1.31.)

교토에서 시작된 이주계획은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2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모두의 이주계획’은 이들 지역의 연합이 임의단체로 혹은 사업으로 이주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후쿠오카·이토시마 합숙을 계기로 전국의 이주계획 단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고 이후 ‘모두의 이주 드래프트 회의 2017’을 열면서 전국 각지와

44) 企業行政の方へ,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entrepreneur/> (검색일 : 2021.1.31.)

45) 物件所有者様へ,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living/for\\_owner/](https://kyoto-iju.com/living/for_owner/) (검색일 : 2021.1.31.)

46) 移住した人·したい人が語らう場,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saron/> (검색일 : 2021.1.31.)

47) 田村篤史(202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8) PROJECT, Tunagum, <https://tunagum.com/project/localnight/> (검색일 : 2021.1.31.)

의 관계도를 넓혔다. 2019년에는 ‘모두의 이주 계획제’를 개최하여 UIJO턴의 다양한 이주자들이 모여 자신의 지역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을 장을 가졌다.<sup>49)</sup>

- TURNS(턴즈)

턴즈는 ‘UIJ턴의 턴’, ‘생활과 사회를 다시 보는 반환점으로서의 턴’, 그리고 ‘다음 행동을 일으킬 당신 차례(your TURN)’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턴즈는 일본의 지역을 테마로 그 고장에 있는 풍부한 자연과 라이프스타일, 지역에서 활약하는 사람의 생활이나 생각, 단체의 활동 그리고 이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와 지원책, 취업이나 거주지, 기업 노하우 등을 잡지 매체를 비롯해 웹진, 이벤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의 연결 방식의 하나로 턴즈의 공식 온라인 숍을 통해 전국 각지의 의·식·주에 관계된 수공예품, 미술품 등을 지역과 제작자의 스토리와 함께 선보이고 있다.<sup>50)</sup>

턴즈 비즈니스 스쿨은 복잡하게 얹혀있는 지역과제에 기회를 찾아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실천형 온라인 스쿨로서 지역자원의 활용 방법이나 브랜딩, 마케팅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부터 직접 비즈니스의 기초부터 철저하게 배울 수 있고 소수 인원제로 같은 뜻을 가진 동료와 실천적인 배움을 행할 수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sup>51)</sup>

주요 참가 대상은 기업에서 지방창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지방창생에 관심이 있는 사회인, 이방 이주를 검토하고 있거나 부업, 전직, 워케이션을 검토 중인 사람, 지방공공단체와 관련하여 기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거나 관계인구 창출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참여자는 강좌 수강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플랜을 작성하고 필드 워크를 통해 지역 창생의 선진 사례를 방문하며 사업화 지원 개별 멘토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발표하게 된다.



[그림 3-12] 턴즈(TURNS)의 주요 활동

출처 : TURNS(<https://turns.jp/>), TURNS 商店, TURNS(<https://shouten.turns.jp/>), 地方創生xビジネスー新しいビジネスをつくる学校, TURNS(<https://turns.jp/47588/>)(검색일 : 2021.1.31.)

49)みんなの移住計画. <https://minnano-iju.com/index.html> (검색일 : 2021.1.31.)

50) TURNSについて, URNS. <https://turns.jp/about/> (검색일 : 2021.1.31.)

51) 地方創生xビジネスー新しいビジネスをつくる学校, TURNS, <https://turns.jp/47588/> (검색일 : 2021.1.31.)

## 4. 소결

### □ 교육·일자리 분야에 집중된 지원정책에서 생활·교류활동 지원방향으로 확대 필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지원정책은 주로 교육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생활·복지지원에 대한 정책·사업은 비교적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역 내 일자리 유무는 지방이주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반드시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제활동기반 이외에도 청년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외지청년들에게 지역주민이나 지역청년들과의 갈등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인 되는 반면,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류 기회는 지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탐색단계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공간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연결서포터,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안내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관계안내인은 지역에서 기존 주민들과 관계인구와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탐색단계의 청년들이 원활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및 교류활동 등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주지속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마련 할 필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살펴본 결과, 하나의 사업에서 일자리 지원, 생활지원, 교류 활동지원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 수행 주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다양해지고 지원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사업 목적과 지원분야가 여러 부문에 걸쳐있는 만큼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주공간의 경우 지역별 주거문제에 대한 이해와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청년 지원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처·부서 간 연계체계를 통한 패키지형 지원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지역 내 공간자원 확보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공간 지원 확대 필요

현행 청년지원정책은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정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공간 리모델링이나 유휴공간 지원, 운영비 지원 등 공간 지원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주 초기단계의 청년들이 지역의 공간 정보를 구하는데 제약이 많고 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탐색단계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정기간 살아보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주 가능성은 살펴보는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 체류공간이나 업무공간 등 지역 내에서 생활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기반을 필요로 한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은 주로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의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청년들의 이주나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청년활동공간을 기획·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인구 청년이나 이주 초기단계의 청년들을 위한 공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간 활용도나 지역재생 효과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 □ 관계인구의 확보를 위한 탐색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지자체에서 관내 청년이나 주소지 이전을 전제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주인구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연계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유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고, 지자체간 인구유입 경쟁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로섬 게임<sup>52)</sup>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 범주와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이자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이주 가능성이 높은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인력 확보나 활력 창출, 나아가서는 정주인구로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주체 간 소통, 교류, 각종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 등의 S/W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일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H/W조성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 □ 정착단계 및 정주지속 단계의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청년지원정책의 1년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속지원 또는 후속지원이 있는 경우는 2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 단발성 사업이 대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주단계에서 정착이나 정주지속 단계로 진일보한 청년들에 대한 사후 관리방

---

52) 박진경(2021, p.8)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모색하여 지방이주를 일련의 과정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제도에서는 2박 3일 동안의 시험 지역부흥협력대, 2주에서 3개 월 사이의 지역부흥협력대 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단계의 지역경험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지방이주 단계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단계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민간주체의 창의적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한 지방이주 지원 프로그램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

지역살이 프로그램이나 지역이주, 경험, 지역정착 등에 대한 다양한 공공지원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에서의 움직임과 시도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앞당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지방이주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교토이주계획이나 Tunagum, TURNS 등 민간주체들이 다양한 지역살이의 사례와 지역기반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관계인구의 확대나 탐색단계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이주로 진입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민간주체의 창의적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지방이주 지원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을 다채롭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

# 제4장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현안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분석

## 1. 분석개요

2.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3. 청년의 지역정착과 연계한 공간조성 사례 분석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 

## 1. 분석개요

### □ 분석 목적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존 생태계와 관계를 맺고 안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함께 지역생활 및 활동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청년활동공간을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들도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정주지속 요인을 도출하고 청년 활동공간의 조성방향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 분석 대상 및 방법

-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과 정주지속 현안 분석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정착 및 정주지속 유입·저해요인과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3장 2절에서 살펴본 주요 정책사업 관계자(행정, 중간지원조직, 관련사업 운영사 등) 및 프로그램 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주청년, 이탈청년, 관계인구 청년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방이주 계기, 정주지속 또는 지역이탈 원인, 주거, 여가문화, 일자리, 커뮤니티 등 지원정책 수요, 이주단계별 공간 수요 등 주요 현안을 분석하였다.

- 청년의 지역정책과 연계한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분석

지방중소도시의 청년활동공간의 조성방향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정착 기반이 마련된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은 (1) 3장2절에서 조사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였고, (2) 청년층 유입과 정착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3) 청년의 이주 및 정주지속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가 관찰되며, (4)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의 지속여부가 확인되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사례지역은 충남 서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일대로 청년활동공간이 마을형으로 집합적으로 형성된 곳들이었으며, 주요 청년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면 또는 동단위로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관련주체 인터뷰, 현장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공간 조성 및 운영특성, 주요 주체 특성, 운영 프로그램 특성, 공간 조성에 따른 지역 재생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및 단계

단계	선정 기준	세부 내용	분석 대상	비고
(1)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 활동 공간 조성사업 추진 여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넥스트로컬 등	서천군, 공주시, 완주군, 목포시, 강릉시, 청양군, 신안군, 영덕군, 상주시, 거제시, 문경시, 의성군	2절
(2)	이주 청년 유입 여부	최근 5년간(2016~2020) 청년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	117개 지방중소도시 중 5년간 청년층 유입이 없는 58개 지자체를 제외한 59개 시군	
(3)	지방이주 청년 정주지속 유인 요인 마련 여부	지역앵커기업의 활동지역, 청년활동공간 5개소 이상, 다양한 기능 도입·운영 중	서천군, 공주시, 완주군, 목포시, 충주시, 강릉시	3절
(4)	공간조성에 따른 지역 차원의 성과 확산 여부	관련 사업이 3년 이상 경과하여 주변지역으로, 사업성과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	서천군, 공주시, 완주군, 목포시	

출처 : 연구진 작성

구분	분석내용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분석 목적
[2절]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 및 정착 유입/저해요인</li> <li>- 지방이주 단계별 필요한 지원 수요</li> <li>- 지방이주 단계별 필요한 공간 수요</li> </ul>	인터뷰 설문조사	주요 사업 관계자 및 참가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요인 도출</li> <li>- 지방이주 단계별 지원수요 파악</li> <li>- 지방이주 단계별 공간지원수요 파악</li> </ul>
+				
[3절]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분석(심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특성(도입기능, 규모, 매입/임대, 신축/리모델링, 지원사항 등)</li> <li>- 운영실태(운영주체, 프로그램 등)</li> <li>- 공간 조성에 따른 효과 및 영향력</li> </ul>	인터뷰 현장조사 통계분석	충남 서천 충남 공주 전북 완주 전남 목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활동공간 조성 방향 도출</li> <li>- 공간유형별 역할 구분</li> <li>-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등 주체별 역할 및 공간 조성방향 도출</li> </ul>

청년의 원활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 방향 도출

[그림 4-1] 분석 방법 및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2.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 1) 분석개요

3장 2절에서 조사한 주요 정책사업 관계자 및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이주 및 정착 계기, 지방이주 저해요인과 유입요인, 지방이주 단계별 필요한 지원 및 공간 지원요소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지역적 특성이나 이주청년의 공동체 특성에 따라 사례별 특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 운영방식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관련 사업 운영사(관련 사업을 공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 지역앵커기업(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창직 환경 및 물리적 공간 등의 지속적인 관리 주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표 4-2] 청년의 지방이주 경험 및 정주지속 현안 분석 개요

구분	인터뷰	설문조사
조사대상	주요 정책사업 관계자(행정, 중간지원조직, 관련 사업 운영사, 지역앵커기업)*	주요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참가 청년 (이주청년, 이탈청년, 관계인구)**
조사기간	2021년 1월 22일 ~ 9월 9일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
조사방법	현장답사 및 인터뷰 스노우볼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면담자 확보	온라인 설문조사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조사대상 확보
유효표본	40명(청년 21, 공공 6, 운영 8, 앵커 13)***	148명****
조사내용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이주 계기</li><li>- 지역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li><li>- 지방이주(고려) 시 애로사항</li><li>- 이주지역 선정(고려) 시 고려사항</li><li>- 지역 내 청년활동공간 만족도</li><li>- 이주단계(탐색-이주-정착-정주 지속)별 필요한 지원사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이주 여부*****</li><li>- 이주단계(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별 필요한 공간 지원사항</li><li>-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 시 지원 수요</li><li>-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수요</li></ul>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획 배경 및 목적</li><li>- 운영 관련 지역적 특성</li><li>- 추진 주제 특성 및 주체 별 역할</li></ul>	

\*인터뷰 대상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이웃사촌시범마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청정지역 프로젝트 등의 3장2절의 조사대상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관계자로 선정

\*\*설문조사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참여자 20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자 21명,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참여자 28명,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참여자 33명 등이 응답

\*\*\*인터뷰 대상의 특성별로 청년, 공공(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사업 운영사, 지역앵커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중복하여 체크함

\*\*\*\*응답자는 47.3%가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종사, 27.4%가 '식품음료' 분야에 종사, 15.1%가 '지역개발'에 종사하고 있음(복수응답)

\*\*\*\*\*응답자의 57.5%가 지역으로 이주, 13.7%가 이주를 고려 중, 28.8%가 이주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출처 : 연구진 작성

## 2) 지방이주 및 정착의 유입요인과 저해요인

### □ 청년의 지방이주에 대한 유입 및 저해요인

- 도시에서는 쉽지 않았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

최근 경쟁적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여유로운 삶이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낮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창업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이주하기도 한다. 일례로 소호259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던 청년이 이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 속초로 가게 되었고, 사업화 과정에 지역에 정착한 경우이다.<sup>1)</sup>

- 지역 자체의 매력도는 주요한 유입요인이 됨

쾌적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정체성 등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탐색단계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선호보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지역 방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역기업과 서울 청년들을 연계, 해당 지역에서의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정지역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던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 기업에 대한 선호도보다 강원이나 부산 등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사업 신청 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2)</sup> 특히 관광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청년창업의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은 연 방문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창업기회를 찾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sup>

- 탐색단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경험은 이주단계로 연결되는 데 중요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 함께 지역을 경험하고 교류했던 사람들과의 유대감 형성은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제공, 이주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 의성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인 ‘청춘구 행복동’의 참가자들은 함께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에서의 생활과 각종 활동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4)</sup> 또한 청년들이 또래집단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청정지역 프로젝트에서는 같은 지역 내 여러 기업에 청년들을 연계해주고 있었고, 군산 로컬라이즈 프로젝트

1) 이상혁 소호259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2.) 참고

2) 사단법인 점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1.27.) 참고

3) 김지우 더웨이브컴퍼니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3.), 김다솜·박새로미 청년활동가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7.), 최정해·강승용 춘천일기 대표(인터뷰 일자 : 2021.8.31.) 참고

4) 이소향 청세권 협동조합 조합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4.) 참고

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삶과 창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sup>5)</sup>

- **지원사업의 유무는 이주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함<sup>6)</sup>**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존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주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문제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지방도시는 지역 내 기업 수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으며, 일거리가 있다면 지역에 남고 싶다는 청년 및 청소년도 다수로 파악되었다. 반면 지역 내 일자리 및 일거리는 청년의 이주를 유도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반드시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이나 지역주민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sup>7)</sup>

- **지역주민, 지역청년들과의 갈등에 의한 어려움**

외지청년들이 지역에 이주하여 창업을 시도할 때, 기존 지역주민 또는 지역청년들과의 갈등관계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공공지원에 대한 견제나 기존 상권에 대한 위협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 내 활동 중인 청년들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관계 형성은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sup>8)</sup>

- **지역 내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의 부족은 청년들의 주요 불만사항**

청년들은 여유로운 삶을 찾아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나 도시의 편리한 삶과 의료 및 교통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는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주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인근에 의료 및 복지시설의 존재 자체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응답한 청년도 있었으며, 지역 내 24시간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어 먼 곳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sup>9)</sup>

---

5) 사단법인 점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1.27.), 조상래 언더독스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1.27.) 참고

6) 박주로 (주)로모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2.3.) 참고

7)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12.) 참고

8) 유지황(2021), 권기효 멘토리 대표 인터뷰(2021.2.2.), 이상혁 소호259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2.) 참고, 김나리 서프시티 협동조합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2.) 참고

## □ 청년의 지역정착에 대한 유입 및 저해요인

- U턴·J턴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기반과 지역사회 경험이** 주요 유입요인

가족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는 이주 및 정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거나 지역에 단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즉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년은 지역 생태계에 응화되어 정착하는데 보다 수월하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 지역연계형 창업을 통해 지역에 유입하는 경우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역 내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면 보다 효과적<sup>11)</sup>**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기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정착단계의 청년들은 지역 내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며, 이때 지역청년 및 이주청년 간의 소통과 교류기회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천 한산면의 자이엔트는 지역 내 69개소 소곡주 양조장과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브랜딩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sup>12)</sup>

- **지역 앵커시설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데 지역 내 앵커시설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거나 창업을 위한 테스트나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확 인해보고 실제로 지역정착이나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데 유효하게 나타났다.<sup>13)</sup>

-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에서 토지·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호소**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방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지역에서 적절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기대와는 다르게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은 주택도시보

9) 김나리 서프시티 협동조합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2.), 김다솜·박새로미 청년활동가 인터뷰 (인터뷰 일자 : 2021.5.27.), 김혜진 삶기술학교 공동체장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17.), 이지현 뭐하농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9.) 참고

10) 김나리 서프시티 협동조합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04.22.), 이지현 뭐하농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9.) 참고

11) 백경진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경제과 주무관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2.2.) 참고

12) 김정혁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17.) 참고

13) 박주로 (주)로모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2.3.) 참고

증공사의 도시재생기금을 신청해보거나 시민자산화 방법 등을 시도하고 있었다.<sup>14)</sup> 또한 지역에 생각보다 유휴공간이 많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공간이 임대나 매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부동산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sup>15)</sup>

- **열악한 양육 및 자녀 교육환경은 지역 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정착하기에는 도시에 비해 양육 및 교육 여건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은 아주한 청년들이 다시 도시환경을 찾아 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6)</sup>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주를 결심하는 데는 큰 저해요인이 되지 않지만 지역에서 결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봐야 할 요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년들의 정주지속을 위해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3] 지방이주 및 정착 유입요인과 저해요인 종합

구분	내용
지방이주 유입·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li><li>- 자연경관 등 지역 자체의 매력도</li><li>- 텁색 단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지역 경험</li><li>- 중앙 및 지자체 등 공공 지원 사업</li></ul>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 내 일자리 부족</li><li>- 기준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청년들과의 갈등</li><li>- 지역 내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의 부족</li></ul>
지역정착 유입·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정적인 지역기반과 지역사회 경험(U턴 · J턴 청년)</li><li>-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역 내 관계망 형성(지역연계형 창업 시)</li><li>- 지역 앵커시설</li></ul>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 내 토지 · 주택 매입 어려움</li><li>- 열악한 양육 및 자녀 교육환경</li></ul>

출처 : 연구진 작성

14) 유연성 언더독스 디렉터 자문회의(자문회의 일자 : 2021.1.27.),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12.), 최정혜·강승용 춘천일기 대표(인터뷰 일자 : 2021.8.31.), 박진영 유월상점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9.), 이상창 세상상회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9.) 참고

15) 소호259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1 · 2호점 공간을 구하기 위해 대표가 직접 부동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행자 라운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오랜 간을 소요한 사례 등을 볼 수 있다(이상혁 소호259 대표 인터뷰, 2021.4.22. 참고)

16) 지방중소도시로 이주하였다가 인근 대도시 및 광역시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였다(장명석, 2021).

### 3)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과 청년활동공간 수요<sup>17)</sup>

#### □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 수요

- 임시주거 및 주거비용 등 정주환경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탐색 기회와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이주 단계의 초기에는 임시주거에 대한 지원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역으로 보다 쉽게 지역정착을 결정한다는 의견이 많았다.<sup>18)</sup> 그만큼 지역에서의 삶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주거 문제가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의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정주환경 확보가 필요하다.

- 지역주민 및 지역청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함

외지청년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스스로 찾고 구축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기회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시의 네스트로컬 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파트너’를 도입하여 청년들이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었다.<sup>19)</sup> 또한, 충북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들 간의 만남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을 위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sup>20)</sup> 정주지속 단계에서는 지역청년과 이주청년의 구분 없이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지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다.

한편 지방이주 단계별로 겪게 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 다르고, 지역별로 다양한 이유가 있어 지역의 입장과 청년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고 조율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관계안내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내 청년 관련 중간지원조직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sup>21)</sup> 더불어 지역주민과 외지청년들이 유연하

17)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18) 설문조사 결과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에 있어서 임시주거 및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각각 30명, 3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표본수: 148명). 장명석(2021), 이지연·이지정 이주청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7.30.) 참고

19) 백경진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경제과 주무관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2.2.) 참고

20) 심병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8.4.) 참고

21) 백경진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경제과 주무관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2.2.), 김현주 더린넨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8.26.) 참고

게 만날 수 있는 장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22)</sup>

- 지역 내 단기 일자리 연결, 일거리 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 필요**

지역에서의 정주지속을 위해서는 꾸준히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와의 연결 또는 창업을 통한 경제기반 마련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경제활동이 안정화되기까지 탐색단계 혹은 이주 초기단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3)</sup>

- 지역 내 정착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지역에 미리 정착한 선배 지도자가 필요

청년들은 지역에 이주 및 정착함에 있어서 같은 단계에 놓여있는, 비슷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들과의 유대감 형성은 청년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탐색단계부터 지역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동료를 형성하는 기회가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 미리 정착한 선배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즉, 청년들은 지역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 공공주도의 문화보다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 지원 필요

청년들이 지방도시에서 갖는 아쉬움 중 하나는 수도권과의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에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시 및 공연 등 단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보다는 로컬의 특성에 맞는 문화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았다.<sup>24)</sup>

- 탐색 및 이주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단기 이동수단 지원 필요

지방도시는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 자가용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많았다. 탐색 및 이주초기 단계에는 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차량이나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 수요가 높은 것을

22) 설문조사 결과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에 있어서 지역민과의 네트워크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19명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표본수: 148명), 권기효 멘토리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2.2.), 김나리 서프시티 협동조합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2.), 이소향 조합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4.) 참고

23) 설문조사 결과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에 있어서 단기 일자리 연결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13명으로 나타남 (표본수: 148명), 이지연·이지경 이주청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7.30.) 참고

24) 이상혁 소호259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22.), 이소향 조합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4.), 김다솜·박새로미 청년활동가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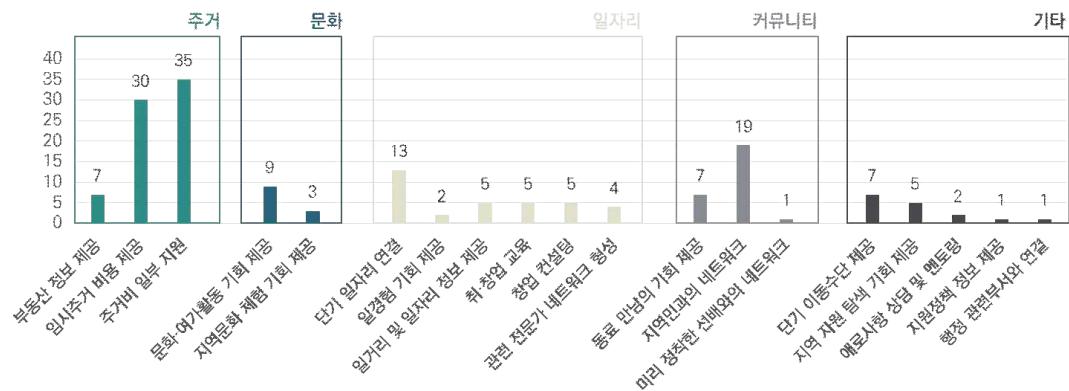
확인할 수 있었다.<sup>25)</sup>

- 탐색단계에서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 필요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이는 청년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짧은 시간이다.<sup>26)</sup> 특히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자원을 탐색하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하다. 탐색단계의 청년들에게 빠른 창업을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매력과 잠재력, 가능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에서의 비전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sup>27)</sup>

-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종합적으로 브랜딩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양하며, 지역자원의 가치발굴을 통한 창업 및 창직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에 대한 탐색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단기간에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거,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장기전략을 통해 청년들 간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청년의 상생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지역파트너(관계안내자) 또는 중간지원조직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4-2]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 수요(설문조사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25) 권기효 멘토리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2.2.), 김다솜·박새로미 청년활동가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7.), 이지연·이지정 이주청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7.30.) 참고

26) 사단법인 점프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1.27.) 참고

27) 박주로 (주)로모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2.3.) 참고

- **지방이주 단계별 지원책 마련, 각 지원책들이 연계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청년들이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 단계를 경험하면서 각 단계별 애로사항이 다르며 이에 따라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이주 단계별로 지원방식이 차별화도리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에 따라 사업모델에 대한 준비정도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정착 및 정주지속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활동공간 수요

- **탐색단계에는 임시주거 및 정주공간 등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파악되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업무 · 창업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지역을 알아가기 위한 탐색단계에서는 지역에 머무르며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시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장기 숙박이 가능하고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임시주거를 통해 탐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탐색단계의 청년들은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지역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공간을 월단위로 단기 임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색단계의 거주공간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무공간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을 구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이나 회의공간에 대한 수요,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실험공간,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작업공간에 대한 수요를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지역살이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의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sup>28)</sup>

또한 중간지원센터 등의 지원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지원에 대한 정보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 지역에 대해 안내해주는 주체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를 느끼며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서 중간지원센터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다.<sup>29)</sup>

28) 설문조사 결과 탐색단계에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65명(43.9%)으로 파악(표본수: 148명, 3가지 중복 응답), 박주로 (주)로모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2021.2.3.), 김정혁 사이엔트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17.) 참고

29) 설문조사 결과 탐색단계에 중간지원센터를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43명(29.1%)에 해당(표본수: 148명, 3

교류공간 및 문화공간은 지인이나 동료 없이 혼자 지역을 알아보는 청년들에게 지역 청년 또는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sup>30)</sup>

- **이주단계에는 정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파악되며, 경제활동을 위한 업무·창업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탐색단계를 마친 청년은 보다 안정적인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임대료의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임대주택 등의 공공지원을 희망한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사업시작 전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작업공간이나 판매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sup>31)</sup>

교류공간 및 문화공간은 주민과의 소통, 관계맺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과 연결된다. 이주단계의 청년들은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나 지역민과의 원활한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간지원센터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착단계에는 임시주거 수요가 감소, 판매공간 및 중간지원센터를 필요로 함**

정착단계에서도 정주공간 수요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임시주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낮아졌다. 이주단계에 이어 정착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주단계에 비해 판매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는 정착단계에는 사업장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나타낸다. 장기적인 수익 확보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때 자생적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지역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정착단계는 지역주민들과 연대의식 형성이 요구되는 단계로서 다양한 교류활동과 문화적 기회를 필요로 한다. 지역에 정착한 뒤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재미와 즐길거리가 많아야한다는 이유로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가지 중복 응답), 배수빈 경북 경제진흥원 대리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8.) 참고

30) 설문조사 결과 탐색단계에 커뮤니티공간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교류공간 36명(24.3%), 문화공간 38명(25.7%)에 해당(표본수: 148명, 3가지 중복 응답), 그 이유로는 '정보수집에 필요하기 때문',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에 필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등의 응답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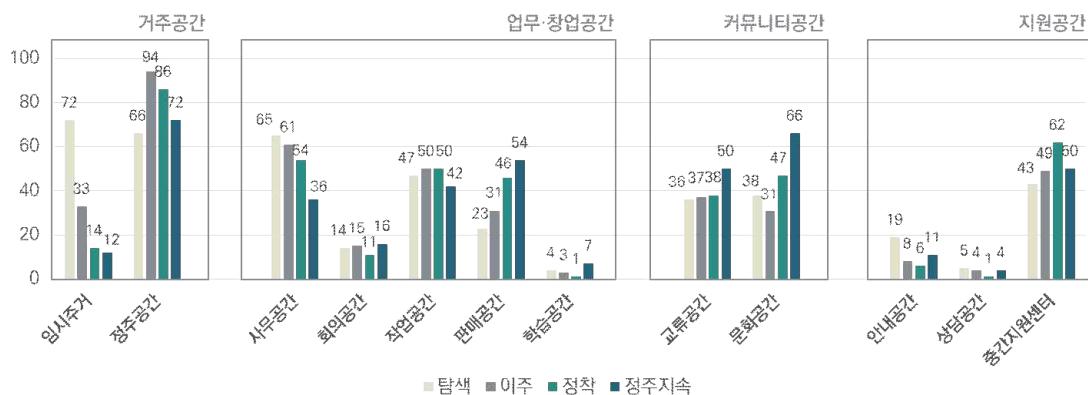
31) 설문조사 결과 이주단계에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판매공간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각각 61명(41.2%), 50명(33.8%), 31명(20.9%)에 해당(표본수: 148명, 3가지 중복 응답), 그 이유로는 '정착을 위한 경제활동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 '정착 이전 모의활동 공간 필요' 등의 응답이 나타남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정착단계에서는 중간지원센터나 이를 통해 만난 인적자원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영역의 확장과 성장을 시도하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기반이 안정화되더라도 꾸준히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sup>32)</sup>

- 정주지속단계에는 판매공간 수요가 높으며, 교류 및 문화공간 수요가 높아짐

정주지속단계에서는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와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른 단계에 비해 낮아지는데 이는 해당 공간의 확보가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무공간 및 판매공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었고, 보다 쾌적하고 넓은 환경의 업무·창업공간 확보를 통해 경제활동기반의 질을 높이고 손쉬운 인력 확보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주지속단계에서 학습공간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간적·정서적 여유가 생긴다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다.

교류공간 및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주지속을 위해 지역에서 문화향유와 교류를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착단계에 이어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을 통한 사업의 확장을 시도하는 단계로서 인식할 수 있다.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정보 습득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계속해서 희망한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다.<sup>33)</sup>



[그림 4-3]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활동공간 수요(설문조사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32) 설문조사 결과 정착단계에 중간지원센터를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62명(41.9%, 표본수: 148명, 3가지 중복 응답),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사업지원 필요', '지역 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 필요' 등의 응답이 나타남

33) 설문조사 결과 정주지속단계에 커뮤니티공간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는 교류공간 50명(33.8%), 문화공간 66명(44.6%)에 해당(표본수: 148명, 3가지 중복 응답), 그 이유로는 '정착 후 지역 내 활동 커뮤니티의 필요', '자유로운 협업 및 소통공간 필요' 등의 응답이 나타남

- 청년층의 수요와 생활패턴에 맞는 공간 운영 방식 필요

지방도시에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6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흔하지 않으며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공간 운영이 필요하다.<sup>34)</sup> 또한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을 위해 지역에 이주하는 청년들은 공동주택 형태의 거주공간보다는 전원주택 형태를 선호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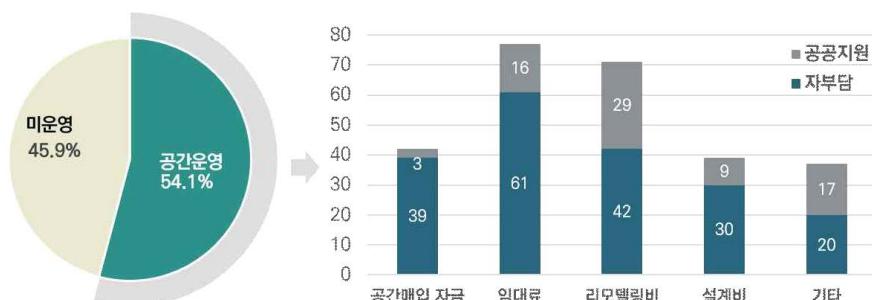
-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은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운영주체 의견 반영 필요

그동안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률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기획단계부터 공간 운영을 통한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상과 추진전략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공간조성단계부터 청년수요에 대한 파악과 반영,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옛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금수장’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청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1층에 카페, 2·3층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sup>35)</sup> 지역에서는 공간 규모나 청년주체 수요를 고려하여 공간기획 참여주체나 공간 운영자 선정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공간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수요

- 저렴한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지원에 대한 수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가 직접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그림 4-4]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설문조사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34)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4.12.) 참고

35) 유정규(2021) 참고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을 자부담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었다.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와 리모델링 및 시설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에서 직접 공간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거나 민간 소유의 공간을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사업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초기단계 지원수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화되기까지 공간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수요도 있었다. 지방도시의 경우 공간매입비 및 임대료 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리모델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에 설계 및 시공 전문가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비 및 시설·집기 구매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전문가 연결 지원에 대한 수요를 볼 수 있었다.

-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초기 실험적 공간 및 팝업 공간 수요

공간 운영에 앞서 실험적으로 운영해보고 사업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기간제 시범판매소 및 한시적 점포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주지속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기획에 있어서 지역 내 소비 특성 및 수요에 대한 정보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 실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중계인 및 안내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지역 내 사업성 있는 공간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사업 컨설팅, 초기 실험공간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정보,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지원 필요

지역 내 빈집 및 유휴공간에 대한 정보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의견들은 부동산 정보 제공과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과 중개인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정보 구득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주초기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인식이 높았고, 조건에 맞는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4-4]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정책과 청년활동공간 수요 종합

구분	내용										
지방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요소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주거 및 주거비용 등 정주환경에 대한 지원</li> <li>- 지역주민 및 지역청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li> <li>- 지역 내 단기 일자리 연결, 일거리 정보 제공</li> <li>- 정착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지역에 미리 정착한 선배 지도자</li> <li>- (탐색 및 이주단계) 단기 이동수단 지원</li> </ul>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색단계)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 제공</li> <li>-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 지원</li> <li>- 지역자원 활용 마스터플랜과 브랜딩 할 수 있는 주체 지원</li> <li>-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연계</li> </ul>										
지방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공간 지원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탐색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주거 및 정주공간 등 거주공간 지원</li> <li>- 작업 및 창작을 위한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업무·창업공간 지원</li> </ul> </td> </tr> <tr> <td>이주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공간 지원</li> <li>- 경제활동을 위한 업무 · 창업공간 지원</li> </ul> </td></tr> <tr> <td>정착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공간을 통한 본격적인 경제활동 지원</li> <li>-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협업 기회 지원</li> </ul> </td></tr> <tr> <td>정주지속 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공간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li> <li>- 교류 및 문화공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li> </ul> </td></tr> <tr> <td>기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계층의 수요와 생활패턴에 맞는 공간 운영 방식</li> <li>-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운영 주체 의견 수렴 방식</li> </ul> </td></tr> </table>	탐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주거 및 정주공간 등 거주공간 지원</li> <li>- 작업 및 창작을 위한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업무·창업공간 지원</li> </ul>	이주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공간 지원</li> <li>- 경제활동을 위한 업무 · 창업공간 지원</li> </ul>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공간을 통한 본격적인 경제활동 지원</li> <li>-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협업 기회 지원</li> </ul>	정주지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공간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li> <li>- 교류 및 문화공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계층의 수요와 생활패턴에 맞는 공간 운영 방식</li> <li>-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운영 주체 의견 수렴 방식</li> </ul>
탐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주거 및 정주공간 등 거주공간 지원</li> <li>- 작업 및 창작을 위한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업무·창업공간 지원</li> </ul>										
이주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공간 지원</li> <li>- 경제활동을 위한 업무 · 창업공간 지원</li> </ul>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공간을 통한 본격적인 경제활동 지원</li> <li>-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협업 기회 지원</li> </ul>										
정주지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공간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li> <li>- 교류 및 문화공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계층의 수요와 생활패턴에 맞는 공간 운영 방식</li> <li>-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운영 주체 의견 수렴 방식</li> </ul>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임대료의 안정적인 공간 지원 및 리모델링 비용</li> <li>- 사업성 시험을 위한 초기 실험적 공간 및 펌업 공간</li> <li>- 지역 내 활용기능한 유휴공간에 대한 정보</li> <li>-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지원</li> </ul>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청년의 지역정착과 연계한 공간조성 사례 분석

#### 1) 분석개요

##### □ 대상지 일반현황

심층분석 사례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 중 군 지역(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은 면 단위, 시 지역(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은 동 단위로 대상지를 설정하였다.

대상지 청년인구는 목포시 목원동이 1,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1㎢ 당 청년인구수도 919명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포시 목원동 다음으로는 공주시 중학동(959명), 완주군 고산면(736명), 서천군 한산면(248명) 순으로 나타났다. 면 또는 동의 총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수 비율은 공주시 중학동이 20.7%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 목원동은 17.3%, 완주군 고산면 15.6%, 서천군 한산면 9.8%로 나타났다. 완주군 고산면의 청년인구 비율은 시급도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상지 4개소가 속한 지자체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에 주목하며 2010년 후반부터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희망자 지원정책을 시작으로 매년 1~2개의 청년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공주시는 청년 지원 정책 및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2016년 ‘내고장 주소갓기 지원’, 2018년 ‘지역청년 자립을 위한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 청년 공유공간, 청년 공유주택 조성사업,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사업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완주군은 2016년 8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청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년 공동체 육성·지원과 다양한 기능의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물리적·비물리적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다. 목포시는 2006년 원도심 청년 창업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해오다 2019년부터 창업지원, 생활 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년활동공간들이 조성해오고 있다.

또한 대상지 4개소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sup>36)</sup>이 추진되면서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청년단체나 청년기업

36) 연도별 사업명은 다르게 진행됨(2018년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사업, 2019년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2020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을 중심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과 지역탐방,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창업사례 등 직·간접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 4-5]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대상지 개요

구분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면적	25.02km <sup>2</sup>	1.46km <sup>2</sup>	69.58km <sup>2</sup>	1.48km <sup>2</sup>
총인구수*	5만 884명	10만 3,321명	9만 1,093명	21만 9,150명
대상지 인구*	- 한산면 인구수: 2,540명 - 청년인구수: 248명 - 청년인구 비율: 9.8%	- 중학동 인구수: 4,640명 - 청년인구수: 959명 - 청년인구 비율: 20.7%	- 고산면 인구수: 4,835명 - 청년인구수: 736명 - 청년인구 비율: 15.6%	- 목원동 인구수: 7,850명 - 청년인구수: 1,361명 - 청년인구 비율: 17.3%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 청년기본조례: 서천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2017.2.28.) - 청년센터: 없음 - 중앙지원사업: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행안부, 2019),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행안부, 2019) - 자체체 사업: 청년기업 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서천청년 cheer-up 지원 사업,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지원사업 등	- 청년기본조례: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2018.12.7.) - 청년센터: 조성 중 - 중앙지원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행안부, 2021), 지역자산화 지원사업(행안부, 2020),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행안부, 2021) - 자체체 사업: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공유공간 조성사업, 청년공유주택 조성사업,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 제민천 힐링거점 조성사업 등	- 청년기본조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2016.12.22.) - 청년센터: 없음 - 중앙지원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행안부, 2020),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행안부, 2021) - 자체체 사업: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귀농귀촌 인턴쉽,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동아리 지원, 청년마을 학교, 청년완주살이 등	- 청년기본조례: 목포시 청년 발전 기본 조례(2018.12.17.) - 청년센터: 청년·일자리 통합센터(2020년 개소) - 중앙지원사업: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사업(행안부, 2018), 도시재생 선도 사업(국토부, 2014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2018 선정 2개소) - 자체체 사업: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연계사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c,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서천군 청년기본조례(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2600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충청남도 공주시 조례 제1362호), 완주군 청년기본조례(전라북도 완주군 조례 제2784호),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전라남도 목포시 조례 제3458호),

공주시 청년정책팀(2021). 목포시(2021). 행정안전부(2021, 4월 18일 보도자료).

서천군 복지포털, [http://www.seocheon.go.kr/welfare/sub08\\_03\\_01.do](http://www.seocheon.go.kr/welfare/sub08_03_01.do) (검색일: 2021.9.8.), 서천군자속가능지역재단, [http://ssrf.or.kr/kr/html/sub03\\_030101.html](http://ssrf.or.kr/kr/html/sub03_030101.html) (검색일: 2021.9.9.),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검색일: 2021.9.9.),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https://www.wanjuro.org/post/1351?findex=&category\\_id=&field=post\\_both&skeyword=%EC%B2%AD%EB%85%84/](https://www.wanjuro.org/post/1351?findex=&category_id=&field=post_both&skeyword=%EC%B2%AD%EB%85%84/) (검색일: 2021.9.9.), 전북청년허브센터, <https://www.jb2030.or.kr/> (검색일: 2021.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10> (검색일: 2021.9.9.), 목포시 홈페이지, [https://www.mokpo.go.kr/www/industry\\_economy/youth/employ/](https://www.mokpo.go.kr/www/industry_economy/youth/employ/) (검색일: 2021.9.10.), 목포 청년일자리통합센터, <http://www.mokpo.go.kr/youthcenter/> (검색일: 2021.9.10.), 행정안전부 우리 곁에 반기운 변화, <https://happychange.kr/project/%ec%b2%ad%eb%85%84%ec%9d%b4-%ec%82%b4%ea%b8%b0-%ec%a2%8b%ec%9d%80-%eb%a7%88%ec%9d%84-%eb%a7%8c%eb%93%a4%ea%b8%b0/?view=support/> (검색일: 2021.12.1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분석 대상지 위치도는 연구진 작성

## □ 분석의 틀

심층분석은 청년활동공간의 공간적 특성과 운영 특성,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심층 인터뷰, 통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공간특성 분석에서는 개별 청년활동공간의 조성주체, 공간명, 조성연도와 같은 일반현황과 공간별 도입기능, 공간형태, 점유방식, 조성방식을 조사하여 청년활동공간과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단계와의 연계성을 확인하였다.

운영특성 분석에서는 청년활동공간의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공간 운영 시 지역 주체들과의 연계·협업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청년들이 정주지속 단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청년활동공간, 핵심주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는 대상지 일대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건수나 공간 도입 기능 및 다양화 등을 살펴보았으며, 상권 재활성화, 유휴공간 활용 등 기타 지역재생 확산 및 지역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도출과 대안검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4-6]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분석의 틀

구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공간특성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성주체</li><li>- 조성시기(연도)</li><li>- 공간 도입기능</li><li>- 공간구성(단일기능형, 복합기능형)</li></ul>	문헌조사, 현장조사, 심층 인터뷰
조성 및 이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점유방식(지자체소유, 매입/임대)</li><li>- 공간 조성방식(신축, 리모델링)</li></ul>	
운영특성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운영주체(지자체, 주민, 청년단체 등)</li><li>- 운영 프로그램</li></ul>	
공공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간 조성 또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li></ul>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활동공간, 핵심활동 주체 등의 확산 경향</li><li>- 지역 내 상권 변화 등 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li></ul>	통계분석*,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출처 : 연구진 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83033/fileData.do>, 검색일: 2021.9.24.)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 ① 공간 특성

#### □ 일반현황

-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한산면 일대 공공이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거주공간 1개소, 복합공간 1개소, 업무·창업공간 2개소가 있다. 거주공간은 서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에서 2019년도에 매입한 ‘청년쉐어하우스’로 서천군 이주한 청년들이 월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커뮤니티 및 지원기능이 복합된 ‘청년문화기획 활동가 공간’ 역시 일자리공동체팀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구)유림회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주청년과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무·창업공간으로는 서천군 문화진흥과가 조성한 ‘한산소곡주갤러리’와 ‘한산소곡주체험장·카페’가 있다. 한산소곡주갤러리는 소곡주 브랜딩, 홍보, 판매를 위한 공간이며, 한산소곡주체험장·카페는 소곡주 공동 체험장, 카페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공간은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산면 외에도 서천군의 읍면지역에는 청년활동공간이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천읍에는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운영하는 업무·창업공간(청년창업지원공간), 비인면의 농촌활력과가 조성한 거주공간(청년 농촌보금자리)이 있다. 서천군 청년정책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서천군은 청년계층이 적고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수요가 적으며, 기존에 조성된 공간 중에서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의 청년활동공간을 그나마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 문화 다양화, 일자리 공급, 청년 정책 제안 기구 설립을 고려”하는 등 청년정책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 하였다.<sup>37)</sup>

- 민간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민간주체가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10개소가 있다. 2017년 가장 먼저 조성된 ‘아트스테이 노란달팽이’는 거주공간으로 천안·아산 일대에서 축제 기획을 해오던 청년 사회적 기업인 사이엔트가 한산모시문화제 기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머물기 위한 임시숙소를 마련하였다. 이후 팀원들이 서천군 내 개별 거주공간을 마련하면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민박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 대상 농촌 민박시설로 전환하였다.

---

37) 서천군 청년정책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24.)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활동공간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자이엔트는 ‘삶기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복합공간인 ‘한신한 오늘’, 업무·창업공간인 ‘별별소리’를 조성하였다. 이후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임시주거이자 관광객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호텔H’가 조성되었고, 장기 체류공간으로 ‘허송세월’이 조성되었다. 삶기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4명은 한산면 일대에서 본인의 업무·창업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3개소(그림한담, 기억상사, 함께쓰담 동물카페)가 남아 있다. 아성대장간은 지역주민이 운영 중인 공간으로 청년대상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농기구 생산 기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단기 체류공간은 마련되었으나 장기 머무를 수 있는 정주공간은 부재

2021년 현재 한산면에는 외지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주공간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호텔H와 허송세월, 서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쉐어하우스가 있다. 커뮤니티호텔H는 삶기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나 지역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임시주거로 활용되고 있고, 허송세월은 지역이주 청년 2인이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청년들이 월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이주청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주 초기 쉐어하우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6개월 이상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정주공간이 부재하여 거주공간 물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sup>38)</sup>

#### □ 조성 및 이용방식

- 노후 건축물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신축된 한산소곡주갤러리나 체험장·카페를 제외한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 중인 ‘청년문화기획 활동가 공간(디지털노마드센터)’은 지역에 방치된 노후 건축물인 유림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아성대장간이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해오고 있다.

- 주민 소유 빙집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지역자산화 방식을 통한 활동공간 마련

청년주체들은 대부분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빙집을 2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리모델링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 매입을 통해 공간

---

38) 서천군 청년정책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17.)

[표 4-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일반현황		조성/이용방식				운영방식	공공 지원 사업	
조성 주체	공간명	조성 연도	도입기능	공간 구성	점유 방식	조성 방식	운영 프로그램	
			거주 업무 창업	커뮤 니티	지원			
공공	1.한산소곡주갤러리	2017			●	지자체 신축 소유	농업회사 법인 가온누리 한산소곡주 판매·전시, 소곡주 체험 교육 프로그램(청년 단체와 일부 협업 운영)	-
	2.한산소곡주 체험장·카페	2019			●	지자체 신축 소유	서천군(공동체험장), 바리스타 교육 지역주민(카페), 소곡주 영농조합 (사무공간) (청년 단체와 소곡주 체험 협업 프로그램 운영)	-
	3.청년쉐어하우스	2019			●	지자체 리모 임대 델링	서천군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단기 숙소	-
	4.청년문화기획 활동가 공간 (예정) (디지털노마드센터)	2021			◎	지자체 증개축 소유	미정 공유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	-
민간	5.아트스테이 노란달팽이	2017			●	임대 델링	리모 이주청년 단체	- A*
	6.한산한오늘	2019			◎	임대 델링	리모 이주청년 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B* 창업, 공동체 교육
	7.그림한담	2019			●	임대 델링	리모 이주청년	드로잉 프로그램 (청년 단체와 연계협업 프로그램 운영) B
	8.아성대장간	2019			●	임대 델링	리모 지역주민	전통문화체험, 농기구 생산(청년 단체와 연계협업 프로그램 운영) B
	9.별별소리	2019			●	임대 델링	리모 이주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B 건축 캠프 프로그램
	10.커뮤니티호텔H	2020			◎	매입 델링	리모 이주청년 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C 단기 숙소
	11.기억상사	2020			●	임대 델링	리모 이주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D 아카이빙, 영상 및 사진 교육
	12.마로스키친	2020			●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D, E
	13.함께쓰담 동물카페	2020			●			동물체험 프로그램 D, E
	14. 허송세월	2019			●	임대 델링	리모 이주청년 단체	장기거주 청년 숙소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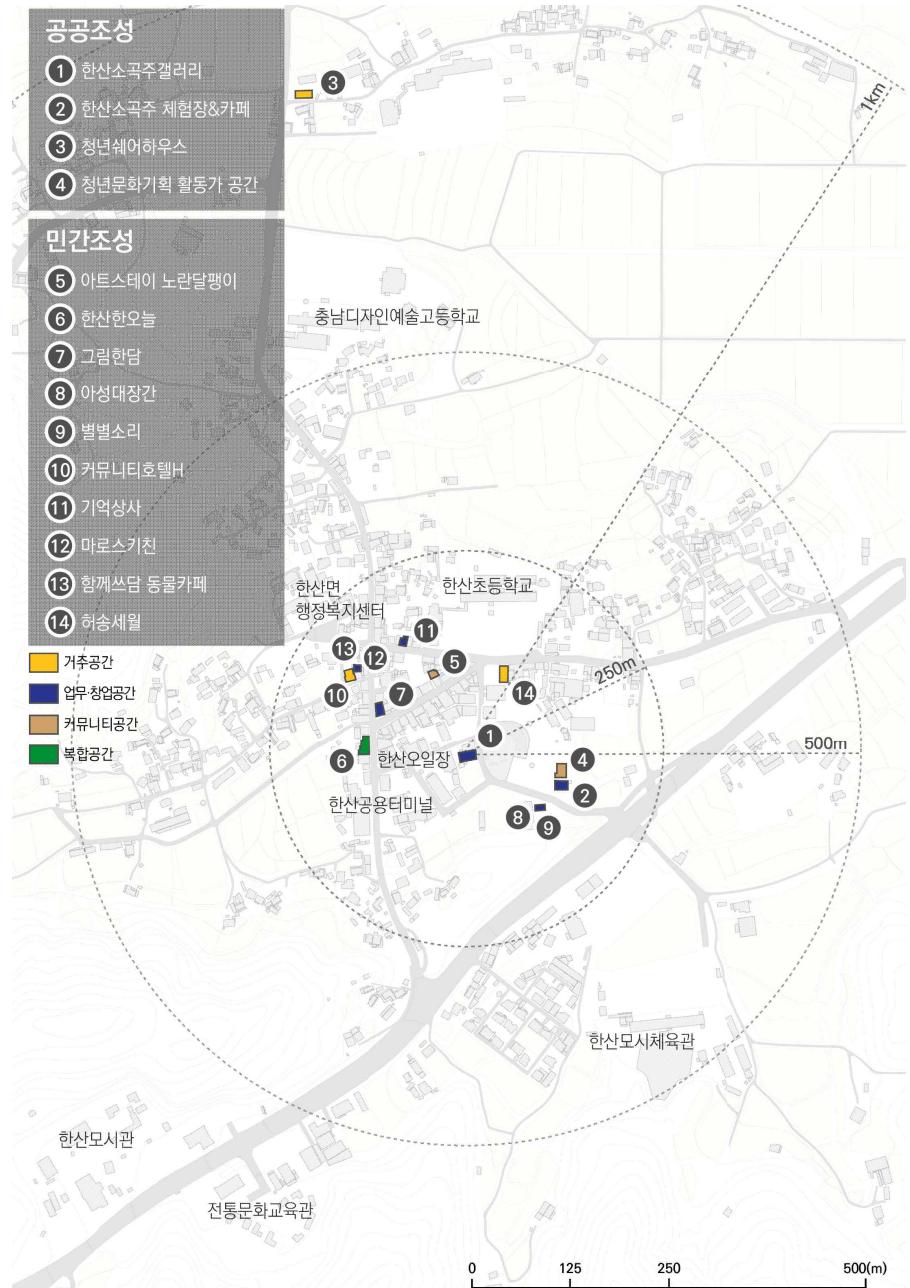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주1: 공간별 도입기능에 해당하는 곳은 회색으로 음영 처리(공간구성 : 단일 기능형 ●, 복합 기능형 ◎)

주2: 2018년 농림부 농촌민박지원사업(A), 2019년 행안부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B), 2019년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C), 2020년 충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D),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E)

주3: \*표시된 사업은 청년활동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그 외 공공지원사업은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해당

주4: 기억상사, 마로스키친, 함께쓰담 동물카페는 사이엔트가 무지개 식당을 매입하여 조성한 업무·창업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4-5]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을 마련한 경우는 2019년 자이엔트가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유휴공간이었던 서광장여관과 무지개식당 2개소가 있다. 서광장여관은 숙박시설인 커뮤니티호텔H로 조성되었고, 무지개식당은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② 운영 특성

### □ 운영방식 : 이주청년과 지역주민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공공에서 조성한 공간 중 한산소곡주갤러리는 2017년도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인 농업회사법인 가온누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한산소곡주체험장·카페의 경우 행정직영의 소곡주 공동 체험장 외에는 주민과 소곡주 영농조합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카페 교육장과 사무공간이 있다. 청년쉐어하우스는 서천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삶기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단기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 조성 공간들은 대부분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들로 삶기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거나 청년창업공간으로 나타났다. 삶기술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청년대상 프로그램으로 ‘삶·앎·짧’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지역 조사 및 연구, 아이디어 계획서 작성, 팀 빌딩, 사업화 실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 과정<sup>39)</sup>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초에는 지역자원인 소곡주, 모시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운영 비중이 높았고, 2021년부터는 자전거 기부, 사진촬영 등과 같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늘려가고 있다.<sup>40)</sup> 삶기술학교가 운영되는 한산한 오늘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내 청년문화기획 활동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 □ 공공지원사업 : 지자체에서 후속사업을 발굴, 앵커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한산면의 청년활동공간은 2019년 행정안전부의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는 충청남도와 서천군 자체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살이와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복합공간(한산한 오늘), 업무·창업공간(별별소리, 그린한담), 거주공간(허송세월)은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재료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조성·운영되었다. 마로스키친, 함께쓰담 동물카페, 기억상사 업무·창업공간 3개소는 2020년 충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였다. 커뮤니티호텔H는 2019년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 매입을 진행하여 조성된

39)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https://hansan.slowtech.ac/introduce/> (검색일: 2021.9.30.)

40) 사이엔트(2021, pp.10-37)

숙박시설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 숙박이 저조하여 객실 대부분을 삶 기술학교 한달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단기 체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③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 개·보수된 노후 및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

청년들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는 대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년간 사용하고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 조성방식은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간 구득을 용이하게 해주고, 동시에 지역의 빈집 재생과 물리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 이주청년들의 창업공간 조성과 지역 내 점포수 증가

2019년 삶기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중 3명이 지역에 정착하여 음식점, 사진관,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마련하였다. 청년 창업과 더불어 한산면의 점포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서천군에는 2,526개의 점포가 있었으나 2021년 점포수는 3,252개로 나타나 2015년도 대비 약 29%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산면의 경우, 2015년 108개의 점포에서 2021년에는 100%가 증가한 216개의 점포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음식점업이 1,414.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소매업종 95.2%, 숙박업 50%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청년문화기획 활동가 공간 조성 현황((구)유림회관)      청년활동공간 주변에 지역주민이 신규 조성한 카페

[그림 4-6]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출처 :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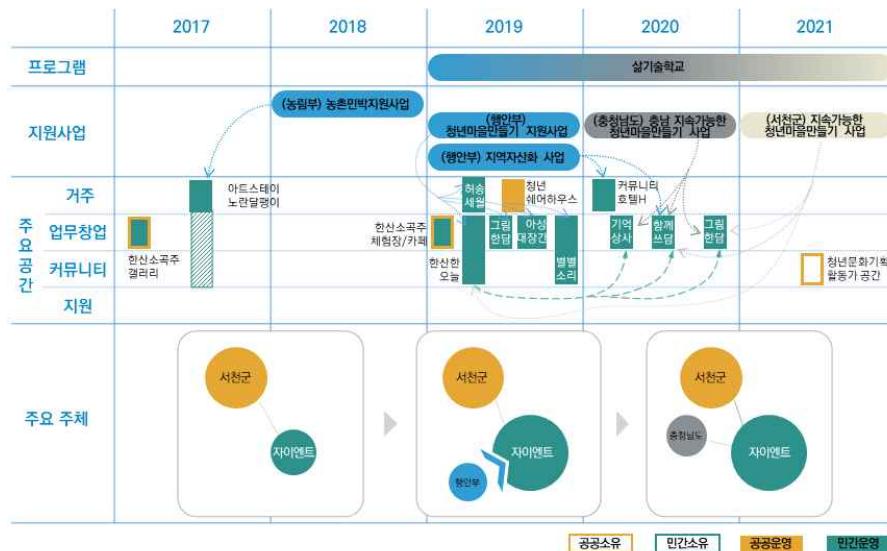
### ④ 종합

서천군 한산면 일대는 민간주체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곳으로 2019년 행정 안전부의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공간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게 되었다. 특히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사이엔트는 ‘삶기술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이주와 정착에 대한 안내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자체 차원의 후속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 증가하면서 공간별 도입기능과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각종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빈집 재생·활용을 통한 공간 이용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청년들과 주민, 지역단체 간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왔다. 특히, 사이엔트는 청년활동공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지역단체 및 기업인 소곡주 갤러리, 한산유림, 아성대장간, 한산소곡주 조합 등과 공유하고, 지역단체 소유 공간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하여 왔다. 또한 지역자원 기반 비즈니스 모델(한산소곡주 브랜딩 및 판매 등)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소곡주 갤러리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주청년과 아성대장간 명인을 삶기술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초빙하는 등 지역 내 활동주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한산면에서는 공공지원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면서 외지청년들의 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지역으로 이주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주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서 지역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핵심 주체가 있고, 지역주민, 행정과의 협업구조를 강화해온 것이 기반이 되고 있었다.



[그림 4-7]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출처 : 연구진 작성

### 3)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 ① 공간 특성

##### □ 일반현황

공주시의 청년활동공간은 신도심 지역인 금강 북측의 공주대학교 일대와 원도심 지역인 산성시장 일대, 중학동 일대의 세 곳에 집중되어 있다. 심층분석 대상지인 중학동 일대는 최근 다수의 청년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 내·외부 청년들의 참여비율이 높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에 재방문하거나 이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심층분석에서는 공공 조성 공간 4개소와 중학동 일대 32개 청년활동공간 중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활용된 15개소<sup>41)</sup>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중학동 일대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4개소가 있다. 공주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청년공유주택<sup>42)</sup>, 청년공유공간,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청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청년정책팀은 2022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대책으로서 주거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sup>43)</sup> 그밖에 지역의 유휴공간인 (구)양조장, (구)호서극장, (구)드림마트를 활용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점차 청년대상 공공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민간주체들이 조성한 공간은 거주공간 3개소, 업무·창업공간 1개소, 복합공간 7개소가 있다. 거주공간인 ‘봉황재’, ‘버드나무빌’, ‘정중동호스텔’ 3개소는 중학동 일대에서 활

41)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지역 살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15개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함. 설문조사 세부내용은 5장 3절에서 제시함.

42) 청년공유주택은 청년들의 주요 활동 범위인 중학동과 거리가 약 950m 떨어진 옥룡동에 조성되고 있으며,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학동 일대는 청년들의 주거공간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들은 신도심 지역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주시 이주청년 11명 심층 인터뷰 결과 참조, 인터뷰 진행 : 2021.8~9.).

43) 공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 팀장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12.30.) 참고

동하고 있는 민간주체가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2021년 기준 세 곳 모두 지역 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임시주거로 활용되고 있다. 업무·창업공간 ‘금강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주)퍼즐랩이 조성하였으며, 지역 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 및 행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합공간 7개소 중 ‘업스테어스’는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이 결합된 공간으로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 소모임, 강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지청년들에게 공주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와플학당’, ‘가가책방’, ‘크림’, ‘프론트카페’, ‘반죽동247’은 업무·창업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결합된 곳으로, 개인 창업 활동, 소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죽동247은 중학동에서 청년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2017년도에 조성된 카페로 지역으로 유턴한 청년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퀄컴파니’는 업무·창업, 커뮤니티, 거주공간이 결합 된 곳으로 현재 1·2층은 이주청년이 개인 사업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3층은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임시주거로 사용되고 있다.

#### □ 조성 및 이용방식

-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활동공간으로 기능 전환

공공이 조성한 청년활동공간 4개소 중에서 신축하고 있는 청년센터를 제외한 3개소는 기존 건축물을 재생·활용하였다. 문화예술촌은 (구)소방서 건물, 청년공유주택과 청년 공유공간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민간주체가 조성한 청년활동공간 대부분은 지역 내 점포<sup>44)</sup>를 임대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성하였다. 2021년 하반기에 조성된 크림은 경양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모델을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금강관은 폐업한 헬스장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대상 교육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처럼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중학동 내에서는 일반 음식점, 구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베이커리, 카페 등 업무·창업공간으로 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민간주체 운영공간을 활용한 청년활동 진행

공공에서 조성한 문화예술촌은 시설의 주요 이용대상이 예술인 혹은 창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늦은시간에 퇴근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

44) 2020년 무렵 중학동에서 업무·창업공간 조성 움직임이 활발하여 빈 점포, 빈집을 찾기 힘든 상황임

[표 4-8]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조성 주체	조성 연도	일반현황				조성/이용방식	운영방식	공공 지원 사업
		도입기능	공간 구성	점유 방식	조성 방식			
거주	업무	커뮤니티	지원					
창업	나이티							
공공	1.문화예술촌	2016		◎	지자체 소유	리모델링	공주시 문화예술 기획 전시 (민간위탁)	-
	2.청년공유주택	2021 (조성 중)		●	지자체 소유	리모델링	공주시 -	-
	3.청년공유공간	2021 (조성 중)		◎	지자체 소유	리모델링	공주시 청년 대상 힐링, 상담 (민간위탁 프로그램 추진(예정))	-
	4.청년센터	2021		◎	지자체 소유	신축	취·창업 정보제공 등	-
민간	8.봉황재	2018		●	임대	리모델링	이주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숙소	D*
	9.버드나무빌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숙소	D*
	10.정중동호스텔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숙소	C*, D*
	11.업스테어스	2019		◎	임대	리모델링	이주단체 소모임, 강연, 포럼, 코워킹스페이스 등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	A, C*, D*, F*
	12.와플학당	2019		◎	매입	리모델링	이주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	C*, D*, F*
	13.금강관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 행사	D
	16.가가책방	2019		◎	임대	리모델링	개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모임	B*, F*
	17.이컬컴퍼니	2020		●	매입	리모델링	이주청년 제민러너스(러닝클럽) 등	B*
	19.크림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창업 모델 실험	D, E
	25.프론트카페	2020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로컬 푸드 메뉴 개발 등 단체	F*
	27.반죽동247	2017		◎	임대	리모델링	유년청년 지역 단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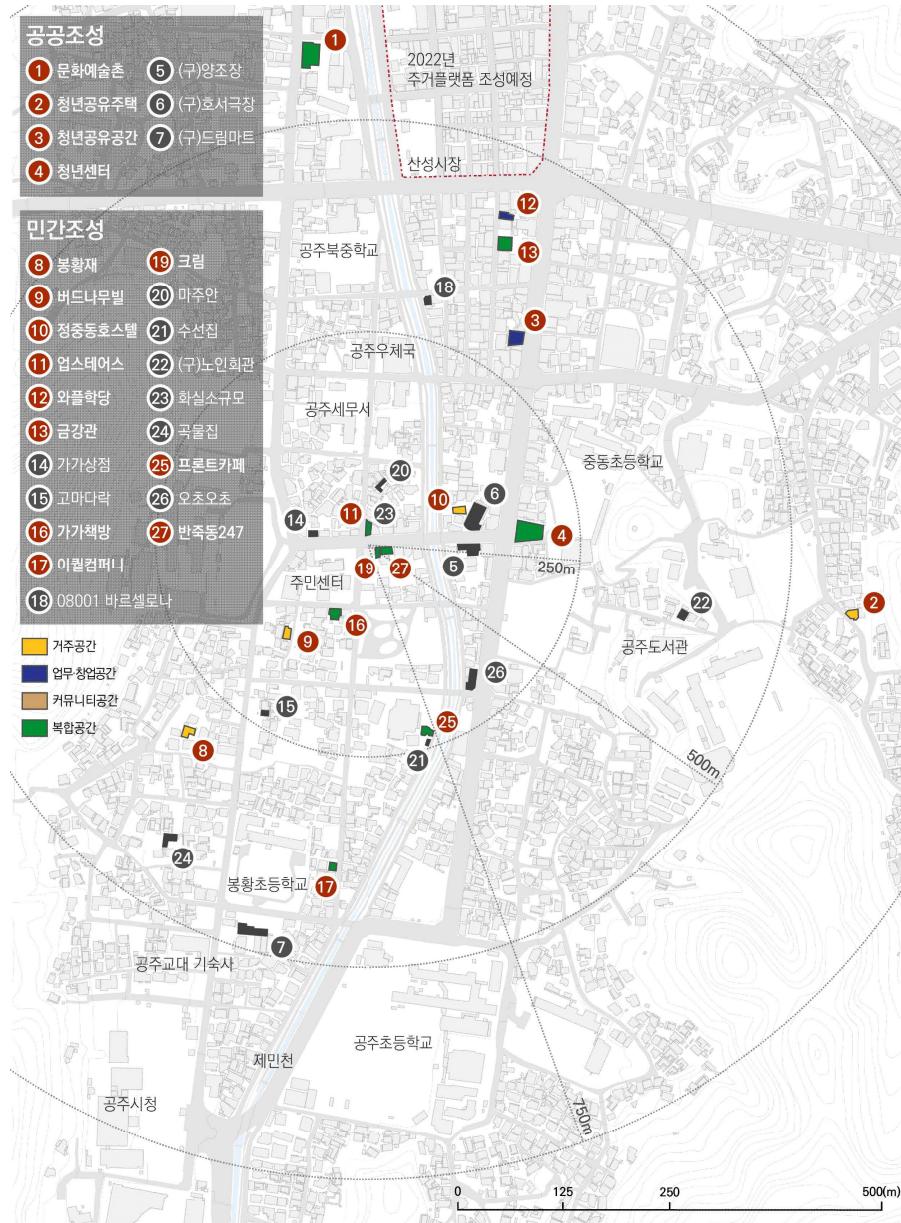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주1: 대상지 청년활동공간 34개소 중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활용된 청년활동공간 15개소를 중심적으로 분석

주2: 공간별 도입기능에 해당하는 곳은 회색으로 음영 처리(공간구성 : 단일 기능형 ●, 복합 기능형 ◎)

주3: 2019년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A),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B), 2020년 공주시 청년 지역살이 지원 사업 (C),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D), 2021년 중기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E), 기타(고용부, 문화진흥원 등) 지원사업 (F)

주4: \*표시된 사업은 청년활동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그 외 공공지원사업은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해당



[그림 4-8]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청년활동공간 34개소 중 청년미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활용된 청년활동공간 15개소를 중심적으로 분석, 15개소에 해당하는 공간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

퇴근 또는 영업시간 이후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청년들은 반죽동247, 업스테어스, 가가책방과 같은 민간주체 운영 공간을 활용하여 소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고, 사업의 수행기관인 (주)퍼즐랩은 민간주체가 조성해 놓은 공간들을 임시주거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여 지방이주 탐색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② 운영 특성

### □ 운영방식 :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 활동 주체들 간의 상생

문화예술촌은 2016년 도시재생선도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공주문화재단에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본 시설에서는 지역예술가 기획 전시, 창작공간 대관, 레지던스 공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청년공유주택, 청년공유공간, 청년센터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주체 운영공간에서는 마을투어 프로그램,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퍼즐랩에서 운영하는 지역살이 프로그램 마을투어 프로그램의 경우, 곡물집, 와플학당, 가가책방, 고마다락, 반죽동247, 마을공방 운영주체들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참가하여 마을 안내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퀼스테이, 가가힐스테이와 같이 저활용되고 있는 숙박공간을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임시숙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공간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년활동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민간주체 간 연대 및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공공지원사업 : 청년활동공간 확장과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중학동 일대에 조성된 청년활동공간은 국비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마련되거나 청년주체들의 자부담을 통해 마련되었다. 업스테어스의 경우, 2019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을 공유 오피스, 회의실, 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2021년도에 조성된 금강관과 크림은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공간 임대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투어 프로그램, 지역살이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등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비용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 ③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중학동 일대는 2019년도부터 이주청년, 이주청년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청년활동공간이 증가하였다. 2019년도에는 (주)퍼즐랩, 가가북앤컬쳐, 2020년에는 고마다락, 에듀커넥트, 이퀄컴퍼니, 2021년에는 (주)메이크 프로덕션 등의 활동 단체들이 유입되어 개별 활동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간 주변으로 베이커리, 스페인 음식점, 와인바 등의 창업공간들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공주시 내 점포수는 5,110개에서 7,034개로 약 38% 증가하였다. 중학동의 경우, 2015년 602개 점포에서 2021년 860개 점포로 공주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약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6년간 1,829% 증가하였고, 관광/여가/오락업 44%, 소매업 36%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신규 점포는 주로 중학동 일대 제민천을 중심으로 500m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례  
출처 : 연구진 촬영

### ④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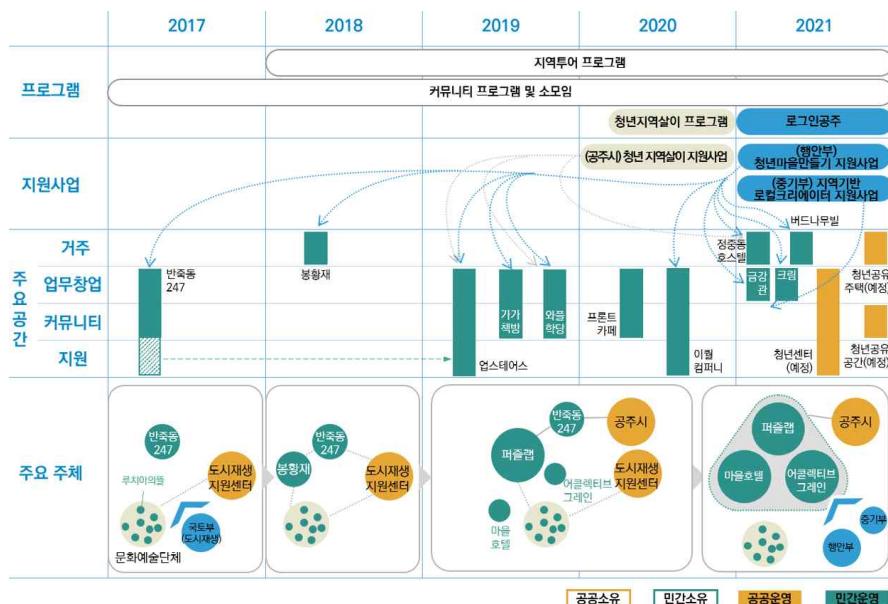
공주시 중학동 일대는 2017년부터 민간주체 주도로 청년들의 지역 템색 기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소모임, 지역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 청년들의 지방이주나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방문 청년들이 증가하고,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청년활동공간이 조성되었다.

청년활동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지역의 청년기업이나 청년단체, 지역단체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청년들에게 마을의 안내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저이용되고 있는 점포나 숙

박시설이 청년활동공간으로 재활용됨으로써 지역 내 오래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재생·활용의 가능성도 제시해주었다.

중학동 일대에서 청년활동의 증가는 지자체와 창업가들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주시는 중학동 도보권 내에 청년센터, 청년공유공간, 청년공유주택 조성을 통해 청년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가들은 중학동의 활력을 이용하여 MZ세대의 취향이 반영된 음식점, 술집, 문화예술 기획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는 일찍이 중학동에서 활동을 시작한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골목길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중학동에 유입된 이주단체, 청년단체들은 문화예술단체가 축적한 지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 받고,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청년활동 기반의 원도심 재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림 4-10]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출처 : 연구진 작성

주1 : 지원사업과 주요공간을 이어주는 화살표는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되거나 공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된 공간을 의미

주2 : 주요 주체에서 점선은 느슨한 연계·협력 관계, 실선은 강한 연계·협력 관계를 의미

## 4)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 ① 공간 특성

#### □ 일반현황

전북 완주군에서 청년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삼례읍과 봉동읍으로 우석대학교와 과학산업연구단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하여 일자리나 거주공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고 전주시와 익산시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의 거주비율이 높다. 반면, 심층분석 대상지인 고산면 일대는 두 지역에 비해 고용여건, 기초생활인프라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의 문화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45)</sup>.

고산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율곡교회와 농민회, 교육공동체(고산향교육공동체, 숲가락공동육아모임 등)를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온 지역이다. 2010년부터 지역 경제순환센터(현)소셜굿즈센터<sup>46)</sup>,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고, 기존 공동체들이 인큐베이팅 되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조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다수의 일자리가 생겨났다<sup>47)</sup>. 2016년도에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청년전담부서를 마련, 같은 해 12월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48)</sup>

-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고산면 일대에 공공이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거주공간과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이 복합된 총 11개 공간이 있다.

거주공간은 청년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세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지역탐색이나 지역 살이 경험을 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게스트하우스’, ‘아트스테이 풀 예술가 레지던시’ 2곳이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최대 2개월 간 체류할 수 있으며 4일 이상 체류 시 사용료가 할인된다. 아트스테이 풀은 음악분야 예술인을 우대하며 레지던시에서 한 달 살기를 체험할 수 있다.<sup>49)</sup>

45) 김주영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7.) 참고하여 작성

46)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센터로 2020년 완주소셜굿즈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삼례읍으로 기관을 이전하였음

47) 고가온 외(2019, p.109)

48)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9, pp.118-130)

이주 초기 단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집’, ‘농가형주택’, ‘웰메이드하우스’ 4곳이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농인의 집은 거주공간, 영농실습장, 영농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년 3개월 머무를 수 있고 월 10만원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가형주택, 웰메이드하우스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거주공간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과금을 제외하고 1인당 월 5만원이다.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는 삼례읍 2곳, 봉동읍 4곳, 고산면 2곳, 이서면 2곳의 총 10곳이 있으며,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 원하는 지역의 쉐어하우스로 재신청하여 이동할 수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정주공간으로는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청년행복주택이 고산면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1년 현재 완주군 내 청년행복주택은 삼례읍에 1개소 있으며, 고산면에 추가 조성됨에 따라 향후 이주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거주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50)</sup>

완주귀농귀촌 지원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은 거주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업 지원, 농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무·창업, 커뮤니티, 지원공간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트스테이 풀은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음악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창업보육센터, 완주미디어센터, 고산청년거점공간은 업무·창업, 커뮤니티, 지원기능이 결합 된 복합공간으로 주민의 창업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에는 청년센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정책팀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청년센터 건립이 가시화 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청년센터 건립도 좋지만,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주 이용하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거점 공간들이 지역 내 꾸준히 조성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51)</sup>

#### • 민간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민간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6개소로 업무·창업공간인 ‘달달 마카롱’과 ‘비빌언덕 공유실험실’을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는 업무·창업공간에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다.

49)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wfac.or.kr/2021/inner.php?sMenu=A1000&mode=view&no=633> (검색일: 2021.11.4.)

50)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홈페이지,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검색일: 2021.11.4.)

51) 완주군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9.24.) 참고하여 작성

2019년도에 조성된 업무·창업공간인 달달 마카롱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이다. 2021년에 조성된 비빌언덕공유실험실은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민간주체 운영 공간 중 가장 먼저 조성된 ‘널리널리 흥홍’은 2016년도에 업무·창업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 조성된 ‘오순도순 멜로디’는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창업공간이자 음악을 매개로 지역주민,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을 통해 ‘비빌언덕 중개사무소’, ‘로컬베이스캠프’ 복합공간이 조성되었다. 비빌언덕 중개사무소에서는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정보공유, 창업 컨설팅, 이주청년과 이주 희망 청년 간의 교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로컬베이스캠프는 기존 지역청년 및 귀농귀촌자들의 거점공간이었던 공유부엌 ‘모여라 땡땡땡’<sup>52)</sup>, 공유공간 ‘온누리풀씨’를 대체하여 만든 공간으로 씨앗협동조합,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요 청년 및 공동체 관련 협동조합이 입주할 예정으로 마을교육 공동체프로그램과 청년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로컬베이스캠프를 제외하면 모두 ‘고산미소시장’에 밀집해 있다.

## □ 조성 및 이용방식

- 폐가, 폐교,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은 신축하거나 폐가,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공간이 조성되었다. 창업보육센터, 완주귀농귀촌지원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완주미디어센터는 완주군에서 신축하였으며,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는 폐교를, 귀농인의집은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민간 조성 청년활동공간은 주로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청년활동공간 5개소가 모여 있는 고산미소시장은 2013년 고산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현대식 전통시장으로 주변 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여 이주청년들의 창업 활동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산미소시장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의 업무·창업 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실, 공방,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

52) 2017년부터 운영되었던 공유부엌 모여라땡땡땡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2020년도에 철거됨

- 지방이주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조성 거주공간 마련

완주군은 지방이주 단계별 거주공간이 마련된 지역이다. 완주군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심층인터뷰 진행을 통해 탐색 단계에서는 임시주거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안주군에서 조성한 청년 쉐어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원룸, 아파트 등의 정주공간을 필요로하게 된다. 완주군의 경우, 고산면 기준 13분 거리에 위치한 완주삼봉LH 아파트로 이동하여 저렴한 월세로 장기 거주하는 방식을택하고 있었다.<sup>53)</sup> 이와 같이 이주단계별로 필요한 거주공간 마련 방안이 청년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어 이주 희망 청년들이 거주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운영 특성

- 운영방식 : 이주청년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공동 관심사를 가진 그룹을 조직·육성하여 협업 프로젝트 진행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고산청년거점공간의 경우, 2020년도에 이주청년들이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공간 운영자로 선정되어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과 함께 완주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은 완주로 이주한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삼례읍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를 위탁운영하면서 삼례읍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2017년부터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고산면으로 활동 지역을 옮겨왔다. 커뮤니티 부엌(모여라 땅땡땡) 운영을 시작으로 완주미디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완주탐험’ 청년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캠프의 주요 테마는 완주로 이주한 청년들과의 교류(사람책 프로그램)와 지역살이 체험(완주탐험-순한맛)이며, 이주 희망 청년과 이주 청년들 간의 관계 형성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54)</sup>

53) 전북 완주군 고산면으로 이주한 청년(김다솜, 박새로미)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5.27.) 참고

54) 우리가 비밀언덕이 되어줄게! 청년이 바꾸고 청년이 만드는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 행정안전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paspr/222507880073> (검색일: 2021.9.30.)

[표 4-9]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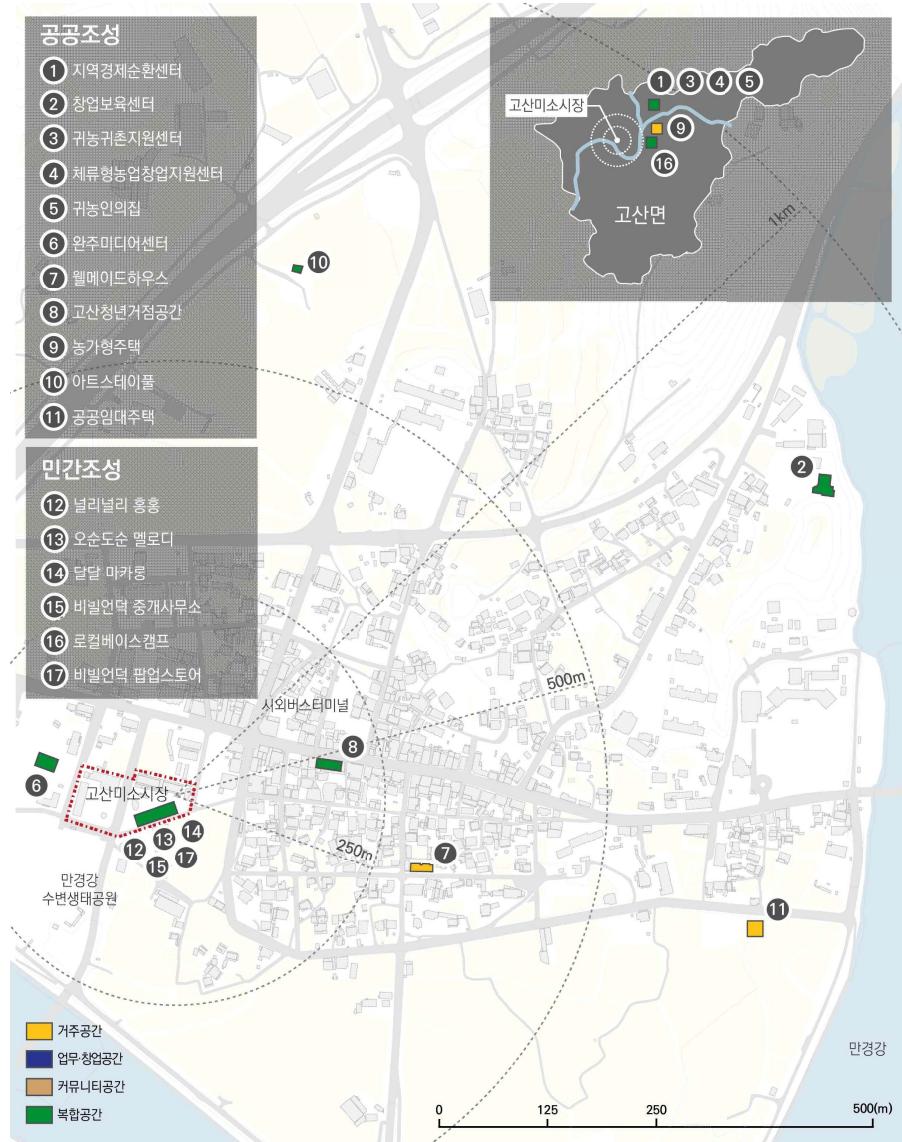
일반현황 조성 주체	공간명 연도	조성 도입기능			공간 구성	조성/이용방식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	공공 지원 사업
		거주	업무	커뮤 니티		점유 방식	조성 방식			
1.완주지역경제순환 센터	2010				◎	지자체 소유	리모 델링	완주군	공동체회사창업보육,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등	-
2.창업보육센터	2012				◎	지자체 소유	신축	전주대학교	창업교육·보육, 장비대여·교육 등	-
3.완주귀농귀촌 지원센터	2013				◎	지자체 소유	신축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교육·컨설팅 등(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단기 거주공간)	D*
4.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2016				◎	지자체 소유	신축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 교육·컨설팅 등	-
5.귀농인의집	2016				◎	지자체 소유	리모 델링	완주군, 마을	귀농귀촌 교육·컨설팅 등	-
6.완주미디어센터	2018				◎	지자체 소유	신축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	미디어 교육, 창작 지원 프로그램	-
7.웰메이드하우스 (쉐어하우스)	2018				●	지자체 소유	리모 델링	완주군	-	-
8.고산청년거점공간	2019				◎	지자체 소유	리모 델링	림보책방	소규모 커뮤니티 프로그램	-
9.농가형주택 (쉐어하우스)	2020				●	지자체 소유	리모 델링	완주군	-	-
10.아트스테이풀	2020				◎	지자체 소유	리모 델링	완주문화재단	일상적 예술 활동 프로그램	-
11.공공임대주택 조성 예정					●	한국토 지주택 공사	신축	한국토지 주택 공사	-	C
민간 12.널리널리홍홍	2016				◎	임대	리모 델링	널리널리 홍홍	커뮤니티 프로그램	-
13.오순도순멜로디	2018				◎	임대	리모 델링	오순도순멜로디	문화예술 프로그램	-
14.달달 마카롱	2019				●	임대	리모 델링	달달마카롱	-	-
15.비빌언덕 중개사무소	2021				◎	임대	리모 델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시장 활성화, 문화기획 등의 정보공유 등	B
16.로컬베이스캠프	2021				◎	매입	신축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지역살이 프로그램 청년 창업 및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	A, B
17.비빌언덕 공유실험실	2021				●	임대	리모 델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B 창업실험	B

출처: 연구진 작성

주1: 공간별 도입기능에 해당하는 곳은 회색으로 음영 처리(공간구성 : 단일 기능형 ●, 복합 기능형 ◎)

주2: 2020년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A),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B), 2020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C), 2021년 농림부 농촌에서 살아보기  
공모사업 (D)

주3: \*표시된 사업은 청년활동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그 외 공공지원사업은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해당



[그림 4-1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 □ 공공지원사업 : 청년활동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청년이 지역으로 유입

고산면 일대는 육아공동체, 농촌생활기술학교에 참여하기 위한 청년들의 유입이 많았으나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노마드, 청년예술가, 창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청년캠프 참가자 중 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거주, 업무·창업, 커뮤니티, 지원공간이 결합된 로컬베이스캠프를 신축하였다. 본 공간은 청년들이 지역 팀색, 이주단계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집적시켜 놓았기 때문에 창업 교육, 지역 정보 교류, 커뮤니티 활동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③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2000년대 초반에는 대안 교육과 육아를 위해 고산면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많았으며<sup>55)</sup> 현재까지도 숟가락공동육아, 고산향교육공동체 중심으로 학부모, 청년, 청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부터는 창업을 목적으로 고산면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카페, 책방을 운영하며, 북클럽, 민화그리기와 같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비빌언덕공유실험실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마친 청년들이 고산면에서 개별 공간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군은 2015년도 기준 점포 개수가 2,879개였으나 2021년 4,585개로 심층분석 대상지 4개소 중 점포 수 증가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고산면의 경우 13개의 읍면동 중에서 상권 증가율 상위 지역으로, 2015년 기준 211개의 점포가 2021년 371개로 약 76%가 증가하여 신규 점포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고산미소시장 내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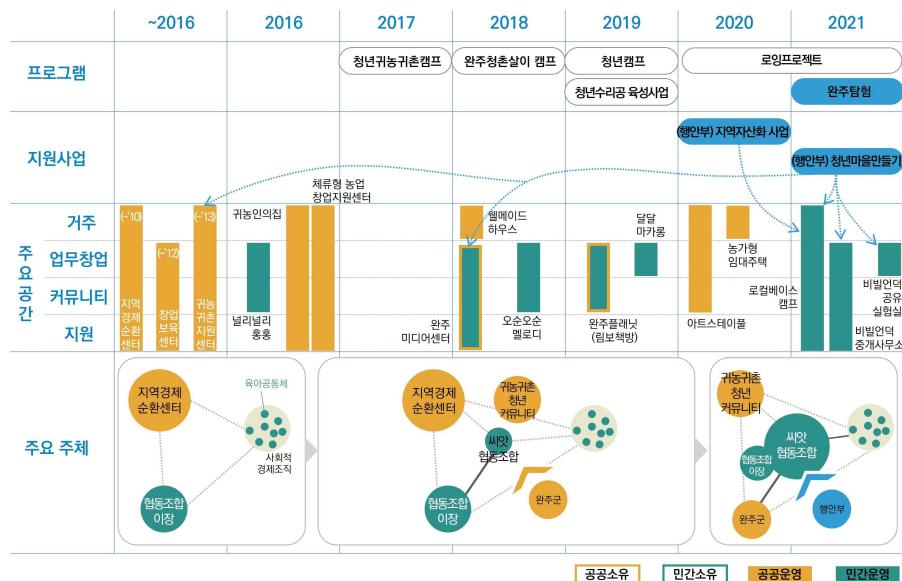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촬영

55) 고가온(2020, p.39)

#### ④ 종합

완주군은 4개 심층분석 지역 중 이주청년 활동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으로, 공공주도의 청년귀농귀촌 캠프, 완주청춘살이 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탐색 및 이주를 지원하여 왔다. 완주군에서는 지방이주 청년들의 지역탐색 과정에서부터 정 주지속까지 지방이주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이주청년들이 거주공간에 대한 심적·물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2017년도에는 이주단체인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이 고산면 일대로 활동 무대를 바꾸면서 청년들의 지역이주 및 정착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활동공간이 조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이나 기존 지역 정착청년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다.

완주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은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공동체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완주군의 분위기가 청년활동공간에 반영된 것으로 향후 조성될 청년활동공간들도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 산미소시장 중심으로 반경 250m 내 공공조성 청년활동공간들이 조성되고 있어 고산미 소시장이 고산면에서 청년활동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년창 업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미소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과 활 동도 모색해 나가는 중이다.



[그림 4-13]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출처 : 연구진 작성

## 5)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 ① 공간 특성

#### □ 일반현황

-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목원동 일대 공공에서 조성 또는 조성 예정인 청년활동공간은 총 8개소가 있다.

커뮤니티 및 지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은 ‘일자리 꿈터’와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가 있다. 일자리 꿈터는 2018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성,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는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이 2020년도에 조성하였다. 두 곳은 학습, 휴게, 소통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업무·창업공간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었다. 2014년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 지원공간’이 조성되었고,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청년창업상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 외 업무·창업공간으로는 목포시 일자리경제과와 (주)보행양조가 청년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보해양조상가 청년점포’가 있다. 2021년 기준 청년 창업가(단체) 9팀이 청년점포를 이용하고 있다.

거주공간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목포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목포역 인근(구)백제관광호텔 부지에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1~2층은 공공편익시설, 3~8층은 60세대의 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민간 조성 청년활동공간 현황

민간주체가 조성한 청년활동공간은 13개소가 있으며, 이 중 11개소가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한 ‘괜찮아마을’<sup>56)</sup> 프로그램 운영공간이거나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마련한 창업공간에 해당한다. 코워킹스페이스인 ‘로라(현 반짝반짝)’, 임시주거인 ‘중앙수도’, ‘우진장’, ‘보양빌라’, 업무·창업공간인 ‘뚝딱뚝딱’은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자 청년들이 지

56)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공장공장은 목포로 이주·정착한 청년기업으로 2015년부터 지역탐방 및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목원동의 유휴공간을 20년간 무상 임대받게 되면서 목포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지역에 10년 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있던 경양식집을 복합공간인 ‘로라(현 반짝반짝)’로 조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홍동우 (주)공장공장 대표 자문회의 내용 참고, 자문회의 일자 : 2021.7.23),

역에서 생활·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2021년에는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거주, 업무·창업, 커뮤니티 활동이 집적될 수 있도록 복합공간인 ‘쉬면서 일하는’을 조성하고 있다. 팬찮아마을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4명은 2019년에 목원동에 정착하여 ‘세종집’, ‘집씨’, ‘최소한끼’, ‘스튜디오 십삼월’의 업무·창업공간을 조성하였다.

그 밖에 2018년도 유턴청년과 지역청년 4명이 조성한 ‘시네마라운지MM’, 2021년도에 이주청년 또는 지역청년들이 조성한 ‘훈버거스테이션’, ‘유휴스튜디오’, ‘오쇼잉’, ‘Bar 원도심’, ‘라멘집 아저씨’ 등과 같은 업무·창업공간이 목원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다.

#### □ 조성 및 이용방식

- 공공 조성 청년활동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창업활동 지원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 지원공간, 보해양조상가 청년점포는 목포시가 조성한 공간을 청년들이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해양조상가 청년점포는 목포시 일자리경제과와 (주)보행양조의 협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목포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를 통해 상가 리모델링을 지원하였고, (주)보해양조는 청년창업가에게 평당 월 1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2019년 10개 창업팀이 선정되었고, 2021년 현재 9개 팀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이 조성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줌으로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꿈터, 청년·일자리 통합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18년도 전라남도에서 조성한 일자리 꿈터는 LH조성한 빌딩 내 공실 상가에 조성되었으며, 녹색에너지 연구원이 민간위탁 받아 취업 연계 프로그램, 회의실, 소통공간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통합센터는 2020년 목포시에서 조성한 곳으로 전남인력개발원이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의실, 독서실 등의 공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청년들의 공간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7)</sup>

- 청년주체들의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시도

팬찮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공장공장은 2018년 행정안전부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임팩트투자 플랫폼인 비플러스의 소셜프로젝트<sup>58)</sup>와 자부담을 통해 추가 공간

57) 일자리 꿈터와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담당자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9.16.) 참고하여 작성

58) 2019년 4천만원, 2020년 2천만원, 2021년 2천만원의 임팩트투자를 받아 ‘반짝반짝1번지’ 리모델링과 ‘쉬면서 일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홍동우 (주)공장공장 대표 자문회의 내용 참고, 자문회의 일자 : 2021.7.23),

[표 4-10]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종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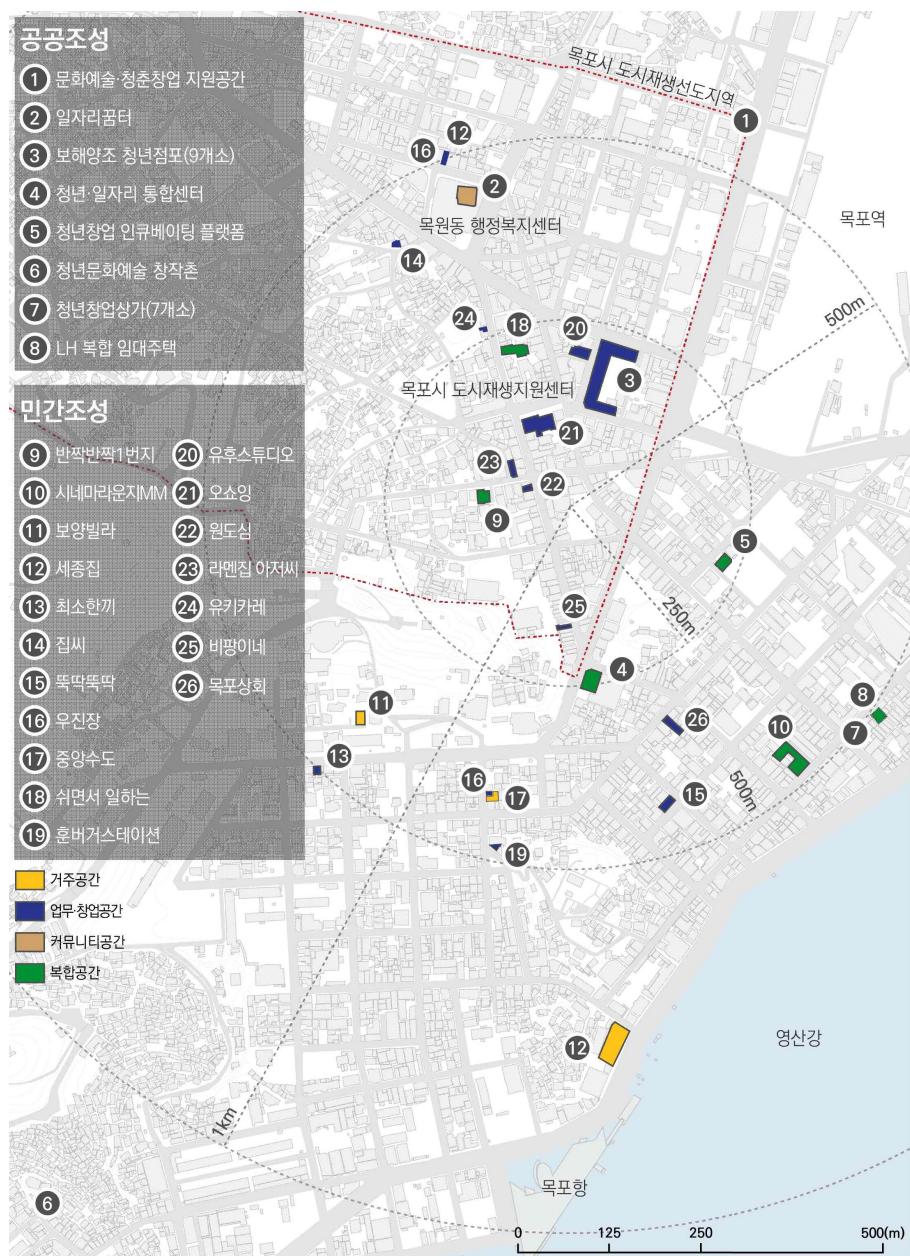
일반현황 조성 주체	조성 연도	도입기능 거주 업무 커뮤 지원 창업 니티				공간 구성	점유 방식	조성/이용방식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	공공 지원 사업
		거주	업무	커뮤	지원			조성 방식	운영방식 운영주체			
공공	1.문화예술 및 청춘창업 지원공간	2018					●	매입 또는 임대	리모델링	개별 창업가	문화예술프로그램	A
	2.일자리꿈터	2018					◎	광역 임대	리모델링	녹색에너지 연구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
	3.보해양조상가 청년점포	2019					●	임대	리모델링	청년 창업가 -		B
	4.청년·일자리 통합센터	2020					◎	지자체 소유	리모델링	전남인력개발원	취·창업 지원, 청년문화 프로그램 등	-
	5.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 중)	2021					◎	지자체 소유	신축	목포시	창업지원, 컨설팅 등	C
	6.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중)	2022					◎	지자체 소유	신축	목포시	체험, 커뮤니티/전시 프로그램	C
	7.청년창업상가 (조성 중)	2021					●	지자체 소유	리모델링	목포시	-	C
	8.LH 복합 임대주택	미정					◎	지자체	신축	미정	-	C
민간	9.반짝반짝1번지	2018					◎	매입	리모델링	이주청년 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문화행사, 강연, 커뮤니티 프로그램	D*
	10.시네마라운지 MM	2018					◎	임대	리모델링	유턴청년, 지역청년	영화 관련 문화예술프로그램	F*
	11.보양빌라	2017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임시 숙소	-
	12.세종집	2019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임시 숙소	-
	13.최소한끼	2019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여성 작가 교류 전시 프로그램	E
	14.집씨	2019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
	15.뚝딱뚝딱	2019					●	매입	리모델링	이주청년 (단체)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제작 기술 교육, 쉐어하우스	H
	16.우진장	2017					●	매입	리모델링	이주청년	단기 거주공간	D*
	17.중앙수도	2017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단체	미정	-
	18.쉬면서 일하는	2019					◎	매입	증개축	이주청년 단체	미정	G
	19.훈버거 스테이션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	-
	20. 유후스튜디오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지역청년	-	-
	21. 오쇼잉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지역청년	-	-
	22. Bar 원도심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	-
	23. 라멘집 아저씨	2021					●	임대	리모델링	이주청년	-	-
	24. 유키카레	2021					●	임대	리모델링	지역청년	-	-
	25. 비팡아내	2021					●	임대	리모델링	지역청년	-	-
	26. 목포상회	2021					●	임대	리모델링	지역청년	-	-

출처: 연구진 작성

주1: 공간별 도입기능에 해당하는 곳은 회색으로 음영 처리(공간구성 : 단일 기능형 ●, 복합 기능형 ◎)

주2: 2014년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사업 (A), 2019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B),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C), 2018년 행안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D), 2020년 목포시 창업지원금사업 (E), 2020년도 행안부 마을기업 (F), 비플러스 소셜 프로젝트 (G), 2019년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주관사업 (H)

주3: \*표시된 사업은 청년활동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그 외 공공지원사업은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해당



[그림 4-14]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신규 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민간 금융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였다. 목포의 사례처럼 지방중소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나 청년기업들은 도시재생기금이나 펀드투자 등을 통해 공간 조성을 위

한 자금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이나 일정 규모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탐색단계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목원동 일대의 청년활동공간은 관계인구 청년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는 웬찮아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공간 조성이 늘어나면서 지방이주나 지역정착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고려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업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라(반짝반짝1번지)’가 가장 먼저 조성이 되어 지역을 방문한 청년들이 이곳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공간 일자리꿈터, 청년·일자리 통합센터를 통해 지역정착 과정의 청년들이 고용 정보를 구득하고, 초기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이주청년 인터뷰를 통해 공공에서 조성한 청년활동 공간은 “개인 공간을 마련하기 전에 간략한 문서작업,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다.<sup>59)</sup>

## ② 운영 특성

### □ 운영방식

- 민간 주도의 지역탐색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목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목포의 섬, 랜드마크, 야경 등 지역을 탐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역투어가 운영되고 있고, 도시에서의 삶과 다른 지역살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은 목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그룹을 형성하면서 지역에 정착, 창업하는 경우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년청년과 지역청년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네마라운지MM’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 영화 상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에는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주민들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sup>60)</sup> 이외에도 ‘오쇼잉’, ‘유후스튜디오’ 역시 이주 청년과 지역청년이 협력하여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59) 최소한끼 대표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9.16.) 참고하여 작성

60) 시네마라운지MM 대표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11.4.) 참고하여 작성

이와 같이 목포시 목원동 일대에서는 민간주도로 지방이주 청년의 정착과 주체 간 자발적 협력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주도의 사업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장소기반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창업 지속성 확보 측면이 민간 창업 생태계 내에서 ‘파트너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61)</sup>

- 개별 공동체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

목원동 일대는 (주)공장공장을 중심으로 한 이주청년 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협의체, 중장년층 이주단체 등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각 커뮤니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어떠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중장년층 이주단체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개별 공동체들의 역량이 쌓이고,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연계·협업하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현재는 경험치를 늘려가는 과정으로 2~3년 뒤에는 공동체 간에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해볼 생각”이라고 하였다.<sup>62)</sup>

#### □ 공공지원사업 : 앵커기업 사업 초기 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도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사업은 (주)공장공장이 본격적으로 팬찮아마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사업 수행 당시, 대부분의 사업비용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투입되어 일반대출과 개인을 통한 자금 대여로 공간 임대 및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신규 공간 조성 시 자부담 방식을 통해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3)</sup> 2021년 기준 팬찮아마을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과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앵커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초기단계에 지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③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목포시 청년활동공간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2018년도에 조성된 청년활동공간은 5개소로 모두 이주청년단체인 (주)공장공장이 팬찮아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조성한 공간들이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구상한 사업 아이템을 활용하여 목원동에서 각각 음식점, 사진관, 굿즈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목원동으로의 개별적 이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1

---

61) 전은호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 2021.12.10.) 참고하여 작성

62) 꿈바다협동조합 대표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9.16.) 참고하여 작성

63) 홍동우 (주)공장공장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7.23.) 참고하여 작성

년 하반기에 ‘Bar 원도심’, ‘라멘집 아저씨’와 같이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조성한 업무·창업공간 5개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점단위의 창업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심층분석 대상지 중 점포 수 증가율이 약 7%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 13,756개 점포가 2021년 14,76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원동 일대는 목포시 내에서도 점포 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2015년도 기준 1,086개 수준이었던 점포 개수가 2021년 822개로 약 2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에 따른 변화를 보면, 부동산업, 관광/여가/오락업종의 감소율이 각각 -400%(2015년 5개, 2021년 1개), -100%(2015년 18개, 2021년 1개)로 높은 반면, 음식업종은 88% 증가(2015년 228개, 2021년 262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안가 주변으로 신규 점포(카페) 조성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원도심(목원동 일대) 상권

[그림 4-15] 해안가 주변 상권과 원도심 상권 비교

출처 : 연구진 촬영

목원동 원도심 상권의 쇠퇴문제는 지역에서 창업을 한 이주청년들에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청년 심층 인터뷰 결과, 목원동에서 저렴한 임대비를 내고 비즈니스 모델 실험은 가능하였으나, 원도심 내 수요계층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하기 어려워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sup>64)</sup> 이처럼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지속하기 위해서는 탐색 및 이주단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취·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이 필요하며,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과 신규 유입된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④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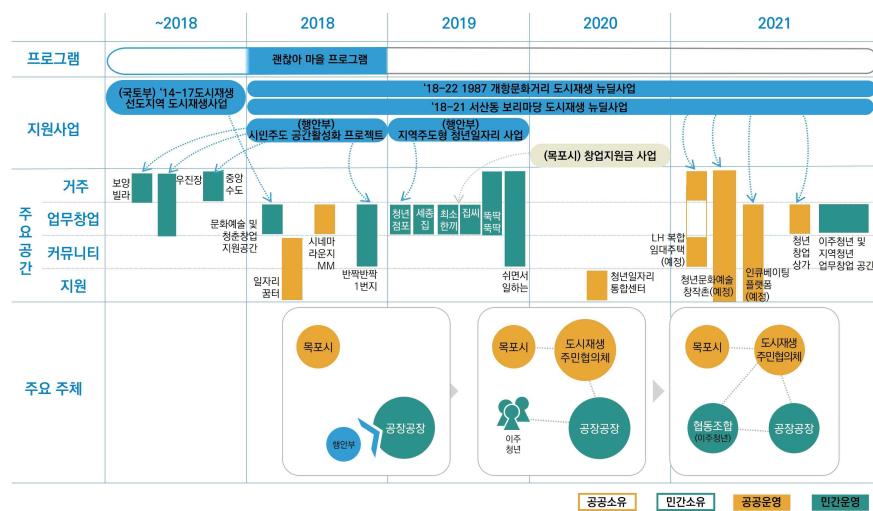
목포시 목원동 일대의 청년활동공간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 먼저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청년들의 지방이주나 지역살이와 관련된 공간들은 민간주체

64) 최소한기 대표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9.16.) 참고하여 작성

인(주)공장공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한 팬찮아마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기능이 도입된 공간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이주청년들이 마련한 공간 사례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2020년부터 공공에서 조성한 공간들도 증가하고 있고, 정주공간으로 LH 복합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으로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조성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019), 목포시 창업지원금 사업(2020) 등을 통해 청년 창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목원동 일대에서는 이주청년, 유턴청년, 지역청년 등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직접 공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직된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여러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체들 간 교류나 결합, 협력이 구체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청년인구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공간들도 마련되고는 있으나 동시에 원도심 상권의 쇠퇴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 정주지속을 위해서는 지역의 건물주나 상인회, 지역주민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 내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활동공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 정책과 공간 지원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sup>65)</sup>



[그림 4-16] 전남 목포시 목원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정

출처 : 연구진 작성

65)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자문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12.10.) 참고.

##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 □ 분석 종합

-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요인 도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 동료나 지인 등 지역 내 관계망 형성, 지역살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유무가 지방이주 및 정착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일자리나 인프라 부족, 지역주민 및 청년과의 갈등이 지방이주로 이어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토지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주지속으로 가기에는 결혼 후 양육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 청년활동공간의 역할 구분 : 필수역할, 촉매역할, 매개역할

청년활동공간은 지방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역할에 따라 ‘필수역할’, ‘촉매역할’, ‘매개 역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방이주 단계에 따른 공간 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살이의 기본전제이자 생활기반이 되는 거주공간은 지방이주 전 단계에 거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필수역할’ 공간으로 볼 수 있다. 4개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단계에서는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이주초기단계에서는 1년 미만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이주에서 정착단계로 넘어갈 때 5년 이상 장기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지역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는 ‘촉매역할’ 공간은 업무·창업공간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탐색 및 이주단계에서는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발굴과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실험공간이나 팝업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공주나 전북 완주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민간 조성 공간에서는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이주 희망 청년들이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함께 팀을 이루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다. 이주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역할’ 공간은 커뮤니티공간과 지원공간으로서 이주청년 간 정보 교류,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위한 장으로서 지방이주 모든 단계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

- 도보권 내 마을 단위의 청년활동공간 조성의 필요성

사례분석 결과, 거주공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활동공간들이 도보권 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나 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중소도시에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였고, 마을 내에서 지역주민, 지역청년, 동료 등을 자연스

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주청년들이 지역에 창업공간을 마련할 때에도 마을 내 또는 인접하여 공간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근거리 생활권은 텁색단계나 이주초기단계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관련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역의 앵커역할을 하는 핵심주체의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사례지역 4개소에서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이 지역의 앵커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계인구 청년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나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거나 빈집, 빈 점포, 단기 체류공간 등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인이자 중계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핵심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창업공간은 청년주체 간 정보를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이주 및 정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일자리, 교육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의 이주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앵커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민간 조성 청년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효과 발생

사례지역 4개소 모두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구사회 측면에서는 지역단체 역량 강화, 지역사회 내 지방이주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이주청년들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등이 로컬 생산품 판매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물리환경 측면에서는 청년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카페, 베이커리, 책방, 음식점 등 신규 점포가 조성되고 있어 지역재생이 활성화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청년지원사업 방향 설정 필요

충남 서천군의 경우 행정이나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청년활동을 이끌어가면서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충청남도와 서천군의 후속사업을 이어나가 사업기반을 확장·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주 중학동의 경우 지역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주체들이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는 등 느슨한 연대 속에서 동장 성반을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완주 고산면의 경우, 공공에서 조성한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등을 관계인구 청년과 이주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었고, 목포 목원동의 경우에도 도시생사업을 통해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거주공간과 같은 청년활동공간이 대폭 확충되어 현재 청년활동의 인프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자원현황이나 민관협력체계, 청년정책과 민간활동 특성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의 조성전략이나 지방이주 지원방안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여건과 청년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청년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 시사점

지방중소도시에서 공공사업의 지원은 청년활동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구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따라 지원대상과 내용, 예산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사업의 발굴 및 연계과정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시행주체로서 역량 있는 민간주체들의 참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역의 앵커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고, 이주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중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러한 주체들의 발굴과 육성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 조성된 청년활동공간 조사 결과,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청년활동공간 인근에 공공이 새롭게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보권 내에 동일한 기능의 공공시설들이 조성된 사례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조성되는 청년활동공간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조성되는 공간의 기능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중소도시의 한정된 공간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의 문제로도 이어지지만 민간주체들의 안정적 공간 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간 조성과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또는 마을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주요 청년활동공간의 운영주체들은 공공사업 지원비용을 통해 공간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이 종료된 뒤에 조성된 공간들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문제 개선, 프로그램의 기획 및 구상이 앞으로의 과제로서 정리되었다.

심층분석 대상지 4개소 모두 이주 청년들의 유입이 본격화된지 1~3년이 경과되었다. 이주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 지속하기 위해서 청년활동공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을 원하지 않는 이주청년의 경우 단기 일자리(일거리) 제공,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 제5장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 검토

1. 대안 검토 개요
  2. 대상지 현황 분석
  3. 대상지 일대 청년활동공간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4.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및 사업화방안 대안 검토
- 

## 1. 대안 검토 개요

지방이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정주지속하기 위해서는 일거리나 커뮤니티 조성 등의 사회경제기반 구축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생활 및 활동기반이 되는 공간인프라 조성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방중소도시 현장에 기반하여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과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과정에서 지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이나 공간 조성·지원방식 등에 대한 관련주체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대안 검토 대상지 선정

4장의 심층분석 대상지 중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을 대안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아주청년이나 관계인구 청년을 대상으로 공간 워크숍 개최가 가능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리빙랩 진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소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 청년단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서 충남 공주시 중학동 일대를 대안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5-1] 대안 검토 대상지 선정과정

단계	선정기준	대상지역
심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 여부</li> <li>- 이주 청년 유입 여부</li> <li>- 지방이주 청년 정주지속 유인요인 마련 여부</li> <li>-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따른 지역 차원의 성과 확산 여부</li> </ul>	충남 서천, 충남 공주, 전북 완주, 전남 목포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li> <li>- 이주청년, 관계인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워크숍 개최 가능 지역</li> <li>-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활동공간 운영 리빙랩 진행 가능 지역</li> <li>- 소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활동 진행</li> <li>- 지역 청년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거버넌스가 형성된 지역</li> </ul>	충남 공주 중학동 일대
대안 검토		

출처 : 연구진 작성

#### □ 대상지 현황

공주시는 2018년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2019년 청년정책 전담 부서 인 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면서 청년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년활동 공간 조성이나 청년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중학동 일원을 비롯하여 신관동 및 월송동 일원, 산성시장 일원의 3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sup>1)</sup> 대상지 중학동 일원은 원도심 지역으로 최근 3년 간 청년단체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카페, 책방, 교육공간, 지역 굿즈 상점 등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관계인구가 형성되거나 이주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나 청년단체간 협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 5-1] 대안 검토 대상지(공주시 중학동 일원) 위치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1) 신관동 및 월송동 일원은 공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산성시장 일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공주산성시장상인회, 공주시청년보부상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산성상권협의회를 중심으로 벤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제공,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공주시 인구청년정책팀 박상현 팀장 인터뷰 참고, 인터뷰일자 : 202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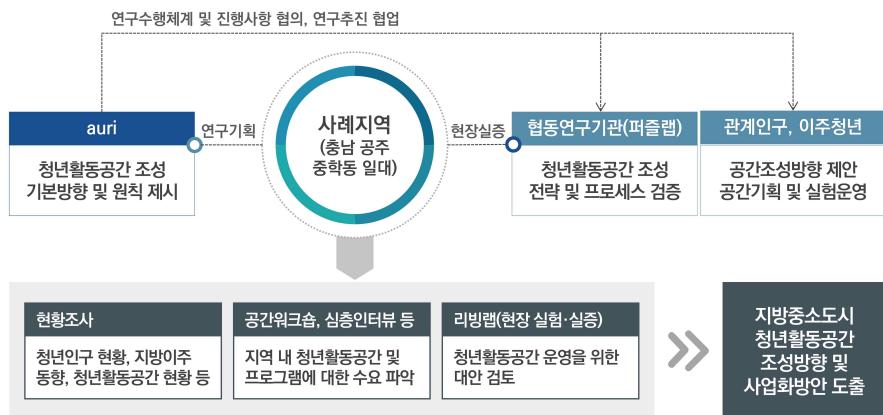
## □ 대안 검토 방법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 검토는 로컬 비즈니스 모델 및 지역주체 역량강화 분야 전문기관과 협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공주시 청년정책 이슈, 지방이주 및 청년활동공간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행정자료 조사, 담당공무원 및 청년단체 인터뷰<sup>2)</sup>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 동향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관련사업 추진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청년활동공간의 이용실태와 지역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간 유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 이용실태는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살펴보았다. 수요조사는 관계인구 및 이주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공간의 유형과 콘텐츠를 도출하고 스스로 공간을 기획해보기 위해 공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공주시 중학동 일대의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과 유휴공간의 사업화방안을 제시하였고, 리빙랩을 통해 청년활동공간 운영방안을 시범 적용해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5-2]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출처 : 연구진 작성

2)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백두성 팀장(인터뷰 일자: 2021.8.30.), 공주시 인구청년정책팀 박상현 팀장(인터뷰 일자: 2021.9.8.), 지역청년기업 종사자(인터뷰 일자: 2021.8.31., 9.9., 9.30),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인터뷰 일자: 2021.9.8., 9.9., 9.14.), 지역청년창업가(인터뷰 일자: 2021.9.1., 9.7., 9.8.) 인터뷰 내용 참고

## 2. 대상지 현황 분석

### 1) 공주시 청년인구 현황

공주시 인구는 2012년부터 전입인구 대비 전출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sup>3)</sup> 이와 동시에 19~39세의 청년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표 5-2] 공주시 총인구 및 청년인구 현황

구분	공주시(명)			청년인구(명)			청년인구 비율(%)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5	111,261	55,303	55,958	24,827	11,186	13,641	22.3
2016	109,931	54,710	55,221	24,195	10,967	13,228	22.0
2017	108,432	53,995	54,437	23,442	10,667	12,775	21.6
2018	107,581	53,602	53,979	22,959	10,479	12,480	21.3
2019	106,474	53,131	53,343	22,157	10,124	12,033	20.8
2020	104,545	52,297	52,248	20,765	9,471	11,294	19.8

출처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1.8.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행정동별 청년인구 현황을 보면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신도심 지역인 신관동(28.3%)과 월송동(26.4%)은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원도심인 중학동과 옥룡동의 경우 청년인구 비율이 각각 20.7%, 19.5%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3] 충청남도 및 공주시 행정동별 청년인구 현황

행정구역	전체인구(명)	청년인구(명)				청년인구 비율(%)	
		계	20~24세	25~29세	30~34세		
충청남도	2,121,029	511,798	121,014	122,186	119,694	148,904	24.1
공주시	104,545	20,765	6,119	5,157	4,348	5,141	19.9
원도심	중학동	4,640	959	354	221	178	20.7
	옥룡동	7,993	1,560	440	429	339	19.5
신도심	신관동	19,383	5,477	1,790	1,423	1,101	28.3
	월송동	14,481	3,826	990	882	803	26.4

출처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1.8.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청년인구의 전입·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20년도 타 지역으로의 순이동률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충청남도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

3) 공주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공주시 전체 면적의 8.2%인 76.1㎢의 3개면 21개 마을에 살고 있었던 5,846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하면서 2012년부터 전입인구 대비 전출인구가 증가하였다. (이건용, 2020, 9월 1일 기사: 임준홍 외, 2017)

이나 20~24세의 순이동률은 372%로 대폭 증가하였다. 공주시로 유입된 전체 귀농가구 원수 중 청년인구에 해당하는 30세 이하 귀농가구원 수는 8년 평균 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0대 이하 귀농 가구 수 비율인 10.9%)와 비교해보면 공주시로의 귀농 청년가구의 흐름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4] 공주시 청년인구 연령별 시군구 전입·전출 현황

구분	2016			2020		
	전입(명)	전출(명)	순이동	전입(명)	전출(명)	순이동
20~24세	1,408	1,570	-162	1,305	1,908	-603
25~29세	1,293	1,679	-888	1,457	1,949	-492
30~34세	1,100	1,341	-241	1,069	1,305	-236
35~39세	960	1,047	-87	1,021	1,100	-79
청년 합계	4,761	5,637	-1,378	4,852	6,262	-1,410
충청남도 청년인구	122,509	119,245	3,264	123,733	128,776	-5,043

출처 :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B26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B26001) (검색일: 2021.9.1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5] 공주시 청년 귀농가구원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귀농가구원수(명)	159	141	167	147	143	144	135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명)	40	33	35	34	23	29	28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 비율	25%	23%	21%	23%	16%	20%	21%

출처 : 행정안전부 시도별(시군별)-연령별 귀농가구원,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0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03) (검색일: 2021.9.1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 청년의 지방이주 동향 및 청년그룹 현황

### □ 대상지 일대 커뮤니티 형성 과정과 청년활동 동향

- 지역주민과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재생활동과 커뮤니티 형성 시작

2013년 중학동의 빈집이었던 한옥 한 채가 리모델링되어 ‘루치아의 뜰’이라는 카페로 오픈을 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작가, 예술가, 농협 및 동사무소 직원 등이 모여 ‘공주시 골목길 재생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제민천 일대의 침체된 뒷골목을 안내하기 위한 골목산책이나 지도 제작, 빈집에서의 골목사진전 등을 진행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골목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sup>5)</sup> 크고 작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과 치아의 뜰처럼 지역의 명소가 된 곳

4) 농림축산식품부(2021a, 6월 25일 보도자료)

5) 백은미(201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점점 늘어났다.<sup>6)</sup>

2014년에는 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풀꽃문학관을 비롯하여 공방,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간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sup>7)</sup> 2016년부터는 제민천을 따라 정중동 호스텔, 북카페 바흐, 이안키친, 감영길 일대에는 이미정 갤러리와 반죽동247 카페 등 원도심에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섰다. 특히 지역청년이 운영하는 반죽동247의 경우 운영 초기 방문객이 적어 손님들과 카페 운영자 간 대화하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점차 지역 청년들이 모여드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sup>8)</sup>

- 민간주체의 마을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 형성

2018년에 조성된 봉황재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마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을투어에서는 반죽동 247과 연계하여 지역에 대한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지역청년, 외지청년,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6월에는 공주로 이주한 청년이 중학동에 ‘가가책방’을 오픈하면서 지역청년뿐만 아니라 세종, 대전, 홍성, 부여, 청양 등 인근 지역의 청년들까지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가책방에서는 소규모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공주뿐만 아니라 충남권 내 북클럽 커뮤니티의 협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북클럽 회원들은 글쓰기 모임을 새롭게 조직하기도 하였고, 일부 회원들은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도시사업의 주민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활동주체로 성장해나가고 있다.<sup>9)</sup>

- 코워킹스페이스 조성과 지역 내 다양한 청년그룹 조직

공주시에서 원격수업이나 리모트워크가 가능한 공간에 대한 외지청년들의 수요나 창업 및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지역청년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2019년 11월 중학동에 처음으로 코워킹스페이스인 업스테어스가 조성되었다. 업스테어스는 봉황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주체가 설립한 (주)퍼즐랩에서 조성한 공간으로 청년들을 위한 업무·창업공간이자 규모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민 포럼, 청년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 거점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 서비스 제공, 동료 창업자 연결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2014년 5월 동네 골목길을 활용한 사진전은 3일 동안 전국에서 1천 2백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사진동호회를 비롯한 다수의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손지연, 2015년 11월호 기사).

7) 전진(2016, p.13)

8) 황순형 반죽동 247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2021.9.30.) 참고

9) 서동민 가가상점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2021.9.1.) 참고

2019년부터 지역 내 ~~(주)~~마을호텔, ~~(주)~~메이크프로덕션, 고마다락, ~~(주)~~어콜렉티브그레이인 등 크고 작은 청년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립되었고, 청년그룹들은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러 활동이나 프로젝트 등을 협업해오고 있다. 또한 개별 청년그룹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청년활동공간의 증가와 지역살이 시범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공간 수요가 발생하였고, 2020년 5월에는 코러닝스페이스 와플학당이 조성되어 지역탐구 프로그램이나 공간 분석·기획 등 청년 대상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가가책방 인근에 지역작가들의 굿즈와 로컬 여행 굿즈를 판매하는 편집샵, 가가상점이 오픈하였고, 가가책방과 마찬가지로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민간주체 운영공간들이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내 조성된 다양한 공간과 지역주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0년<sup>10)</sup>에는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5회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주시 자체사업과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65명의 청년이 참가하였다.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한 본격적인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공주시는 중학동 일대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입문 단계인 ‘워크스테이 로그인 공주(4박 5일)’, 지역탐구 단계인 ‘소셜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2박 3일)’, 지역살기 단계인 ‘소도시 모험 Log(2~3주)’, 청년 리빙랩 ‘로컬디자인 프로젝트(5주)’의 4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54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거주공간, 팝업공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활동공간들이 추가 조성되었다.

## □ 청년그룹 현황

- 청년그룹 조직특성 및 활동 현황

대상지 일대 활동 중인 청년그룹은 총 12개로 활동분야에 따라 도시재생 1, 문화예술 4, 카페 1, 공간기획 2, 영상디자인 1, 교육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반죽동247을 제외한 11개 단체가 모두 외지인이 설립한 곳에 해당한다. 2019년 이후 김영길 일대에 업스테어스(코워킹스페이스), 가가책방(책방), 가가상점(굿즈상점)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반죽동247이 지역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김영길을 중심으로 다수의 청년그룹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청

---

10) 지역살아보기(2박3일) 7~8월, 2회, 지역탐구(2박3일) 11월 2회, 리노베이션스쿨(2박3일) 11월 1회 진행

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2020년부터는 감영길을 넘어서 원도심 내 (주)마을호텔, (주)어콜렉티브그레인, 고마다락, 에듀커넥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단체나 기업들이 추가 설립되었고, 2021년 (주)퍼즐랩과 (주)마을호텔이 감영길 반경 500m를 중심으로 베이커리, 팝업전시장, 거주공간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하였다.

[표 5-6] 대상지 일대 청년그룹 현황

분야	단체명	조직특성				활동내용
		형태	설립	인원	운영공간(개소)	
도시 재생	(주)퍼즐랩	법인	2019	8	숙박4, 코워킹3, 교육 공간2, 팝업공간3, 로컬스토어2	로컬비즈니스 교육·컨설팅,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역 연계 투어프로그램, 마을스테이 운영
문화 예술	(주)어콜렉티브 그레이인	법인	2020	4	복합문화공간1(카페, 책방), 책방1	
	가가북앤컬처 협동조합	개인 협동조합	2019 2020	1 5	굿즈상점1, 책방1 -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기획, 지역굿즈 개발 및 유통
	시민문화193					
	고마다락	유한회사	2020	1	복합문화공간1(책방, 공유공간)	집수리교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데이클래스 운영
카페	반죽동247	법인	2017	2	카페 1	커뮤니티공간 기능,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공간 기획	(주)마을호텔	법인	2019	8	책방1, 카페1, 베이커리1, 복합문화 공간1	지역 유휴공간 발굴·활용, 로컬매거진 제작, 로컬푸드 메뉴 개발
	쿠쿠루쿠쿠 건축사사무소	법인	2020	2	-	공간기획·설계
영상 디자인	(주)메이크 프로덕션	법인	2021	4	메이커스페이스 1	영상제작 및 시각디자인, 영상 육프로그램 운영
교육	에듀커넥트	개인	2020	1	교육공간 1	교육지원서비스
	인터커넥트	비영리단체	2020	4	-	문화예술 교육
	이퀄컴퍼니	법인	2021	2	교육공간1, 공방1, 숙박1	경증장애인 교육, 유휴공간 기획

출처 : (주)퍼즐랩(2021, pp.13~16), 목진태 마을호텔 이사 인터뷰(인터뷰 일자: 2021.9.7.), 김기석 (주)이퀄컴퍼니 대표 인터뷰 (인터뷰 일자: 2021.9.8.)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청년그룹 특성

청년그룹 대다수가 2019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로컬 비즈니스, 문화예술기획, 공간기획, 영상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그룹들은 상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업하며 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원도심에서 활동 중인 (주)퍼즐랩, (주)마을호텔, (주)어콜렉티브그레인, 가가상점, 에듀커넥트 등이 ‘공주 콜렉티브(High-end Co-creation Group)’라는 청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1)</sup>

11) 공주 콜렉티브는 마을디자인(Local Design)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주)퍼즐랩은 커뮤니티 디자인, (주)마을호텔은 공간디자인, (주)어콜렉티브그레인은 브랜드디자인을 담당하며 각자 운영 중인 공간과 프

지역에서 책방 또는 카페 등 같은 업종의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그룹들은 공간 콘셉트를 달리하거나 협업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가가책방, 데시그램북스, 블루프린트북, 고마다락은 모두 책방이지만 무인책방, 건축책방 등 콘셉트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개 책방(가가책방, 데시그램북스, 블루프린트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 청년 소모임 운영 현황

청년그룹들은 개별 비즈니스 이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등 4개 분야의 12개 소모임이 운영 중이다. 디자인이나 도시재생 관련 소모임 등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이 계속해서 조직되고 있으며, 모임 주제나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나 청년층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21년 초 신설된 제민러너스(러닝클럽)은 매주 2회 진행되고 있으며, 매회 8~1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러닝)은 제민천, 금강 등 원도심 인근에서 진행되며 지역청년이나 이주청년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거주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제민러너스 소모임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청년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들은 지역주민과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녁시간 이후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에 부족한 문화 콘텐츠와 활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으로 외지청년과 공주 신도심 거주청년 유입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5-7] 대상지 일대 청년 소모임 현황

분야	단체명	조직특성			조직운영 활동내용
		설립	인원	활동지역	
운동	제민 러너스	2021	10	대통1길 7(금강, 제민천 일대)	달리기 모임
문화	제민천 만년필 클럽	2021	5	감영길 9	만년필 모임
예술	제민천 드로잉 클럽	2020	6	먹자3길 20-1	드로잉 모임
	와린이	2022	6	감영길 12	와인 초보자 모임
교육	제민 잉글리시 스터디	2021	5	감영길 12	영어 스터디 모임
인문학/	아울러	2020	6	감영길 3	매거진 출간
책/글	가고 고전읽기	2019	6	감영길 3	고전읽기 모임
	미래를 만드는 교육 읽기	2020	6	먹자3길 20-1	교육분야 독서모임
	데시그램북스 북클럽	2020	6	효심1길 12-1	문학 모임
	느리게 북클럽	2020	6	우체국길 24	느린 삶 북클럽
	서서히 독서모임	2019	6	당간지주길 10	공주 청년 독서모임

출처 : 연구진 작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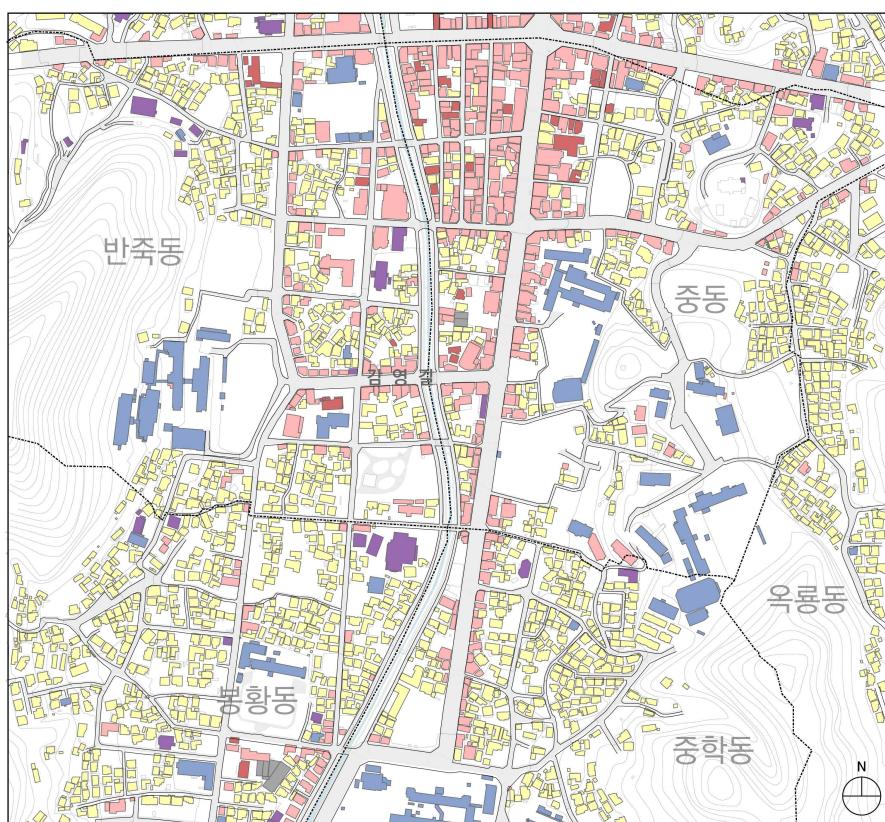
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퍼즐랩, 2021).

### 3)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현황

#### □ 대상지 물리적 현황

- 건축물 현황

대상지는 감영길을 중심으로 남측은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북측 산성시장 인근지역은 도·소매 점포, 균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대상지 일대의 음식점업 및 주점업 개업 시기를 살펴보면 2년 미만이 8%, 2년에서 5년 미만 30%, 5년 이상 62%로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노포들의 운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림 5-3] 중학동 일대 건축물 용도 현황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검색일 : 2021.12.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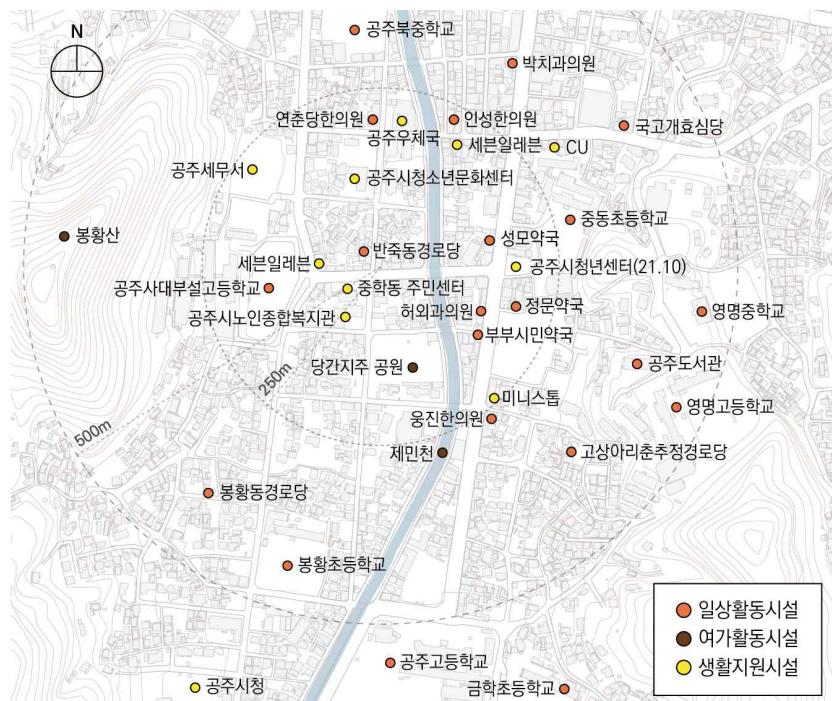
12) 중학동 일대의 건축물용도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공동주택(73%), 균린생활시설(18%), 교육복지시설(4%) 순으로 나타남(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참고하여 작성)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https://sg.sbiz.or.kr/godo/index.sg> (검색일 : 2021.12.3.)

- 공공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공주시는 원도심 내 위치하고 있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공주 의료원이 이전하면서 대규모 이전적지나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주시청, 공주세무서 등 주요 공공시설이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시설 주변지역으로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이 밀집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초생활인프라는 초·중·고등학교 7개소, 청소년문화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원시설 3개소, 경로당 4개소, 공주도서관 1개소, 병원 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학동을 중심으로 반경 2km 내 산성시장, GS 더프레시 공주점 등이 있으며, 세종충남 대학교병원(18km), 코스트코 세종점(17km), 이마트 세종점(16km) 등 대형병원이나 마트가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5-4] 중학동 일대 공공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기초생활인프라는 일상활동(의료, 교육, 학습, 돌봄), 여가활동(교제, 체육, 휴식, 문화), 생활지원서비스(행정, 안전/방재, 교통, 유통·공급, 환경기초, 생활편의)에 따라 구분(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pp.3-4)

- 유휴공간 재생 및 활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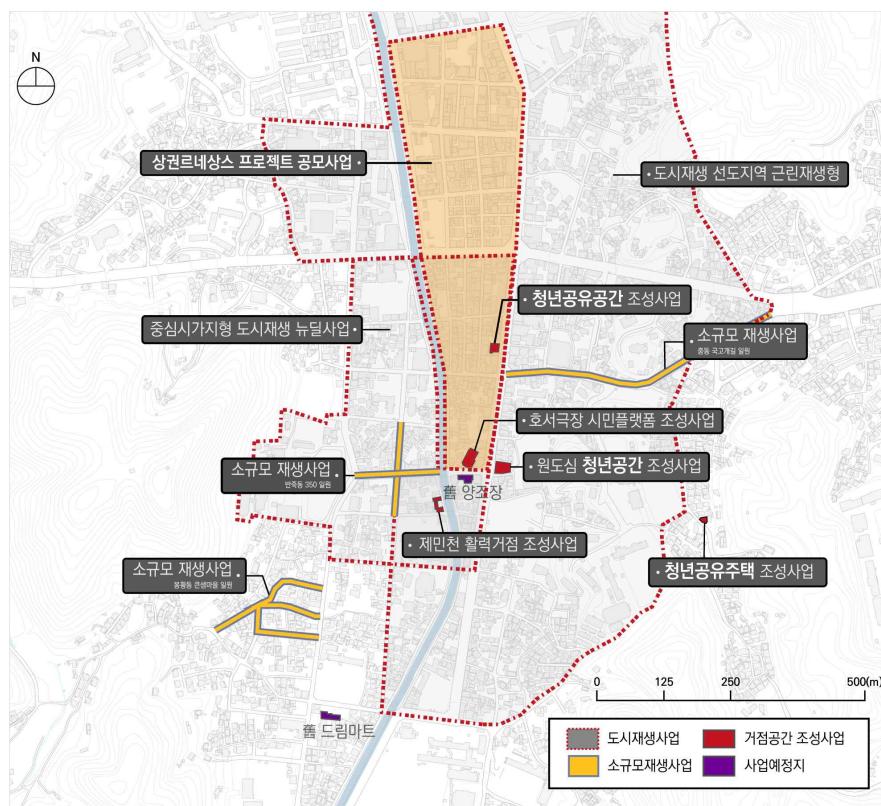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중학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테마형 관광지인

하숙마을 조성, 트래블라운지(안), 근대문화저장소(안), 숙박시설, 주차장 등 관광 인프라가 조성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왔다.

청년 관련 사업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원도심 청년프로그램, 빈집 및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문화예술이 있는 국고개 Art Avenue)이 있다. 국고개 Art Avenue 사업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위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sup>14)</sup> 지원과 국고개 일대 빈 점포를 활용한 월세 지원을 추진하였다.<sup>15)</sup>

2020년 12월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는 옥룡동 주민센터 부지에 공유상가, 공공형 오피스, 주민교류 문화복지시설 등을 도입하는 공주혁신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복지 및 사회적 경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5-5] 공주시 유휴공간 재생 및 활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공주시(2021, pp.275-306, pp.421-446, pp.525-550), 공주시(2020, pp.241-264, pp.365-400,  
pp.489-512), 공주시(2016, pp.69-132), 공주시(2019, pp.80-161),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urc.do>, 검색일: 2021.9.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4) 공주시 국고개길 25번지 2층(약 15평)

15) 국고개 일대 빈 점포 2곳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월세 30만원을 지원(지역문화연대 있다, 2020, p.2)

[표 5-8] 공주시 유휴공간 재생 및 활용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소관 기관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 재생형)	원도심 일원	1,200,000	- 고도보존지구의 역사문화자원 발굴·복원·정비·활용·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 - 문화예술촌, 하숙마을, 테마 가로 골목길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등 소프트프로그램 운영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2014- 2017	국토 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옥룡동 버드나무길, 은개골 일원	93,421	-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생활기반 정비를 통해 원도심 활력회복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으로 정주환경 개선 -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외 14개 사업	국비 149 시비 117 민간 69	2018- 2021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 지형)	중학동 일원	138,456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제민천, 나태주 시인 등 지역자산을 연계한 특화공간 조성으로 원도시 활성화 - 마을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외 15개 세부사업	국비 283 시비 185 민간 30	2019- 2024	
소규모 재생사업	봉황동 큰샘마을 일원	-	- 지역자산을 활용한 아카이빙, 민간 운영 공간연계, 골목길 정비 등을 통한 마을활력 증진	국비 2 시비 2	2019	
	중동 국고개길 일원	-	- 빈집·빈 점포 정비, 지역예술가·청년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 구축		2020- 2021	
	반죽동 350 일원	-	- 골목상권, 청소년, 도시농업, 역사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2020	
도시재생 인정사업	옥룡동 산7-1	4,136 (B1~3F)	- 지역주민 기초 복지 및 사회적 경제소득 창출을 위한 공주혁신센터 건립 - 공유상가, 공공형오피스, 주민교류 문화복지시설 조성	국비 50 시비 34	2020- 2023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반죽동 253-3 일원	3,587	- 트래블라운지, 근대문화저장소, 숙박시설, 주차장 등 조성	국비 5 시비 14	2016- 2020	공주시

출처 : 공주시(2021, pp.525-550), 공주시(2020, pp.489-512), 공주시(2016, pp.69-132), 공주시(2018, pp.96-135), 공주시(2019, pp.80-16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공주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구)원도심 자료관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청년센터는 지역청년들과의 공

간기획 및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말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신도심 신관동과 원도심 중학동에 각 1개소씩 시가 매입한 유휴공간에 청년공유공간이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공유주택 1개소도 옥룡동에 조성되고 있다. 그밖에 2020년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산성시장 인근에 청년가게, 공유상점 4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 공주시 청년센터 건립사업 개요

- (목적) 청년세대가 관계망 속에서 미래를 창조적으로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소통의 나눔의 공간 제공
- (사업추진내용) 2019년 9월 (구)원도심 자료관을 청년공간으로의 설계를 추진하여 2021년 10월 완공 예정
- (관리운영방식) 공공운영(여성가족과) 또는 민간위탁(청년단체)
  - (위치 및 대상지 개요) 종214-1 번지 일원, 한식목구조, 지상 2층, 연면적 867㎡
  - (공간) B1 동아리 활동 공간 / 1F 다목적 공간(오픈스페이스) / 2F 키즈카페, 자기개발 공간, 회의실 조성예정



출처 : 공주시(2021, p.349), 사진은 연구진 촬영

공주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중학동 일대의 대규모 유휴공간인 (구)호서극장, (구)양조장, (구)드림마트를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청년단체들이 '(구)웅심양조장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연계 유휴공간 활성화 방안 전문가 자문계획', '호서극장 활용방안 시민토론회', '도시재생 정책연구 공유포럼'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호서극장과 웅심양조장은 청년센터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1966년, 1940년 조성된 근대 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주민 및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드림마트는 폐업 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곳으로 당초 책이나 인쇄 관련 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청년시설로서의 가능성과 조성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5-6]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호서극장, 웅심양조장, 드림마트 모습  
출처: 연구진 촬영

[표 5-9] 공주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관련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위치	면적(m <sup>2</sup> )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담당부서	소관기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공모사업	용담길22 국고개길20 일원	13,775	-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 확보 및 증대 - 청년가게 20개소, 공유상점 4개소 신설 예정	국비 40 시비 40	2020 ~2024	시장 경제팀 벤처 기업부	중소 벤처 기업부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중동 360	537.9	-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 - 극장, 동아리방, 사무공간, 미니카페, 영상실, 옥상정원 등 조성	도비 35 시비 35	2021 ~2023	문화 시설팀	공주시
원도심 청년공간 조성사업	중동 214-1 일원	867 (1~2층)	- 원도심 자료관을 청년센터 및 청년공간으로 조성	도비 8 시비 31	2019 ~2021	인구 청년 정책팀	
청년 공유주택 조성사업	옥룡동 245-28	-	- 지역 신규 유입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 조성	시비 0.8	2021		
청년 공유공간 조성사업	중동138 -2/신관동 192-13	264(2층) 143(1층)	- 청년들을 위한 다목적 공유공간 조성 - 강북·남 각 1개소 조성	도비 0.45 시비 1.8	2020 ~2021		

출처 : 공주시(2021, pp.525-550), 공주시(2020, pp.489-512), 공주시 청년정책팀(2021, pp.1-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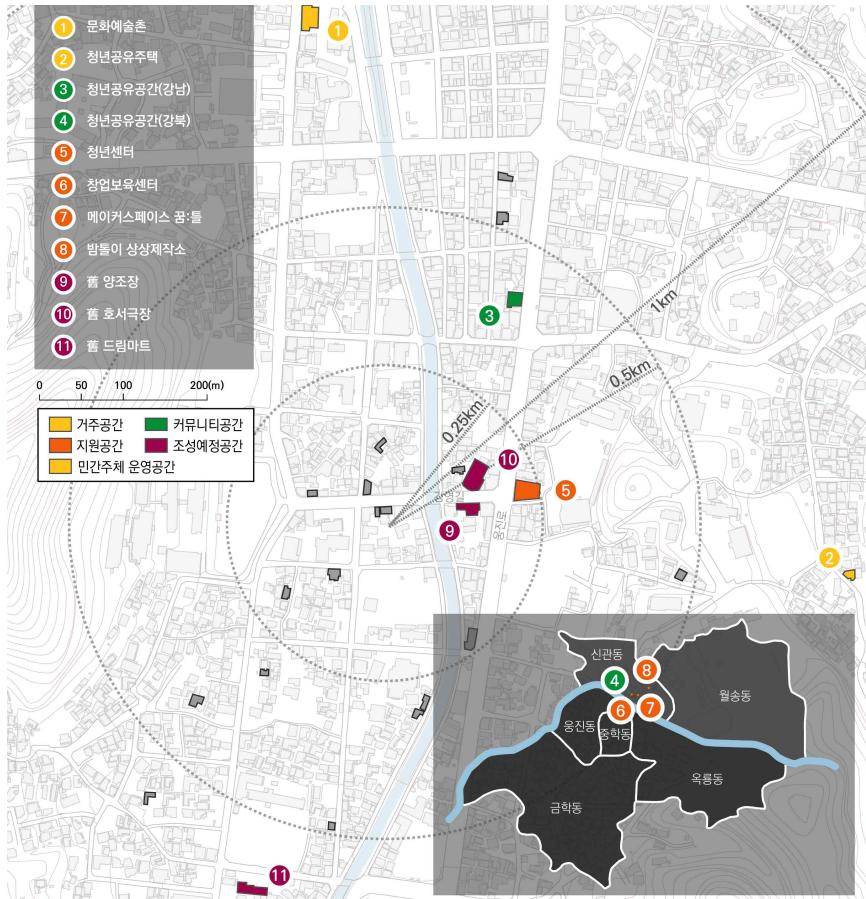
#### 4) 대상지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 현황

##### □ 공공시설 현황

공공에서 조성하는 청년활동공간 중 지원공간으로는 공주대 창업보육센터, 공주대 메이커스페이스 꿈:틀, 기적의 도서관, 청년센터가 있다. 공주대는 2021년 8월 중소벤처 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주대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자 및 일반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창업준비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한 감영길 초입에 조성되고 있다.

커뮤니티공간에 해당하는 청년공유공간은 공주대 인근지역(신관동)과 원도심(중학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신관동에 조성되는 공간은 공주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는 반면 중학동에 조성될 공간에 대해서는 이용대상 및 운영방향에 대한 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 거주공간인 청년 공유주택은 옥룡동에 조성 중이다.

이처럼 공주시의 청년 대상 공공시설은 지역청년 또는 이미 지역에 이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이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공주시 청년 관련 공공시설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 □ 민간주체 운영 청년활동공간 현황

민간주체가 운영 중인 공간은 거주공간 5개소, 업무·창업공간 10개소, 커뮤니티공간 10개소로 총 25개소가 있다. 각 공간은 단일 기능인 경우도 있으나 건물 층별로 다양한 기능이 도입되었거나 여러 청년단체가 입주한 복합문화공간의 경우들을 볼 수 있다.<sup>16)</sup>

거주공간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봉황재 게스트하우스, 베드나무빌, 정중동 호스텔, 이월스테이, 가가힐스테이 5개 공간이 있다. 봉황재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4개 공간은 지원사업을 위해 단기로 임대하여 임시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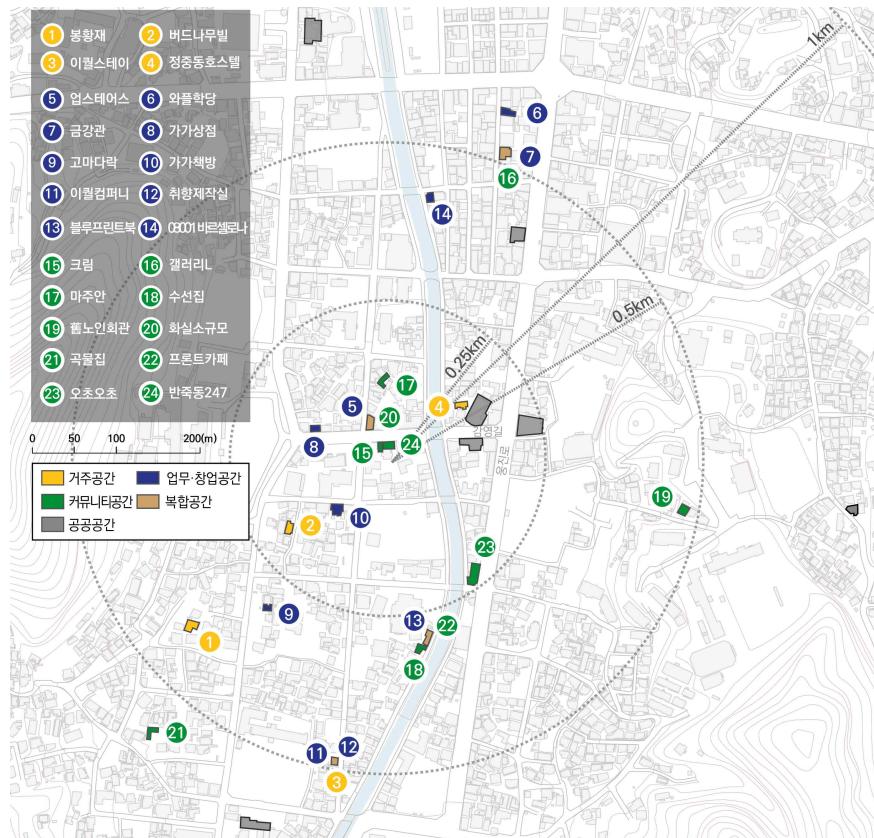
업무·창업공간은 공유오피스 1개소, 교육공간 4개소, 판매공간 5개소가 있다. 공유오피

16) '업스테어스'는 코워킹스페이스(2층), 화실(3층), '크림'은 전시 및 로컬스토어(1층), 사무실(2층), 커뮤니티라운지(3층), '금강관'은 전시공간(1층), 교육공간(2층), '프론트'는 카페(1층), 사무실(2층), 책방(3층), '이월컴퍼니'는 빨달장애 재활시설(1층), 비누공방(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 업스테어스는 청년(예비)창업자들이 입주해있으며 지역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공간은 회의실이나 작업실, 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판매 공간 역시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08001 바르셀로나'처럼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성한 공간도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공간은 전시공간 5개소, 교류공간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시공간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며 대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류공간 중 3개소는 카페이면서 이주청년, 관계인구 청년,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점공간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대표 사례로서 '곡물집'은 책방, 아카이빙 전시공간, 카페가 복합된 공간으로 대관이 가능하고 지역의 소모임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상지 일대 청년활동공간 현황을 종합해보면, 공공시설은 지원공간이 높은 비율(45%)을 나타내는데 비해 민간주체 운영공간은 업무·창업공간(38%)과 커뮤니티공간(4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공주시 민간주체 운영 청년활동공간 현황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 3. 대상지 일대 청년활동공간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1) 청년활동공간 이용실태

##### □ 대상지 일대의 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이용실태

중학동 일대의 커뮤니티 및 청년활동 흐름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청년활동 변화에 따라 공간 조성 및 운영현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1단계)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작(2018-2019)

봉황재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되면서 외지청년들이 지역에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봉황재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지역 내 카페(반죽동247)와 책방(가가책방)이 연계하여 마을투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2단계)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2019-2020)

코워킹스페이스(업스테어스)가 조성되면서 청년대상 프로그램의 운영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되던 반죽동247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업스테어스는 업무공간으로 조성된 곳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계를 보였다.

- (3단계) 지역탐구 및 공간기획 등 지역살이 시범 프로그램 운영(2020-2021)

20명 이상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코러닝스페이스(와플학당)가 조성되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덧붙여 지역탐구, 공간기획, 지역살이 시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방문청년 수도 증가하였으나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하숙마을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정중동 호스텔을 활용하여 임시주거를 마련하였다.

- (4단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살이 프로그램 본격화(2021)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시주거 3개소와 팝업공간 3개소가 추가 조성되었다. 지역 내 비어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단기 임대하여 임시주거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팝업공간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함께 마련하였다. 대상지 일대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지역을 방문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청년활동공간 조성도 점차 확장되었다.

[표 5-10] 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청년활동공간 이용현황

단계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	운영프로그램
1단계 (2018.8~ 2019.10)	봉황재	기기책방		반죽동247	커뮤니티, 마을투어
2단계 (2019.11 ~2020.4)	봉황재	가기책방		반죽동247	커뮤니티, 마을투어, 주민포럼, 역량강화
3단계 (2020.5~ 2021.7)	봉황재, 하숙마을, 정중동 호스텔	가기책방, 와플학당	반죽동247	업스테어스	커뮤니티, 마을투어, 지역탐구, 지역살이, 공간·콘텐츠 기획, 역량강화
4단계 (2021.8~ 현재)	봉황재, 버드나무빌 가가힐스테이 이퀼스테이 정중동 호스텔	가기책방, 와플학당, 금강관 팝업공간(크림, 갤러리L, 마주안)	반죽동247	업스테어스	커뮤니티, 마을투어, 지역탐구, 지역살이, 공간·콘텐츠 기획, 역량강화, 워크스테이, 청년 리빙랩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역정착 과정에서의 청년활동공간 이용실태

- 거주공간 이용실태

거주공간은 게스트하우스 1개소, 청년공유주택 3개소, 민간사업자 운영 호스텔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sup>17)</sup> 게스트하우스는 일 단위 체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탐구를 지원하고, 청년공유주택과 호스텔은 1주~1개월 단위의 체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관찰하고 지역으로의 이주과정을 돋고 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공간들은 단기 임대하여 조성한 임시주거로서 이주나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학동 일대에는 이주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거주공간을 구하기 쉽고 공간 여건이 좋은 신도심 신관동 일대나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학교 인근의 원룸을 구하기도 하였다.<sup>18)</sup>

- 업무·창업공간 이용실태

탐색단계의 청년들이나 이주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창업공간은 코워킹스페이스인 업스테어스와 교육공간인 금강관, 와플학당이 있다. 업스테어스와 금강관은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전기, 철거, 설비 등 전문자격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정 이외에 대해서는

17) 게스트하우스는 봉황재, 청년공유주택은 버드나무빌, 가가힐스테이, 이퀼스테이, 민간 사업자 운영 호스텔은 정중동호스텔이 있음

18) 이주청년 대상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9.9.) 참고

지역주민이나 청년 등 공간 사용자들이 DIY를 통해 직접 공간을 조성하였다. 업스테어스는 입주 및 대관할 수 있는 업무공간으로서 강의,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부공간이 구획되지 않아 개별 업무를 보거나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와플학당은 운영주체가 2019년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1기에 선정되면서 조성한 공간이다. 와플학당은 청년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로 조성되었으며, 20인 이상의 강의와 워크숍,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밖에 크림, 갤러리L 등 탐색단계의 외지청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실험해볼 수 있는 팝업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 커뮤니티공간 이용실태

대상지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카페, 책방 등은 마을의 주요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외부 방문객들도 쉽게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 민간주체들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운영주체들이 외부 방문자에 대한 환대, 지역정보 제공,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간으로 반죽동 247, 가가책방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마을화폐(쿠폰)를 발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발행된 쿠폰 중 가장 많은 92개(56%)가 반죽동 247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 마을 내 공간 연계를 위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이 마을 내 여러 공간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총 2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외 지역청년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 □ 설문조사 개요

외지청년 및 관계인구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이주 및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지역살이 프로그램, 청년 활동공간, 지방 이주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75명이 응답하였다.<sup>20)</sup>

19) 2021년 9월 한 달 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을화폐 기능의 쿠폰 165매를 발행하고, 그들이 마을 내에서 주로 방문하고 있는 공간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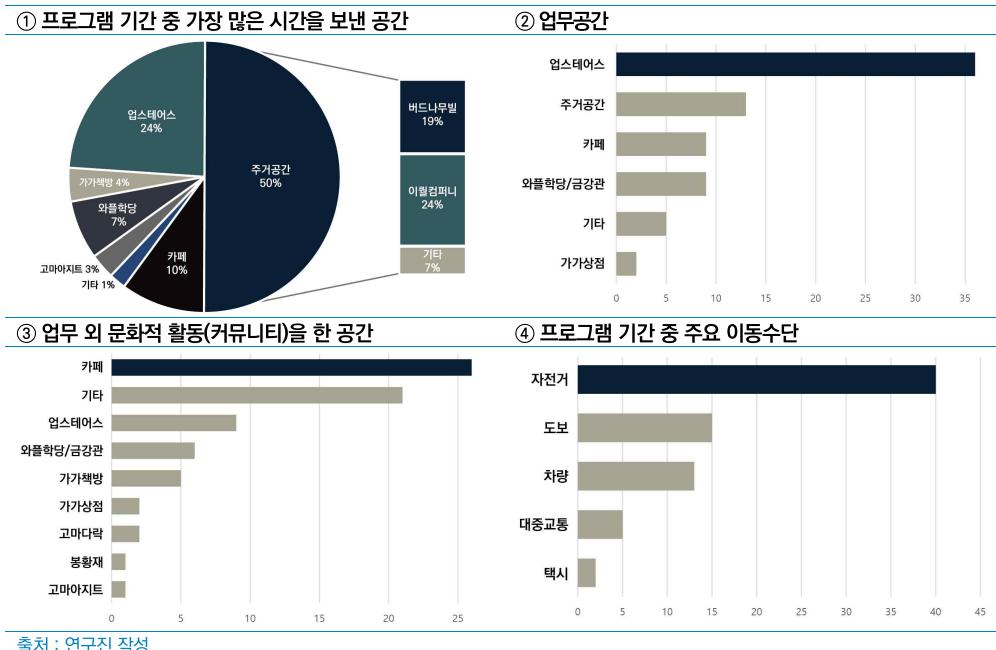
## □ 설문조사 결과

### • 지역살이 프로그램 관련

응답자 중 39명이 지역살이 경험이 없었고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7명, 지역에 머물러 본 적 있는 경우는 21명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신청 이유로는 과반수(40명)가 ‘대도시의 삶에 비해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서’로 응답하였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15명)’, ‘취·창업 기회(8명)’, ‘쾌적한 삶(6명)’, ‘창농·귀농(1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중소도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매우 긍정 31명(61%), 조금 긍정 15명(29%), 보통 4명(8%), 다소 부정 1명(2%) 순으로 나타났다.

### • 청년활동공간 관련

프로그램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으로 37명(50%)이 거주공간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업스테어스(18명, 24%)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기간 중 업무를 본 공간으로는 36명(48%)이 업스테어스를 선택하였고, 8명(10%)이 와플학당/금강관을 선택



20) 응답자 75명은 ‘로그인 공주’ 참가자 48명, ‘소셜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16명, ‘소도심 모험Log’ 참가자 11명로 구성되며, 짧게는 2박 3일에서부터 길게는 3주간 지역에 머무르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응답자 중 여성은 53명(71%), 남성 22명(29%)이었고, 만19~24세가 28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25~29세 26명(35%), 만 30~34세 14명(19%), 만35~39세 7명(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27명, 경기 20명, 인천 5명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으며, 직장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 27명, 취·창업 준비생 12명, 자영업 5명, 기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료 재생업, 제조업이 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업무 외 문화적 활동을 한 공간으로는 21명이 기타(제민천, 길거리 등)를 선택하고 다음은 업스테어스(9명)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기간 중 주요 이동수단은 자전거 40명, 도보 13명, 차량 13명, 대중교통 5명, 택시 2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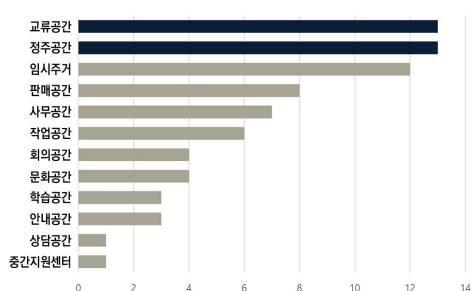
- 지방이주 관련

공주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청년활동공간으로는 교류공간 13명(17%), 정주공간 13명(17%), 임시주거 12명(16%), 판매공간 8명(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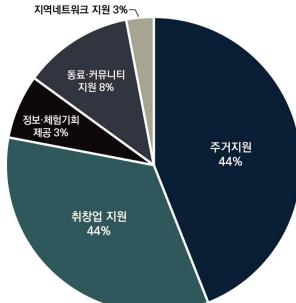
지방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창업 지원 33명(44%), 주거 지원 26명(34%), 동료·커뮤니티지원 9명(12%), 지역 정보 및 체험 기회 제공 5명(7%), 지역네트워크 지원 2명(3%)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주에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일거리 40명(53%), 살 곳 25명(33%), 동료 6명(8%), 교통 2명(3%), 놀거리 2명(3%) 순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에 이주 및 정착하여 살아 볼 의향이 있는 경우는 37명(51%), 희망하지 않음 23명(31%), 다른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희망 13명(18%) 순으로 과반수가 공주로의 이주·정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주 희망자의 원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역 외 취업 21명, 지역 내 취업 18명, 창업 12명 순으로 선택하였고, 기업형태로는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기대소득으로는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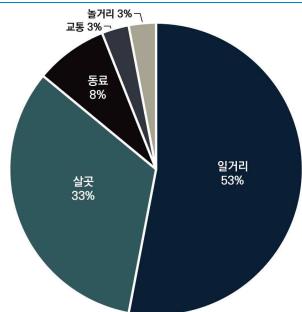
① 공주에 추가적으로 조성이 필요한 공간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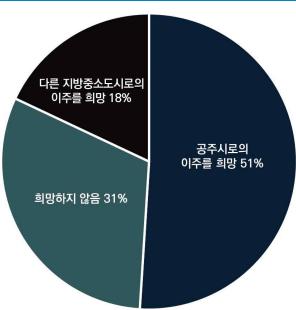
② 지방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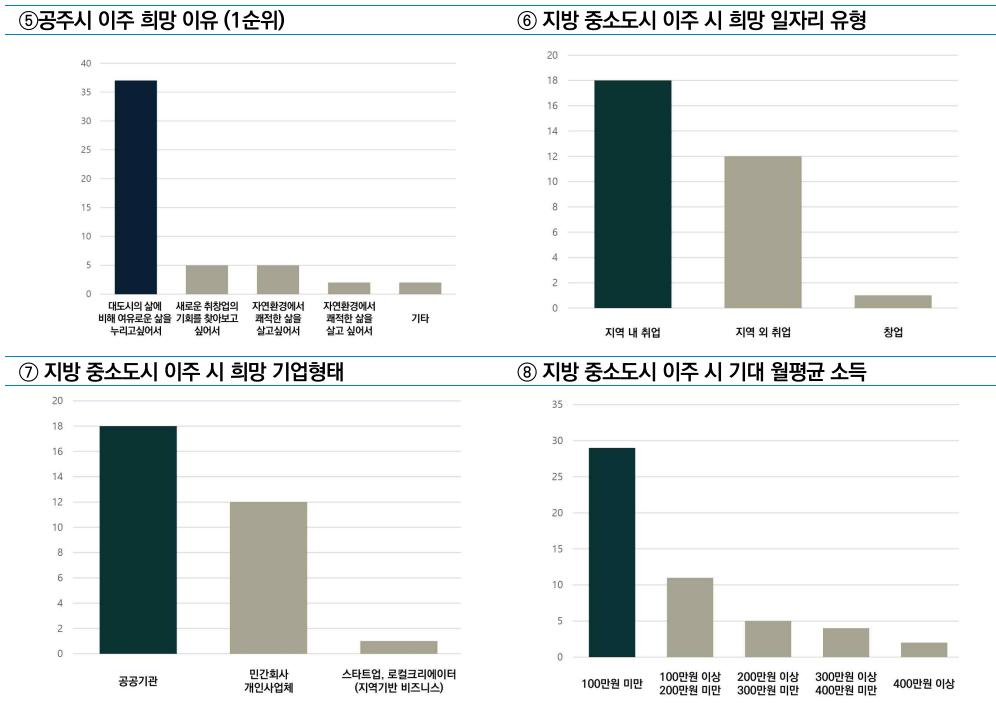


③ 지방이주를 위한 필요 지원사항 (1순위 기준)



④ 공주시 등 지방 이주 및 정착하여 살아 볼 의향





출처 : 연구진 작성

### 3) 관계인구 및 이주청년 대상 심층인터뷰

#### □ 인터뷰 개요

지방이주 프로그램에 참가자 및 이주청년 11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주 또는 방문 계기, 지방이주 단계별 필요한 지원요소, 청년활동공간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5-11] 관계인구 및 이주청년 심층인터뷰 대상

연번	구분	거주지역	이주기간	인터뷰 대상	거주형태	주소지 이전
1	관계인구	서울시	-	지방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원룸(임대)	X
2	관계인구	서울시	-	지방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원룸(임대)	X
3	관계인구	공주시	3년	지방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세어하우스	X
4	이주청년	공주시	3개월	청년기업 종사자	단독주택(임대)	O
5	이주청년	공주시	3개월	청년기업 종사자	오피스텔(임대)	X
6	이주청년	공주시	2년	청년창업가	단독주택(임대)	O
7	이주청년	공주시	2개월	청년창업가	단독주택(자가)	O
8	이주청년	대전시	2년	청년창업가	아파트(자가)	X
9	이주청년	공주시	4년	청년창업가	단독주택(자가)	O
10	이주청년	공주시	8개월	청년기업 종사자	원룸(임대)	X
11	이주청년	공주시	2주일	청년기업 종사자	호스텔(임대)	X

출처 : 연구진 작성

## □ 인터뷰 결과

- 지방이주 유인 요소 및 저해 요소

공주시는 서울시나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좋아 병원이나 대형마켓 등의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지역선택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민천, 봉황산, 공산성 등 뛰어난 자연환경, 원도심 일대 조성되고 있는 청년 취향의 다양한 공간 등으로 인해 지역 자체의 매력도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이주과정에서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방문하면서 거주공간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대중교통 이용객에게는 지역 내·외 이동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 지방이주 과정

지역의 방문계기로는 대부분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나 지인 소개, 게스트하우스 숙박 경험 등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간 및 콘텐츠 발굴 기회가 되었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지역 부동산 정보 습득과 공간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주 후에는 지역 내 소모임 참가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주 및 정착단계에서는 대도시에서 누렸던 일상적 문화생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러닝, 만년필, 드로잉, 독서 등의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문화적 갈증의 일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활동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 청년들은 대도시와 다른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활동공간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공주시가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학동 일대에 필요한 공간으로는 학생이나 청년작가를 위한 전시공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공간, 원격업무를 위한 공유오피스나 개인 스터디룸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지역 콘텐츠 판매공간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4) 중학동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모색을 위한 공간워크숍

##### □ 워크숍 개요

중학동 일대의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기획해보기 위해 관계인구 청년부터 이주청년, 지역청년이 참여하는 공간워크숍을 개최하였다.<sup>21)</sup> 워크숍은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개념, 중학동 내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 마을에 필요한 공간과 활동 내용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기획해보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 5-12] 청년 공간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0:00~10:15	참가자 접수 및 OT	참가자 확인 및 발열체크, 워크샵 취지 및 개요 소개
10:15~11:30	청년의 마을 공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11:30~12:00	청년의 삶을 위한 마을의 변화	마을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마을에 더 필요한 것들
12:00~13:30	점심시간	
13:30~14:20	국내외 공간 사례 조사	다른 지역의 부러운 공간들
14:30~16:30	청년 공간 기획	청년을 위한 공간이 더 생긴다면
16:30~17:00	마무리	청년 공간 기획 정리 및 발표

출처 : 연구진 작성

##### □ 워크숍 진행내용

- 원도심 내 선호공간 분석 및 필요공간 도출

청년 참가자들이 원도심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과 ‘좋아하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그밖에 휴식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공간 가운데 ‘현재 지역에 없지만 필요한 공간’ 또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가자 대부분이 상업적 성격이 짙은 공간보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관계가 형성되며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간의 목적과 테마가 분명하여 마을 활성화 및 브랜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 공간워크숍은 2021년 9월 2일 금강관에서 개최되었으며, 관계인구·이주청년·지역청년 8명, 공주시 인구청년정책팀장,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표 5-13] 공주시 원도심 내 선호공간 및 필요공간

구분	내용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	반죽동24, 업스테어스, 카페, 술집, 가가상점, 제인천, 스포츠 액티브 라운지 등
원도심 내 선호공간	공간 운영자의 취향이 느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타 지역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간, 좋은 향이 나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공간, 개인공간이 확보되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 등
원도심 내 필요한 공간	영화관, 다양한 종류 음식점, 체육관, 다양한 활동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 도서관, 여행객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점, 아와쉼터, 캠핑장, 갤러리, 감성적인 숙소, 지역자원 및 지역경관을 활용한 공간, 대형마트, 쇼핑몰 등

출처 : 연구진 작성

- 국내외 공간 사례 조사

중학동 내 필요한 청년활동공간을 모색하고 조성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간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공간들은 숙박시설, 판매공간, 교류공간, 작업공간, 복합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공통적으로 지역성을 띤 공간이거나 공간특색이 뚜렷한 곳이 제시되었다.<sup>22)</sup>

- 공간기획

워크숍 참가자들의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수요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활동공간을 목록화하여 가장 필요한 공간을 도출하였다. 공공성을 띠는 공간과 개인의 취향이나 수요가 반영된 영리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의료시설, 공원, 산책길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 애견운동장, 음악 라이브러리, 대형 서점 등이 제시되었다.

[표 5-14] 청년 공간 기획 결과1

구분	공공공간	영리공간
A팀	공유주방, 최고급 의료시설, 음악 라이브 러리, 마을놀이터	카지노, 애견운동장, 실내·외 공연장, 라운지클럽, 옥상정원
B/C팀	공원, 동산을 잇는 올레길(산책길), 복합문화공간, 지식산업센터, 공항, 대학병원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마을경관이 보이는 산장, 배낭여행객을 위한 공간, 테마형 박물관, 대형서점, 테라스 있는 카페, 디자이너 스튜디오, 대규모 GYM

출처 : 연구진 작성

이어서 팀별로 마을에 필요한 공간 1개소를 도출하고 공간기획을 실시하였다. 공유주방,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마을경관이 보이는 통나무 산장을 선정하고, 도입기능, 대상,

22) '숙박시설'은 아난티 남해, 강릉 워크에디스 호스텔, 아르카복스 북스테이, 한동안제주, '판매공간'은 스타필드, 스타벅스 서울웨이브아트센터점, 진주 다원 카페, 워터밀, 성심당, 캐지스의 바람 등, '교류공간'은 광주 동명동 손탁애아이허 북카페, '작업공간'은 스토리스튜디오 혜화랩, 목후쿠오카 창업공간, '복합공간'으로는 연남장, 플레이스 캠프 제주, 피치스 도원 등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규모, 시설, 운영방안 및 콘텐츠 등을 구상하여 최종 공간기획안을 작성하였다.

[표 5-15] 청년 공간기획 결과2

구분	내용
공간기획 A팀 “공유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도 : 소셜 다이닝, 공간대관, 식사판매</li><li>- 대상 : 지역청년기업, 소상공인, 마을을 알고 싶어 하는 소규모 단위의 여행자 등</li><li>- 규모 : 약 15명(크림 2, 3층)</li><li>- 시설 : 인덕션, 냉장고, 조리도구, 테이블</li><li>- 운영프로그램 : (점심) 냉장보관이 가능한 음식 판매, (저녁) 공유주방 대관(시간당 1인 5천원, 기본 2시간 이용, 예약제 진행), 지인들과 음식과 음악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li><li>- 공간이용수칙 : 쓰레기 배출, 화재보험 가입 CCTV 설치</li></ul>
공간기획 B팀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도 : 지역 공방작가들을 위한 복합문화스토어</li><li>- 대상 : 지역 여행객</li><li>- 규모 : 약 15평 (크림 2, 3층)</li><li>- 공간구성 : 예술가 작업실, 판매공간, 오픈 스튜디오</li><li>- 콘텐츠 : 공방작품 및 지역굿즈 판매, 지역작가 작품 경매, 지역작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작가 작품제작 순간 관람 및 관련 작품 전시</li><li>- 운영비 : 요일별 작품화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작가가 공간 운영</li><li>- 수익구조 : 작품 및 굿즈 판매/경매 수수료,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수수료</li></ul>
공간기획 C팀 “마을경관이 보이는 통나무 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도 : 배낭여행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li><li>- 대상 : 배낭여행객</li><li>- 공간구성 : 공유주방, 객실(2인/5인), 거실, 마당, 힐링 테라피룸, 족욕공간</li><li>- 콘텐츠 : 지역살이 예술프로그램, 매일 달라지는 대화 주제, 댄스 나이트, 숲테라피 프로그램</li></ul>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5-9] 청년 공간워크숍 진행 모습

출처: 연구진 촬영

## 5) 종합

- 지역에서의 여유로운 삶에 대한 경험 욕구

지역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청년들은 개인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리모트워크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나 정착을 고민하기보다 지방 도시의 여유로운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경우로 볼 수 있다.

- 지역정보 습득과 지역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1주일 이상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마을 내 주요 상업공간을 이용하며 공간 운영자나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들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클래스, 취미모임, 액티비티 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접근하기 쉬운 개별 공간들이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기에 도움이 되고 각 공간의 운영자의 역량에 따라서 커뮤니티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계인구 형성과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을 내 보행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판매공간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 운영자는 외지청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이주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중요성

단기 체류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이주에 필요한 지원사항으로서 상당수가 일자리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인터뷰에서는 이주 결심 이유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낯선 지역에서 일면식 있는 주민의 존재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 두려움을 낮추고 정착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주성 확보와 다양한 업무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

중학동에는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와 코워킹스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찾기 어렵고 프라이빗한 업무공간이나 다양한 업무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리모트 워크 등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청년 수요에 대응하여 관계인구 청년을 확보하고, 지역이주를 유도하여 정착, 정주지속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주공간 지원, 다양한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4.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및 사업화방안 대안 검토

### 1)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설정

#### □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의 기본 원칙

외지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연속성 있는 업무와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지역청년들에게는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이동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전거와 도보 이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동 일대에서는 감영길을 중심으로 한 도보권 범위 내에서 청년활동공간들이 우선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 □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도출

- 단계별 거주공간 조성

1주일 미만 여행객 또는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여행을 오거나 지역을 탐색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 머물기 때문에 침대와 욕실만 제공되는 지역 내 여행자용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1주일~1달 이상 장기 체류자를 위한 임시주거가 필요하며, 여행자용 숙박시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세탁, 주방 등의 기능이 더해진 셰어하우스, 코리빙 하우스 등 대안적 주거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시설에서는 일 단위로 요금기준을 책정하고 있으며, 장기 할인을 적용받더라도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 월 단위 임대가 가능한 거주공간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짐 보관, 옷장, 세탁, 조리, 택배 수령, 음식물 보관 등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 침대와 욕실만 제공되는 여행자용 숙박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지역의 빨래방, 공유주방, 물품보관소 등의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장기 체류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여관, 원룸 등의 공실을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공간들은 중장기 거주공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작은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마을에서 사람들이 쉽게 마주치거나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하다. 중학동 일대에서는 코워킹스페이스, 카페, 책방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만남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류활

동과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무·창업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거점공간은 마을 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입지할 필요가 있다. 이동 중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하고 외부 방문객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공간 운영주체가 외부 방문객에 대한 환대나 지역정보 제공, 네트워크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교류 거점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지역을 탐색하며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경험해볼 수 있는 실험공간이 필요하다.

- 임시 커뮤니티공간 조성

소모임이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공동체 등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다. 커뮤니티공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주체들이 직접 공간을 조성하기에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공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인력 투입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카페나 책방, 음식점 등 민간주체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공간별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대다수의 상업공간이 8시 이후에 문을 닫고 있어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직장인 대상 모임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주체는 대관료나 다과비, 이용료,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공간의 유휴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 공간 운영주체 중심의 공간기획 및 조성 추진 필요

청년활동공간의 운영주체가 공간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운영단계까지 참여하는 과정은 공간의 운영목적 및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 조성과 활용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청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참여형 계획과 시공 등의 방식을 통해 공간조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 구축과 공간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

기 지원사업 등 여러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나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사용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대다수가 자산취득이라 리모델링 비용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는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실험을 위한 공간 조성에 있어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만 집행할 수 있다. 예산사용 범위는 철거, 전기, 설비 등 전문자격 또는 전문성을 필요하거나 청년들이 참여하여 DIY로 공사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공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공간의 운영주체 및 이용주체가 함께 DIY 교육, 리빙랩 운영을 통해 청년활동공간을 기획, 실험, 구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표 5-16] 지방중소도시 주요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구분	기본방향	
거주공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li> </ul>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스트하우스, 호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일 미만 여행객,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li> <li>침대와 욕실이 제공되는 지역의 공공·민간 여행자용 숙박시설</li> </ul> </li> <li>셰어하우스, 코리빙(co-living)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일~1달 이상 장기 체류자를 위한 임시주거</li> <li>세탁, 공유주방 등의 기능이 더해진 대안적 주거형태</li> </ul> </li> </ul>
업무·창업 공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끊김 없는 업무와 학업, 창업이 가능한 공간</li> </ul>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들의 이용행태와 수요에 대응한 공간 조성 필요</li> <li>일간, 주간, 월간 사용자의 플랜별 이용이 가능한 공간</li> <li>공간이 구획되어 팀별 토의 및 스터디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li> <li>공간임대 및 대관이 가능한 공간</li> </ul> </li> <li>팝업스토어, 팝업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매장, 청년몰, 전전대, 수익 셰어 등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모델과 프로젝트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li> </ul> </li> <li>라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li> <li>위치, 접근성 분위기 등이 좋은 공간</li> </ul> </li> </ul>
커뮤니티 공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및 지역주민들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가 발생되는 공간</li> </ul>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청년활동 거점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창업공간의 기능과 커뮤니티공간 기능이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카페, 책방, 식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 활용</li> <li>내·외부 청년들과 지역주민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운영</li> <li>외부 방문자의 환대, 지역정보 제공, 네트워킹 연결 등의 역할 수행</li> </ul> </li> <li>민간운영 상업시설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커뮤니티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규모와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모임 활성화 기여</li> <li>대관료, 다과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 담보</li> </ul> </li> <li>공원, 공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외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출처 : 연구진 작성

## ※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리빙랩 운영 사례

### □ 개요

- 대상지 : 전시 및 팝업공간,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크림(김영길12)’
- 목적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활동공간을 기획 및 시범적용, 새로운 용도의 공간 운영을 실험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 청년활동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 운영방법
  - 대상 공간 및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신규 커뮤니티를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획된 신규 커뮤니티 중 연구기간 내 운영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대상공간에서 시범진행, 성과 확인

### □ 기획 및 시범운영

- 리빙랩 교육 참가자 : 영어 스터디 모임, 케이스 스터디 발표 모임, 와인 모임, 디자인 일러스트 모임

연번	커뮤니티명	활동내용
1	영어 스터디 모임	영어 회화, 영어 기사 읽기, 영어 토론
2	케이스 스터디 발표 모임	지식 나누기 및 발표 능력 향상
3	와인 모임	와인 자식 공유 및 시음
4	디자인 일러스트 모임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공동 작업

- 대상 공간에서 활동이 가능한 신규 커뮤니티를 시범적으로 운영(‘케이스 스터디 발표 모임’과 ‘디자인 일러스트 모임’을 각각 4회, 1회 운영)



### □ 운영결과 및 성과

- 운영 결과
  - 청년그룹이 어려움을 느끼는 커뮤니티의 기획, 홍보, 모객, 진행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필요
  -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및 참여에 대한 니즈가 있음
  - 청년들이 기획한 커뮤니티 주제들이 주민 또는 시니어 그룹의 취미 및 관심사와도 연결되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와 관계 형성 가능
  - 신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공간 사용 시간(체류시간)이 적어 영리 운영(대관비 등)으로는 공간 운영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 또는 수익활동의 병행이 필요

### • 운영 성과

커뮤니티명	운영성과
케이스 스터디 발표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1시30분 (점심 모임)</li><li>- 대상 및 참여자 : 청년 및 주민 총 6명</li><li>- 진행 횟수 및 결과 : 4회 (9/3~9/24), 정기 모임으로 정착</li></ul>
디자인 일러스트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간 : 금요일 오전 9시 (아침 모임)</li><li>- 대상 및 참여자 : 퍼즐랩 직원 청년 (사내 스터디)</li><li>- 진행 횟수 및 결과 : 1회 (9/17), 주민 모임으로 확대 예정</li></ul>

출처 : 연구진 작성 및 촬영

## 2) 청년활동공간 사업화방안 제시

청년수요조사 결과와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에 따라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 사업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건물은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휴공간 2개소로서 (구)노인회관은 민간소유 건물을 청년단체가 장기 무상임대한 상황이며, (구)드림마트는 시에서 매입 예정인 공간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며 운영방식, 주민 및 지역사업체 참여 모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각 공간별 현황을 바탕으로 공간 조성방향과 운영방안을 제안하며, 이때 공간 소유주체 (민간, 공공)에 따라 운영전략을 다르게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 청년단체가 공공매입 공간을 운영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조례를 살펴봄으로써 공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례1 : (구)노인회관

노인회관은 소유주가 단기간 내에 활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실상태였던 대상 건물을 지역 청년단체가 10년 무상임대로 확보한 공간이다. 대상공간은 (구)공주의료원 부지에서 영명중·고등학교로 향하는 언덕에 위치하며, 언덕을 따라 주변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동인구는 적으나 영명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공주역사전망대와 근접하고 공주제일교회, 선교사가옥, 중동성당 등을 방문하는 공주근대역사탐방로 동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아카이빙 전시 공간, 업무·창업공간, 휴식공간, 전망대 등으로 활용될 경우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경 100m 내에 판매 시설, 휴게시설이 없어 주민과 학생, 방문자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도 유효하다.

지역주민, 지역청년,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DIY 교육과 행사를 통해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지역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간조성에 필요한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갖출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민간주체 간 관계를 기반으로 유휴공간의 무상임대 및 활용이 가능해진 사례로서 국비지원사업이나 행정주도로 조성하는 공간과 대비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5-17] (구)노인회관 사업화방안

구분	내용
현황	<p>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명학당2길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옛 공주의료원 부지에서 영명중고등학교로 향하는 언덕에 위치</li> <li>언덕을 따라 위치한 주택 거주자들의 이동 동선 및 학생들의 통학로 인접</li> <li>영명중고등학교 내 위치한 공주역사전망대와 근접, 공주제일교회, 선교사기록, 중동성당 등을 방문하는 공주근대역사탐방로에 위치</li> </ul> </li> </ul>
	<p>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층, 201.7㎡</li> </ul>
	<p>소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소유</li> </ul>
조성	<p>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지역청년, 청소년이 참여하는 DIY 교육 및 행사 진행</li> </ul>
방향	<p>조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공간 조성</li> </ul>
	<p>층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살이 프로그램, 리빙랩 등 청년활동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전시장</li> <li>지역주민과 청년, 인접한 종교 학생들이 함께 활용하는 라운지</li> <li>이용객 편의를 위한 판매점 혹은 간이 카페</li> </ul> </li> <li>2층 : 디자인, IT, 콘텐츠 그룹 등 창의혁신 기업, 팀 단위 입주 가능한 오피스 공간</li> <li>옥상 : 원도심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대</li> </ul>
운영	<p>운영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청년단체(10년 무상임대)</li> </ul>
방안	<p>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창업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 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주체는 지역에서 2년 이상 커뮤니티활동을 주최 및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청년 및 지역주민들의 니즈와 활동 수요 파악</li> <li>다수의 청년 및 지역단체와 협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이 있어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단체와 공간의 물리적, 기능적 연계</li> <li>반경 100m 내 판매시설, 휴게시설이 없어 지역주민,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위한 지역 거점공간으로 운영</li> </ul> </li> </ul>

출처 : 연구진 작성

• 사례2 : (구)드림마트

드림마트는 장기간 마트로 운영되다가 폐업한 뒤 방치된 민간소유 건물이다. 최근 공주시에서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주와 협상과정에서 매입대상 부지와 건물이 추가되어 공간 조성 및 활용방식에 대해 재논의되고 있다. 드림마트를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공간은 대규모 공간으로서 지역 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창업자 등 여러 지역주체로 구성된 마을관리협의체 또는 도시재생회사가 공간기획, 설계, 운영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공간 조성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등 협의체가 직접 국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공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실험장과 창업 결과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입주공간과 판매공간은 공간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기존 마트의 공간 구획을 활용할 수 있다.

드림마트와 같이 규모가 큰 행정재산는 크게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먼저 민간위탁방식은 위탁사무의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을 위탁받은 단체가 건물관리,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공공 및 수익시설 운영 등 공간을 전담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에 의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공익 목적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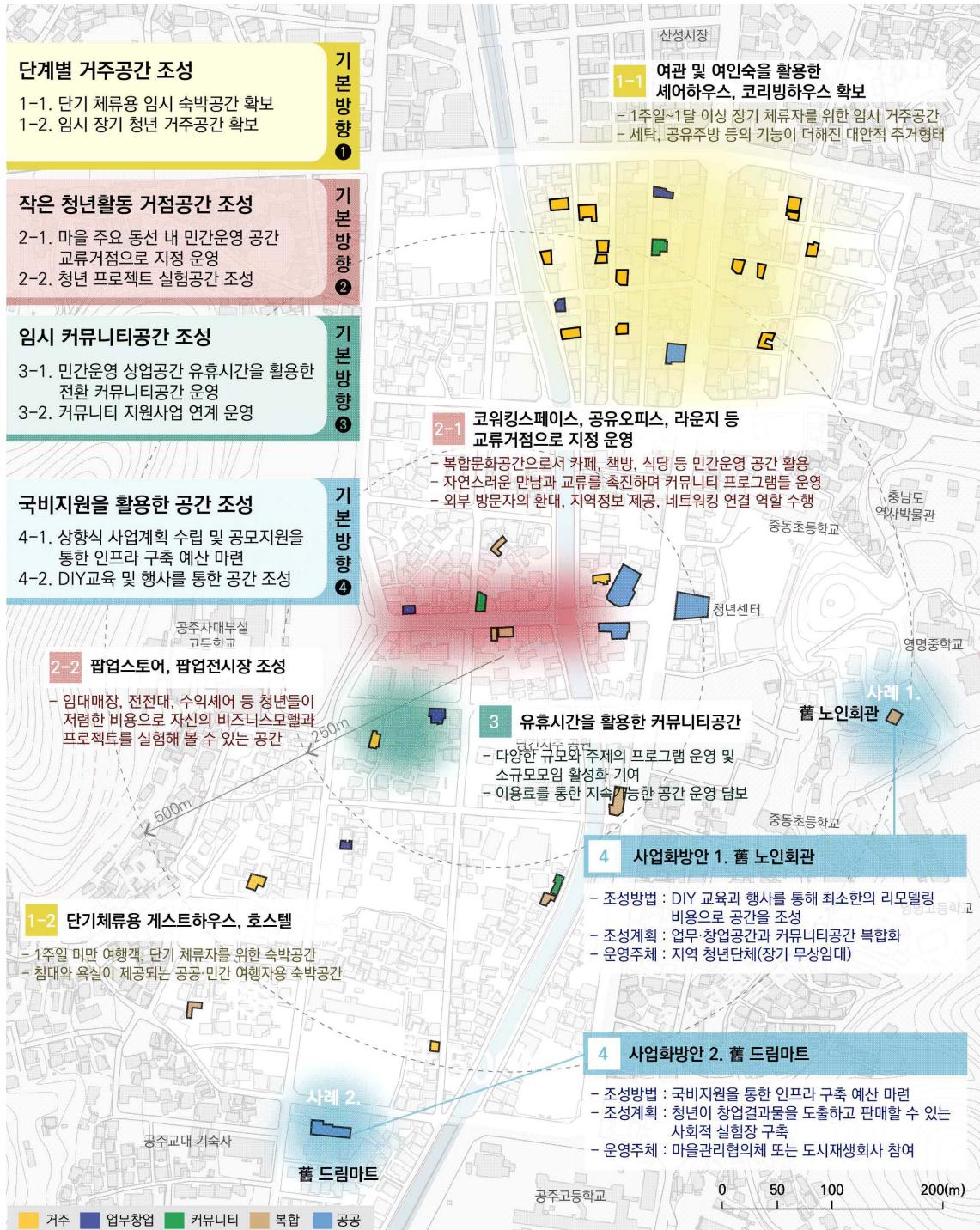
대규모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부분과 더불어 수익창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관리 협의체가 도시재생회사 등 공간 운영주체는 공간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공간별 도입기능 및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입주공간과 수익시설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법령, 도시재생회사의 참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8] (구)드림마트 사업화방안

구분	내용
현황	• 봉황동 330-6
	• 규모 1~2층, 374㎡
	• 소유 공공매입(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마트로 운영되다가 폐업한 뒤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던 민간소유 건물을 공주시에서 매입 추진</li> <li>- 당초 활용계획은 책, 인쇄와 관련한 전시, 문화체험시설이었으나 소유주와 협상과정에서 매입대상 부지와 건물이 추가되어 공간 활용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진 상황</li> </ul>
조성 방향	• 국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 예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주체 등이 기획부터, 설계, 운영 및 수익창출까지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계획을 수립</li> <li>- 도시재생 인정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공모</li> </ul>
	• 공간 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창업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회적 실험장 구축</li> <li>- 기존 마트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청년 입주공간 마련</li> </ul>
운영 방안	• 마을관리협의체 또는 도시재생회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청년창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공간 기획, 설계, 운영 등 공동으로 참여</li> </ul>
	• 공간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최적의 공간 활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의 효율적, 생생적 운영을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령 개정, 도시재생회사 참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 개정 필요</li> <li>• 자체 관리위탁을 통한 예산 지원 방식 지양</li> </ul>

출처 : 연구진 작성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789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그림 5-10] 공주시 중학동 일대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및 사업화방안 종합도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수치지도(<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기초자료로 연구진 작성

### 3) 대안 검토 결과 시사점 및 과제

#### □ 시사점

- 지방중소도시의 공간자원 현황 및 기 조성된 청년활동공간 운영현황 분석 필요

공주시 중학동 일대는 민간주체들에 의한 청년활동공간이 다수 집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공주시에서도 청년 공유주택과 공공공간, 청년센터를 조성하며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중소도시는 지역 내 공간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유사한 용도의 공간들이 과잉 공급될 경우 공간 활용이 떨어지고 재유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안 검토 과정에서 지역 내 유휴·공공공간, 기 조성된 청년활동공간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는 유휴공간 자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청년수요 파악을 통한 청년활동공간 도입기능 도출과 지역주체 간 협업구조 마련

청년활동공간 조성 시 ‘어떤 콘텐츠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주체가 운영할 것인지’, ‘지역 주체 간의 연계나 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인지’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그룹,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활동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안 검토 과정에서 관계인구 청년, 아주청년, 지역청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역 내 공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필요한 공간이나 기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간 워크숍과 리빙랩을 운영하여 청년활동공간 기획안과 커뮤니티 공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운영 그룹도 조직되었다. 즉, 청년활동공간 조성과정에서 청년주체나 지역주민, 지역 공동체, 행정 등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청년활동공간의 도입기능과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역의 청년 단체 및 활동 현황 파악을 통한 공간 운영자 발굴 필요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대상지 일대 청년그룹 현황과 이들의 활동 내용, 활동 범위, 활동 공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활동공간의 운영자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자원들을 찾아내는 과정은 본격적인 공간 기획에 들어

가기 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공주시는 시 소유 유휴공간인 (구)호서극장의 재생·활용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청년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공간 조성방향 설정과 기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를 사전에 발굴하고 공간 기획과 조성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 □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방향 및 과제

대안 검토를 통해 지방중소도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청년 인구 동향과 청년활동공간 현황, 유휴·공공공간 현황 등의 현황분석 항목 도출과 사업추진 절차 마련, 둘째, 청년활동공간 도입기능 설정과 기획을 위한 설문조사, 인터뷰, 공간 워크숍, 리빙랩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활용, 셋째,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넷째, 현황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발굴된 지역의 인적자원 참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

# 제6장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정책지원 방안

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
  2.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추진전략
  3.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추진절차 및 운영관리체계
  4.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 

## 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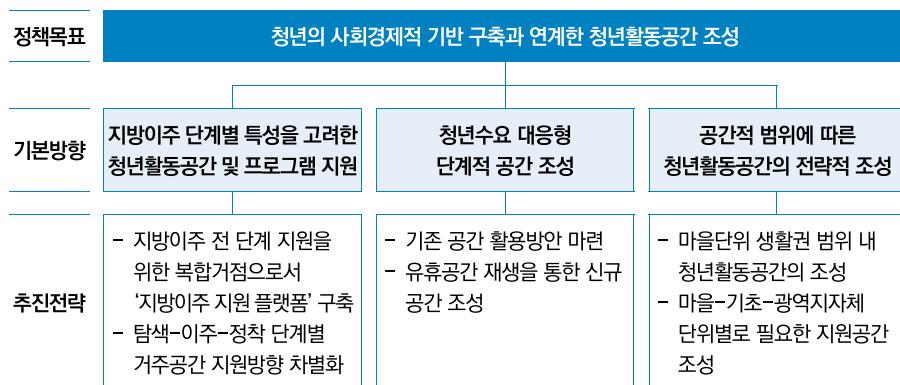
### □ 정책목표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감소와 도시쇠퇴의 악순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년인구 유입책은 지방이주를 위한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시급성 때문에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정책이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출산·양육·귀농 지원금이나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주소지 이전과 관련된 이주단계에 많은 사업이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기간 또는 일회성의 지원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부서별 사업이 개별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4장의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현안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매력적인 요인 발굴과 정주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이주 과정과 청년세대 특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청년의 유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청년세대의 문화와 특성, 로컬지향과 지역살이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응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관계인구, 체류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sup>1)</sup>

이에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로 청년의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정주지속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생활 및 활동기반으로서 청년활동공간이 일자리나 커뮤니티 등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6-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출처 : 연구진 작성

#### □ 기본방향

-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어떠한 지역에 관심이 없던 이들이 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최종 이주까지 여러 단계<sup>2)</sup>가 있다. 즉, 청년의 지방이주는 단순한 '전환'이 아닌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

1) 차미숙(2021, p.17), 차미숙(2020, p.8)

2) 일본 메이지대학의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 德美) 교수는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주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대하여 분석, 2018년부터 정부정책에 관계인구 개념을 적극 도입함(김미향, 2021, 8월 28일 기사)

리를 구하고 필요한 생활 서비스로의 접근, 관계망을 넓혀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지방 이주 단계별로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와 지원정책, 청년활동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sup>3)</sup> 특히 지역 내 비즈니스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주 과정의 초기단계에 대한 각도의 정책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연고가 없고 생활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이주 초기단계의 청년들을 위해 거주, 업무·창업, 커뮤니티, 지원 등 여러 기능이 복합화 된 거점공간 조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주 및 정주지속에 필수역할을 하는 거주공간은 지방이주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정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청년 수요 대응형 단계적 공간 조성

지역의 청년인구, 유휴공간, 기 조성된 청년활동공간 등의 현황과 청년 수요에 맞추어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청년 수요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공간이 도출되면 기 조성된 공간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지역 내 청년 대상 공간 또는 유사 용도의 공간이 있다면 청년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을 복합화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을 신규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 내 유휴·공공공간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 재생 및 활용을 통해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공간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공간적 범위에 따른 청년활동공간의 전략적 조성

지방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통 환경이나 공공서비스 공급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 및 부지 확보, 공간 조성비용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에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은 도보나 자전거 이동이 가능한 범위의 마을단위 생활권 기반으로 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공간들을 단일 기능으로만 활용하기보다 여러 기능과 프로그램을 복합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은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 내에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과의 관계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지원공간의 경우에는 도입기능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라 마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필요한 공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조성한다.

---

3) 김정섭 외(2018, p.3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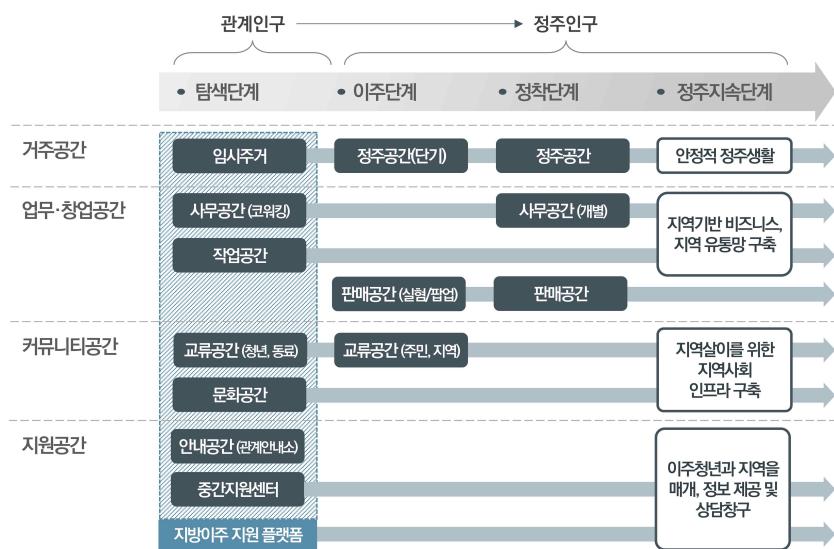
## 2.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 추진전략

### 1)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 지방이주 전 단계 지원을 위한 복합거점으로서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들의 지방이주 과정을 보면 지역 내 일자리, 활동단체, 프로그램 등 각종 지역정보의 습득과 지역에서의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 지역에 먼저 정착한 선배그룹이나 지역생활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이 안정적인 지역살이와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이주 전 단계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공간으로서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은 지방이주 준비과정이나 절차, 지원정책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등의 중간지원기능과 함께 아직 지역에 생활·활동기반을 갖추지 못한 이주청년이나 방문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세부 기능으로는 단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살이를 해볼 수 있는 임시주거, 지역에서의 일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험공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안내소 등이 있다.



[그림 6-2]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활동공간의 수요에 따른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도입기능 예시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사례 : 전북 완주군 고산다움 프로젝트

- 사업 :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목적 : '지역살림 리빙랩 프로젝트', 청년활동가의 안정적 기반 마련,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업 대응
- 위치/면적 :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157-3 / 797m<sup>2</sup>(241평)
- 공간구성 : 사무실, 회의실, 공유부엌, 교육장, 작업장, 원룸형 숙소, 복층형 숙소, 세탁실(지상 2층)
- 운영방식 : 고산다움 협동조합 소유, 개별 공간·시설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조합원 구성
- 주요사업 :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지역기반 진로탐색 프로젝트(로밍 프로젝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청년 '같이가게'), 지역살이를 지원하는 퍼머컬처 교육, 지역탐색 단기 거주지원 등



출처 : 고산다움 추진현황, 협동조합 이장, <https://e-jang.net/37?category=922673> (검색일 : 2021.5.31.).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2021, p.7)

#### • 정착단계로 전이될 수 있는 '실험적 공간' 조성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살이 프로그램이나 지역자원 조사 등 지역에서의 체험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탐색단계와 연관된 지자체 지원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일자리나 창업지원 등 이주단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의 이주와 정주지속을 위해서는 지방이주를 '과정'에서 바라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정책에서는 청년들의 유입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유도하고 지속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이나 고용정책, 주거 정착금이나 청년수당 지급을 통한 지역에서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새로운 인구흐름을 유입시킨다는 관점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서의 생활 및 활동 가능성을 모색<sup>4)</sup>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의 매력, 여유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청년들의 지방이주·지역살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활동공간과 소득 확보로 이어지는 정착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지역에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탐색이나 이주 초기단계에 임대료나 리모델링 비용 등 공간 조성비용을 최소화하

4) 청년들은 특정지역, 장소로서의 '지방'보다 공동체적 문화, 긴밀한 관계, 생태적인 생활 방식, 아름다운 자연환경, 건강한 삶, 협동과 호혜의 경제, 여유로운 일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살림 등 지방에 있다고 기대되는 분위기와 가능성에 더 매력을 느꼈다. 또 경제적 성공이나 안정적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실험과 연결(만남)의 기회를 바란다(김정섭 외, 2018, p.24).

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프로젝트를 실험해볼 수 있는 실험적 공간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정착단계로 이행되는데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례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공유부엌과 함께 메이커스페이스와 커넥티브랩을 조성하여 청년 예술가, 기획자, 제작자, 디지털 노마드 등 지역을 연결하고 창의적 실험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 중이고, 인근에 팝업스토어 성격의 창업실험공간도 별도로 조성하고 있었다. 이 공간들은 고산미소시장 일대의 지원공간과 연계하여 아주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팝업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이었다. 이 공간은 1층은 식당,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소유주의 고령화로 식당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1층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콘텐츠를 일정기간 동안 전시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2층은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기획·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관계인구 청년들과 지역의 교류 기회 및 접점 제공을 위한 ‘관계안내소’ 도입

탐색단계의 청년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으로 이주 및 정착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관계인구로서 이들을 확대하고 지역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계인구 청년들이 지역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이해를 둡고, 지역 내 일자리나 활동 정보,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 정착하여 정주지속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나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자주 부딪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칭)관계안내소’라 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공간 내 또는 주민센터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관계안내소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관계안내소의 입지 선정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관계안내소는 공공이 운영할 수도 있으나 ‘관계안내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지역 내 카페나 서점, 코워킹 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장소가 관계안내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 탐색–이주–정착 단계별 거주공간 지원방향 차별화

2장의 수도권 및 특·광역시 거주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방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해서는 거주공간 중에서도 정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 기회

를 높이기 위해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나 서울특별시의 넥스트로컬 등 지역살이나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참가자들도 청년활동공간 중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탐색단계나 이제 막 지역으로 이주한 지방이주 과정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정주공간보다 임시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지방이주 단계별 거주공간 지원방향

‘탐색단계’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구득하는 시기로 지역에 머물면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기도 하므로 ‘케스트하우스’와 같은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를 필요로 한다. 최근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임시주거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살이나 청년캠프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공간 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숙박시설의 우선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유숙 공간을 숙소로 재생하는 단계적 조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단계’는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옮겨가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주공간이나 창업공간 등의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보 습득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착단계’는 지역에서의 정착 및 정주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시기로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 능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청년세대 대상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청년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주공간이 제공되고 있었다. 실제 지역에 이주한 청년들은 이러한 주거지원이 이주 결심에 영향을 미쳤고 지역 정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sup>5)</sup> 또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2개 지역에서 조성한 청년활동공간 유형을 보더라도 임시주거나 정주공간은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이주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으로 단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sup>6)</sup>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5) 전북 완주군 고산면으로 이주한 청년(김다솜, 박새로미)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5.27.) 참고

6) 충북 괴산군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이에 앞서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단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라 하였다(이지현 꿔하동 대표 인터뷰, 인터뷰 일자 2021.9.9.).

[표 6-1] 전북 완주군 청년 거주공간 지원사례

구분	개요	주택
청년, 완주 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완주 경험을 희망하는 타 시군 청년(만 39세 이하)</li> <li>- (지원내용) 완주를 방문한 청년에게 게스트하우스 숙박비 80% 지원(1일 숙박 기준 자부담 7천원~1만원, 최대 14박), 완주 탐방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li> </ul>	홈스테이(삼례읍), 에버팜 민박(화산면)
청년 쉐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완주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li> <li>-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5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주거 지원(최대 3년), 기본 가구·가전 제공</li> </ul>	첨담빌라(삼례읍), 뜰안애, 시계빌라(봉동읍), 웨메이드하우스, 농가형 주택(고산면) 등
청년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완주군에 거주중인 청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대학생 및 청년)</li> <li>- (지원내용)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최대 6년 입주기간 지원</li> </ul>	삼봉A-1BL, 삼봉A-3BL (삼례읍 삼봉지구)

출처 : 완주청년정책 청년매카완주, (청년, 완주살이)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1003001000000/](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1003001000000/), (청년쉐어하우스)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3000000/](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3000000/), (청년행복주택)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3000000](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3000000) (검색일 : 2021.12.12.), 김주영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1.5.27.) 참고

-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플랫폼 및 테마형 매임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

관계인구 또는 방문청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질적으로 좋은 거주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주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sup>7)</sup> 이주를 결심한 청년들은 임시주거보다 세어하우스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비 부담이 낮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정주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만 지방중소도시. 특히 인구 10만 이하 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례가 많지 않아 주거플랫폼이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2]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국비지원사업

구분	개요
주거플랫폼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지역개발사업)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 성장축진지역으로 선정된 70개 시·군의 읍면지역</li> <li>- 지원내용 :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계획 + 입주자 및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SOC 공급</li> <li>- 지원규모 : 사업당 최대 50억 이내(보조율 100%)</li> <li>- '21년 선정지역 : 정선군, 청양군, 상주시, 의성군, 하동군(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li> </ul>
테마형 매임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①민간 사업자(사경주체 등) 대상, ②신축매입약정 방식, ③운영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주택</li> </ul>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 민간이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를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담당,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li> <li>- 테마 유형 : 일자리·창업, 육아·돌봄, 귀농귀촌, 장애인·고령자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선택하여 제시 가능</li> <li>- 매입 : 민간사업자-LH 간 사전 매입약정, 민간 건설 완료 후 LH가 매입</li> <li>- 금융지원 :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대출(HUG 도심주택특약보증 확대)</li> <li>- 입주조건 : 기본적으로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동일</li> </ul>

출처 : 국토교통부(2021, 4월 2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2021, 8월 2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2021, 9월 8일 보도자료)

7)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문회의(자문회의 일자 : 2021.9.28.) 참고

## 2) 청년 수요 대응형 단계적 공간 조성

### □ 기존 공간의 우선 활용방안 : 공간의 복합화 및 프로그램 간 연계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나 청년가게, 청년점포 등 다수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미 지역에 조성된 공간이 많고, 해당 공간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는 지역 내 공간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유사한 용도의 공간이 과잉 공급될 경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재유휴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청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조성된 공간을 복합화하여 사용하거나 공간의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간 복합화 방안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필요한 기능을 도입하는 방식과 시간 대별로 공간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저녁시간대 영업을 하는 청년가게의 유휴시간대인 주간시간을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공간의 유지 및 관리 부담이 큰 청년상인은 공간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커뮤니티공간 운영주체는 기존 공간의 활용을 통해 공간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공간 이용시간대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활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연계방안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복합화하여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여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공간 내 다양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 공공시설 내 프로그램 연계방안도 있으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의 ‘반죽동247’이나 ‘가가상점’, ‘곡물집’은 마을의 주요 보행동선 상에 위치한 카페, 책방, 점포로 지역주민이나 이주청년, 방문청년 등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공간으로서도 가능하고 있다. 민간주체 운영공간들은 입지가 우수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안내소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이주 지원 플랫폼과 연계한 작은 거점공간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

### □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신규 공간 조성

신규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내 유휴·공공공간의 재생·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에 대한 DB구축과 정보제공, 유휴 부동산의 계약 및 이용방식 다각화를 통한 공간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주청년들은 지역 부동산 정보 취득이나 자금 조달의 한계, 외지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의 경계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청년활동공간의 상당수는 공간 조성 목적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청년 수요와 미스매칭 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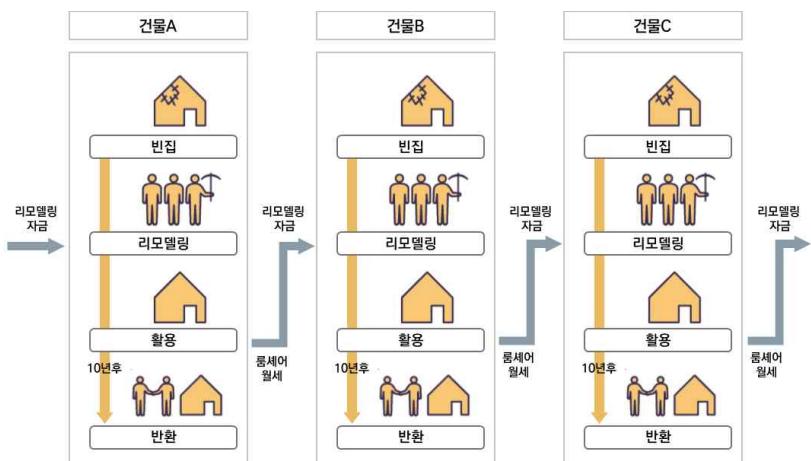
이에 청년들에게는 창업공간이나 입주공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역사회에서는 유휴공간의 활용책의 하나로서 빈집이나 빈 점포의 계약방식이나 투자를 다각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집이나 유휴 공공공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지역의 편의시설이나 관광명소, 주요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키맨(key man)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6-3] 유휴 부동산의 계약 및 이용방식 다각화 방안 예시

구분	개요
빈집 리모델링 및 지역상생 사업구조	- 빈집 소유자는 지역에 들어오려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 - 청년들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양호한 건물로 반환
공공 부동산 장기 대부형 사업모델	- 지역재생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주청년 대상
임팩트투자를 통한 부동산 자산 확보*	- 장기간 무상 혹은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
부동산 자산 확보*	-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 등이 공간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나 공기업 차원의 펀드 조성과 지원 확대 추진방안 마련
지역자산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확보	- 지역 공동체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 유휴공간 문제의 해결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안정적 성장 지원 가능
	- 청년 커뮤니티 및 공유공간 등 조성 시 활용하여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가능

출처 : 김주진 외(2021, pp.262~263), 경상남도(2020, 12월 9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임팩트 투자펀드니 '하모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자원 및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셜벤처 등에 투자할 예정. 투자기관은 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통영시(통영관광개발공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센트랄이며 운용기관은 엠와이소셜컴퍼니(msyc),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임



[그림 6-3] 집 리모델링 및 셰어하우스 사용을 통한 활용 방안

출처 : 오카베 토모히코(2017, p.70)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로 사용, 셰어하우스의 월세를 이용하여 다음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충당, 건물은 월세 '0'으로 빌려 10년 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집주인에게 반환

### 3) 공간적 범위에 따른 청년활동공간의 전략적 조성

#### □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 내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4장의 심층사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중소도시에 조성된 청년활동공간들은 거주 공간을 제외하고 주로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인 마을단위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10만 이하의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대체로 원도심 내 청년활동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지방이주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지속 하여 온 지역에서는 안내공간이나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지원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이 점차 조성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 마을 내 청년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의 집적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통 환경이나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지방도시에서는 청년들의 생활 및 활동기반이 되는 청년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이 마을단위로 집적되어 운영되고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건물 확보나 공간 조성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시에서는 개별 공간들을 단독 기능만으로 활용하기보다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탐색이나 이주 초기단계의 청년들은 함께 하는 동료나 지역살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안내소 및 중계인과 가까이 있을 때 정착단계로 넘어가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이용이 용이할수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실례로 '로컬라이즈 군산' 1·2기 참가자들은 업무공간, 공유부엌, 회의 공간, 카페 등으로 구성된 거점공간인 로컬라이즈 타운을 이용하고 이와 인접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체류하면서 빠르게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8)</sup> 또한 충남 공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앵커기업의 주요 활동범위이자 청년활동공간이 모여 있는 중학동 일대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사례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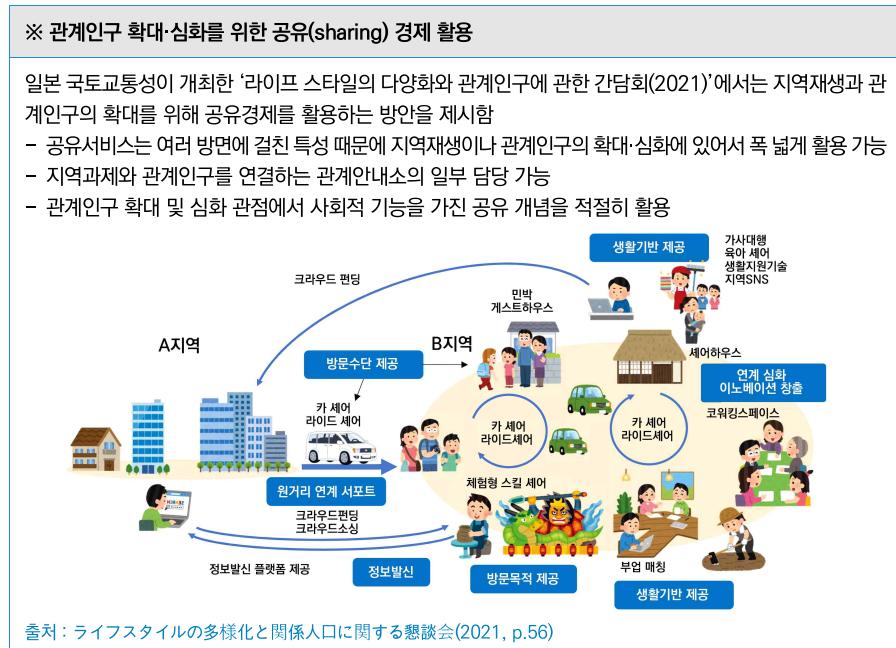
- 마을 내 이동 및 체류 용이성 확보

청년들이 마을에서 관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활용한 이동수단 마련과 커뮤니티 거점 및 체류장소 확보, 활동기회 제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코리빙, 세어하우스, 코워킹스페이스, 세어오피스 등의 공유공간은 청년들에게 지역체험이나 체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전북 완

---

8)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유연성 디렉터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1.27.) 참고

주군 고산면에서는 가전·가구, 설비가 완비된 세어하우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의 이주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9)</sup>



#### □ 마을-기초-광역지자체 단위로 필요한 지원공간 조성

청년과 지역, 이주청년과 주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역할의 지원공간은 도입기능과 서비스 공급 범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마을단위에서는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유오피스나 공유주방 등 업무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관계안내소를 설치하거나 관계안내인이 마을단위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상담 창구가 필요하며, 빙집이나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현황이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귀촌귀농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내 해당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로컬 창업 지원이나 관할지역 기업의 일자리 연계 등을 담당할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 등의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9) 전북 완주군 고산면으로 이주한 청년(김다솜, 박새로미)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5.27.) 참고

지역 내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기반 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창업 지원사업은 재료비나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교육 및 멘토링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맞춤형 청년창업 공간재생 지원사업’과 같이 유휴공간의 재생 및 활용과 연계한 청년활동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4] ‘마을–기초자체–광역자체’ 단위로 필요한 청년활동공간 및 도입기능 예시

구분	공간(시설)	도입기능 및 역할
마을/동네 (또는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업무공간 및 커뮤니티공간</li> <li>- 관계안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활동기반 및 인프라로서 기능</li> <li>- 지역살이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ul>
기초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귀촌귀농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li> <li>-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 제공</li> <li>- 지역 내 유휴·공공공간 정보 제공</li> <li>- 지방이주 및 정착 상담창구, 이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거점, 청년 유치 및 교육 지원 역할</li> </ul>
광역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혁신센터</li> <li>- 경제진흥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역 내 청년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 실시</li> <li>- 지역자원이나 공간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li> <li>- 지역기업 및 일자리 연계</li> </ul>

출처 : 연구진 작성

####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맞춤형 청년창업 공간재생 지원사업’ 사례

강원도 이주청년 중 본 사업을 통해 지역정착 및 활동기반 공간(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강릉의 파도살롱, 위크엔더스, 소집, 속초의 고구마쌀롱이 있다.

- (대상) 지역의 생활문화 기반으로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 대상
- (사업내용) 유휴공간을 보존·활용하여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 (지원내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 멘토링, 코디네이터의 공간조성 컨설팅, 사업화지원금(5,000만원 이내), 우수창업자 후속지원(1,500만원 이내)



강릉 파도살롱(코워킹스페이스)



강릉 소집(갤러리, 문화공간)



속초 고구마쌀롱(여행 컨시어지)

출처 : 2020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 모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883&rnum=881&kind=undefined&sPtime=undefined](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883&rnum=881&kind=undefined&sPtime=undefined) (검색일 : 2021. 6.5.), 사진은 연구진 촬영

### 3.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추진절차 및 운영관리체계

#### 1)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절차

공간조성사업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 수요에 맞지 않는 과정 공급이 될 경우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져 방치, 유류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어울림센터나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 조성,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부처별 청년 대상 공간조성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현안과 청년수요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지방이주 청년 및 청년활동공간 현황, 청년수요 및 지역여건 등 지방이주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 조성방향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

청년활동공간은 이주청년 및 관계인구 현황, 지역자원 및 유휴공간 현황, 청년활동공간 조성(예정) 현황 등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청년활동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 기존 공간의 활용방안 및 운영과제 등을 도출하여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역여건과 방문청년의 특성,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성해야 할 청년활동공간의 사업추진모델을 제시하고, 청년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반과 연계한 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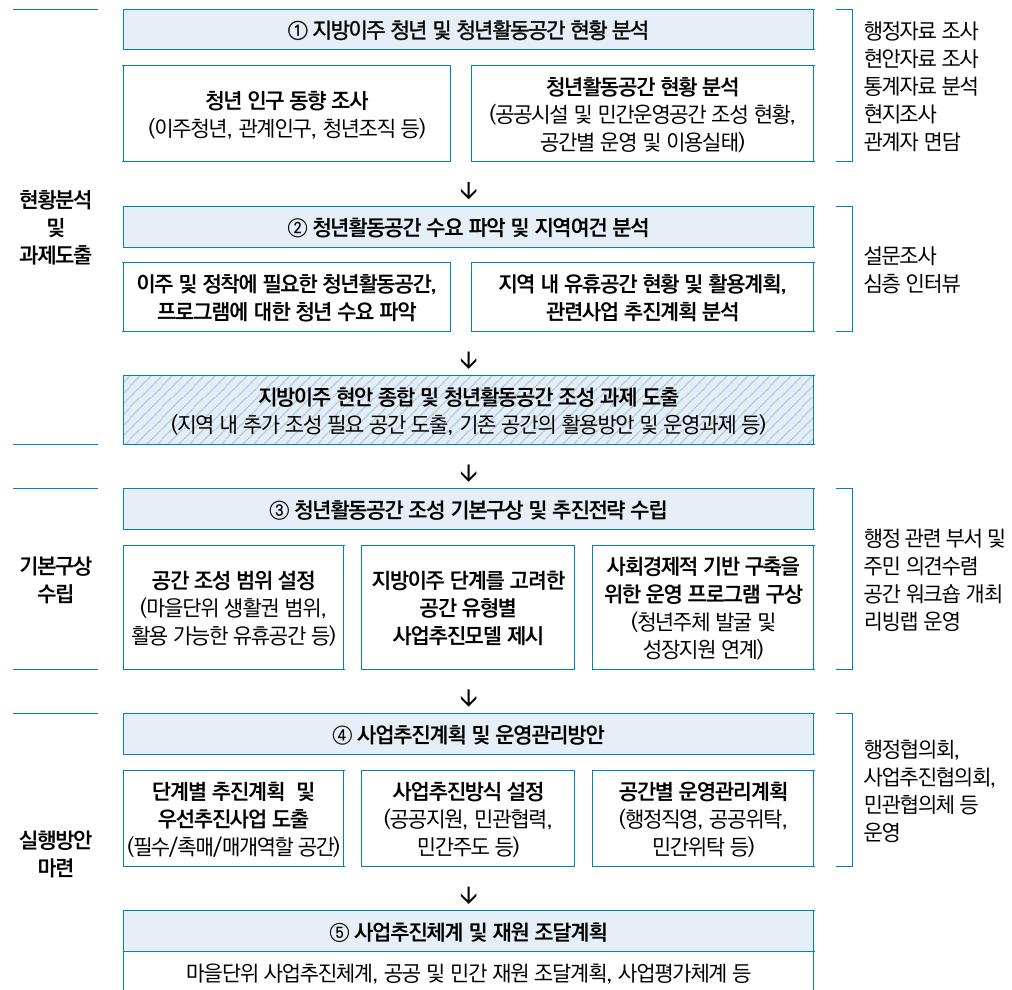
사업실행을 위해 지방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청년활동공간의 세 가지 역할인 필수, 촉매, 매개역할을 바탕으로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간을 도출한다. 그 밖의 공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연계 방향, 민관협력 및 민간주도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 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계획 수립부터 공간 조성·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 관련 사업 운영사, 지역앵커기업, 청년, 중간지원조직 등 참여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 수립과 사업 시

행을 진행하는 지자체 담당부서는 여러 분야의 청년정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협의회의 정기적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개별 단체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요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은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도입기능 설정과 공간별 조성시기를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공간의 운영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청년활동공간의 도입기능과 역할이 겹치지 않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정·관리체계와 공간의 세밀한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6-4]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절차

출처 : 연구진 작성

## 2) 청년활동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체계

### □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및 자생적 사업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앵커기업 육성

관계인구와 단단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업 구상, 이를 산업화해갈 수 있는 지역의 핵심주체가 필요하다.<sup>10)</sup> 마을 내 필요한 공간의 기획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프로그램 운영, 주변지역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를 발굴하여 지역의 ‘앵커’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앵커기업은 마을 디벨로퍼로나 관계안내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 및 역할 범위는 지역상황과 방문청년 특성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충남 서천의 자이엔트, 충남 공주의 퍼즐랩, 전남 목포의 공장공장, 경남 거제의 공유를위 한창조 등은 지역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청년활동공간의 전략적 조성과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담당

지자체가 청년활동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앵커기업은 이에 따라 마을 내 필요한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요를 바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조성방안 아이디어 공모, 공간계획 수립 및 공간조성,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마련 등 마을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이주청년을 연계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공간이 운영되고 주변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앵커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sup>11)</sup>이나 도시재생회사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용 방안을 비롯하여 현행 지원정책의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청년그룹 네트워크와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지방이주 청년들을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느슨한 연대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업무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공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4장의 분석을 통해 이주청년의 지역 정착과 정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동료애가 중요하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내 업무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앵커기업은 청년그룹 간 정서적·업무적 네트워크

10) 김경혁 자이엔트 대표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5.17.) 참고

11) 2018년 도입된 본 제도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 모태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에 해당되며, 이들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신규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하승현 주택도시보증공사 과장, 제현정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자문회의 내용 참고, 자문회의 일자 : 2021.12.15.).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마을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청년활동공간 도입기능 및 규모를 고려한 운영방식 다각화

청년활동공간의 유형 중 공공정책 추진과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공간은 행정직영 또는 공공위탁,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표 사례로는 지자체 청년지원센터나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때 민간위탁을 받는 청년단체나 청년기업 등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간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업무·창업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 등은 공간기획 및 조성단계부터 청년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간규모나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2)</sup>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추진 시,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나 주민·상인협의체 등에 지자체 청년협의체를 비롯한 청년단체, 청년기업, 이주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가 될 수는 있으나 사업기획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기반 서비스 사업의 예산비중이 낮은 상황이다.<sup>13)</sup> 이에 청년인구 유입이 시급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 추진하여 지역사회 청년 참여 유도와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sup>14)</sup> 작은 규모의 공간 조성부터 청년주체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다.

#### □ 관련 부처·부서 간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주 과정은 거주지 이전이나 구직 과정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공간 조성 지원, 지역 내 운영·활동 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고 그 수단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어야 한다.<sup>15)</sup> 따라서 폭넓은 공공지원 방식과 지원체계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간 사업 연계방안, 지자체 부서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2)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간을 청년활동공간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21년 화성시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내 민간공간을 활용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2백만원 이내에서 차등지원할 예정이다(화성시, 2021).

13) 김주진 외(2021, pp.277-278)

14)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11.3.) 참고

15) 김정섭 외(2018, p.64)

- 부처별 청년 지방이주 관련 사업 연계안 마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은 점점 규모가 방대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예산사용 범위가 다른 상황이다. 인건비, 재료비, 공간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등 각 지원사업별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또는 수월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활동공간의 지속을 위해 관련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지원사업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지원사업을 연결하는 방향 우선 고려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 안내서를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처 연계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간의 상호보완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지원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이주 및 지역정책 로드맵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부서 통합형 청년 지방이주 지원체계 마련

지자체 청년 지방이주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주민공동체과, 인구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크게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도시재생정책에 따라 업무가 흩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지원방안이 다방면에서 마련되고 있지만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소통채널이 달라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신청 및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지방이주 청년과 관련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어 불필요한 소통채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자체에서는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행정, 관련 사업 운영사, 지역앵커기업, 청년,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주체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서와 정기적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통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이나 제도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청년 수요 파악과 청년주체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활동공간 조성 과제 도출해야 하며,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년 기획자나 지역앵커기업, 공간운영주체 등 청년활동공간의 핵심주체가 사업추진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청년지원센터 등에서는 사업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데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 1) 청년의 지역정착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또는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청년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또는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청년의 이주 및 정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정주인구 확득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흐름으로서 관계인구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6)</sup> 청년이 지역에 이주·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커뮤니티 형성,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표 6-5]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요
기본계획	-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수립 및 시행	-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 청년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기획·평가 - 청년 이주 및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주 및 정착 실태조사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주 및 정착 실태 조사
청년 정착분야 발굴	- 청년창업형 :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 마을공동체 :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 문화창작형 :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 청년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 청년마을 조성사업,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 청년의 지역 체험 및 거주·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관계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청년 자립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24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경상북도조례 제4445호)  
참고로 연구진 재작성

16)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인구증가를 전제로 이주정책에 몰두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 확득을 위한 경쟁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보다는 장벽이 낮으나 교류나 관광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흐름으로서 관계인구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다나카 데루미, 2021, pp.40-41, p.173 참고).

## □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방이주 로드맵 작성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sup>17)</sup> 또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제도적 동향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도로 인구활력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비전<sup>18)</sup>을 담은 계획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이주 및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지방이주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목표로 하는 인구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세대의 문화로 청년층의 지역살이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나타나는 지방이주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성장,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정책별 타깃팅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귀농·귀촌 지원정책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의 단계별 지원방향<sup>19)</sup>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중소도시로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이주 로드맵<sup>20)</sup>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로드맵은 지자체 인구비전과 함께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분야별 지원정책을 정리해야 한다. 지원정책에는 청년의 지방이주 전 단계를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과 지역기반 비즈니스 창출 및 지역 일자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 확보방안을 포함하고, 창업지원, 지역살이 기회 제공 등의 단편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비즈니스와 일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에서부터 소규모 일거리, 일 경험 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1)</sup>

17) 인구감소지역에서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21c, 10월 18일 보도자료).

18) 현재 지자체별 장래인구와 관련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지역의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과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따르면서 계획인구를 과다 추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인구증감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김명한, 2020, p.24 참고).

19)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귀농·귀촌 단계(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에 따라 정보제공·귀농 교육, 농지·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a, 6월 25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p.1).

20) 일례로 안양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기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적합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주요계층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인구유입, 인구유지, 인구구조 변화와 융합,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적 인구변화 선제대응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안양시, 2021).

## 2)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 ① 정책지원 방안

#### □ 도시재생뉴딜의 인구감소 대응형 지역 특화 재생사업 유형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1.6.)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2022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으로 인구감소 위기의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22)</sup> 지방소멸문제는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 관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일자리나 산업 위주의 지원방안들이 대다수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물리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기반시설 공급,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모델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6] 인구감소 대응형 지역 특화 재생사업의 인정요건 및 가점 적용기준(안)

구분	개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인구흐름 제고를 위한 이주지원 및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조성, 빈집 정비 등 추진</li><li>- 지방이주 및 정착 지원, 활동인구 증가를 위해 유류·공공공간을 활용한 거점공간 조성</li><li>- 지방이주 수요 대응 공공임대주택 조성</li><li>- 지역여건 및 인구특성에 맞는 행정지원체계 마련</li></ul>
인정요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자체
가점평가 기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처연계사업의 적정성(2점)</li><li>- 지자체 인구비전 및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부합성, 연계 시너지 효과</li><li>• 인구감소 대응 특화요소의 적정성(3점)</li><li>- 인구유입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일자리, 커뮤니티 등) 구축과 공간(인프라)의 연계 방향 적정성</li><li>- 지방이주 및 정착지원 관련 거점공간 조성 계획(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등)</li><li>- 대상지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여부 및 예산투입계획 여부</li></ul>

출처 : 연구진 작성

21) 일례로 충남 서천에서는 지역자원인 한산 소곡주를 활용하여 메뉴 개발, 브랜딩, 온라인 판매경로 확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지역과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발굴·추진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이주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경북 울릉에서는 울릉살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 상당수가 큰 수입을 얻기 위한 일자리보다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일거리를 선호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사인 (주)로모는 다양한 경북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함께 울릉군과 협조하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등 행정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김정혁 자이엔트 대표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 2021.5.17.), 박주로 (주)로모 대표 자문회의 내용(자문회의 일자 : 2021.2.3.) 참고).

22)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 추진과 함께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할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21c, 10월 18일 보도자료)

## ② 제도개선 방안

### □ 임시주거 조성을 위한 특례조치 마련

탐색 및 이주초기단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인 임시주거는 숙박시설 형태로 조성하여 공간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르면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운영은 불가한 상황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중소도시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민박업 내국인 이용 관련하여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시행되었으나 서울지역 및 특정 플랫폼 등록 호스트로 한정되어 있다.<sup>23)</sup>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운영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주)다자요가 3년간 5개 시군구의 50채 이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게 되었으나 제도화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증특례 사례(2020.9.23.)

- 대상 : (주)다자요
- 실증특례 부여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므로 2개시 모두 가능
-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실증 추진
- 기대 효과
-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로 ①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고, ②농어촌 지역 사회적 문제인 빈집방지 문제 해소 및 ③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 기여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9월 23일 보도자료)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산의위원회'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을 통한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를 협약(2019.11.27.), 위홈에 호스트로 등록할 경우 연간 180일간 내국인 숙박 가능하며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1월 27일 보도자료, 위홈공유숙박업, <http://stay.wehome.me/ko/legalstay/>, 검색일 : 2021.12.12.)

청년의 지역 탐색 기회 제공, 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한 임시주거 조성 방안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특례조치 대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간적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에서 도시재생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 지역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인정사업을 활용하여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조건과 범위 등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영주체의 범위를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숙박시설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여 특례조치를 부여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sup>24)</sup>

[표 6-7]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도시민박업 대상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li> <li>- 도시지역 대상(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li> <li>-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숙식 등 제공</li> <li>-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 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 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 범위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역으로 확대하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인정사업계획 내 도시민박업 관련 내용을 작성하도록 함</li> <li>- 마을기업 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운영주체 범위에 포함</li> </ul>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4호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에 대해서는 (주)다자요의 실증특례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한 지역살이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실증특례 및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멸위험지역 중 약 70%<sup>25)</sup>가 군 단위 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의

24)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인 마을기업의 등록 및 운영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내용을 담도록 하였으며, 민박업 운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의 구성원 형태나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1.12.). 인구감소지역의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내국인 대상 민박업 등의 특례를 검토할 경우, 본 지침 상에 범위, 조건, 관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5) 2019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이건주, 2020, 12월 14일 기사)

임시주거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청년활동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청년활동공간의 운영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활동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공간’ 또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해당 공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공간 사용료 요율, 입주 대상자, 민간위탁 등)을 별도 조항으로 작성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개정과 함께 지자체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에 조례에서 정의한 청년활동공간 해당 시설을 목록화하고, 공간별 도입기능과 역할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청년활동공간 조성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설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리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발전과 청년인력 개발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95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70호)

### 3) 지속가능한 청년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

#### □ 도시재생뉴딜 사업추진주체 및 청년인력 육성 관련 제도 활용방안 제시

- 지역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회사 인정제도 활용방안 제시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사업 구상 및 추진, 마을 내 필요한 공간 기획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주체로서 지역앵커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회사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회사 인정제도는 도시재생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주체를 발굴하여 공적 역할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대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지역주체 간 협력체계 및 공동체 형성 등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후속사업 발굴과 전략 구상,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6-8] 지방이주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도시재생회사 수행 사업 예시

구분	사업내용
청년주체 발굴 및 마을생태계 구축사업	- 청년주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방문청년의 교류, 상생할 수 있는 마을재생 사업 추진 -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회실험 또는 리빙랩 운영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 빈집,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공간계획 수립 및 공간조성(DIY 워크숍 등) -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마련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주택 조성사업	-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지역살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이주청년 거주공간 제공을 위한 사회주택 조성사업 추진

출처 : 연구진 작성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개편방안 제시

도시재생뉴딜의 청년인턴십(일경험 수련생)은 광역이나 기초,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분야의 인재 양성과 지방중소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지로 진행 중인 제도로서 수련기관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시재생회사로 인정을 받은 기업도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회사의 인력 지원과 함께 청년인턴십의 직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턴십 종료 이후 다방면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 □ 청년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및 수익 모델 창출

지역의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인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

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사업’,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등은 개별 플레이어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지원방식으로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창업 지원과 달리 지역기반의 지원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인재 발굴 및 지원은 주변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스타 플레이어가 부각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팀 빌딩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정책지원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2021년부터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협업지원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개별 플레이어의 성장지원과 함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도시재생 모태펀드 및 지자체 임팩트 투자펀드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체 성장 지원

도시재생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2020년 6월 제1호를 시작으로 9월에 2호, 2021년 5월에 3호까지 출범하였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이나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 활력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청년기업들을 발굴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주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출범 이후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시가지형 사업 대상지 위주의 투자 실적만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의 투자조건이나 투자기간, 지방참여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보전하여 지방중소도시로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출자총액을 상향 제안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과 연계한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청년창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거나 로컬벤처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임팩트투자 펀드 결성 시 지자체 매칭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의 리스크를 저감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sup>26)</sup>

---

26) 하승현 주택도시보증공사 과장 자문회의 내용 참고(자문회의 일자 : 2021.12.15.).

---

# 제7장 결론

- 
- 1. 연구 성과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 

## 1. 연구 성과

본 연구는 인구감소 위기의 지방중소도시로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의 지방이주나 정주지속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단편적인 지원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하였다.

그간의 청년지원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으며, 인구 유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관점에 집중이 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의 지방이주는 거주지를 옮겨가 정착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에서 주거나 일자리, 관계망을 갖추어 나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특성, 청년세대의 문화, 이주지역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부족한 인적 자원 문제 해결과 지역의 활력 창출을 위한 활동주체 마련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이주 가능성이 높은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주 지속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 및 활동기반으로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이주 단계 구분과 청년활동공간의 개념 정립

2장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방이주의 단계를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정주지속 개념을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이나 지역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으로 이주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청년활동공간은 지역으로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이주 및 정착, 정주지속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기반의 하나로서, 도입기능과 활동에 따라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과 로컬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잠재된 청년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탐색단계로의 공공지원을 통한 관계인구 창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다양한 개념 정립 및 이론 고찰은 향후 관련 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 지방이주 지원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시사점 도출

3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정책, 일본의 지방이주 정책 및 민간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청년세대의 특징과 현행 지원정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이나 민간주체의 창의적 플랫폼과 서비스 활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경제활동기반 이외 안정적 정주환경이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부동산 정보 구득 및 공간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범주 확대, 단발성 지원에서 나이간 연속·후속지원 체계 마련, 민간 활력의 적극적 활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청년의 정주지속 요인 및 지방이주 단계별 수요 파악, 청년활동공간 관련 쟁점 도출

4장에서는 이주청년, 이탈청년, 관계인구 청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행정, 중간지원조직, 관련 사업 운영사 등 다양한 지역주체 대상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방이주 및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방이주 단계별 지원정책 및 공간 수요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례 4개소를 심층분석하여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청년활동공간은 지방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역할에 따라 필수, 촉매, 매개역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단계별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밖에 도보권 내 마을단위 청년활동공간 조성 필요성, 관계안내인 또는 중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주체 발굴 필요성, 민간주체 운영공간의 지역사회 영향력 등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화방안 도출

5장에서는 지방중소도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공주시 중학동 일대를 대상으로 대안 검토를 실시하였다. 대안 검토 과정은 청년인구 및 지방이주 동향 분석, 청년활동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청년수요 파악 등을 실시한 후, 지역 내 유휴·공공공간 활용방안, 공간 조성방식 등에 대한 지역주체 의견수렴을 위해 공간 워크숍과 리빙랩 운영 등 현장기반 실증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동 일대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를 대상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과 사업추진절차를 제시하고, 공공 및 민간소유 유휴공간 각 1개소를 대상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6장에서는 분석 및 대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전략으로는 지방이주 전 단계를 지원하는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구축과 탐색-이주-정착단계별 거주공간 지원 차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년 수요 대응형 단계적 공간 조성전략으로는 청년활동공간의 도입기능 복합화 및 시간대별 운영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한 기존 공간의 우선 활용방안과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신규 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간적 범위에 따른 청년활동공간 조성전략으로는 마을단위 생활권 범위 내 공간 조성과 마을-기초-광역지자체 단위로 필요한 지원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청년활동공간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공간별 조성시기를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공간의 운영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와 운영관리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첫째, 청년의 지역정착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지자체 조례 마련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이주 로드맵’ 작성 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실행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 유형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의 관계인구 대상 임시주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청년활동공간의 운영·관리의 유연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청년 활동기반을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회사 인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개편 방안, 청년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및 수익모델 창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는 청년의 지방이주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이주 단계별 청년 수요, 청년활동공간의 기능 및 유형, 공간 조성 형태 등을 검토하여 지방중소도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과 사업추진절차를 제시하였다.

다만, 인구수나 도농복합시, 군지역 등 지자체 규모나 특성에 따라 청년들의 이주목적, 생활패턴, 지역 내 필요공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UIJ턴의 이주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방식이나 일자리 창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밖에 지역 내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유무나 유휴·공공공간 등 물적자원의 현황에 따라서도 청년활동공간 조성 세부전략은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 유형별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이때, 가이드라인 내 관련 부처 사업간 연계 방안, 재원 조달 방안, 예산 집행기준 등의 내용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2022년부터 인구활력 증진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밖에 부처별 사업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년유입은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 콘텐츠로서 인구감소지역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와 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2. 국토교통부.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청년 창업의 디딤돌을 놓다. 12월 9일 보도자료.
- 고가온, 김희수, 정석. (2019).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 학회지*, 20(6), 103-118.
- 고가온. (2020).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용노동부.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 공주시 청년정책팀. (2021). 공주시 청년정책 현황자료. 공주시 청년정책팀 내부자료.
- 공주시. (2016).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균현재생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 공주시. (2018).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 공주시. (2019). 공주시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중심시가지형).
- 공주시. (2020). 2020년 업무계획 보고서.
- 공주시. (2021). 2021년 업무계획 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11월 27일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9월 23일 보도자료.
- 곽승희. (2019). 청년공간이 신기하지 않기를. 한겨레. 10월 13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3004.html> (검색일 : 2021.12.10.)
- 관계부처 합동. (2018).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1.7).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 국토교통부. (2019). 「2019 청년혁신스타 육성대회」 “도시재생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87호.

- 국토교통부. (2021).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 4월 2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1).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8월 2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1). 청년+예술창업·신혼+공동육아·장애인+자립지원, 민관협력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품격을 높인다. 9월 8일 보도자료.
- 권소담. (2021). 여인숙 골목이 '소호거리'로… 남매의 선택이 동네를 바꿨다. 강원도민일보. 2월 4일 기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9321> (검색일 : 2021.2.14.)
- 김경근, 이현우. (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총  
남본부.
- 김명한. (2020).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 김미향. (2021). 일본 '관계인구' 정책에서 실마리 찾을까. 한겨레. 8월 28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09496.html?openLinerExtension=true](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09496.html?openLinerExtension=true) (검색일 : 2021.9.27.)
- 김수연. (2018). 청년 10명 중 1명만 "청년센터 이용해봤다". 동아일보. 7월 17일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717/91086270/1> (검색일 : 2021.6. 6.)
- 김정섭, 신소희, 구본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청년허브.
- 김주영. (2021). 청년, 지역에서 길을 찾다(전북 완주의 사례). AURI 지역재생연구단 온라인 세미나  
자료.(2021.1.22.)
- 김주진, 신병흔, 최원철, 이해진. (2021).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  
부.
- 김지훈. (2020). 청년의 도서지역 정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울릉도를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  
구, 32(6). 1499-1512.
- 농림축산식품부. (201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안)(2017~2021).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1a). '20년 귀농·귀촌 인구 49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6월 25일 보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b). 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
- 다나카 데루미. (2021). 인구의 진화: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관계인구 만들기. 윤정구·조희정 옮김.  
서울 : 더가능연구소.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류재광. (2017). 경계의 확장을 통한 청년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모종린, 박민아, 강예나. (2019). 로컬 크리에이터= The Local Creator : 지역경제의 미래. 춘천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모종린. (2021a). 로컬의 시대, NABIS 뉴스레터 2021-01호.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 모종린. (2021b). "온라인에 질렸다" 우리 동네 가게가 '로컬화'로 진화한다. 조선일보. 1월 15일

기사.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1/15/DAWMFE25UJHC7FNMXJKHBGACM](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1/15/DAWMFE25UJHC7FNMXJKHBGACM) (검색일 : 2021.2.14.)

목포시. (2021). 목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1.1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박민영. (2018). 스펙, 취업 걱정은 NO 청년공간서 마음껏 모험해봐. 조선일보, 11월 28일 기사.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7764> (검색일 : 2021.12.10.)

박상우, 이상규, 윤영준, 이상철. (2019).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진경. (2021).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진술서.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진경, 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백은미. (2015). 공주 골목길 재생협의회 운영성과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소도시연구회 1차 워크숍 발제자료.

비로컬. (2020). 로컬의 시대, 크리에이티브함으로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 <http://belocal.kr/View.aspx?No=774619> (검색일 : 2021.6.2.)

삼선재단, 녹색사회연구소, 모심파실립연구소, 문화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삼선재단.

서수복.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주요인과 주택정책의 함의. 국토계획, 45(5), pp.93-104.

서울특별시. (2019). 2019 서울시 청년공간 운영현황 :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021a). 청정지역프로젝트 청년 추가모집 공고문.

서울특별시. (2021b).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60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결과보고서.

서울시 청년허브, (사)문화사회연구소, 협동조합 성북신나. (2015).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_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손지연. (2015). 공주 원도심 골목을 걷다. 행복이 가득한 집. 11월호 기사. [http://happy.designhouse.co.kr/housing/housing\\_view/100/5261](http://happy.designhouse.co.kr/housing/housing_view/100/5261) (검색일: 2021.9.1.)

송미령. (2018).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재생. KREI 논단. [http://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2793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1&integrDeptCode="](http://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2793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1&integrDeptCode=) (검색일 : 2021.2.14.)

시오미 나오키. (2016). 반농반X의 삶 :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다. 노경아역. 서울 : 더숲.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2021). 2021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전북 완주 고산).

안양시. (2021). 안양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6월 11일 보도자료.

- 엄창옥, 노광우, 박상우, 히구치 요시오, 오오타 소우이치, 이영준. (2018). 청년의 귀환. 서울: 박영사.
- 오재환, 임호. (2014). 2014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오키베 토모히코. (2017). 기본기를 갖춘 공간의 생명력. 청년공간주제강연2. 서울시 청년허브. 70.
- 우성희, 송하진.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유정규. (2021). 의성군의 지역재생전략과 청년유치·지원정책. AURI 지역재생연구단 온라인 세미나 자료.(2021.5.24.)
- 유지황. (2021). 판타지 촌라이프를 위한 기반 실험 '팜프라'. AURI 지역재생연구단 온라인 세미나 자료.(2021.1.22.)
- 윤주선, 박성남. (201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 이건주. (2020). 군 단위 소멸위험 지역, 특례군 지정 시급. 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이건용. (2020). 이창선 공주시의원 “세종-공주 통합 한목소리 내야”. 금강일보. 9월 1일 기사.
- 이기태. (2021). 청년마을이라니? 수상한 청년마을이 뜬다. 나비스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dis12&logNo=222388469493&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검색일: 2021.12.13.)
-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핑.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핑. 한국고용정보원.
- 이용원, 박주로, 임병훈. (201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프로젝트 노아.
- 이진백. (2021). ‘청년에 기회를, 지역에 활력을’ 지방소멸 해법, 청년이 찾는다. 사회적경제미디어. 9월 15일 기사.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018> (검색일: 2021.12.13.)
- 임경수. (2021). 마을, 공동체, 지역혁신 그 너머 로컬리티. AURI 지역재생연구단 온라인 세미나 자료.(2021.1.22.)
- 임준홍, 이관률, 이충훈. (2017). 인구감소에 대응한 공주시의 기본방향. 현안과제연구 이슈리포트. 충남연구원.
- 자이엔트. (2021).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삶앎짧. 자이엔트 내부자료.
- 장대철, 하정은, 이수희, 박인정, 정승태, 오범택, 김동욱. (2020). 청년중심 도시재생 국제협력 방안 연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장명석. (2021). 도시청년들의 공동체마을 청춘구 행복동. AURI 지역재생연구단 온라인 세미나 자료.(2021.5.24.)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2020). 수도권 청년의 삶의 질 기준은 주거와 교통·생활편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권 청년인식 조사결과 -. 2월 28일 보도자료.

전라남도. (2020). 전남도, '전남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추진. 2월 28일 보도자료.

전성제, 강미나, 박정은. (2016).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전정환. (2019). 밀레니얼의 반격. 서울 : 도서출판 길벗.

전진. (2016). 빛 바랜 길 위에 새겨진 보통의 삶. 땅과 사람들, 151, 10-19.

정재우. (2020). 문경시, '2020년 달빛탐사대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11월 30일 기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130010007081> (검색일: 2021.12.13.)

조성철, 강호제, 박정은, 김다윗, 탁혜영. (2019).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조영임. (2017).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사회적 교류 영향구조 연구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주용완.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MZ세대 분석 및 제언. 2021 KISA REPORT. (1). 64~70.

(주)퍼즐랩. (2021). 2021 공주시 중학동「제민천 마을」 혁신창업 현황. (주)퍼즐랩 내부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94호.

중소벤처기업부. (2021a).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5호.

중소벤처기업부. (2021b).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97호.

중소벤처기업부. (2021c).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 6월 7일 보도자료.

지역문화연대 있다. (2020). 청년창업지원사업 선정계획.

차미숙. (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 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24). 국토이슈리포트, 22. 국토연구원.

차미숙. (2021).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검토의견,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채진기. (2019). 시흥시 청년공간 지원정책이 이용자의 지역정착의사와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지연. (2018). 지역 기반 청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원 청년문화 생산자를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통계청. (2020).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1월 29일 보도자료.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월 24일 보도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3월 고용동향. 4월 14일 보도자료.

하지혜. (2020).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만의 주거모델·일자리 창출 필요. 농민신문. 11월 16일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9113/view?site\\_preference=normal](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9113/view?site_preference=normal) (검색일 : 2021.2.14.).

- 한국고용정보원. (2019). 청년 지역정착, 함께 논의해요. 12월 3일 보도자료.
-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금융팀. (2021.7.). 최근 강원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
- 한승우, 이종필. (2019). 부산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 해양수산부. (2021). 2021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
- 행정안전부. (2019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 행정안전부. (2019b).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 8월 20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1a). 2021년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 행정안전부. (2021b).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 12곳에 조성된다. 4월 18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1c).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10월 18일 보도자료.
- 화성시. (2021). 화성시 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21-2928호.
- 호영성, 김금희, 최규성, 박진수. (2017). 2039 행복의 조건 : 밀레니얼 세대가 말하는 진짜의 YOL O, 2018 밀레니얼 세대 행복 가치관 탐구 보고서. 대학내일 20대연구소.
- 一般社団法人中国経済連合会. (2020). 関係人口の創出・拡大による地方創生の推進に関する調査研究. 1-85.
- 嵩和雄. (2017). 地方移住の現代的意義：移住相談から見る田園回帰. NPO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 川北泰信. (2016). 地方創生における自治体の現状と政策実施. 同志社政策科学研究. 27-43.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9年推計).
- 国土審議会 計画推進部会 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 (2018). 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 3ヵ年とりまとめ.
- 国土交通省. (2021). 空き家等の活用をと通じた二地域居住の推進.
- 国土交通省 國土政策局 地方振興課. (2021). 二地域居住等関連施策のご紹介.
- 田口太郎. (2018). 「地域おこし協力隊」の成果と課題、今後の方向性. 森林環境. 158-167.
- 田村篤史. (2021). 日本の地方創生, 京都移住計画の事例. AURI 세미나 발제자료.
- 地域おこし協力隊Handbook. 総務省.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915.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915.pdf) (검색일 : 2021.6.6.)
- 正岡利朗. (2018). 地域おこし協力隊の現状と課題. 研究紀要. 69. 1-11.
- 総務省. (2020). 令和2年度 関係人口創出・拡大事業.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88603.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88603.pdf) (검색일 : 2021.6.7.)
- 総務省. (2021).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案 概要.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53093.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53093.pdf) (검색일 : 2021.6.7.)
- 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 (2020). 令和2年度地域力創造グループ施策について.

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 (2021). 令和3年度地域力創造グループ施策について.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8). 第2期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9). 地方創生の現状と今後の展開.

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 (2021). 最終とりまとめ：関係人口の拡大・深化と地域づくり.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조례 제7017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경상북도조례 제4445호.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18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74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조례 제136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4호.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564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597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329호.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2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조례 제 34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43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695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046호.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2600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68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전라북도 완주군 조례 제 2784호.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805호.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532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14호.

정선군 청년활동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16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21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71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128호.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54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70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8호.

地域おこし協力隊推進要綱. 総行応第77号.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法, 令和三年法律第十九号.

2020년 로걸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 모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883&rnum=881&kind=undefined&sPtime=undefined](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883&rnum=881&kind=undefined&sPtime=undefined) (검색일 : 2021.6.5.)

2021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청.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325> (검색일 : 2021.6.12.)

경동시장 청년몰, BLANK 브런치. <https://brunch.co.kr/@blankin/35> (검색일 : 2021.6.5.)

고구마쌀롱, 소호259. <http://soho259.co.kr/program/> (검색일 : 2021.6.5.)

고산다음 추진현황, 협동조합 이장. <https://e-jang.net/37?category=922673> (검색일 : 2021.5.31.)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www.gongju.go.kr/urc.do> (검색일: 2021.9.5.)

광진오랑, 서울청년센터 오랑. <https://youth.seoul.go.kr/site/orang/center/CT00010/intro> (검색일 : 2021.6.5.)

괜찮아마을. <https://dontworryvillage.com/space> (검색일 : 2021.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개정이유(법률 제17597호, 2020.1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InfoP.do?lSeq=223527&ancYd=20201208&ancNo=17597&efYd=2021060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 2021.9.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1.2.14.)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 2021.2.10.)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http://www.2030fair.com/> (검색일: 2021.2.15.)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검색일 : 2021.9.8.)

- 김제청년공간 E:DA. [http://ieda.or.kr/bbs/content.php?co\\_id=introduction](http://ieda.or.kr/bbs/content.php?co_id=introduction) (검색일 : 2021.6.5.)
- 마을스테이 제민천. <https://town-stay.com/> (검색일 : 2021.6.5.)
- 마을을 살리는 여행, BTLM 여행자 플랫폼, 와디즈펀딩.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0655> (검색일 : 2021.6.5.)
- 무중력지대 소개,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weightless\\_intro](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weightless_intro) (검색일 : 2021.6.5.)
- 무중력지대 양천. <https://youth.seoul.go.kr/site/youthzone/center/CT00008/intro> (검색일 : 2021.6.5.)
- 무중력지대 대방동. <https://youth.seoul.go.kr/site/youthzone/center/CT00009/intro> (검색일 : 2021.6.5.)
- 목포 청년·일자리통합센터. <http://www.mokpo.go.kr/youthcenter/> (검색일: 2021.9.10.)
- 발산마을 청춘빌리지 1호 청년입주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wangjuseogu&logNo=221337782761&referrerCode=0&searchKeyword=%EC%B2%AD%EC%B6%98%EB%B0%9C%EC%82%B0%EB%A7%88%EC%9D%84> (검색일 : 2021.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83033/fileData.do> (검색일: 2021.9.24.)
- 뽕뽕브릿지. <https://spaceeppong.wixsite.com/spaceeppong/about/> (검색일 : 2021.6.5.)
-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https://hansan.slowtech.ac/introduce/> (검색일: 2021.9.30.)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https://www.seogwipo.go.kr/group/selfgoverning/town/farming/plan.htm> (검색일 : 2021.12.12.)
- 서울특별시청.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3713> (검색일 : 2021.6.12.)
- 서울특별시청.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286> (검색일 : 2021.6.12.)
- 서울특별시청.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339> (검색일 : 2021.6.12.)
- 서울하우징랩. <https://www.seoulhousinglab.com/html/intro01.do> (검색일 : 2021.6.5.)
-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http://ssrf.or.kr/kr/html/sub03/030101.html> (검색일: 2021.9.9.)
- 성남아트센터. [https://www.snart.or.kr/web/cms/?MENUMST\\_ID=22044&cmsDataMapPageViewCnt=0&cmsDataMapDownloadCnt=0](https://www.snart.or.kr/web/cms/?MENUMST_ID=22044&cmsDataMapPageViewCnt=0&cmsDataMapDownloadCnt=0) (검색일 : 2021.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https://sg.sbiz.or.kr/godo/index.sg> (검색일 : 2021.12.3.)
- 쉐어어스. [https://share-us.kr/index#SHARE\\_US](https://share-us.kr/index#SHARE_US) (검색일 : 2021.6.5.)
-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 (검색일: 2021.9.14.)
-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망인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w\\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w_cd=MT_ZTITLE&list_id=A_7&seqNo=&lang)

\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1.6.5.)

양주시 청년센터. <https://www.yangju.go.kr/youth/contents.do?key=3182> (검색일: 2021.6.5.)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 (검색일: 2021.2.15.)

영광군 관광을 e롭게 청년창업아지트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loryyyg30days> (검색일: 2021.12.10.)

영광군청년센터 청춘공방. <http://ygyoungman.or.kr/page/intro/greet?type=visit> (검색일: 2021.6.5.)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2021.2.15.)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https://www.wanjuro.org/post/1351?findex=&category\\_id=&field=post\\_both&skeyword=%EC%B2%AD%EB%85%84](https://www.wanjuro.org/post/1351?findex=&category_id=&field=post_both&skeyword=%EC%B2%AD%EB%85%84) (검색일: 2021.9.9.)

완주문화재단, <https://www.wfac.or.kr/2021/inner.php?sMenu=A1000&mode=view&no=633> (검색일: 2021.11.4.)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 (검색일: 2021.6.5.)

우리가 비빌언더이 되어줄게! 청년이 바꾸고 청년이 만드는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 행정안전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paspr/222507880073> (검색일: 2021.9.30.)

우리곁에 반가운 변화, 행정안전부. <https://happychange.kr/project/%ec%b2%ad%eb%85%84%ec%9d%b4-%ec%82%b4%ea%b8%b0-%ec%a2%8b%ec%9d%80-%eb%a7%88%ec%9d%84-%eb%a7%8c%eb%93%a4%ea%b8%b0/?view=support> (검색일: 2021.12.13.)

위홈공유숙박업. <http://stay.wehome.me/ko/legalstay/> (검색일: 2021.12.12.)

유유지기. [https://www.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about\\_inuu02&me\\_code=70b0](https://www.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about_inuu02&me_code=70b0) (검색일: 2021.6.5.)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http://unsc.or.kr/home/> (검색일: 2021.6.5.)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3159/detailR> (검색일: 2021.12.3.)

(주)다해브러. [http://dahaebro.co.kr/gnu/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57](http://dahaebro.co.kr/gnu/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57) (검색일: 2021.12.10.)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1.8.20.)

전북청년허브센터. <https://www.jb2030.or.kr/> (검색일: 2021.9.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514> (검색일: 2021.6.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m/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검색일: 2021.6.6.)

청년몰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ias.or.kr/web/SUP01/SUP0119/SUP011901.kmdc> (검색일: 2021.6.5.)

- 청년쉐어하우스,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2000000](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2000000) (검색일 : 2021.12.12.)
- 청년스테이션, 시흥시청. <https://www.siheung.go.kr/edu/contents.do?mId=0506000000> (검색일 : 2021.6.5.)
- 청년전세임대, LH.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검색일 : 2021.2.15.)
- 청년정책 통합검색,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검색일: 2021.2.15.)
- 청년취업, 목포시. [https://www.mokpo.go.kr/www/industry\\_economy/youth/employ/](https://www.mokpo.go.kr/www/industry_economy/youth/employ/) (검색일: 2021.9.10.)
- 청년플랫폼 청년마을. <https://gzonestart.modoo.at/?link=4qtlznb5> (검색일 : 2021.6.5.)
-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서천군 복지포털. [http://www.seocheon.go.kr/welfare/sub08\\_03\\_01.do](http://www.seocheon.go.kr/welfare/sub08_03_01.do) (검색일: 2021.9.8.)
- 청년행복주택, 완주살이,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3000000](https://youth.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3003000000) (검색일 : 2021.12.12.)
- 청정지역프로젝트 청년 추가모집 공고문, 청정지역 프로젝트. [http://www.youthstay.org/noti/?m=v&SH\\_NUM=49](http://www.youthstay.org/noti/?m=v&SH_NUM=49) (검색일 : 2021.12.13.)
- 청춘터전, 대전 청춘광장. [https://daejeonyouth.co.kr/bbs/page.php?hid=sub\\_080101](https://daejeonyouth.co.kr/bbs/page.php?hid=sub_080101) (검색일 : 2021.6.5.)
- 춘천 커먼즈필드. <https://www.commonzfield.kr/chuncheon/space> (검색일 : 2021.6.5.)
- 충남 태안 깨이어프로그램 5락발전소 '문화도 예술리' 지원자 공모, 5락발전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ssom\\_land/222356373719](https://blog.naver.com/blossom_land/222356373719) (검색일 : 2021.12.10.)
- 커먼타운. <https://www.commontown.co/ko/house-page/treehouse/> (검색일 : 2021.6.2.)
- 콘텐타 메거진. <https://magazine.contentta.co/2019/08/z%ec%84%b8%eb%8c%80-%ea%b7%b8%eb%93%a4%ec%9d%80-%eb%88%84%ea%b5%ac%ec%9d%bc%ea%b9%8c%ec%9a%94> (검색일 : 2021.11.12.)
- 통영 리스트트플랫폼. <https://www.tyrestart.com/load.asp?subPage=120> (검색일 : 2021.6.5.)
- 파도살롱. <http://thewave.co.kr/space> (검색일 : 2021.6.5.)
- 퍼즐랩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pg/PuzzleLab.co.kr/posts/?ref=page\\_internal](https://ko-kr.facebook.com/pg/PuzzleLab.co.kr/posts/?ref=page_internal) (검색일 : 2021.6.5.)
- 플레이스캠프 제주. <https://www.playcegroup.com/rest/> (검색일 : 2021.6.5.)
-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
- 행정안전부 시도별(시군별)·연령별 귀농가구원,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0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03) (검색일: 2021.9.14.)
- 협동조합 청풍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acminbak> (검색일 : 2021.6.5.)

해외그라운드. <https://heyground.com/#/seongsu/space> (검색일 : 2021.6.2.)

移住した人·したい人が語らう場,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saron/> (검색일 : 2021.1.31.)

関係人口ポータルサイト.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 (검색일 : 2021.1.30.)

関係人口の創出・拡大, まち・ひと・仕事創生本部,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index.html> (검색일 : 2021.12.13.)

企業・行政の方へ,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entrepreneur/> (검색일 : 2021.1.31.)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 (검색일 : 2021.1.31.)

地域力の創造・地方の再生. 総務省.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sei/02gyosei08\\_03000073.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02gyosei08_03000073.html) (검색일 : 2021.6.21.)

地方創生xビジネスー新しいビジネスをつくる学校, TURNS. <https://turns.jp/47588/> (검색일 : 2021.1.31.)

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協議会. <https://www.mlit.go.jp/2chiiki/index.html> (검색일 : 2021.6.6.)

物件所有者様へ, 京都移住計画, [https://kyoto-iju.com/living/for\\_owner/](https://kyoto-iju.com/living/for_owner/) (검색일 : 2021.1.31.)

マチノコト. [http://machinokoto.net/izyukeikaku\\_wakayama](http://machinokoto.net/izyukeikaku_wakayama) (검색일 : 2021.1.31.)

みんなの移住計画. <https://minnano-iju.com/index.html> (검색일 : 2021.1.31.)

用途・圏域等の用語の定義,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totikensangyo/H30kouji05.html> (검색일 : 2021.2.14.)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3) (검색일: 2021.6.5.)

PROJECT, Tunagum, <https://tunagum.com/project/localnight/> (검색일 : 2021.1.31.)

RTBP 얼라이언스, <https://www.rtbpalliance.com/ggti/> (검색일 : 2021.6.5.)

TURNS. <https://turns.jp/> (검색일 : 2021.1.31.)

TURNS 商店, TURNS, <https://shouten.turns.jp/> (검색일 : 2021.1.31.)

TURNSについて, TURNS. <https://turns.jp/about/> (검색일 : 2021.1.31.)

---

# Making Youth Space and Supporting Sustainable Settlement for Young People Who Migrated to Local Cities

SUMMARY

Jang, Minyoung  
Im, Boyeong  
Song, Yunjeong  
Yoon, Zoosun

---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of the limitation of the supportiv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attract young people to small and medium-sized local cities with the risk of population decrease, wherein the fragmentary supports are not connected with the migration or sustainable settlement of young people.

The youth support policies so far focused on job creation to find solutions to the population outflow. However, the local migration of young people is a process of moving and settling, and it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the changes of the lifestyle for finding residence, job and human network, the culture of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migration conditions of the local area. In addition, since Korea's total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the population in the Greater Seoul Area is more than the population outside the Greater Seoul Area, the competitive population attraction policies among the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be avoided. Rather, the youth policies should be promoted with the goals of resolving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preparing the actors for revitalizing local area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positiv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the policies for securing relational population that are likely to migrate to local area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forming youth spaces as the life and activity bases of local communities that can induce the youth migration to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eir sustainable settlement in the area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directions of policy support and system improvement to realize the goals. The key poi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below.

#### Division of Local Migration Stages and Definition of Youth Space

Chapter 2 of this study reviews the theories and divides the process of local migration into four stages of ‘Search–Migration–Settlement–Sustainable Settlement.’ The sustainable settlement was defined as the continuous residence in the local area by the youth who have migrated to the area and play the role in the local economy as members of local community. The youth space is one of the local community life bases for the migration, settlement and sustainable settlement,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youth population inflow. The youth spaces are classified into residential spaces, work and start-up spaces, community spaces, and supporting spac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demand of the youths who are interested in local migration and who have the desire for enjoying local culture, and it showed the relational population may be created through the public supports to the search stage.

#### Policy Tasks and Implications for Supporting Local Migration and Making Youth Space

Chapter 3 reviews the relevant policies of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policies and cases of civil activities in Japan. The analytical results highlight that the local settlement of youth requires policies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 not only the basis for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stable settlement environment, the formation of community network,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formation, and the securing of spac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tical results included the extension of the policy scope for securing relational population, the preparation of continuous and follow-up systems beyond one-time support, and the active utilization of civilian vitality.

#### Factors to Sustainable Settlement of Youth, Demand of Local Migration in Each Stage, and Issues Related to Youth Space

Chapter 4 describes the factors to the local migration and settlement and the supporting policies and spatial demand in each stage of local migration. These were investigated through surveys conducted with the youths who have migrated, those who have left, and

those who are included in the relational population, and through the interviews conducted with various local entities,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the intermediate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an analysis of four cases of youth space was performed to derive the issues regarding the directions of making youth spaces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ccording to the roles played in the process of local migrations, the youth spaces may be classified into necessary, catalytic and mediating spaces. The demand of the youth spaces was different among the Search–Migration–Settlement–Sustainable Settlement stages. The key issues were drawn to make youth spaces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uch as the need for forming village-unit youth spaces within walking spheres, the need for discovering essential local actors who can play the role of relational guide or mediator, and the impact of the youth space by private sector in the local communities.

#### Process and Action Plan for Making Youth Space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hapter 5 reviews an alternative for the formation of youth spaces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 the case of Junghak-dong, Gongju-si. The alternative was reviewed by analyzing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trend of their local migration, the status of the youth spaces and their utilization, and the demand of youth space. In addition, an on-sit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ogether by conducting spatial workshops and operating a ‘living lab’ in order to gather the opinions from the local actors about the utilization of unused or public spaces for making the youth spac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and process for forming youth spaces in the village-unit living sphere throughout Junghak-dong. This study also proposes an action plan for making two youth spaces, one at a public-owned unused space and the other at a private-owned unused space.

####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Making Youth Space in Pursuit of Sustainable Settlement of Youths Who Have Migrated to Local Citie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and the review of the alternative described above, Chapter 6 proposes the basic directions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making youth spaces. As the strategies for supporting the youth spaces and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igration in each stage,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local migration support platform,’ through which support is provided

in all the stages of local migration, and the provision of different residential spaces in the Search–Migration–Settlement stages. This study proposes the utilization of existing spaces first, considering the youth demand. For this, the youth space could be the multi-functional space and operated by the diversification of the operated programs for the individual timeslots. If the formation of new spaces are need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generation of unused spaces. As a strategy for forming the spaces according to the spatial range, this study proposes the formation of spaces within the village–unit life spheres and the formation of supporting spaces according to the needs in the units of village, basic municip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For the youth spaces, a process is required to strategically present the functions needed in each local area and the time for forming the individual spaces, and to prepare a comprehensive plan for operating the spac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planning to make youth spaces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s that can help the municipal governments to prepare specific action plans.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upport policy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egal system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proposed that municipal ordinances should be prepared as an legislative basis for supporting the local settlement of young people and the formation of youth spaces, and that a ‘local migration road map’ should be prepared for the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Second, area-specific types of regeneration projects are proposed fo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gram to implement the projects for making youth space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pla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s to form temporary houses for the relational population in the population-decreasing areas, and the directions of amending the municipal ordinances to secure the flex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youth space operation and management. Third, to prepare sustainable activity bases for young people,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nd utilize the system of urban generation enterprise, to amend the youth internship program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gram, and to support the creation of local business and profit-making models to identify young activity entities and support their growth.

**Keywords :**

Youth Space, Local Migration, Sustainable Settlement, Young People, Relational Population, Urban Regeneration, Unused Space

---

## 부록

1.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청년인구 이동현황
  2. 수도권 및 특광역시 청년계층의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조사
  3.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사업 추진동향
  4. 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방향 관련 의견 수렴 설문지
- 

### 1.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청년인구 이동현황

최근 5년간(2016~2020) 시군구 전출입지별·연령별 이동자 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인구의 이동특성을 분석하였다. 강원권 거주 청년계층의 경우, 거리가 인접한 충북도 내 지방 중소도시로의 청년계층 이동량이 많았고, 아산시, 구미시와 같이 제조업 기반 도시로의 이동량도 높게 나타났다. 충청권 거주 청년계층은 인접 도이자 인구 규모가 35 만명 이상인 원주시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구미시, 여수시 등 고수입 일자리가 있는 산업도시로의 이동량이 많았다.

경상권 거주 청년계층의 경우, 제주도로의 청년계층 이동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으며, 아산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등 산업도시로의 이동량도 높게 집계되었다. 마찬가지로 호남권의 경우에도 제주시로의 청년계층 이동량이 가장 많았고, 아산시, 진주시, 서산시, 당진시 등 산업도시로의 청년계층 이동량이 그 뒤를 따랐다. 제주권 청년계층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목포시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진주시, 구미시, 여수시 등 산업 도시로의 이동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 공통적으로 청년계층은 인접 권역 중에서도 인구 규모가 큰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두드러졌으며,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도시로의 이동 경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에서 향유 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총족하기 위해 제주도로의 이동 경향 역시 목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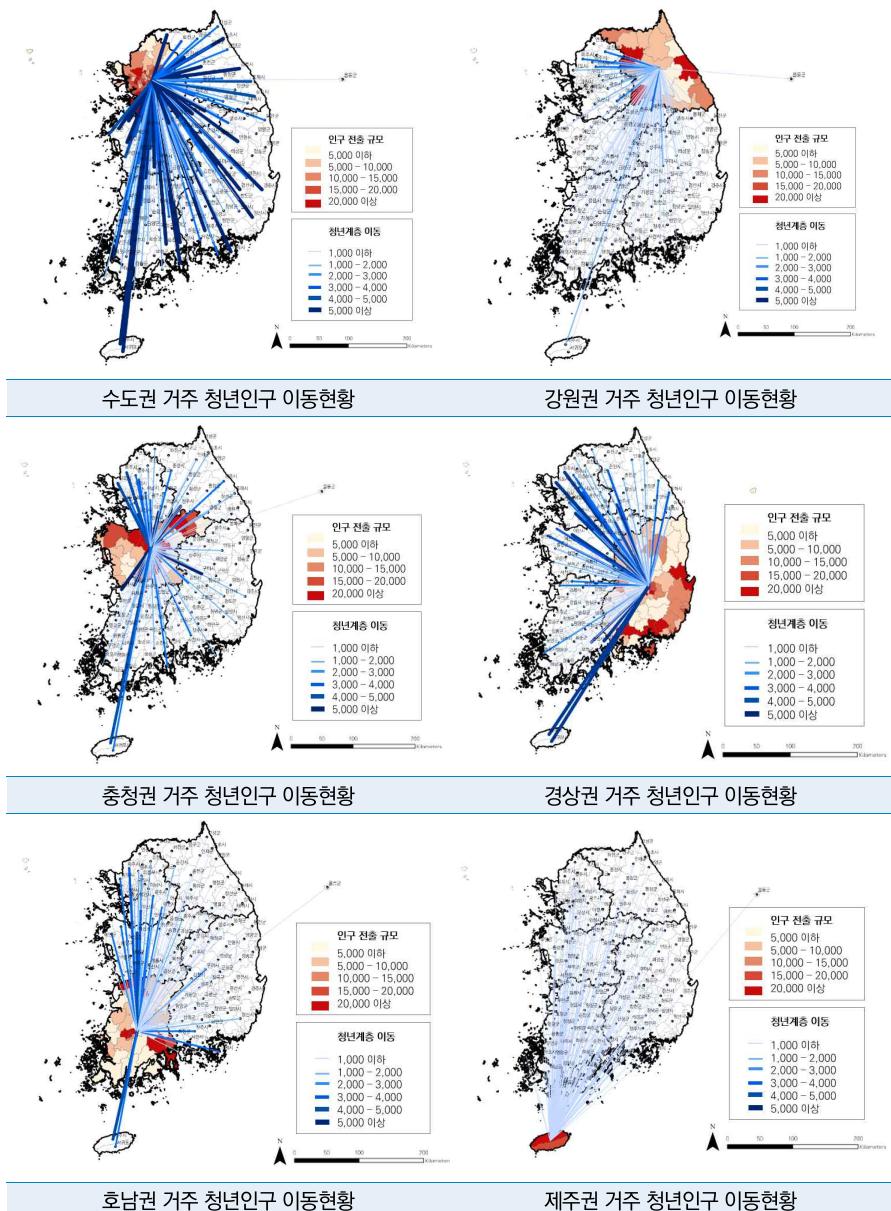
[표 부록-1] 권역별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이동현황(상위 10개 지역)

(단위 : 명)

출발	도착	유소년계층	청년계층	중장년계층	고령계층	합계
강원권	충북 제천시	1,222	2,913	2,676	693	7,504
	충북 충주시	659	1,799	1,381	282	4,121
	제주 제주시	451	1,161	1,046	158	2,816
	충남 아산시	301	1,034	645	143	2,123
	경북 구미시	252	1,029	366	88	1,735
	전남 장성군	311	968	125	21	1,425
	충남 계룡시	979	892	815	59	2,745
	경북 경산시	239	721	310	53	1,323
	충남 논산시	348	664	291	68	1,371
	경북 안동시	267	655	434	108	1,464
충청권	강원 원주시	2,566	6,687	4,566	871	14,690
	전북 군산시	2,114	5,621	4,005	783	12,523
	전북 익산시	1,889	5,120	3,175	877	11,061
	경북 구미시	1,289	5,004	1,912	350	8,555
	제주 제주시	1,786	4,228	3,748	412	10,174
	강원 춘천시	1,078	2,897	1,522	322	5,819
	경남 진주시	1,019	2,450	1,205	216	4,890
	경북 김천시	1,026	2,399	1,644	366	5,435
	전남 여수시	669	2,357	1,480	235	4,741
	제주 서귀포시	957	2,137	2,166	295	5,555
경상권	제주 제주시	4,197	12,319	9,734	1,232	27,482
	충남 아산시	2,008	8,258	3,681	617	14,564
	제주 서귀포시	2,735	6,900	5,974	737	16,346
	전남 광양시	2,126	5,722	4,739	775	13,362
	강원 원주시	1,712	5,489	3,490	743	11,434
	전남 여수시	1,113	4,749	3,250	504	9,616
	전남 순천시	1,233	4,150	2,567	527	8,477
	충북 충주시	1,384	4,147	2,422	542	8,495
	충남 서산시	880	3,381	2,071	317	6,649
	강원 동해시	1,130	3,165	1,687	303	6,285
호남권	제주 제주시	1,866	4,984	4,389	556	11,795
	충남 아산시	1,194	4,395	1,954	425	7,968
	경남 진주시	913	2,525	1,208	209	4,855
	충남 서산시	662	2,459	1,404	230	4,755
	충남 당진시	585	2,335	1,454	239	4,613
	제주 서귀포시	1,005	2,298	2,266	317	5,886
	경남 거제시	701	2,221	1,401	216	4,539
	경북 구미시	481	2,121	668	136	3,406
	충남 논산시	826	2,051	1,463	385	4,725
	강원 원주시	602	1,853	1,149	267	3,871
제주권	전남 목포시	187	478	488	87	1,240
	강원 원주시	185	373	366	35	959
	경남 진주시	167	358	310	34	869
	경북 구미시	93	346	226	28	693
	전남 여수시	76	322	370	43	811
	경남 양산시	119	319	261	48	747
	전북 익산시	117	306	210	36	669
	전남 순천시	139	295	293	33	760
	충남 아산시	134	292	245	51	722
	전북 군산시	142	281	434	64	921

출처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 권역별 거주 청년의 지방중소도시 이동현황



[그림 부록-1] 권역별 거주 청년인구의 이동현황

출처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6.5.)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2. 수도권 및 특·광역시 청년계층의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조사

### □ 응답자 특성

[표 부록-2] 수도권 및 특·광역시 청년계층의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성별	남성	304
	여성	296
연령	19~24세	157
	25~29세	155
	30~34세	134
	35~39세	154
	19~24세 남성	78
성별·연령	25~29세 남성	80
	30~34세 남성	68
	35~39세 남성	78
	19~24세 여성	79
	25~29세 여성	75
현 거주지역	30~34세 여성	66
	35~39세 여성	76
	서울	120
	부산	70
	대구	63
학교	인천	73
	광주	48
	대전	47
	울산	43
	경기	136
직업	학생	108
	취창업 준비중	94
	직장인	334
	자영업	28
	기타	36
결혼 여부	기혼	147
	미혼	453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역 거주 경험

#### • 타 지역 거주 경험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계층 10명 중 7명 (72.5%)은 현 거주지 외 타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본인 필요에 의한 타 지역에 거주한 경험도 2명 중 1명(50.0%)으로 나타남

- 본인 필요에 의한 타 지역 거주 경험자는 남성(55.9%)이 여성(43.9%)에 비해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30대 후반 남성(66.7%)과 30대 후반 여성(53.9%), 현재 울산(74.4%)과 광주(56.3%) 거주자, 자영업 종사자(64.3%), 기혼자(59.2%)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N=600 / 단위 : %,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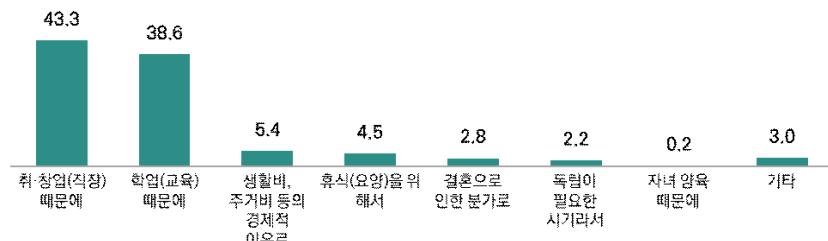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본인 필요에 의해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

-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로 '취·창업(직장)'(43.3%)과 '학업(교육)'"(38.6%)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이유'도 5.4%로 나타남
- 거주했던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울산 등 산업지역은 '취·창업(직장)' 때문에, 서울/부산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은 '학업(교육)', 제주는 '휴식(요양)'을 이유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남

[ N=464(본인 필요에 의해 거주한 지역) / 단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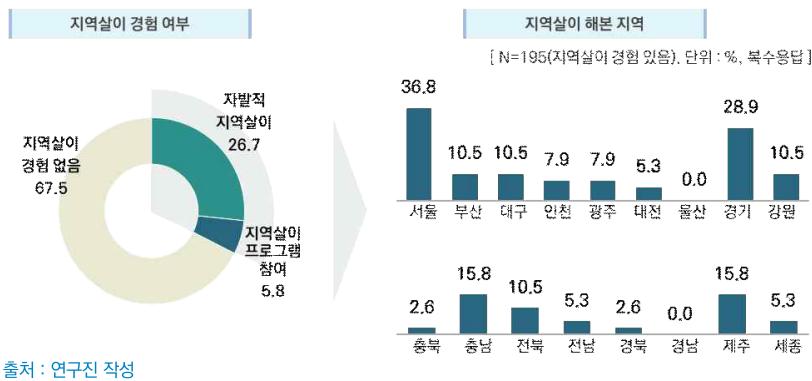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역살이 및 지역살이 프로그램 경험 여부

- 청년계층 10명 중 3명(32.5%)은 자발적으로 지역살이를 해 봤거나,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초반 남성(38.4%), 울산 거주자(37.2%), 취·창업 준비자(36.2%), 타 지역 거주 경험자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지역살이 지역으로 '서울'(36.8%)이 가장 많았고, '경기'(28.9%), '충남', '제

주'(각각 15.8%)는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N=600 / 단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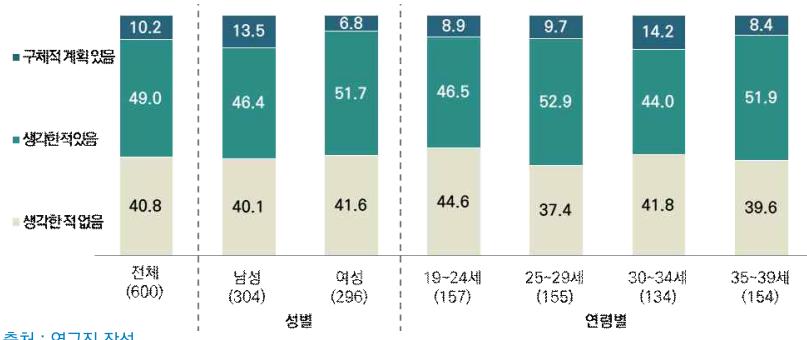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역 이주에 대한 수요

### • 지방중소도시 이주 계획

- 청년계층 10명 중 6명(59.2%)은 지방중소도시 이주를 계획했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남성(13.5%)이 여성(6.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중소도시 이주를 고려해 본 응답자는 20대 후반(62.6%)과 30대 후반(60.4%), 특히, 20대 후반 남성(67.6%)과 30대 후반 여성(64.5%), 서울과 광주, 울산 거주자, 취·창업 준비자(66.0%), 기혼자(63.3%), 타 지역 거주 경험자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N=600 / 단위 :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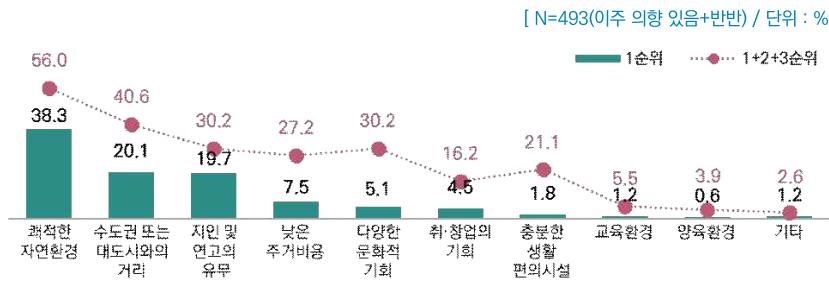
### • 지방중소도시 이주 의향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17.8%)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지원으로 인한 이주 의향은 여성(53.7%)이 남성(38.8%)에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초반 여성(57.0%), 부산(58.6%)과 인천(54.8%) 거주자, 취·창업 준비자(52.1%) 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지방중소도시 이주를 생각해 본 적 있었던 응답자의 64.6%,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응답자의 21.2%가 중앙과 지자체 지원에 이주 의향의 변화를 나타냄



-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
- 이주 희망 지역 선호 이유로 '쾌적한 자연환경'(56.0%, 1+2+3순위 기준)과 '수도권/대도시와의 거리'(40.6%)가 높게 나타났고, '지인 및 연고의 유무', '다양한 문화적 기회'도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 이주지역별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충북/충남은 '수도권/대도시와의 거리', 강원/전남/제주 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주된 선호 이유로 제시, 경북/경남 지역은 '지인 및 연고의 유무'가 주된 이유로 작용
- 한편 제주 지역은 '자연환경'(94.1%)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기회'(59.7%)로, 전남은 '자연환경'(65.6%)과 '낮은 주거비용'(59.4%)으로 선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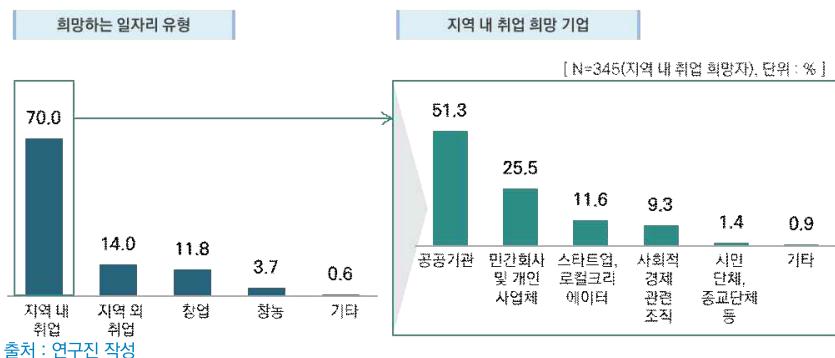


-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일자리는 '지역 내 취업'(70.0%)을 가장 희망하고 있고,

‘지역 외 취업’(14.0%), ‘창업’(11.8%), ‘창농’(3.7%) 등은 그 뒤를 이음

- 지역 내 취업 희망자는 ‘공공기관’(51.3%) 취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25.5%), ‘스타트업, 로컬 크리에이터’(11.6%) 등이 뒤를 이음
- 대체로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가운데, 강원/제주 이주 희망자는 타 지역에 비해 ‘창업/창농’에 대한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 N=493(이주 의향 있음+반반) / 단위 : % ]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기대 월평균 소득

-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기대소득으로 월 ‘2-300만원’(51.7%), ‘3-400만원’(26.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주 의향자 대부분(87.8%)이 200만원 이상 소득을 기대하고 있음
- 희망 일자리 유형에 따른 소득으로 ‘지역 외 취업’과 ‘창업’은 300만원 이상 기대소득(각각 47.8%, 46.5%)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N=493(이주 의향 있음+반반) / 단위 : % ]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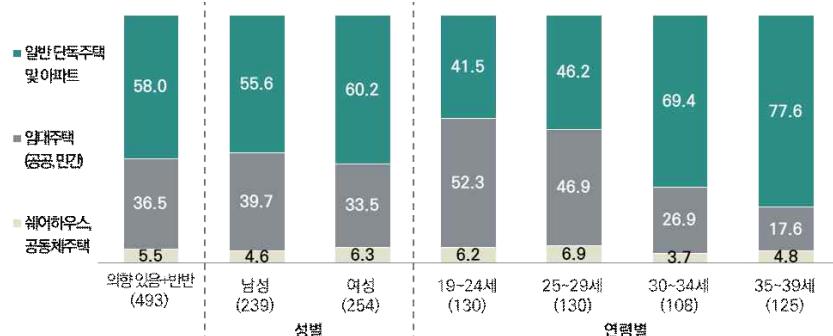
#### •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희망하는 주거 유형

- 지방중소도시 이주 시 주거 유형으로 10명 중 6명 가까이(58.0%)가 ‘일반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고, ‘청년임대주택’은 36.5%, ‘청년 쉐어하

'우스/공동체주택'은 5.5%로 낮게 나타남

- 일반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 희망자는 여성(60.2%),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청년임대주택은 남성(39.7%),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N=493(이주 의향 있음+반반) / 단위 : % ]



출처 : 연구진 작성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청년계층의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계층(만19세~39세)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및 정착 수요를 파악하여 청년계층의 지방이주 및 정주지속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2021년 7월

건축공간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장민영 부연구위원 (044-417-9870), 송윤정 연구원 (044-417-985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어진동, 중앙타운), 7층 건축공간연구원

###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도 선택]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 ⑯ 제주 | ⑰ 세종 |      |      |      |

→ '① 서울 ~ ⑧ 경기' 거주자만 조사 진행

SQ2.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

- |            |                            |            |
|------------|----------------------------|------------|
| ① 만19세~24세 | ② 만25세~29세                 | ③ 만30세~34세 |
| ④ 만35세~39세 | → 2002년 ~ 1982년 출생자만 조사 대상 |            |

## A. 지역 경험

A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SQ1)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SQ1) 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 거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현재 거주지 선택 불가 처리]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 ⑲ 현재 거주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 없다 → A2로

A1-1.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부모/형제 등)과 관계없이, 본인 필요에 의해 거주한 지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A1 지역만 제시]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 ⑲ 나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 없다 → A2로

A1-2. (A1-1) 지역에 거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A1-1 선택 횟수만큼 질문]

- ① 학업(교육) 때문에                          ② 취·창업(직장) 때문에
- ③ 결혼으로 인한 분가로                          ④ 자녀 양육 때문에
- ⑤ 생활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⑥ 귀농·귀촌을 위해서
- ⑦ 휴식(요양)을 위해서                          ⑧ 독립이 필요한 시기라서
- ⑨ 기타(\_\_\_\_\_)

A2. 귀하께서는 “자발적으로 지역살이”를 해 보셨거나, 공공 및 민간에서 진행한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지역살이란?

-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역으로 이주, 체류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을 경험하거나 지역사회와 교류해 보는 것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말함

- ① 자발적으로 지역에 머물러 본 적 있음 → A2-1로
- ②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 있음 → A2-1로
- ③ 지역살이 경험이 없음 → B1로

A2-1.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지역살이를 해 보셨습니까? 살아보신 지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 B. 지역 이주에 대한 수요

B1.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특히 지방중소도시(인구 50만 명 이하)로 이주, 정착하여 살아보고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인구 50만 명 이하)는 다음 도시 이외의 도시들입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천안시
- 전북 전주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김해시, 창원시

①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 있다 → [B1-1로](#)

② 이주를 생각(희망)한 적 있다 → [B1-1로](#)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 [B1-2로](#)

B1-1.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를 계획했거나 생각해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 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대도시의 삶에 비해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서
- ②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찾아보고 싶어서
- ③ 지역 내 농업 기반을 익히고 창농 · 귀농을 위해서
- ④ 자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살고 싶어서
- ⑤ 부모님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 ⑥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 ⑦ 기타(\_\_\_\_\_)

→ 응답 후 C1로

B1-2.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를 생각해 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에 지인 또는 연고가 없어서
- ②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③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 ④ 문화적 기회가 부족해서
- ⑤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 ⑥ 기존 지역민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 ⑦ 특별한 이유가 없다(그냥 지방중소도시 거주는 생각해 본 적 없다)
- ⑧ 기타(\_\_\_\_\_)

### C.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 수요

·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시군에서 창업을 지원하거나 취업을 연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등 청년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예1. 1~2달 살아보기 사업을 통한 지역 탐색기회 제공

(의성군)



출처 : 장명석(2021)

#### 예2. 지역지원 밭굴 및 창업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창업 사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출처 : 2020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 모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883&rnum=881&kind=undefined&sPtime=undefined](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883&rnum=881&kind=undefined&sPtime=undefined) (검색일 : 2021.6.5.)

#### 예3. 지역 내업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 취업 사례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출처 : 2021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청.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325/> (검색일 : 2021.6.12.)

#### 예4. 농업기술 교육 및 지역 내 공동체 정착 지원을 통한 귀농 귀촌 사례 (괴산군)



출처 : 농업회사법인 (주)위하농 이지현 대표 제공자료

C1. 방금 보신 예와 같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방중소도시로 이주하여 살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반반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 C2로		→ C1-1로		

C1-1. 지역살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방중소도시로 이주한다면, 어느 권역(시도) 내에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 |      |      |      |      |      |
|------|------|------|------|------|
| ① 경기 | ② 강원 | ③ 충북 | ④ 충남 | ⑤ 전북 |
| ⑥ 전남 | ⑦ 경북 | ⑧ 경남 | ⑨ 제주 |      |

C1-2. (C1-1) 지역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최대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               |                   |
|---------------|-------------------|
| ① 지인 및 연고의 유무 | ② 낮은 주거비용         |
| ③ 쾌적한 자연환경    | ④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의 거리 |
| ⑤ 취창업의 기회     | ⑥ 교육환경            |
| ⑦ 다양한 문화적 기회  | ⑧ 양육환경            |
| ⑨ 충분한 생활편의시설  | ⑩ 기타(_____)       |

C1-3. 지방중소도시로 이주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희망하십니까?

- |                     |                            |
|---------------------|----------------------------|
| ① 지역 내 취업 → C1-3-1로 | ② 지역 외 취업(디지털 노마드) → C1-4로 |
| ③ 창업 → C1-4로        | ④ 창농 → C1-4로               |
| ⑤ 기타(_____) → C1-4로 |                            |

C1-3-1. 그렇다면, 지역 내 어떤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① 공공기관                                    | ② 민간회사 및 개인사업체 |
| ③ 스타트업, 로컬크리에이터(지역기반 비즈니스)                |                |
| ④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
| ⑤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                |
| ⑥ 기타(_____)                               |                |

C1-4. 지방중소도시에 이주하게 된다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십니까?

- |                         |                         |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 ③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④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 ⑤ 400만 원 이상             |                         |

C1-5. 지방중소도시에 이주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의 주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① 청년임대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 | ② 청년쉐어하우스, 공동체주택 |
| ③ 일반 단독주택 및 아파트      | ④ 기타(_____)      |

C2.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주거 지원
- ② 취·창업 지원(일거리·일자리, 창업·창농 컨설팅 등)
- ③ 지역정보 및 체험 기회 제공(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역자원 정보 공유 등)
- ④ 동료 및 커뮤니티 지원(이주 및 정착 과정을 함께할 동료와의 교류활동)
- ⑤ 지역 내 네트워크 지원(지역주민 및 지역청년 등 지역사회 연결망)
- ⑥ 교통 지원
- ⑦ 기타(\_\_\_\_\_)

C3.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해 지역에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3가지 공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분류	공간	예시
거주 공간	①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②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업무·창업 공간	③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④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⑤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공방
	⑥ 판매공간	판매시설, 판매형 점포
	⑦ 학습공간	스터디룸
커뮤니티 공간	⑧ 교류공간(휴식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⑨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전시실
지원공간	⑩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⑪ 상담공간	상담실
	⑫ 중간지원센터	청년센터, 청년지원센터, 현장센터

C4. 지방중소도시로의 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해 지역에 어떤 주체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

- |                      |                          |
|----------------------|--------------------------|
| ①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자  | ② 지역 이주 및 정착 과정을 함께 할 동료 |
| ③ 먼저 지역에 이주 및 정착한 사람 | ④ 지역 내 기존 청년             |
| ⑤ 지역 주민 및 상인         | ⑥ 전문 상담 및 멘토             |
| ⑦ 기업 컨설팅 및 기술 교육자    | ⑨ 행정 관련부서 공무원            |
| ⑩ 기타(_____)          |                          |

## DQ. 응답자 특성 질문

DQ1. 귀하의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생(휴학 포함) → DQ2로
- ② 취·창업 준비 중 → DQ2로
- ③ 직장인 → DQ1-1로
- ④ 자영업 → DQ1-1로
- ⑤ 기타 → DQ2로

DQ1-1.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② 광업
-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⑤ 수도, 하도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 ⑧ 운수 및 창고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⑩ 정보통신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 ㉑ 국제 및 외국기관

DQ2.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3.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사업 추진동향

#### 1)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 사업

##### □ 기초조사 개요

- ‘온라인 청년센터<sup>1)</sup>’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 관련 부처 별 정책 · 사업 동향과 정책의 유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총 29개의 관련 중앙부처에서 총 183개의 정책을 추진(2021년 5월 13일 기준)
  - ‘생활 · 복지’, ‘정책참여’, ‘주거 · 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따른 경향을 파악 함
  - 정책유형은 보다 세부적으로 '(생활 · 복지)건강, 문화', '(정책참여)정책제안, 권리보호, 지역발전', '(주거금융)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주거지원, 학자금대출', '(창업지원)R&D지원, 경영지원, 자본금지원', '(취업지원)교육훈련 · 체험 · 인턴,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진출'로 구분하고 있음

[표 부록-3] 청년관련 지원 정책 유형 구분

정책 유형	생활 · 복지	정책참여	주거 · 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세부 유형	- 건강	- 정책제안	- 생활비지원	- R&D지원	- 교육훈련 · 체험 · 인턴
	- 문화	- 권리보호	- 및 금융혜택	- 경영지원	-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지역발전	- 주거지원	- 자본금지원	- 전문분야 취업지원
			- 학자금 대출		- 해외진출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기초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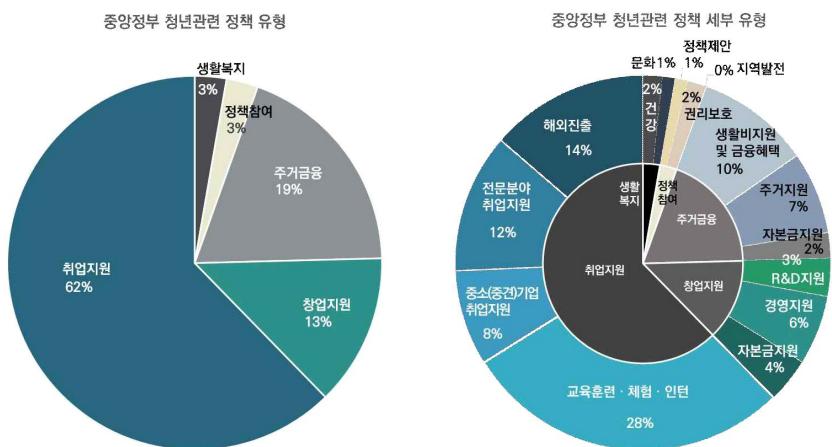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공모 ·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 · 복지, 정책참여, 주거 · 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sup>2)</sup>
  - 총 29개의 부처에서 183개의 사업을 추진, ‘취업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이 114개(62%)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생활 · 복지(5개, 3%)’ 및 ‘정책참여(5개, 3%)’ 분야의 정책이 가장 적게 나타남
  - ‘취업지원’ 분야 중에서는 ‘교육훈련 · 체험 · 인턴(52개, 28%)’ 분야의 정책

1) 온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출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중앙 · 지자체 청년정책과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2)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를 포함하여 6가지로 지원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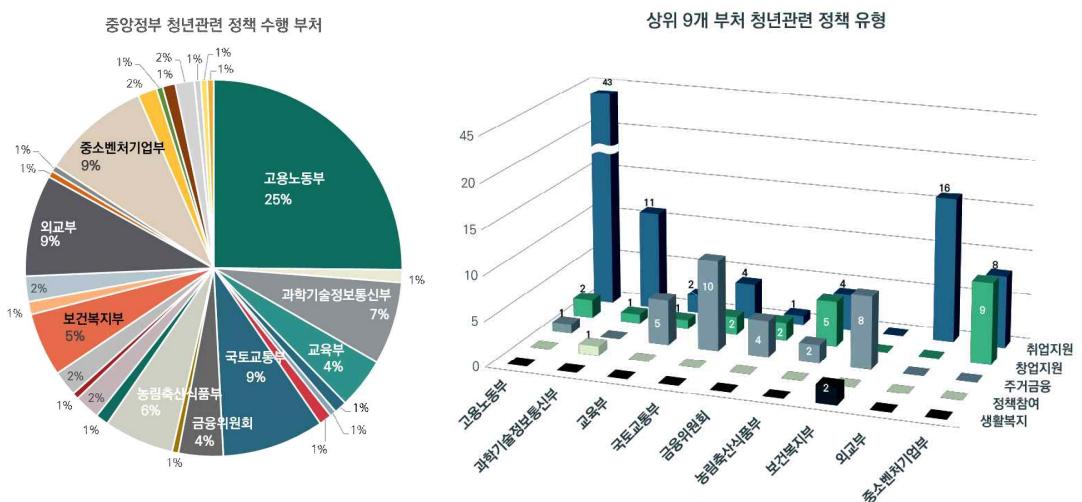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세부분야 중 ‘정책참여)지역발전’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가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 46개(25%)로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소벤처기업부(17개, 9%), 국토교통부(16개, 9%), 외교부(16개, 9%)에서 다음으로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분야별로 ‘생활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참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창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록-2]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유형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를 기준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부록-3]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수행 부처 및 정책유형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를 기준으로 연구진 작성

[표 부록-4]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기초조사 내용

구분	생활복지		정책참여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합계		
	건강	문화	정책	권리	지역	생활비 지원/ 금융혜택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	교육훈련· 체험·인턴	중소(중견) 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 진출	
고용노동부						1			2			32	5	1	5	46
공정거래위원회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2		8	1	13
교육부							1	1	3		1	2				8
국가보훈처			1									1				2
국민권익위원회				1												1
국방부												2				2
국토교통부						2	8		2					3	1	16
금융위원회						4			2		1					7
기획재정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1	1	1	4		1		3		11
농촌진흥청													1	1		2
문화체육관광부						1							3			4
방위사업청														1		1
병무청	1	1										2				4
보건복지부	2					7	1									10
산업통상자원부												1	1			2
여성가족부			1				1					2				4
외교부														16	16	
인사혁신처												1				1
조달청						1										1
중소벤처기업부									2	2	5	2	6			17
청년재단												3				3
통일부												1				1
한국장학재단						1								1	2	
해양수산부									1	1				1		3
행정안전부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환경부													1			1
합계	3	2	2	3	0	18	13	4	6	11	7	52	15	22	25	183
					5		35			24			114			

\*지원분야가 '코로나19'로 구분되는 42개의 사업을 제외

출처 : 청년정책 통합검색,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youngPolicyUnif/youngPolicyUnifList.do>, 검색일: 2021.2.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심층조사 대상

[표 부록-5] 중앙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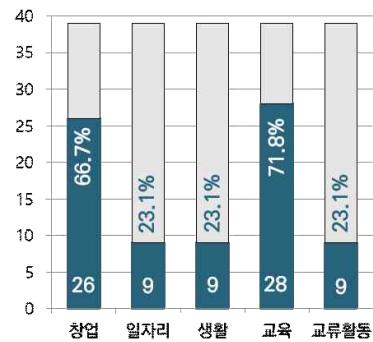
구분	정책/사업 명	개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4개 세부사업)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목포 괜찮아 마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삶기술학교) 다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중부농축산물류센터)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2개 세부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지원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청년전용창업자금	12
중소벤처기업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	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청춘마이크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조건 개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4
해양 수산부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1
LH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내 희망상가 제공	1
계		39

출처 : 청년정책 통합검색,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검색일: 2021.2.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심층조사 결과

### • 지원분야

구분	사업수	창업	일자리	생활	교육	교류활동
국토교통부	4	2	1	0	4	1
행정안전부	12	8	5	6	10	8
중소벤처기업부	9	9	0	0	6	0
문화체육관광부	2	1	1	0	1	0
농림축산식품부	5	2	2	1	3	0
산업통상자원부	1	0	0	1	0	0
고용노동부	4	3	0	0	4	0
해양 수산부	1	0	0	1	0	0
LH	1	1	0	0	0	0
<b>계</b>	<b>39</b>	<b>26</b>	<b>9</b>	<b>9</b>	<b>28</b>	<b>9</b>
	100%	66.7%	23.1%	23.1%	71.8%	23.1%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원분야 종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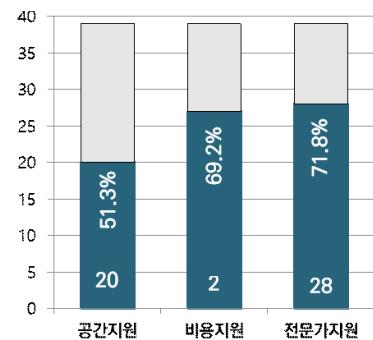
구분	사업수	1개 분야	2개 분야	3개 분야	4개 분야	5개 분야
국토교통부	4	4				
행정안전부	12	2	2	2	5	1
중소벤처기업부	9	3	6			
문화체육관광부	2	1	1			
농림축산식품부	5	2	3			
산업통상자원부	1	1				
고용노동부	4	1	3			
해양 수산부	1	1				
LH	1	1				
<b>계</b>	<b>39</b>	<b>12</b>	<b>19</b>	<b>2</b>	<b>5</b>	<b>1</b>
	100%	30.8%	48.7%	5.1%	12.8%	2.6%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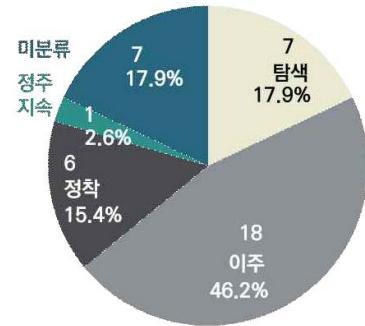
구분	사업수	공간지원	비용지원	전문가지원
국토교통부	4	1	4	4
행정안전부	12	10	6	11
중소벤처기업부	9	4	6	6
문화체육관광부	2	0	2	1
농림축산식품부	5	2	5	2
산업통상자원부	1	0	1	0
고용노동부	4	2	2	4
해양 수산부	1	0	1	0
LH	1	1	0	0
<b>계</b>	<b>39</b>	<b>20</b>	<b>27</b>	<b>28</b>
	100%	51.3%	69.2%	71.8%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시기

구분	사업수	탐색	이주	정착	정주지속	미분류
국토교통부	4	2	2			
행정안전부	12	4	1	3		4
중소벤처기업부	9		6	1	1	1
문화체육관광부	2		2			
농림축산식품부	5		4	1		
산업통상자원부	1					1
고용노동부	4	1	2			1
해양 수산부	1			1		
LH	1		1			
<b>계</b>	<b>39</b>	<b>7</b>	<b>18</b>	<b>6</b>	<b>1</b>	<b>7</b>
	100%	17.9%	46.2%	15.4%	2.6%	17.9%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기간

구분	사업수	일주일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이상	후속지원
국토교통부	4	1		1	2	
행정안전부	12		1	6	5	1
중소벤처기업부	9	1		1	7	1
문화체육관광부	2	1			1	1
농림축산식품부	5				5	2
산업통상자원부	1				1	
고용노동부	4	2			2	1
해양 수산부	1				1	
LH	1				1	1
<b>계</b>	<b>39</b>	<b>5</b>	<b>1</b>	<b>8</b>	<b>25</b>	<b>7</b>
	100%	12.8%	2.6%	20.5%	64.1%	17.9%

출처 : 연구진 작성

## 2)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사업

### □ 조사 개요

- 각 지자체 별 청년 관련 정책·사업 동향과 정책의 유형을 광역단위로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진행
  - ‘온라인 청년센터<sup>3)</sup>’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86개의 정책을 17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여 조사(2021.5.13. 기준)
  - ‘생활·복지’, ‘정책참여’,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따른 경향을 파악 함

###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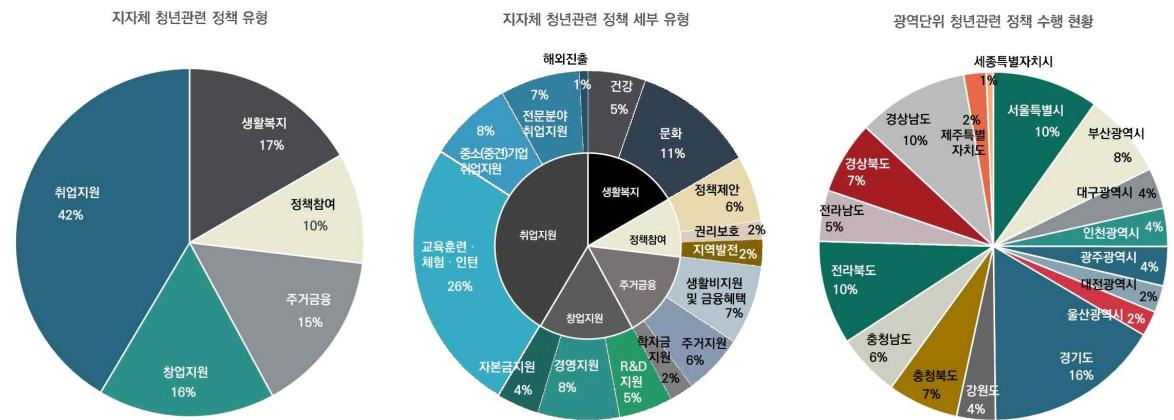
-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복지, 정책참여,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sup>4)</sup>
  - 총 2,086개의 사업 중 ‘취업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이 865개(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복지’(347개, 17%) 및 ‘창업지원’(343개, 16%) 분야의 사업 순으로 나타났고, ‘정책참여’에 해당하는 사업이 214개, 10%로 가장 적게 추진되고 있음
  - 세부유형으로 보면 ‘교육훈련·체험·인턴’(533개, 26%) 분야의 정책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문화’(236개, 11%),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162개, 8%), ‘경영지원’(158개, 8%) 순으로 뒤를 이었고,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사업이 16개, 1%로 가장 적게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에서 340개(16%)로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다음은 경상남도(215개, 10%), 서울특별시(205개, 10%), 전라북도(201개, 1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세종특별자치시(14개, 1%), 제주특별자치도(43개, 2%), 울산광역시(49개, 2%)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게 파악됨
  - 모든 지자체에서 ‘취업지원’ 분야의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사업은 지자체에 따라 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

---

3) 온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출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과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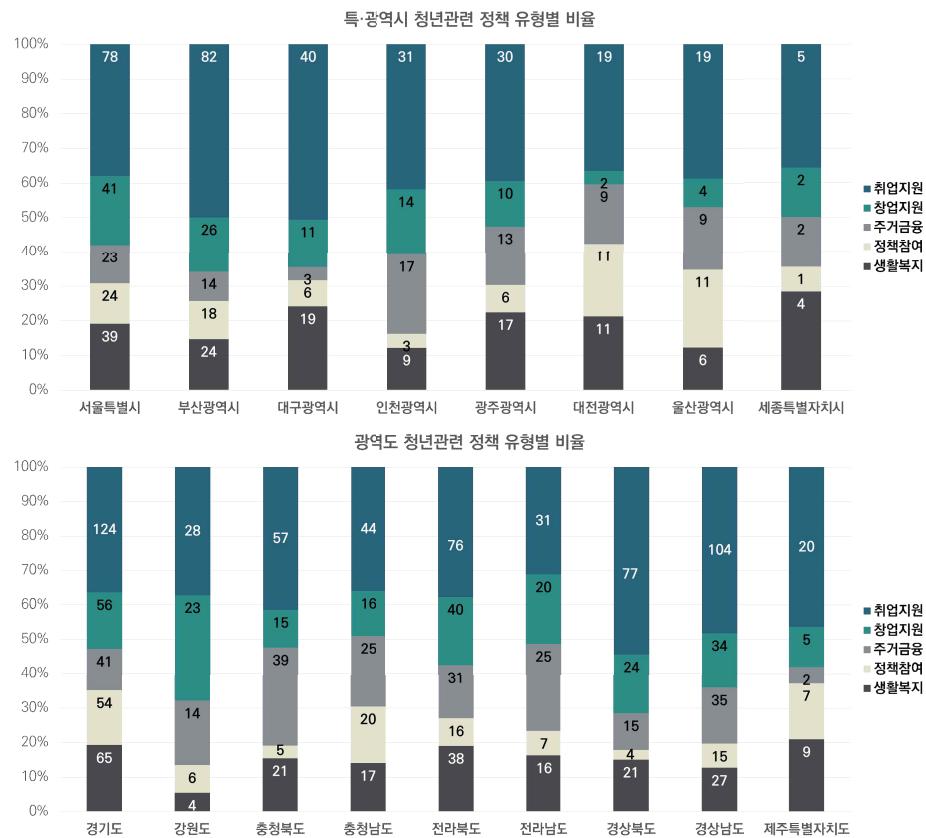
4)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검색일 : 2021.2.1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를 포함하여 6가지로 지원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 대구광역시에서는 '주거금융' 분야, 대전광역시에서 '창업지원' 분야, 충청북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에서 '정책참여' 분야의 사업 비중이 특히 낮게 나타남



[그림 부록-4]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유형 및 광역단위 정책 추진 현황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를 기준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부록-5]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광역단위 추진 현황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 : 2021.2.15.)를 기준으로 연구진 작성

[표 부록-6]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기초조사 내용

구분	생활복지		정책참여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건강	문화	정책 제안	권리 보호	지역 발전	생활비 지원/ 금융혜택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	교육훈련 · 체험·인 턴	중소(중견) 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 진출	합계		
서울특별시	11	28	15	2	7	4	15	4	15	25	1	57	4	15	2	205		
부산광역시	4	20	8	6	4	4	7	3	9	15	2	54	18	10	0	164		
대구광역시	3	16	1	3	2	1	2	0	7	2	2	16	17	2	5	79		
인천광역시	5	4	2	1	0	15	1	1	3	9	2	18	5	8	0	74		
광주광역시	5	12	3	1	2	4	6	3	2	4	4	19	6	4	1	76		
대전광역시	1	10	4	2	5	5	3	1	0	0	2	15	0	3	1	52		
울산광역시	1	5	7	2	2	2	5	2	0	3	1	16	1	2	0	49		
경기도	21	44	40	7	7	19	14	8	14	33	9	96	13	11	4	340		
강원도	1	3	3	1	2	8	1	5	6	8	9	21	2	5	0	75		
충청북도	13	8	4	0	1	27	9	3	6	7	2	35	16	5	1	137		
충청남도	2	15	6	6	8	13	9	3	7	4	5	24	8	11	1	122		
전라북도	22	16	11	1	4	15	10	6	14	14	12	33	22	21	0	201		
전라남도	5	11	7	0	0	10	12	3	5	8	7	22	2	7	0	99		
경상북도	5	16	2	2	0	7	7	1	6	9	9	44	13	19	1	141		
경상남도	8	19	7	2	6	19	13	3	7	14	13	45	34	25	0	215		
제주특별자치도	2	7	6	0	1	0	2	0	3	2	0	16	1	3	0	43		
세종특별자치시	2	2	1	0	0	1	1	0	0	1	1	2	0	3	0	14		
합계	111	236	127	36	51	154	117	46	104	158	81	533	162	154	16	2,086		
	347		214			317			343			865						

\*주 : 지원분야가 '코로나19'로 구분되는 42개의 사업을 제외

출처 : 청년정책 통합검색,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검색일: 2021.2.1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심층조사 대상

[표 부록-7]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심층조사 대상

구분	정책/사업 명	개수	구분	정책/사업 명	개수
서울	청정지역 프로젝트	2	전남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5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강원	초기창업 지원사업	7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창업도약 지원사업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청년4-H 농업아카데미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경북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31
	청년4-H 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청년스타트업지원사업	
충북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	10		경북 청년CEO몰 사업지원	
	충북청년 공공기관 한자리愛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포레스트	
	청년맞춤형 사회진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	

구분	정책/사업 명	개수	구분	정책/사업 명	개수
충남	충청북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1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지원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활성화청년여성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청년학교, 커뮤니티)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육성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사업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육성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충남형 청년 갑이어 프로그램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				
	지역청년 멘토육성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 사업				
전북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21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동촌청년 한창활동가 육성				
	희망하우스 빙집재생사업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경남	청년친화일자리매칭사업	13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지역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조성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계속)				
	전북미래산업-청년창업 연계사업				
	전북우수기업-청년창업 연계사업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봄업 조성사업				
	농업어촌 청년리더 육성 교육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경남청년산업디자이너육성프로젝트)				
	경남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직접)				
	맞춤형청년주택지원사업				
	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				
제주	경남맞춤형청년주택공급(민간참여형청년주택사업)	8			
	경남청년장인(匠人,Master)프로젝트				
	청년갑이어프로그램				
	지역상생청년일자리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운영				
	청년예술인발굴지원				
	경남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				
	경남콘텐츠코리아랩운영				
	청년농업인취농인턴제				
	제주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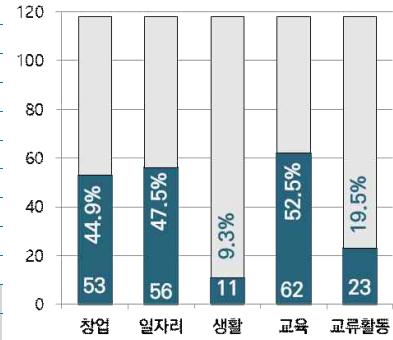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http://www.2030fair.com/>), 검색일: 2021.2.15.)

118

## □ 심층조사 결과

### •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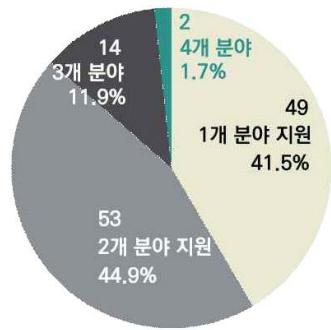
구분	사업수	창업	일자리	생활	교육	교류활동
서울특별시	2	1	2	0	2	2
강원도	7	7	0	0	6	0
충청북도	10	3	7	0	1	1
충청남도	21	7	9	3	11	1
전라북도	21	10	13	1	11	3
전라남도	5	3	2	0	2	1
경상북도	31	16	12	4	17	11
경상남도	13	4	6	3	7	3
제주특별자치도	8	2	5	0	5	1
계	118	53	56	11	62	23
	100%	44.9%	47.5%	9.3%	52.5%	19.5%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원분야 중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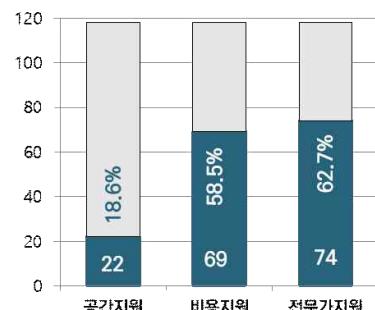
구분	사업수	1개 분야	2개 분야	3개 분야	4개 분야	5개 분야
서울특별시	2			1	1	
강원도	7	1	6			
충청북도	10	8	2			
충청남도	21	11	10			
전라북도	21	8	9	4		
전라남도	5	2	3			
경상북도	31	10	14	6	1	
경상남도	13	6	4	3		
제주특별자치도	8	3	5			
계	118	49	53	14	2	0
	100%	41.5%	44.9%	11.9%	1.7%	0.0%



출처 : 연구진 작성

### •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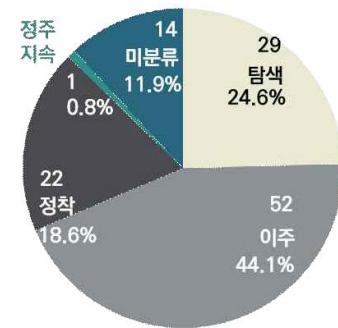
구분	사업수	공간지원	비용지원	전문가지원
서울특별시	2	0	2	2
강원도	7	0	4	6
충청북도	10	1	6	5
충청남도	21	4	11	11
전라북도	21	3	11	12
전라남도	5	2	3	4
경상북도	31	8	19	21
경상남도	13	2	9	7
제주특별자치도	8	2	4	6
계	118	22	69	74
	100%	18.6%	58.5%	62.7%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시기

구분	사업수	탐색	이주	정착	정주지속	미분류
서울특별시	2	2	0	0	0	0
강원도	7	1	2	3	1	0
충청북도	10	2	6	0	0	2
충청남도	21	8	10	3	0	0
전라북도	21	1	16	3	0	1
전라남도	5	2	0	3	0	0
경상북도	31	8	9	7	0	7
경상남도	13	3	7	2	0	1
제주특별자치도	8	2	2	1	0	3
계	118	29	52	22	1	14
	100%	24.6%	44.1%	18.6%	0.8%	11.9%



출처 : 연구진 작성

- 지원기간

구분	사업수	일주일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이상	연속·후속 지원
서울특별시	2	0	0	2	0	2
강원도	7	0	0	3	4	0
충청북도	10	1	0	0	9	0
충청남도	21	2	1	2	16	7
전라북도	21	1	0	2	18	2
전라남도	5	0	1	0	4	0
경상북도	31	0	2	4	25	1
경상남도	13	2	2	1	8	2
제주특별자치도	8	1	1	1	5	1
계	118	7	7	15	89	15
	100%	5.9%	5.9%	12.7%	75.4%	12.7%



출처 : 연구진 작성

## 4. 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방향 관련 의견 수렴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방향 관련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청년층의 지역정착과 정주지속을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청년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지역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사는 청년층의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구성하고자 청년분들의 수요 파악과 의견수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게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응답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 보호)에 의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건축공간연구원

- 설문기간 : ~ 2021.9.30.(목)
- 답례 : 모바일 쿠폰, 200명
- 문의 : 건축공간연구원

####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연령(만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2.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4.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 ② 관광숙박
- ③ 공간운영
- ④ 식품음료
- ⑤ 연구 컨설팅
- ⑥ 지역개발
- ⑦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⑧ 기타

5. 귀하께서는 지역살이, 지방이주, 청년창업, 공간조성 등 공공에서 지원한 사업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자체 유관기업 사업)

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서울시 청정지역프로젝트, 서울시 넥스트로컬,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로컬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 ① 있음                 (→ 5-1)
- ② 없음                 (→ 6)

5-1. 귀하께서 참여해보셨던 사업명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                                )

6.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은 어디입니까?

시/군 단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예: 세종시)

(                                )

7. 귀하가 주로 활동하고 계신 지역(근무지, 사업장 위치 등)은 어디입니까?

시/군 단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 세종시)

(                                )

8.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지역(근무지, 사업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셨습니까?

'이주'는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 한정

- ① 이주하였다                         (→ 8-1)
- ② 이주하지 않았다                 (→ 다음)
- ③ 이주를 고려중이다                 (→ 다음)

8-1. 현재 활동하고 계신 지역으로 이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1년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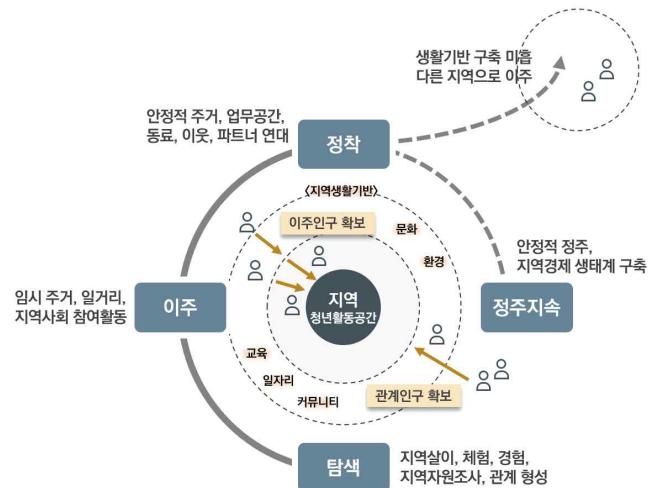
(                                )

## A.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수요 조사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 탐색단계 :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 및 계기, 지역정보 습득(각종 문헌 및 매체자료, 교육, 체험, 경험, 지역탐방 등), 지방이주 결심
- 이주단계 : 임시 주거 및 일자리 확보, 지역활동 참여, 각종 지원정책 활용
- 정착단계 : 안정적 주거 및 활동공간, 소득 확보,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
- 정주지속단계 : 장기 거주, 생활 안정, 지역사회 장기적인 활동 참여여건 마련

[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착 단계 구분]



각 단계별로 필요한 청년활동공간에 대하여 아래의 유형과 예시를 참고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공간유형	세부 유형	공간 종류
거주공간	①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②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업무·창업공간	③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④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⑤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창업LAB, 캠핑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공방
	⑥ 판매공간	판매시설, 판매형 점포
	⑦ 학습공간	스터디룸
	⑧ 교류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⑨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지원공간	⑩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⑪ 상담공간	상담실
	⑫ 중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A1. 탐색단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셨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의 공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 ②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 ③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 ④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 ⑤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창업LAB, 콜영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공방)
- ⑥ 판매공간 (판매시설, 판매형 점포)
- ⑦ 학습공간 (스터디룸)
- ⑧ 교류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 ⑨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 ⑩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 ⑪ 상담공간 (상담실)
- ⑫ 중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A1-1. 탐색단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

A2. 이주단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셨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의 공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 ②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 ③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 ④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 ⑤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창업LAB, 콜영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공방)
- ⑥ 판매공간 (판매시설, 판매형 점포)
- ⑦ 학습공간 (스터디룸)
- ⑧ 교류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 ⑨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 ⑩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 ⑪ 상담공간 (상담실)
- ⑫ 중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A2-1. 이주단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

A3. 정착단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셨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의 공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 ②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 ③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 ④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 ⑤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창업LAB, 콜영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공방)
- ⑥ 판매공간 (판매시설, 판매형 점포)
- ⑦ 학습공간 (스터디룸)

- ⑧ 교류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 ⑨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 ⑩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 ⑪ 상담공간 (상담실)
- ⑫ 중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A3-1. 정착단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

A4. 정주지속단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셨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의 공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시주거 (레지던시, 게스트하우스)
- ② 정주공간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모듈러주택)
- ③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 ④ 회의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컨퍼런스룸)
- ⑤ 작업공간 (기기 지원공간, 창업LAB, 촬영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공방)
- ⑥ 판매공간 (판매시설, 판매형 점포)
- ⑦ 학습공간 (스타디움)
- ⑧ 교류공간 (공유부엌, 테라스, 라운지, 카페)
- ⑨ 문화공간 (도서관, 놀이터, 공연, 전시, 음악감상)
- ⑩ 안내공간 (프론트센터, 여행자센터, 마을안내센터)
- ⑪ 상담공간 (상담실)
- ⑫ 중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A4-1. 정주지속단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

## B. 청년활동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B1. 현재 운영하고 계신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B-2)
- ② 없다              (→ B-3)

B2. 해당 공간은 어떻게 마련, 조성하셨습니까?

해당 공간의 매입 또는 임대, 리모델링 등 공간을 확보하고 인테리어 진행시 투입된 비용과 관련하여 응답해주십시오.

	공간 매입 자금	임대료	리모델링비	설계비	기타
자부담	<input type="checkbox"/>				
공공지원	<input type="checkbox"/>				

B3. 청년활동공간을 조성 및 운영(공간 임대 또는 매입, 공간기획, 설계, 리모델링, 운영예산 확보 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원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주단계에 단기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제공, 지역 내 빈집이나 유휴공간 정보 제공, 공공 소유 공간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 다양한 공유공간 제공 등

(                          )

### C.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기타)

C1. 청년활동공간 이외에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주 및 정착, 정주지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지원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십시오(아래 예시 참조).

#### [청년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예시]

분류	지원 예시
주거 지원	- 지역 내 부동산 정보 제공 - 임시 주거 비용 제공 - 주거비 일부 지원
여가·문화 지원	-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역문화 체험 기회 제공 - 문화 교류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 취·창업 교육 - 일 경험 기회 제공 - 단기 일자리 연결 - 일거리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창농 컨설팅 -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관련 창업 사례 탐방 기회 제공
커뮤니티 지원	- 동료 만남의 기회 제공(이주 및 정착 과정을 함께할 동료) -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역주민 및 지역청년 등 지역사회 연결망) - 지역 내 미리 정착한 선배와의 만남의 기회 제공
기타 지원	-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 단기 이동수단 제공 -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역 지원 탐색 기회 제공 -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및 멘토링 - 관련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 정보 제공 - 행정(시/군) 관련부서와 연결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설문조사 답례품(모바일 쿠폰) 발송을 위한 사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답례품 발송 완료 후 즉시 파기

※ 설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기프티콘 전송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